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신문기사집

〈2002. 4. 28 ~ 5. 3〉

통 일 부



일반 기사





## ‘이산상봉 지속성’에 큰 뜻

### ‘금강산 상봉’ 안팎

6일 남북이 공동보도문에서 밝힌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은 지금까지의 교차방문 형식에 비하면 외관상 후퇴한 형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으로서는 패쇄적인 체제 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남측으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적 작업을 계속한다는 명분을 얻는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win-win)적 성격이 짙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서울과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상봉장소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하기 위한 남측의 뜻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북측의 입장이 절충된 지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이질적인 남쪽 체제와의 접촉자 수가 늘어날 수록 체제 수호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직·간접적으로 ‘보도일꾼(언론인)이 없

는데서 만나는 게 좋겠다’는 바람을 보여왔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측으로서는 햇볕정책의 성과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어 그 해법으로 금강산 상봉이란 도수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또 금강산 상봉은 육로 개방의 당위성을 이끌어내 결국 금강산 관광에도 도움을 주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의과 교수는 “남북 교차방문 형식이 아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산가족 상봉의 생명이 지속성에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례화하면 교차방문보다 오히려 나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은 인도주의적 시업을 계속한다는 명분을, 남은 향후 면회소 설치 같은 상봉의 정례화와 제도화로 갈 수 있다는 명분을 각각 얻는다는 점에서도 양쪽 다 득이 된다”고 말했다.

/허민기자

minski@munhwa.co.kr

금강산 이산상봉 어떻게 되나

# 남북 100명씩 '순차 만남' 유력

이산가족의 금강산 상봉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손길도 바빠졌다.

6개 합의사항 중 가장 먼저 다툴 일이지만 서울·평양 방문단 교환 때와 달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상봉방식은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 회담에서 '금강산 상봉'이 거론됐을 당시 남북이 교감(交感)을 이룬 대로 순차방문이 유력하다.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던 팀이 2박3일 동안 먼저 상봉한 뒤, 평양팀이 뒤를 따르거나 그 반대의 순서다. 현지의 열악한 상봉·숙식 여건으로는 한꺼번에 모두를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7백명 승선에 3백명이 숙박할 수 있는 현대 설봉호와 3백50명이 묵을 수 있는 선상호텔인 해금강호를 가동하면 된다. 현대 관계자는 "28일 출항하는 설봉

호는 2백석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곳에 북측 주민을 동숙(同宿)시키거나 숙식토록 할지는 미지수. 오히려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인 금강산여관을 임시로 사용하거나, 김정숙후

## 동반가족 數·숙소문제

### 이번주 중 실무 협의

양소나 온정리여관 등 현지의 북한 숙박시설에 분산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봉장소는 금강산여관 연회장이나 현대가 지은 온정각 휴게소가 후보에 오른다.

이와 함께 상봉시 동반가족의 숫자를 얼마로 할지도 풀어야 한다.

서울·평양 상봉 때는 선발된 각 1백명의 이산가족이 상대측 가족

5명까지 만나는 게 가능했다.

이번에는 북측이 동반가족을 줄이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에서처럼 '릴레이식 상봉'으로 최대 1천명(가족당 10명 정도)까지 만나던 일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적십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병웅(李柄雄)한적 특보는 7일 "교환 방문 때는 양측이 자기측 경비를 부담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면서 "비용문제 등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측 대표단의 금강산행 경비는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또 상봉을 위해 따라가는 가족들에게는 이산가족 경비지원에 준해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이번주 중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채널을 가동해 이런 실무사항을 협의한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 금강산서 '순차' 상봉 가능성

## ■ 이산상봉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금강산으로 바뀐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이산가족들의 만남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특사 방북에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큰 틀에서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과 상봉 절차 등은 곧 열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남북 이산가족 100명

씩 평양과 서울을 각각 방문, 500명 안팎의 피붙이들이 만나는 '상봉단 교환' 형식이었다. 앞으로는 남측 출신 북한 가족과 북측 출신 남측 실향민들이 금강산을 '순차' 방문하는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 가족의 공식 상봉인원이 5명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남측에서는 가족·친지들이 비표를 바꿔 차고 상봉장에 교대로 들어가거나 관광지·공항 등에서 피켓 등을 동원해 비공식 만남을 가져 왔다.

또 직접 만나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물어보고, 이를 전달하기도 했었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웅(李柄雄)총재특보는 7일 "이번 4차 상봉은 상봉 대상자 100명이 모두 건재, 지난해 합의한 사항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금강산을 오가는 현대아산의 관광선을 이용해야 하겠지만, 육로로 오갈 수 있게 되면 면회소 설치 등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 이산상봉 규모·경비논의 이른 시일내 연락관 접촉

## 韓赤, 본격 준비 착수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남북한이 합의한 4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한적은 남북공동보도문이 발표된 직후 지난해 10월 남북이 이미 확정해둔 상봉대상자 및 가족 명단의 변동사항을 점검했다.

한적 관계자는 "재점검 결과 상봉대상자 중 1명이 몸이 불편해 방북 포기 의사를 전해왔으며 1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봉자 가족중 일부는 금강산행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지만 신청을 받을 때 숫자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방식과 세부절차. 양측 합의 내용에 구체적 사항이 언급돼 있지 않은데다 상봉 자체가 금강산 한 곳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규모와 경비 부담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한적은 이른 시일 안에 판문점에서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11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때 합의가 이뤄졌던 100명의 순차 방문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남한측 100명이 금강산으로 가서 북한의 가족을 먼저 만나고 돌아온다. 이어 1주일 정도 안에 남한에 사는 가족이 금강산을 찾아가 북한의 상봉대상자 100명을 만나는 방식이 그것이다.

순서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금강산의 숙박시설 등을 감안할 때 상봉자와 그 가족, 지원인력, 취재단 등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

## 100명 순차방문 가능성 대상자 변동사항 체크

기는 어렵다. 또 상봉가족의 수를 현재의 대상자 1명당 5명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봉장소가 금강산으로 정해짐에 따라 서울과 평양의 숙박비와 식비를 각각 분담하던 경비부담 방식에도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적 관계자는 "구체적 상봉 절차를 놓고 아직 남북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그러나 가장 시간이 걸리는 대상자 명단이 확정된 상태여서 28일 상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구기자 egkim@kmib.co.kr

# “이번엔 진짜 가는 건가요”

## 상봉발표 이산가족 표정

“이번엔 정말 가게 되는 건지...”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북에 두고 온 큰딸 손실(63)씨와 세 동생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는 황산옥(80·여·부산시 수영구)씨는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지난해 두차례 상봉 취소를 겪었기 때문인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해 10월 방북 이륙 전 북측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할 뻔하자 “곧 북한에 가게 될 수도 있으니 평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며 서울행을 고집해 가족들의 애타던 땀을 흘리는 “죽기 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이번엔 반드시 딸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3박4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한 임동원 특사가 6일 “북한 정부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자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잇따라 상봉계획이 무산돼 실의에 빠졌던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은 합의를 반기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다.

황해도 연백 출신으로 1949년 단신 남하한 강일창(76·서울 노원구 공릉동)씨는 꽃봉(73·여)씨 등 여섯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난 겨울 취소돼 이젠 못 가보고 죽는구나 했다”며 “이번엔 틀림없이 가는 거냐”고 되물었다.

동생 승동(65)씨와 두 딸을 만날 예정인 오정동(78·경기도 부천시)씨는 “며칠전 꿈에서 막내딸을 보았



4차 이산가족 방북단에 포함된 강일창(76·㉠)씨가 7일 서울 공릉동 지하에서 50여년 전에 어머니와 외가 친척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 왼쪽은 부인 최보석(68)씨. 최정동 기자

## “며칠전 꿈서 막내딸 봤다”며 반겨

### 지난해 두차례 취소돼 걱정도

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려 그랬나 보다”며 “50여년 만에 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기뻐했다.

한편 상봉이 지연되면서 불과 6개월여 사이에 노환 등으로 북측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게 된 사람들도 있다.

동생을 만나기 위해 방북을 신청했던 신영익(78)씨는 6일 대한적십자사에 전화를 걸어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혔다. 申씨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 포기했다”며 “지난해에만 성사됐어도 동생을 볼 수 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방북 상봉단에 선정됐던 김어란

(80·충남 서천군)씨도 지방인 골다공증이 악화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申씨의 아들 최성용(50)씨는 “어머니가 혼자 금강산까지 갈 기력이 없어 자식들이 동행할 수 있는지 통일부에 문의했지만 인원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북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머니는 이모들을 만나 한을 풀지 못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대한적십자사 고전남 홍보과장은 “이번에는 정말 만나게 되는 거냐고 묻는 이산가족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이산가족들의 소망이 이뤄지도록 정성을 다해 상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영·남궁옥 기자

<hyppark@joongang.co.kr>

# “이번엔 만날 수 있나요”

## ■ 이산가족·실형인 표정

“막내 이들과 처조카에게 줄 봄 옷까지 정만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만날 수 있나요”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고 동해선이 연결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과 7일, 이산 가족과 실형인들은 설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상봉도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주원택(朱元澤·82·서울 도봉구 청동) 할아버지는 7일 북녘에 두고 온 외동딸 윤옥씨에게 전할 선물들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에게 “진짜 가야 기나보다라고 느끼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말 3차 상봉자 명단에 포함되기도 상봉계획이 취소되면서 몸져 누워야 했던 권지은(權志恩·88·서울 동대문구 답십

### 선물 다시 꾸리기도 속초 아바이마을선 ‘동해선 연결’에 들떠

리동) 할머니는 이남 다시 산책을 시작했다. 북에 두고 온 막내 아들 리병립(61)씨 등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다. 둘째 아들 이병조(64)씨는 “어머님은 임동원 특사가 방북할 때부터 T

V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실형인 1세대들의 정착촌인 강원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동해선 연결소식이 전해진 후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박임학(朴林學·73) 노인회장은 “철도를 타고 원산역에서 내리면 내 고향 북청군 신포읍이 바로 코앞”이라며 “고향 땅을 하루 빨리 밟았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대한적십자사 민병대 남북교류국장은 “적십자회담 재개나 상봉 세부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noblejar@bk.co.kr

이진희기자river@hk.co.kr

# “北가족 만난다니 여한없다”

‘금강산 상봉’ 들뜬 이산가족들

88세老母 막내아들 웃챙기며 설레

“다시는 연기안되게 남북이 최선을”

“반세기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북녘에 남겨둔 피붙이 생각에 평생 가슴아프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지난해 10월 4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에 올라 그동안 애타게 북측 아들과의 만남을 기다려온 권지은(88·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 할머니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결과로 이산가족 상봉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가족 상봉이 무산된 데 따른 충격으로 5일 동안 표박 앓아누웠던 권 할머니는 “3남1녀중 막내아들의 생존사실을 지난해 확인했으나 상봉이 연기되는 바람에 자포자기하고 살아왔다”며 “막내아들에게 줄 옷과 선물을 사고 챙기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잔뜩 기대에 부풀 모습이었다.

1947년 남편이 먼저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해 12월 셋째아들만 친척집에 남겨둔 채 남한으로 내려온 권 할머니는 2년 전 아들인 이병립(61)씨가 북한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반백년 세월을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4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에 올라 그동안 가슴졸이며 북의 가족과 만남을 기다려온 김덕옥(78·서울양천구목동) 할머니도 “이번에

는 정말 북에 두고 온 동생을 만날 수 있느냐”며 눈앞에 다가온 여동생(77)과의 재회가 실감나지 않는 듯 상봉 일정을 수차례 확인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가족 상봉 연기를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이제 꿈에서나 그리던 동생을 만나게 됐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돌을 갖지 난 아들의 이름만 지어주고 떠난 게 한이 맺혔다는 이은하(79·서울강북구변동) 할아버지는 “지난해 북측 이산가족 명단을 보니 내가 지어준 이름 석자가 있어 핏줄임을 느꼈다”며 “북의 아내와 아들은 죽었지만 하루빨리 머리와 손주들을 만나고 싶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북에 있는 아버지 조석승(75·평양시은정동)씨를 만나게 될 조상래(57·여·경기구리시토평동)씨는 “돌아가신 줄 알고 상봉 신청도 안했다가 3차 때부터 적십자사에서 북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지난해같이 상봉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남북한 정부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아바이마을의 실형민인 박임학(75) 할아버지는 “분위기가 점



“할머니 축하해요” 4차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재개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권지은 할머니가 7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집에서 증손녀들의 뽀뽀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최요한기자

점 좋아지고 있으니 통일도 곧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며 “북청, 반천, 봉암 등 함경남도 출신이 대부분인 이 지역 주민들은 하

무속히 고향에 가서 북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이강은기자  
katusa19@sgt.co.kr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 28일 100명·내달1일 500명

### 비료 20만t·식량 30만t 지원

정부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질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남쪽 이산가족 100명(지원인원 50명 별도)을 보내고, 다음달 1일 금강산에서 남쪽 이산가족 500명(지원인원 100명 별도)이 재북가족 100명을 만나게 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 때 북쪽이 요청한 비료·식량 지원과 관련해 비료는 20만t, 식량은 정부 보유미 30만t 남짓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상봉은 전례가 없어 필요하다면 금강산 현지 답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봉 방식은 1~3

차 교환방문 때 '평양상봉'과 '서울상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은 2박3일씩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일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여는 등 이번주 내 정부안을 정해 북측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상봉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한국경제

2002. 4. 9 (화)

### 28일 이산가족 상봉 남측 100명 금강산행

정부는 제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우선 남측 1백명이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재북 가족·친척을 만난 뒤 5월1일에는 북측 1백명이 남측 가족 5백여명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같은 계획을 9일 오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북측과 연락관 접촉을 갖고 협의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런 안을 세워두고 있지만 북측과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서울경제

2002. 4. 9 (화)

### 28일 금강산서 100가족상봉

오는 28일에는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과 취재진, 진행요원 등 모두 150명이 먼저 금강산에서 재북 가족·친척을 만나고 다음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 500여명이 방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정부와 한적은 이 같은 계획을 9일 오후 한적에서 열리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확정, 12일께 북측과 연락관 접촉을 통해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일정을 짤 계획이다.

### 世界日報

2002. 4. 9 (화)

### 28일 금강산 이산상봉 1-2차로 나눠 실시키로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북한 금강산에서 실시되는 4차 이산가족 방문을 1-2차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8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잠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과 취재진·진행요원 등 150명이 먼저 금강산에서 재북(在北) 가족·친척을 만나고, 2차로 5월 1일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 500여명이 금강산에서 남한가족을 만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 속초항과 장전항을 오가는 설봉호의 28일과 5월 1일 좌석을 예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이산상봉 2개조로 5차례

'금강산 만남' 어떻게...

숙박장소등 미비로

'동시상봉'은 어려워

오는 28일자로 남북이 합의한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은 1~3차 때와 달리 상봉장소가 금강산으로 제한됨에 따라 상봉일정과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측은 9일 대책회의를 열어 이산가족 전체 상봉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12일쯤 북측과 연락관 접촉을 통해 4차 교환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11월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가족 100명씩 순차 상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현지 여건상 1000명이 넘는 남북상봉단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장소를 확보할 수 없어 동시 상봉은 불가능하다.

상봉방식은 오는 28~30일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북가족 300~

제4차 이산가족상봉(금강산) 계획안

	상봉규모	비고
4. 28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측 이산가족 100명 (취재진 등 자원인원 50명)</li> <li>+</li> <li>•북측 가족 300명</li> </ul>	평양상봉시 규모적용
5.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측 이산가족 100명</li> <li>+</li> <li>•남측 가족 500명 (취재진 등 자원인원 100명)</li> </ul>	서울상봉시 규모적용

400명을 만나는 평양식 상봉이 이뤄진 다음 5월1~3일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남측에서 올라간 재남가족 500명과 재회하는 서울방식의 상봉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 1명당 남측은 5명, 북측은 3~4명의 가족이 나왔던 1~3차 때 상봉 전례를 따른 것이다.

숙박장소뿐만 아니라 상봉장소도 현지 여건이 좋지 않아 2개조로 나눠 절반씩 상봉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개조가 상봉하는 시간에 나머지 1개조는 교예단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이다. 상봉 횟수는 전례에 비춰 동석식사를 포함, 5회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南·北, 내일쯤 이산상봉 실무접촉

대한적십자사(한적·총재 徐英勳)는 12일쯤 판문점에서 북한 조선적십자회측과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과 관련한 절차·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병대 한적 남북교류국장은 10일 "오는 28일 북한 거주 가족·친척을 만날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다음달 1일에는 남한 거주 가족·친척

500명이 각각 금강산을 방문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라면서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일정 및 상봉 횟수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봉 장소로는 "금강산여관이나 현대가 운영하는 온정각, 해금강호텔 등

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mailto:anselmus@kdaily.com)

## 世界日報

2002. 4. 11 (목)

### 금강산 이산상봉 방안

#### 11~12일 北과 조율계획

대한적십자사는 28일 금강산에서 이뤄질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11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기로 했다.

한적 관계자는 10일 "전날에 이어 이들 동안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우리측 방안을 확정, 11~12일 전화통지문과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동기자

## 국민일보

2002. 4. 11 (목)

### "내일 이산상봉 실무협의 갖자"

#### 한적, 북측에 제의

한적은 11일 오전 판문점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서영훈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제4차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12일 갖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오는 28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로 나눠 금강산에서 실시하는 방안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익구기자



## 東亞日報

2002. 4. 12 (금)

### 28일 금강산 이산상봉 협의 韓赤, 연락관 접촉 北에 제의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4차 이산가족 상봉의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연락관 접촉을 12일 관문점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 한적, 오늘 남북접촉 제의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는 11일 오전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절차 협의를 위해 12일 오후 2시 남북 적십자 연락관 관문점 접촉을 제의했다. 서 총재는 전통문에서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12일 오후 2시 관문점에서 쌍방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금강산 현지조사를 하고 북측과 협의해 상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 한겨레

2002. 4. 12 (금)

## 한국일보

2002. 4. 12 (금)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관련 北赤에 오늘 실무접촉 제의

대한적십자사 서영훈(徐英勳) 총재는 11일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張在彦) 위원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 12일 오후 2시 관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한적은 28일 남측 상봉대상자 100명이 북측 가족들을 만난 뒤, 다음달 1일 북측 100명과 상봉할 남측 인사 500명이 금강산을 방문토록 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 금강산서 南北이산가족 200명 상봉

28일 南측 100명 방북

내달1일엔 北측 100명

남북 적십자는 지난 13일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4차 이산가족 교환사업과 관련,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측 가족

들과 상봉한 뒤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금강산에서 남측 가족들과 상봉하기로 합의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14일 밝혔다.

양측은 또 남측 사전 답사팀이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을 방문, 현지답사한다는 데 합의했다. /金仁執기자

### 南방문단 28일

### 금강산서 이산상봉

北방문단은 내달 1일에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우리측 방문단 100명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북측 방문단 100명이 금강산을 찾아온 남측 가족과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북한적십자사측과 13일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적 관계자는 “북측 방문단 상봉에는 북측 가족 1명당 남측 가족 5명의 상봉이 허용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500명의 남측 이산가족이 금강산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상봉 장소, 상봉 횟수, 숙소 등 나머지 현안을 마무리짓기 위해 16일부터 2박3일간 우리측 답사팀이 금강산 현지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18일 판문점에서 다시 연락관 접촉을 갖기로 했다.

숙소는 선상호텔인 해금강호나 남측 이산가족들이 타고 간 설봉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28일 南100명, 1일 北100명 이산상봉

南北 실무접촉처 합의

남북 적십자사는 14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28일 남측 100명이 재북 가족, 다음달 1일 북측 100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공훈예술가 황영준

(82) 화백이 작고함에 따라 2차 방문단 후보명단에 포함됐던 이은주(남·74)씨, 남측은 건강이 악화한 신용의(77)·박분순(78)씨를 박재례(여·64)·염경빈(남·66)씨로 각각 교체했다.

북측은 또 18일 남측 답사팀의 금강산 현지 방문에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준기자

### 이산가족 금강산상봉 일정 합의

남북은 오는 28일 4차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금강산에서 2박3일간 북측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다음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친척들이 방북하기로 하는 등 상봉 일정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합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남북 양측이 전날 오전 판문점에서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렇게 합의하고 상봉 장소나 횟수, 숙소 등에 대해선 18일까지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계속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또 상봉 횟수나 장소, 숙소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 위

해 남측 답사팀이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 현지를 둘러보기로 하고 북측은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 양측은 또 건강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상봉에 참여하기 어려운 교체 대상자를 각각 통보했다.

북측은 공훈예술가 황영준(82) 화백이 타계함에 따라 2차 방문단 후보명단에 포함됐던 리은주(74)씨를 4차 상봉 대상자로 대신 선정했고, 남측은 건강이 악화된 신용의(77)씨를 박재례(64·여)씨로, 박분순(78·여)씨를 염경빈(남·66)씨로 각각 바꿨다. 연합뉴스

**금강산 이산상봉****28~30일 확정****南北赤 일정 합의**

오는 28일 4차 이산가족 상봉 때 남한의 실향민 100명이 먼저 금강산을 찾아 2박3일간 북한 거주 가족·친지를 만나고, 이어 다음달 1일 같은 장소에서 남한 거주 가족·친지들이 북한으로 간 파별이 100명을 상봉하게 된다.

▶관련기사 26면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남북 양측이 전날 오전 판문점의 연락관 접촉과 오후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금강산 상봉 방안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1일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상봉할 남한 가족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례에 따르면 3차 이산가족 상봉 때까지는 서울에 온 남한 출신 재북 이산가족은 공식적으로 5명의 가족을 만날 수 있어 남한 상봉단의 규모는 500명이었다.

양측은 상봉 장소나 횡수, 숙소 등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18일쯤 의견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 남북 적십자사는 상봉 횡수나 장소, 숙소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남측 답사팀이 16~18일 금강산 현지를 둘러보기로 하고 북측은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 13일 접촉을 통해 건강 악화나 사망 등의 이유로 바뀐 상봉자 명단을 각각 통보했다.

☞전영무기자

anselmus@kdaily.com

**매일경제**

2002. 4. 15 (월)

**28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오는 28일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이 금강산을 찾아 2박3일 간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과 극적인 만남을 갖는다. 다음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남측 가족과 친척들이 방북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남북 양측이 전날 오전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상봉 일정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러나 상봉 장소나 횡수, 숙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적은 "18일째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계속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영필기자 philip@mk.co.kr

**서울경제**

2002. 4. 15 (월)

**28일 방북단100명 先금강산행**

오는 28일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이 먼저 금강산을 찾아 2박3일간 재북 가족 및 친척과 만나고 이어 다음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재남 가족 및 친척들이 방북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남북 양측이 전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과 오후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금강산 상봉방안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상봉장소나 횡수, 숙소 등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18일째 의견 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적은 전했다.

**한국경제**

2002. 4. 15 (월)

**남측1백명 28일 금강산으로 4차이산상봉 재개**

남북은 제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남측 이산가족 1백명이 먼저 금강산을 방문,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그 뒤 5월1일부터 2박3일간은 북측에서 상봉을 신청한 1백명이 남측 가족 5백명을 만나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지난 13일 북측 적십자사회와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우리측이 상봉 장소나 횡수, 숙소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현지 답사하는 데 북측이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南이산가족 28일 北친척 상봉

## '금강산 일정' 합의

오는 28일 4차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이 먼저 금강산을 찾아 2박3일간 재북가족 및 친척과 만나고, 이어 다음달 1일에는 북측 이산가족의 재남가족 및 친척들이 방북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남북 양측이 전날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금강산 상봉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1일 북측 이산가족과 상봉할 재남가족 및 친척의 인원과 상봉장소와 횡수·숙소 등 세부사항은 오는 18일쯤 다시 접촉을 갖고

협의키로 했다.

1-3차 때는 북측 이산가족 1명당 재남가족 5명이 상봉에 참가했다. 남측은 또 상봉 횡수나 장소·숙소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 현지를 답사키로 했다.

한편 북측은 공훈예술가 황영준(82) 화백이 사망함에 따라 2차 방문단 후보명단에 포함됐던 이은주(74)씨를 4차 상봉대상자로 대신 선정했고, 남측은 건강이 악화된 신용익(77)씨를 박재례(여·64)씨로, 박분순(여·78)씨를 염경빈(66)씨로 교체하겠다고 통

보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南 100명 28일 금강산 상봉

## 北 100명도 내달 1일 만나

남측 이산가족 방북단 100명은 오는 28일 먼저 금강산을 찾아 2박3일간 북한에 있는 가족 및 친척을 만나고 이어 다음달 1~3일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같은 장소에서 남측 가족들을 상봉하게 된다.

남북한 적십자사는 14일 판문점에서 가진 연락관 접촉에서 제4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일정을 이같이 합의하고 16~18일 남측 답사팀이 금강산을 방문키로 했다.

그러나 다음달 1일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과 상봉할 남측 가족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18일쯤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한 양측은 작년 말 교환한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 중에서 건강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교체가 불가피한 명단을 각각 통보했다.

북측은 공훈예술가 황영준 화백(82)이 사망함에 따라 2차 방문단 후보 명단에 포함됐던 이은주씨(74)를 대상으로 대신 선정했고, 남측은 건강이 악화된 신용익씨(77)와 박분순씨(78)를 박재례씨(64)와 염경빈씨(66)로 각각 교체했다. 김영석기자

# 南상봉단 100명 28일 우선 訪北

南北 4차 일정 합의

北상봉단 가족은 3일뒤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4차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백명이 먼저 방북해 북측 가족과 만난 뒤, 곧이어 같은 숫자의 북측 방문단이 남측에서 간 가족과 만나는 순차 상봉 방식으로 치러진다.

남북한은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적십자 연락관 접촉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

까지 남측 방문단이 북측 가족과 상봉하고,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측 방문단이 남측 가족과 만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방문단이 만날 가족의 규모를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전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평양 동시 교환 방문으로 치러진 1~3차 상봉 때는 평양에 간 남측 방문단은 각 세명의 북측 가족과, 서울에 온 북측 방문단은 각 다섯명의 남측 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방문단에 선·발됐으나 사망한 황영준씨 대신 이은주(남·74)씨를 보내겠다고 통보했고, 남측은 건강이 나빠진 신용익씨와 박분순씨를 빼고 박재례·염경빈씨를 포함시켰다.

양측은 상봉 횟수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18일 적십자 연락관 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한 적십자사는 금강산에서 처음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16일부터 사흘간 현지에 합동 답사팀을 파견한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 대한매일

2002. 4. 15 (월)

# “상봉날짜 손꼽아 기다렸건만...”

北부친 황영준화백 타계

비보접한 딸 명숙씨 오열

“아직은 기일도 몰라 추모예배나 제사도 못 지내겠네요.”

52년만에 아버지를 만날 꿈에 부풀었던 황명숙(54·여·충북 청주시 내덕동)씨는 14일 아버지 황영준(黃榮俊·82) 화백이 사망, 이번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 북한 적십자회는 이 사실을 전날 한적에 통보해 왔다. 오빠 문웅(61)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간 어머니 김인희(金仁熙·79)씨에게는 아직 비보를 전하지도 못했다. 노환으로 거동이 힘든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우려돼서다.

아버지 황영준씨는 북한의 공훈예술가로 6·25 당시 교통부 총무과 철도박물관의 화가로 일하다 2남2녀를 남겨두고 실종됐다.

이당 김은호 화백의 제자인 황씨는 2500여점의 작품을 그렸으며 '천하제일금강' '금강산 옥녀봉' '해바라기' 등 30여점은 국보급으로 평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99년 5월 평양국제영화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인민예술가 6명과 공훈예술가 7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미술인을 길러냈다.

명숙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께서 ‘오매에도 그리운 내 딸 혜숙이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혜숙 언니는 편지의 첫 줄도 채 읽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다.”면서 “50년전 한 주일이면 돌아올 것 같아 너희 어린 것들 손목 한 번 따듯이 잡아 주지 못하고 떠나온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대목에선 모두가 목놓아 울었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북한 공훈화가 황영준씨의 막내딸 명숙씨가 97년 구입한 아버지의 작품 '금강의 로송청광'을 보고 있다.

◆대한매일 포토라이브러리

## 국민일보

2002. 4. 16 (화)

### 28일 남북이산가족 상봉

### 韓赤 답사단 금강산 출발

### 北지원 비료 25일 첫 출항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시작될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대한적십자사의 답사대가 현장 점검을 위해 16일 설봉호를 이용, 금강산을 방문했다.

답사대는 18일까지 현지에서 머물며 상봉 및 숙박 장소로 사용될 금강산여관과 해금강호텔, 운정각 등을 돌아보고 상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지원키로 한 비료 20만t의 첫 출항을 이르면 오는 25일쯤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기자

## 한국경제

2002. 4. 17 (수)



**금강산 답사 訪北**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관계자들이 오는 28일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현지 시설물을 둘러보기 위해 16일 금강산으로 떠나고 있다.

## 금강산 이산상봉費 10만원만 개인부담

### 정부, 경비 추가지원

오는 28일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금강산으로 갈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백명은 10만원의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 혜택은 다음달 1일 북측 이산가족 대표단 1백명과 상봉을 위해 금강산으로 갈 남측 가족 5백여명에 게도 주어진다.

정부는 18일 정세현(丁世鉉)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경비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행사 비용 등을 포함한 7억8천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일반 이산가족에 대한 금강산

관광경비 보조는 50만원의 비용 중 30만원을 협력기금에서 지원해 20만원만으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4차 이산가족 상봉인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0만원만 내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1~3차 상봉을 위해 평양을 다녀온 이산가족 방문단은 16만원 정도의 항공료를 각자 부담했다.

이영증 기자

<yjlee@joongang.co.kr>

### 남북적십자회담 추진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될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면회소 설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8일 이북5도 위원회가 주최한 특별강연회에 참석, "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회담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강산 이산가족 5차례 만나”

## 韓赤관계자 밝혀

오는 28일 금강산을 찾는 이산가족은 전례에 따라 모두 다섯차례 재북 가족을 만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9일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횡수와 관련, 종전과 같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이산가족은 단체상봉, 개별상봉, 식사를 겸한 상봉, 작별상봉 등 모두 다섯차례 재북 가족과 만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오는 27일 속초에서 하루 숙박하게 되며, 다음날 관광선 출항 시간을 앞당기지 않을 경우 상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을 1시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

라고 전했다.

그는 28일 이산가족 100명은 금강산여관에서 재북 가족·친척을 상봉하겠지만 1일 올라갈 재남 가족은 금강산여관과 온정각에서 재북 이산가족 100명을 상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측의 이산가족 100명과 북측 이산가족의 재남가족 500명은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 방침에 따라 1인 기준으로 50만원의 배삯 가운데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이산가족은 10만원만 내도록 깎아준다고 전했다. 예전의 경우 평양에 왕래한 이산가족은 개인당 항공료 16만원을 냈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南 이산가족 방문단 금강산 2박3일

# 北가족 5차례정도 만날듯

## 본인 부담액 10만원 결정

오는 28일 금강산을 찾게 되는 4차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은 2박3일 동안 다섯 차례 정도 북측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 정부와 한적 사전 답사대는 16~18일 금강산을 방문, 사전 현장 점검을 벌이며 북측과 접촉한 결과 금강산 방문 첫날 단체상봉을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남북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찬에는 다소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남북한은 또 둘째 날 개별상봉에 이어 동석 오찬을 갖고, 마지막 날 작별상봉을 갖는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으나 마지막 날 관광코스를

함께 돌아보는 참관상봉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20일쯤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최종 조율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첫날 단체상봉을 위해 설봉호 출발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앞당기기로 하고 현대아산측과 협의중이다. 또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출발 하루전인 27일 서울이나 속초에서 집결해 간단한 방북교육을 받으며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또 1년2개월여만에 어렵게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인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남측 이산가족들의 본인 부담액을 10만원으로 결정했다.

김영석기자 yskim@mkb.co.kr



## 이산가족 5차례 만난다

28일 금강산을 찾는 남북의 이산가족은 2박3일 동안 모두 다섯 차례 만나 협육의 정을 나누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최영운(崔永雲) 이산가족과장은 19일 “이산가족들은 종전처럼 첫날인 28일 단체 상봉에 이어 29일 개별 상봉, 공동 중식, 참관 상봉과 30일 작별 상봉 등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여비 등으로 1인당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 東亞日報

2002. 4. 20 (토)

## 경향신문

2002. 4. 20 (토)

# “금강산 이산가족 5차례 만나”

## 남·북측 관계자 합의

오는 28일 금강산을 찾는 이산가족은 전례에 따라 모두 5차례 재북가족을 만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9일 “지난 16~18일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구체적인 상봉계획을 논의한 결과 단체상봉, 개별상봉, 식사를 겸한 상봉, 작별상봉 등 총 5차례 이산상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오는 27일 속초에서 하루 숙박할 계획”이라며 “다음날 관광선 출항시간을 앞당기지 않을 경우 상봉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을 1시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을 만나는 남측 이산가족들은 10만원의 경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

## 한겨레

2002. 4. 20 (토)

# “이산가족 금강산상봉 5~6차례”

## 한적 밝혀... 1인당 경비 10만원 들것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만나는 남북의 이산가족은 전례에 따라 2박3일간 첫날 단체상봉과 만찬, 둘째날인 29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또는 석식) 및 해금강 참관 등 모두 다섯 차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대한적십자사(한적)가 19일 밝혔다.

한적 관계자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단체상봉 2시간, 만찬 2시간

등 10시간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날인 30일 북측 가족들이 남측의 이산가족방문단을 전송하는 작별상봉을 포함한다면 상봉횟수는 여섯차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숙소와 상봉 장소 및 횟수 등에 대한 북측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과 금강산 답사대 보고서를 검

토했던 뒤 남측 최종안을 놓고 20일째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이산가족 100명 등 4차 이산가족방문단은 27일 속초에서 하루 숙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북측 이산가족 100명을 만나게 될 남측 가족들의 금강산 방문 경비는 1인당 1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의 경우 남측 이산가족은 항공료 16만원을 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 28일 訪北 이산가족

## 모두 5차례 상봉

28일 금강산을 찾는 이산가족 100명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재북가족을 만나게 된다고 대한적십자사가 19일 밝혔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 개별상봉, 식사를 겸한 상봉, 작별상봉 등을 갖게 된다.

## 한국일보

2002. 4. 20 (토)

또 28일과 다음달 1일 방북하는 이산가족 600명은 정부의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 방침에 따라 뱃살으로 10만원(정실가격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 금강산 방문 이산가족 다섯차례 가족과 상봉

오는 28일과 다음달 1일 금강산을 찾는 남북 이산가족은 전례에 따라 2박3일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총 10시간가량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9일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횟수와 관련, 종전처럼 남북 이산가족들은 첫날인 28일 단체상봉(2시간)과 만찬(2시간), 둘째날인 29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또는 석식) 및 참관 등 모두 다섯 차례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금강산에서 북한 거주 가족·친지를 만날 이산가족들은 뱃삐스로 1인당 10만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 대한매일

2002. 4. 20 (토)

## 서울경제

2002. 4. 20 (토)

## 이산가족 다섯차례 상봉 본인부담금 10만원으로

오는 28일 금강산을 찾는 이산가족은 전례에 따라 모두 다섯차례 재북 가족을 만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19일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횟수와 관련해 종전과 같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 개별상봉, 식사를 겸한 상봉, 작별상봉 등 모두 다섯차례 재북 가족과 만난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이산가족 100명은 금강산 여관에서 재북 가족·친척을 상봉하겠지만 1일 올라갈 재남 가족들은 금강산여관과 온정각에서 재북 이산가족 100명을 상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측의 이산가족 100명과 북측 이산가족의 재남 가족 500명은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방침에 따라 1인 기준으로 50만원의 뱃삐 가운데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이산가족은 10만원만 내도록 깎아준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2002. 4. 20 (토)

## 이산상봉 5차례

### 개별 부담금 10만원

오는 28일 금강산을 찾는 이산가족은 전례에 따라 모두 5차례 재북 가족을 만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9일 "제4차 이산가족 방문교환단의 상봉 횟수는 종전과 같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 개별상봉, 동석만찬, 작별상봉 등 모두 다섯 차례 재북 가족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적은 아울러 남측의 이산가족 100명과 북측 이산가족의 재남가족 500명에 대해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방침에 따라 1인 기준으로 50만원의 뱃삐 가운데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이들에게는 10만원만 내도록 할인해 줄 방침이다.

나영필기자 philip@mk.co.kr

## 한국경제

2002. 4. 20 (토)

## 이산상봉 횟수 5회 합의

오는 28일 금강산을 찾는 남북 이산가족은 전례에 따라 2박3일간 모두 다섯차례, 총 10시간 가량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19일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횟수와 관련, 종전과 같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들은 첫날인 28일 단체상봉과 만찬, 둘째날인 29일 개별 상봉과 공동중식(또는 석식) 및 참관 등 모두 다섯차례 만난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국민일보

2002. 4. 20 (토)

## 수행·취재인력 대폭 확대 남북, 금강산 상봉 조율

남북한은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지는 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과 관련, 20일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금강산 방문 인원과 상봉횟수, 장소 등 세부일정에 대해 조율했다.

남북한은 우선 이산가족들이 고향이고 금강산에서의 첫 상봉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30명으로 제한했던 수행원을 대폭 늘려 의료진 및 보조요원을 크게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TV 생중계를 위해 중계요원을 늘리는 등 취재인력도 배 이상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단체 상봉장소로는 28일 방북하는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이 북측 가족들을 만날 때는 온정각을, 다음달 1일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이 남측 가족들을 만날 때는 금강산 여관을 이용하기로 대체적인 합의틀-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기자

# 28일 이산가족상봉 생중계키로

남북한 적십자사는 2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4차 이산가족 상봉 모습들을 현지에서 남측 방송사들이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측 취재진 30명과 별도로 중계요원 31명이 생중계에 필요한 남측의 중계차·발전기·위성이동중계기(SNG) 등의 장비를 갖고 금강산에 가기로 했다.

양측은 남북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들을 만나는 상대측 지역의 상봉 가족 숫자를 관례대로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해,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북측 이산가족(100명)을 만나기 위해 남측에서 500명 정도의 상봉가족이 금강산에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金仁執기자 ginko@chosun.com

# 28일 금강산 이산상봉 남북간 생중계 합의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을 안방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춘)에 따르면 남북 적십자측은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행사 생중계에 필요한 남측 중계차·발전기·위성이동중계기(SNG) 등을 금강산에 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측 취재기자 30명과 방송중계 요원 31명도 금강산을 찾아 이산가족의 상봉장면을 생생하게 전하게 된다.

한적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을 찾는 남측 이산가족들은 북측 가족들과 개별상봉·단체상봉·작별상봉·공동참관·공동식사 등 5~6차례 상봉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아직 상봉장소나 시간·일정 등에 대한 북측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측 이산가족들은 해금강호텔과 관광선인 설봉호에 투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대한매일

2002. 4. 22 (월)

# 금강산 이산상봉 생방송 남북적십자 합의

오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TV로 생중계된다. 21일 대한적십자사(총재 徐英勳)에 따르면 남북 적십자측은 20일 오전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생중계에 필요한 남측의 중계차·발전기·위성이동중계기(SNG) 등을 금강산에 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측 취재기자 30명과 방송중계요원 31명이 금강산으로 가 이산가족 상봉 장면 등을 생생하게 전하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또 "남북 이산가족들은 개별상봉, 단체상봉, 작별상봉, 공동참관, 공동식사 등 5~6차례 상봉하게 될 것" 이라면서 "22일쯤 북측이 최종 세부 일정을 전해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 경향신문

2002. 4. 22 (월)

# 이산상봉 TV생중계 합의

## 남측 중계차등 금강산반입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을 안방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1일 남북 적십자사가 20일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행사 생중계에 필요한 남측 중계차, 발전기, 위성이동중계기(SNG) 등을 금강산에 반입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한적 관계자는 "남측 이산가족들은 북측 가족들과 개별상봉, 단체상봉, 작별상봉, 공동참관, 공동식사 등 5~6차례 상봉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아직 상봉 장소나 시간, 일정 등에 대한 북측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측 이산가족들은 해금강호텔과 관광선인 설봉호에 투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욱기자

# “南北이산가족 6차례 상봉”

## 금강산상봉 일정 확정

남북한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들은 오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씩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각각 여섯 차례 정도 상대 지역의 가족들과 상봉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산가족들은 첫날 단체상봉과 공동만찬, 둘째

째날 개별상봉과 공동오찬 및 공동관광, 그리고 마지막날 가족들과 작별상봉을 갖게 된다.

남한 이산가족 100명은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 186명을 만나며,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북한 이산가족 100명이 찾는 남한의 가족 470명이 북측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金仁杻기자 ginko@chosun.com

# 남북 이산가족 총 6차례 상봉

## 4차방문단 28일 출항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이뤄지는 4차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 방문단 100명이 북측 상봉단(가족) 186명을, 북측 방문단 100명이 남측 상봉단(가족) 470명을 각각 만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남측 방문단 100명을 태운 설봉호가 예정대로 28일 오전 속초항을 출항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봉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총 6차례 상봉케 되며 삼일포를 구경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고 생방송 중계가 실시된다.

한적 관계자는 “방북하는 이산

가족 대부분이 고령이고 바닷길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의료지원 인력을 크게 늘렸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고속정이나 군 헬기 등을 이용해 속초나 강릉 등지의 의료시설로 긴급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 위원회를 개최해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강산지역 통신회선 설치비용 2억6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28일 금강산서 6차례 이산상봉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28일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186명과 모두 6차례 상봉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웅(李柄雄) 총재 특보는 25일 4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이같이 발표하고, “다음달 1일에는 우리측 가족 470명이, 북측 100명과 상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100명 중 80

# 이산가족 6회 만난다

## 韓赤, 28~30일 일정발표

28일부터 엿새 동안 치러지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금강산여관과 온정각 등에서 모두 여섯차례 상봉하게 된다. 상봉 모습은 TV로 생중계된다.

대한적십자사(한적·총재 徐英勳)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상봉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28~30일에는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북한 가족 186명이, 다음달 1~3일에는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남한 가족 473명이 각각 만난다.

한적은 “남북 가족들이 삼일포를 함께 둘러보는 참관 행사가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날 단체상봉과 만찬, 둘째날 공동식사와 개별상봉, 마지막 날 작별상봉 등 모두 5차례의 대면이 이뤄졌던 예전 행사보다 상봉 기회가 한차례 늘었다.

한적은 또 고령의 남한 이산가족들이 배편으로 금강산으로 가 상봉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명씩이던 의사·간호사를 각각 3명으로 늘렸다. 환자가 발생하면 거진항까지 쾌속선으로 나뉘어 예정이지만, 만일의 경우 응급구조용 헬기 투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질병 등을 이유로 잇따라 상봉을 포기했다. 남측 방문단 후보 중 최고령자인 이병순(93·여)씨와 정인용(85)씨가 질병 등을 이유로 방북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적은 금강산 지역과 서울간 원활한 연락을 위해 금강산여관~온정리 체신분소~해금강호 텀간 통신선로 접속공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세 이상 고령자는 23명이고, 이병순(93·여)씨가 최고령이다. 최연소자는 1일 북측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북하는 박승한(13)군이다. 남측방문단에는 소설가 김원일(金源一)씨와 박수길(朴秀吉)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등이 지원요원으로 포함됐다. 한적 관계자는 “거동이 힘든 어 할머니, 폐암이 악화된 정인용(85) 할아버지 등 4명 가량이 방북이 힘들 것으로 보여 대신 방북할 이산가족을 선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 이산상봉 6차례

28일 방북할 이산가족들은 2박3일 동안 6차례 상봉할 기회를 갖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25일 "28일 방북하는 1회차 방문단은 100명, 5월 1일 방북하는 2회차 방문단은 470명으로 확정됐다"면서 "이들은 제1일에 단체상봉, 동석만찬, 제2일에 개별상봉, 가족동행 잠깐, 가족동석 중식, 제3일에는 작별상봉 등 6차례 상봉할 기회를

#### 통신회선 설치비용

2억6천만원·北지원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민하 평통 의장이 이산가족 자격으로, 소설가 김원일 등이 지원요원 자격으로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행사장으로 사용될 금강산여관과 유비쿼터스속초인해금강호텔간, 통신선로 접속작업을 급속히 추진해 통신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지역 통신회선 설치에 필요한 2억6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나영필기자. philip@mk.co.kr



◇제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강원도 속초항에서 설봉호로 싣고 갈 식료품을 챙기고 있다. /속초=맹

### 금강산 내부 직통망 개설 추진

#### 남북협력기금 2억여원 지원

정부는 2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과 관련해 금강산 지역 통신회선 설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최대 2억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사업은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해금강호텔'과 행사장인 '온정각', '금강산려관' 사이에 50회선 남짓의 내부직통전화 연결을 위해 통신선로를 접속하는 공사로, 앞으로 금강산에서 열릴 각종 남북교류협력 행사에

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금강산 지역 내부 직통망 개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이 지역과 남쪽 사이의 국제전화회선 증강 사업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는 금강산지역에서 28~30일에는 남쪽 선정 이산가족 100명이 북쪽 가족 186명을, 다음달 1~3일에는 남쪽 가족 470여명이 북쪽 선정 이산가족 100명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의 가족들은 모두 6차례 상봉 기회를 갖게 된다. 이재훈 기자

### 한겨레

2002. 4. 26 (금)

# 금강산서 6차례 만난다

## 28일~5월 3일 이산상봉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산가족 상봉은 2001년 2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남북성과 가운데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횟수는 과거보다 한 차례 늘어난 모두 6차례.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이 함께 삼일포를 둘러보며 혈육의 정을 나누는 '참관상봉'이 관심거리다. 회합 장소에서 만난 뒤 헤어지던 종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까지 하도록 했다.

다만 ▲남측 방문단이 470명인

반면 재북가족은 불과 186명만 참석하고 ▲북측 단장 명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고령자가 장시간 배편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남측 이산가족 100명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23명이며 최고령자는

## 林특사 訪北성과 첫 사업

## 삼일포 '참관상봉'도 관심

남측 어병순(93)씨, 북측은 최옥주(83)씨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씨의 경우 거동이 힘들어 방북을 포기했다. 또 다른 고령자인 정인용(85)씨는 폐암 악화로 입원중이어서 최종 방북 인원은 약간 유동적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장편

소설 '노을'의 작가 김원일(金源一·60)씨와 한두현(韓斗鉉·83) 평남도민회 명예회장, 박수길(朴秀吉·61)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김종근(金重根·50)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지원요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박 단장은 축가를 부르고 소설가 김씨는 사료 정리를 맡으며 김 교수는 의료자원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해금강호텔~금강산여관~설봉호텔 간 50개의 통신 회선을 새로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 그 동안 이곳에선 전화가 없어 워키토기로 서로 연락하거나 직접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아다녀야 했다. 남북한은 앞으로 이 회선을 금강산관광 당국 자회담 등 교류협력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금강산 이산상봉 모두 6차례 만나

### 南北적십자사 합의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시작할 4차 이산가족 방문단 행사에서는 남북한의 가족이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만난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웅(李柄雄) 총재특보는 25일 "남북 적십자간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28일부터 남측 이산가족 대표단 1백명이 북측가족 1백86명을 2박3일 동안 상봉한 뒤, 5월 1일부터는 남측 가족 4백70명이 북측 이산가족 대표단 1백명과 만나는 순차 상봉 방식"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

한적은 두 차례의 상봉 행사를 각각 '방문단'과 '상봉단'으로 구별해 부르기로 하고 이세웅 한적 부총재와 최동섭 한적 서울지사 회장을 단장으로 임명했

### 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일정	1차(방문단) 4월28~30일 남측 1백명, 북측 1백86명 상봉
	2차(상봉단) 5월 1~3일 남측 4백70명, 북측 1백명 상봉
상봉시간	첫째날 : 단체상봉(2), 만찬(1) 둘째날 : 개별상봉(3), 오찬(2), 해금강관광(3) 셋째날 : 작별상봉(1) *총 6차례, 12시간. (1)안 숫자는 각 상봉시간
	특이사항 -참관(해금강 관광지)가족동행 허용 -TV 생중계 합의 -남측 숙소(해금강호텔)에 서울연결 전화설치

다. 특히 남북 양측은 서울·평양 동시 교환방문이던 1~3차 이산상봉 때 각기 치르던 참관행사를 이번에는 공동으로 진행키로 합의해 상봉 가족이 함께 해 금강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 이산상봉 6차례 만나 남측 100명 28일 방북

오는 28일 금강산에서 이뤄지는 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총 6차례에 걸쳐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나게 된다. 이번 이산상봉은 남북이 작년 2월 시행키로 했으나 두 차례 연기 끝에 1년2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웅(李柄雄) 총재특보는 25일 "우리측 가족 100명이 28일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186명을 상봉하게 되며, 다음달 1일에는 남측 가족 473명이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나기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며 "남북 이산가족들은 2박3일동안 단체상봉 및 개별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만난다"고 밝혔다. 이윤옥기자

# “빨갱이 자식 핍박 받았지만 아버지忌日이라도 알았으면”

오는28일 금강산방문길

‘이산’작가 金源一씨 소망

“월북한 아버지의 기일(忌日)이라도 알고 싶어요”

장편소설 ‘노을’을 통해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그린 소설가 김원일(金源一·60·사진)씨는 25일 가슴이 설렸다...

제4차 이산가족 방북단 지원요원으로 28일 금강산 방문길에 오르지만 그 자신도 따지고 보면 분단의 희생자요 이산가족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문단 이력 36년째. 어엿한 중견작가로 자리매김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처절한 가난과 굶주림, 멸시로 얼룩진 쓰라린 시절로만 기억된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간부를 지냈던 아버지의 월북, 그리고 따라붙은 ‘빨갱이자식’이란 딱지. 야속한 사회로부터 받은 핍박과 고통은 어린 그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웠다. 그리운 아버지이지만 연좌제의 울가미에 걸려 자살충



동까지 느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고통스런 삶의 궤적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겨울골짜기’ ‘바람과 강’ ‘불의 제전’ ‘가족’ 등 장편소설과 단편집 ‘환멸을 찾아서’ 등은 뽕속 깊이 각인된 부정(父情)의 목마름과 분단의 비극을 잘 묘사하는 그의 자화상이나 다름없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막상 방북한다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월북한 아버지와 새 가정을 이룬 북녘의 또 다른 어머니와 형제 2명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날도 알아볼 수 있을지 기대반 걱정반이다.

김씨는 “북쪽에서 ‘가족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기로 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소설가 김원일씨 28일 이산상봉 방북

서울경제

2002. 4. 26 (금)

“월북한 아버지 기일이라도 알고 싶어서 가는 건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장편소설 ‘노을’을 통해 ‘빨갱이 자식’의 은폐된 자의식, 그리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한국문단에 처음으로 제기했던 소설가 김원일(사진·60)씨가 오는 28일 제4차 이산가족 방북단 지원요원 자격으로 방북한다.

김씨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간부를 지낸 아버지가 월북한 뒤 소년 시절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 멸시를

겪었다. 이로 인해 자살충동에 시달리던 그는 자신의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겨울골짜기’ ‘바람과 강’ ‘마당 깊은 집’ 등 장편소설과 단편집 ‘오늘 부는 바람’ ‘환멸을 찾아서’ 등의 역작을 일궈냈다.

김씨 외에 한두현(83) 평안남도도 민회 명예회장(전 도민회장), 박수길(61) 국립오페라단 단장, 김종곤(50)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부교수 등이 지원요원 자격으로 28일 함께 방북할 예정이지만 실항민인 이들이 북측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 이산가족 근본적 해결책 연제

오는 28일부터 영세 동안 금강산에서 재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 항상 그러하듯 이번에도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 30년, 한숨 반백년 의 희한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눈물의 드라마를 연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은 이제는 이런 이유 등을 잊어본다.

'인화성' 이벤트보다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면회소에서 민남, 자유 왕래 등과 같은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절차, 북한이 상봉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는 이유 등을 알아본다.

# 아직은 시기상조... 화해 분위기 관전

생사·주소지 확인, 서신·선물 교환, 면회소 설치 및 정기적 상봉, 고향 방문, 자유 왕래...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이다. 가능할까.

한마디로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면서 "서신·선물 교환만 이뤄져도 남쪽의 가족들이 북쪽 피별이들에게 '달려 송금'을 시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도 경제난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생사 확인, 남북 당국이 직시사 등을 통해 짐수한 생사확인 의뢰서할 교환,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북한은 3~4일, 북한은 한달 정도면 생사와 주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은 "한꺼번에 모든 이산가족들의 생사할 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고향가 손으로 배달 수백명 정도의 명단용 교환, 생사 및 주소지할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엔 서신과 선물 교환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우포 사신 교환이 이뤄졌을 때 그 내용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는 북측에 '공개된 편지', 즉 영사 교환을 제외

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선물 교환이 시작되면 북한의 이산가족들에 대한 '달려 송금'이 이뤄질 것이다. '퍼주기 논란' 등을 잠재울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다음 단계는 면회소 설치다. 물론 면회소 설치가 생사·주소지 확인보다 앞서 이뤄질

이번 금강산 상봉을 '면회소 설치'로 가는 다짐할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에 그동안의 교환상봉 방식에서 벗어나 남북 가족들이 상봉포함 함께 둘러보는 '합관상봉'이라는 새로운 민남 형식이 생겼다. 정부는 이를

## 서신·선물교환만 이뤄져도 급진진 가능성 금강산상봉 계기 면회소설치 본격 논의할듯 고향방문은 북한이 개방에 자신감 가져야

가능성도 있다. 면회소가 우선 설치돼야 남북간 다른 논의들도 힘을 받기 때문이다. 정

부는 28일부터 영세동안 열리는 제4차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끝나면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어 면회소 설치 문제를 즉각 제기할 방침이다.

남북간 이산가족 교환상봉' 모델이 처음 등장한 것은 88년이다. 당시 도입된 '고향방문단'은 2000~2001년 3차례 실시된 '이산가족상봉단'과 형태가 거의 같다. 우리 정부는



2000년 8·15 이산가족 상봉단의 일원으로 서둘러온 이종필씨가 남측의 노모와 빈세기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생사확인·편지교환 등과 같은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제붕괴의 우려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자유 왕래는 최종 단계이고,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룰 때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봉조 통일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북한

이 바라는 관계개선의 속도'가 매우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신뢰를 쌓는다면 생각보다 일찍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진영우기자 ansems@daily.com

● 대한매일 포토라이프러리



北 왜 금강산에 집착하나

북한은 지난해 10월 6차 장관급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줄곧 금강산을 주장해 왔다. 북한이 왜 금강산을 이산가족 상봉장소로 고집하는 것일까. 우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데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다. 북쪽 이산가족들이 서울 등 남한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남한을 다녀

온 이산가족들을 상대로 1주일 가량의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평양 교환상봉맨 주민 동요 우려 자본주의 물결 차단 조용한 행사 원해

졌다. 즉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북한 당국에게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적인 부작용 없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남쪽 출신으로 북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바닷갔다라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 동안 서울을 방문한 북쪽 이산가족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남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관계 진전의 '처음이자 끝' 인양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모른채 외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이 '조용한' 행사이고, 최적의 행사장으로 금강산이 떠오른 것이다.

게다가 금강산은 북한이 이미 남한 기업에 개방한 장소다. 북한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자신들도 계속되기를 절실히 원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은 북한이 개방한 지역이면서 지리적으로 백두대간 너머에 자리잡은 '고립지역'이라면서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행사를 계속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금강산을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선뜻 동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이를 계기로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을 트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엄두에 두고 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금강산에 하나, 도라산역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면회소가 생겨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정부가 이번 금강산 상봉에 '면회소' 설치 추진이라는 의도를 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편지라도 주고받았으면...”

평양서 딸 상봉 노범석응

“한번 만나고 오면 뭐해. 편지라도 주고 받을 수 있어야지.”

2000년 8월 제1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때 평양으로 가 딸 노순복(54)씨를 만나고 온 노범석(盧範錫·77)씨는 상봉 때 건네받은 북녘 아내와 딸의 빛바랜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산

“내 마지막 소원은 고향가서 죽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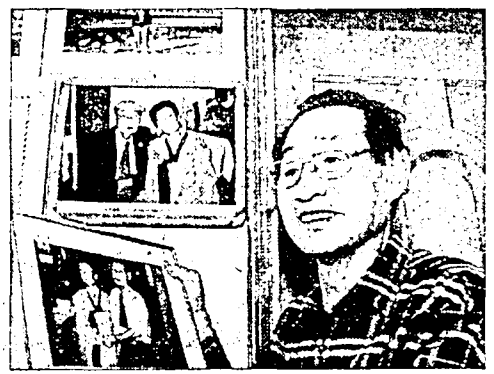
다. 반백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방과 마루에 걸었다.

열여덟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아내는 이미 10년 전 '저세상' 사람이 됐다고 들었고, 헤어질 때 세살배기된 딸은 50대 초반에 접어들었지만 죽기전 만난 것은 더없는 행운이었다. 노씨는 1·4 후퇴 당시 고향인 함남 갑산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는데 큰눈이 내려 풍산 근처에서 아

내와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아내에게는 “눈 길을 뚫고 가다가는 모두 죽을 것 같다.”면서 “두 달 뒤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고 홀로 남행길을 재촉했다. 자신은 읍사무소 공무원이던 탓에 북한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

이다. 딸 순복씨가 만나자마자 “아바이, 왜 나랑 오마니를 버리고 가셨습니까?”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딸을 부여안고 말없이 통곡만 했다.

노씨는 “요즘 매일같이 사진을 통해 딸을 만난다.”면서 “남한에서 결혼한 부인이 이런 사정을 이해해 줘 고맙다.”고



노범석씨가 2000년 8월1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행사때 평양에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감격적인 상봉 순간을 설명하고 있다.

박영근기자 bongsu@kdaily.com

눈시울을 붉혔다. 노씨는 “지금도 고향마을 앞을 흐르는 허천강이 눈에 선하다.”면서 “고향 선산에 있는 부모님의 묘에 술이라도 한잔 올리고 불효를 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소원은 고향에 가서 죽는 것”이라면서 “통일까지야 바라지도 않지만 편지 왕래,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전영우기자

# 2박3일 6차례 상봉... 삼일포 공동참관도

오는 28일부터 5월3일까지 금강산에서 치러지는 제4차 이산가족 순차방문에서 이산가족들은 모두 6차례 12시간에 걸쳐 상봉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번 상봉일정에는 공동참관이 추가돼 남북 이산가족들이 함께 삼일포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단체상봉, 만찬, 공동식사, 개별상봉, 작별상봉 등 총 5차례의 대면이 이뤄졌던 1~3차 때보다 상봉이 한차례 늘어났다.



금강산가는 식료품 28일 금강산에서의 제4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쓰일 식료품이 28일 수송에 앞서 점검되고 있다. /속초=황

**남측 이산가족 28일 출발  
고령으로 4명 방북포기  
취재진 30명으로 늘려**

28일 출발하는 남측 이산가족 100명은 재북가족 186명을 상봉하게 되며 다음달 1일에는 재남가족 473명이 북측 이산가족 100명을 만나게 된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배편을 이용해 금강산 지역에서 상봉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의료지원 인력이 증원된 것도 특징이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 방북 인원이 더 많아지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는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 응급처치사 3명 등이 이산가족들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금강산에 남

###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행사일정

구분	1차 (4월28~30일)	2차 (5월1~3일)
제1일	오전 속초항 출항	오전 속초항 출항
	오후 단체상봉 (금강산여관)	오후 단체상봉 (온정각휴게소)
	석식 가족공동만찬 (금강산여관)	석식 가족공동만찬 (온정각휴게소)
제2일	오전 개별상봉 (금강산여관)	오전 개별상봉 (금강산여관)
	중식 가족공동중식 (금강산여관)	중식 가족공동중식 (금강산여관)
	오후 삼일포 (삼일포)	오후 삼일포 (삼일포)
제3일	오전 작별상봉 (온정각휴게소 옆 운동장)	오전 작별상봉 (온정각휴게소 옆 운동장)
	오후 장전항 출항	오후 장전항 출항

측 중계차, 발전기, 위성이동중계기(SNG) 등 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해졌으며 취재진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 오히려 평양상봉 때보다 더 생생하게 상봉장면이 보도될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상봉의 특징으로 꼽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봉장소가 금강산으로 제한됨에 따라 북측이 세세한 부분에선 남측의 편의를 상당히 보장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령자였던 어병순(여·93)씨가 방북을 포기한 데 이어 정인용(85)씨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정씨 대신 방북할 이산가족을 선정중이다. 이에 따라 남측 방문단 100명중 방북 포기자는 박분순(여·78)씨와 신용익(77)씨를 포함, 모두 4명으로 늘었다. 북측 100명 중에서도 공훈예술가 황영주(82)씨가 상봉 직전 사망했으며 이해란(여·72)씨가 포기해 2명이 교체됐다.

이와 함께 분단문학의 선구자격인 장편소설 '노을'의 작가 김원일(60)씨와 한두현(83) 평안남도 도민회 명예회장, 박수길(61) 국립오페라단 단장, 김중근(50) 서울대 의대 소아과학 교실 부교수 등이 자원요원 자격으로 28일 함께 방북한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kr

# 南北 이산가족 내일 단체상봉·만찬

금강산에서 진행될 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할 남측 방문단이 28일 오전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 편으로 속초를 출발, 이날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가족들과 단체상봉과 남북가족 공동만찬을 갖는다. 남측 방문단은 이세웅(李世雄) 한적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99명, 지원요원 50명, 취재진 30명, 중계요원 31명 등 모두 2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금강산을 방문하는 남측 이산가족은 당초 100명으로 선정됐으나 이 중 정인용(85)씨가 거동이 불편해 가지 못하게 돼 99명으로 줄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밝혔다. 방문단 중 어병선(93)씨도 거동이 불편해 못가게 됐으나 대신 딸 이부자씨를 상봉단에 포함시켰다고 한적측은 말했다.

/金仁執기자 g.nko@chosun.com

# 이산가족 訪北위해 외환銀 환전소 운영

외환은행(www.keb.co.kr)은 26일 '제4차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 방문 행사'와 관련해 임시 특별 환전소를 설치해 방북 여행경비를 환전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27일과 30일 이틀간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남한 이산가족의 집합장소인 속초 한화리조트에 '북한방문 여행경비 임시특별환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임시환전소 운영으로 북한에 갈 방문객들이 별도로 은행에 나가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결장소인 호텔 내에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기효기자 parang@mk.co.kr

# 이산가족 내일 금강산 상봉

## 오늘 속초서 하룻밤

지난해 2월 3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행사 이후 1년2개월만에 4차 방문단 교환행사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각 2박3일씩 두차례에 나눠 금강산 지역에서 치러진다.

▶관련기사 4면

어병순(93)씨 등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이를 위해 27일 속초항에서 하

룻밤을 지낸 뒤 28일 오전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편으로 금강산 지역을 방문해 첫날 금강산여관에서 단체상봉과 북측 가족 186명과 함께 만찬행사를 치르게 된다.

방문단원이 애초 100명에서 99명으로 준 것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측은 26일 "폐암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인용(85)씨가 방북을 포기했으나 시일이 촉박해 결원을 채우지 못하고

99명만으로 방문단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남측 이산가족 99명 가운데 80살 이상은 22명이고, 최고령자는 아흔셋인 어병순씨다.

또 이번 방문단에는 소설가 김원일씨와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김종곤 서울대 의대 교수, 한두현 평남도민회 명예회장 등이 지원요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 이산99명 내일 금강산상봉

## 3차상봉이후 14개월만에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할 남측 방문단 99명이 28일 금강산으로 가 2박3일간 6차례에 걸쳐 북한 거주 가족들을 만난다. 지난해 2월 말에 이뤄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행사 이후 꼭 14개월만이다.

대한적십자사(총재 徐英勳) 관계자는 26일 "정인용(85)씨가 폐암 악화로 위독한 상태여서 방북자 명단에서 제

외됐다."면서 "다른 가족으로 대체, 북측 가족을 찾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초 계획보다 1명 적은 99명만이 금강산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적은 또 최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병순(93·여)씨를 대신해 딸 이부자씨가 방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적은 2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우리측 변동사항을 북측에 전달하는 등 막판 조율작업을 계속했다.

### 남북 이산가족(1차) 상봉 일정

<b>28일</b>	11:30	속초 출항
	15:00	장전항 도착
	17:00~19:00	단체 상봉(금강산여관)
	21:00~23:00	동석 만찬(금강산여관)
<b>29일</b>	10:00~12:00	개별 상봉(금강산여관)
	12:00~14:00	동석 오찬(금강산여관)
	15:00~18:00	참관 상봉(삼일포)
<b>30일</b>	09:00~10:00	작별 상봉(온정각 운동장)
	14:00	장전항 출발

이번 상봉단에는 '노을' '불의 제전' 등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그려낸 소설가 김원일(金源一·60)씨가 포함됐다. 4전영우기자 anselmus@kdaily.com

# 단체·개별등 모두 6차례 상봉

## ■ 4차 이산가족만남 어떻게

### 내일 금강산려관·1일 온정각휴게소 북쪽 현지상황 처음으로 생중계 관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는 기본적으로 1~3차 방문단 교환행사 때 이뤄진 관례를 따르지만,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서울~평양 동시 교환방문은 아니라 금강산지역 한곳에서 두차례로 나눠 치러지는 순차상봉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북쪽이 서울~평양 교환방문 방식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일개에 대한 의견공유가 있었고 지난 3~6월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 때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 당국자는 "무엇보다 이산가족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되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상봉행사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라는 제도적 해결방안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봉 방식은 1~3차 때와 비슷하다. 첫날 단체상봉과 만찬이 있고, 둘째날 개별상봉-공동증식-잠관, 셋째날 작별상봉이 이뤄진다. 1~3차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둘째날 삼일포에서 이뤄질 참관행사에 남북의 가족이 3시간 가까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상봉 횟수도 이전의 5차례에서 6차례로 늘게 되고, 상봉 시간도 10여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상봉장소에 적잖이 불편이 있는 만큼 상봉의 길과 시간을 늘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8~30일에는 남쪽 이산가족 99명(방문단)이 금강산지역에서 북쪽 가족 186명을 만날 예정이다. 폐암 약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정인용(85)씨가 최종적으로 방북을 포기해 결원이 발생했다. 이는 1~3차 교환방문 때 남쪽 가족 100명이 평양에서 240~250명 안팎의 북쪽 가족을 만날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다음달 1~3일에는 남쪽 가족 470명(상봉단)이 북쪽 이산가족 100명을 만난다. 이는 1~3차 서울 상봉 행사 때 북쪽 방문단 1명에 남쪽 가족이 5명까지 만날 수 있도록 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 상봉



북으로 가는 식료품 28일 금강산에서의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쓰일 식료품 등이 25일 금강산으로 가는 실봉호에 실리기 전 품목별로 점검을 받고 있다. 속초/연합

에서는 북쪽 방문단원의 남쪽 가족 5명에게만 주어지는 명찰을 이어받기 하는 방식으로 남쪽 가족들이 20여명까지 만났던 것에 비하면 상봉의 폭은 좁아지는 셈이다.

4차 방문단 교환 1차 상봉 첫번째날인 28일은 단체상봉 장소가 금강산려관인 반면, 2차 상봉 첫번째날인 다음달 1일에는 단체상봉 장소가 온정각휴게소로 정해졌다. 이는 앞쪽 행사가 1~3차 방문단 교환사업 때 북쪽이 주최를 맡은 평양행사에 해당한다

면, 뒤쪽 행사는 남쪽이 주최를 맡은 서울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로는 처음으로 북쪽 현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방송된다. 이는 1~3차 평양행사 상황이 시간대별로 녹화방송 됐던 것이나, 지금껏 금강산에서 치러진 각종 남북 교류·회담에 대해 생방송이 이뤄진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쪽의 자세변화라 할 만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 ◇ 제4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일정(금강산)

구분	1차 상봉	2차 상봉
시기	4.28~4.30	5.1~5.3
규모(명)	남 99 북 186	남 470 북 100
첫째날	단체상봉	금강산려관(2)
	만찬	(2)
둘째날	개별상봉	금강산려관(2)
	공동증식	(2)
셋째날	참관상봉	삼일포(3)
	작별상봉	온정각휴게소 온정각휴게소 온정각휴게소

※만찬과 참관상봉은 남북가족 함께.

※괄호 안 숫자는 만남 시간.

# 반세기만의 재회 금강산도 울었다

## 이산가족 상봉 첫밤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가족 99명이 28일 북한의 금강산 여관 2층 로비에 마련된 단체 상봉장에서 반세기만에 북측 가족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나눴다.

이날 2시간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당초 방북단에 포함됐다 병세가 악화돼 방북을 포기한 뒤 26일 끝내 숨진 어병순(93)할머니의 딸 이부자(李富子·62·전북 남원시 아영면 성리)씨는 북측 언니 이신호(66)씨

와 통한의 상봉을 했다. 또 1967년 납북된 풍북호 선원이던 남편 최원모(崔元模·92)씨의 부인 김애란(金愛蘭·80)씨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편 대신 한국전쟁 때 헤어진 동생 순실(67), 덕실(58)씨를 만나는 것으로 부부상봉의 아쉬움을 달렸다.

★관련기사 8·30면

한국전쟁이후 50여년동안 수절해 온 정귀업(鄭貴業·75·전남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할머니는 남편 임한언(74)씨와 재회했고, 상봉단 최고령자인 권지은(權志殷·88) 할머니는

막내 아들 이병립(62)씨를 만났다.

단체상봉을 통해 북측가족 183명과 만난 이산가족들은 북측단장인 최창식 북한 적십자중앙위 부위원장 주최 환영만찬에서 북측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산가족들은 29일에는 개별상봉, 가족들과의 공동 오찬, 삼일포 공동 참관 등의 순서로 가족들과 다시 만나며 30일 속초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혈육의 情’ 금강산도 울었다

## 4차이산상봉...南99-北183명 ‘감격의 재회’

### 오늘 숙소서 개별만남-삼일포 공동참관도

제4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28일 금강산에서 14개월만에 이뤄졌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우리측 가족 99명은 28일 오후 금강산 북측지역인 금강산여관 2층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서 반세기만에 가족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당초 방북단에 포함됐다 병세가 악화돼 방북을 포기한 뒤 지난 26일 끝내

숨진 어병순(93) 할머니의 딸 이부자(李富子·62)씨는 북측 언니 이신호(66)씨와 통한의 상봉을 했다.

지난 50여년 수절해 온 정귀업(鄭貴業·75) 할머니는 꿈에 그리던 남편 임한언(74)씨와 감격적인 재회를 했다. 김애란(金愛蘭·79) 할머니는 1967년 ‘납북된 풍북호 선원이던 남편 최원모(92)씨의 생사는 확인하지 못한 채 6·25때 헤어진 동생 순실(67)씨와 덕실(58)씨를 만나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방북단중 최고령자인 권지은(權志殷·88) 할머니도 막내 아들 이병

립(62)씨와 상봉했다.

북측에선 당초 186명의 재북가족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날 상봉한 가족은 3명이 줄어든 183명으로 집계됐다.

남측 가족들은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최창식 북한 적십자 회중앙위 부위원장 주최의 환영만찬에서 북측 가족과 동석만찬을 갖고 금강산에서의 감회의 첫밤을 보냈다.

앞서 남측가족은 27일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8일 설봉호편으로 금강산 장전항에 도착, 선상호텔 ‘해금강’에서 여장을 풀었다.

이산가족들은 방북 이틀째인 29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삼일포 공동참관 등으로 북측 가족과 반세기 상봉의 회포를 풀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관련기사 2-8-31면

# 이산상봉, 금강산도 울었다

## 남 가족 99명 감격재회

제4차 이산가족 방문에 나선 남쪽 가족 99명이 28일 오후 금강산 북쪽 지역 금강산여관 2층에 마련된 단체 상봉장에서 반세기 만에 북쪽 가족 180여명과 만나 이산의 한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지난해 2월 3차 서울·평양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이어 1년2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번 상봉은 지난해 10월에 하기로 했으나 무산된 뒤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에 따른 남북대화 복원 합의에 따라

재개된 것이다.

▶관련기사 2·7·15면

이날 오후 5시 조금 넘어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는 애초 방북단에 포함됐다. 병세가 악화돼 방북을 포기한 뒤 상봉을 이틀 앞둔 26일 끝내 숨진 어병순(93) 할머니의 딸 이부자(62)씨가 북쪽 언니 이신호(66)씨와 통한의 상봉을 했다.

또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수절해 온 정귀업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 임한언(74)씨와 감격적인 재회를 했다. 이밖에 1967년 납북된 풍복

호 선원이던 최원모(92)씨의 부인 김애란(80) 할머니는 생사가 확인 불능인 남편 대신 6·25때 헤어진 동생 손실(67), 덕실(58)씨를 만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이날 상봉에서 박용화(82) 할머니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6명은 휠체어를 이용했다.

남쪽 이산가족 99명은 첫 단체상봉에 이어 북쪽 단장인 최창식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 주최로 열린 환영 만찬에도 북쪽 가족과 동석했다.

속초·금강산/공동취재단

# “오마니...” 금강산도 울었다

## 남이산가족 99명·北183명 눈물의 상봉

한반도 최고의 경승지인 금강산에서 마침내 남북의 혈육이 이산의 한을 풀었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가족 99명은 28일 저녁 금강산여관 2층 로비에 마련된 단체상봉장에서 모두 3시간40여분 동안 북측 가족 183명을 만나 반세기 넘게 삭여온 혈육의 정을 나눴다. ▶관련기사 30·31면

이번 상봉은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다 무산된 후 다시 성사된 것이어서 기쁨이 더욱 컸다. 이로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2월 26~28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뤄진 제3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이후 14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후 5시27분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당초 방북단에 들었으나 병세 악화로 방북을 포기한 뒤 지난 26일 숨진 어병순(93) 할머니의 딸 이부자(李富子·62·전북 남원)씨가 북측 언니 이신호(66)씨와 통한의 상봉을 했다.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동안 수절해 온 정귀업(鄭貴業·75·전남 영광)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 임한언(74)씨와 감격적인 재회를 했다. 그러나 67년 납북된 풍복호의 선주인 최원모(崔元模·92)씨의 부인 김애란(金

愛蘭·79·충남 서천) 할머니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편 대신 한국전쟁 때 헤어진 여동생 김순실(67)·덕실(58)씨를 만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북측 가족 183명과 상봉한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최창식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 주최의 동식 만찬에 참석한 뒤 금강산에서의 첫밤을 보냈다.

앞서 남측 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38분쯤 장전항에 도착, 선상호텔 '해금강'에 여장을 풀었으며 방북 이틀째인 29일 개별상봉과 공동 중식, 삼일포 공동참관 등으로 북측 가족과 회포를 풀 뒤 30일 귀환한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금강산서 눈물의 이산상봉

## 南측99명 北가족 재회

28일 북한 금강산에서는 작년 2월의 서울·평양에 이어 남과 북의 부모·자녀, 형제들이 부둥켜안고 반세기 이산의 한(恨)을 풀었다.

▶관련기사 30면

이날 오후 금강산여관에서선 이를 전인 지난 26일 숨진 어머니 어병선(93)씨 대신 상봉단에 포함된 이부자(62)씨를 비롯해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북한의 가족 183명과 단체상봉을 가졌다.

지난 50년간 수절해온 정귀업(75)씨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 임한언(74)씨와 감격적으로 재회했고, 67년 납북된 풍복호 선원 최원호(92)씨의 아내 김애란(80)씨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편 대신 6·25 때 헤어진 친정 동생 순실(67)·덕실(58)씨와 만났다.

김영진(82)씨는 전쟁 때 평양에 두고 온 아내 이영희(73)씨와 당시 다섯 살배기였던 아들 창근(57)씨의 주글주글해진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만 흘렸으며, 안용관(81)씨도

반세기 만에 만난 북의 아내 윤분희(75)씨와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딸 순복(51)씨를 만나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저녁 북한 적십자회 주최로 금강산여관에서 만찬을 가진 뒤 금강산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이산가족들은 29일 오전 북측 가족들의 숙소인 금강산여관 객실에서 개별상봉을 갖고,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손을 맞잡고 삼일포 관광도 갖는다.

/金剛山=공동취재단

# “오마니...” 이산상봉 남측 방문단 99명 금강산서 北가족 183명 만나

4차 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남측 방문단 99명은 28일 북한 금강산여관 2층 단체상봉장에서 북측 가족 183명을 만나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A29·30면에 관련기사

당초 방북단에 포함됐다가 상봉이틀 전인 26일 속환으로 세상을 떠난 어병순씨(93)의 딸 이부자(李富子·62·전북 남원시 아영면 성리)씨는 북한의 언니 신호씨(66)를 어머니 대신 만났다. 신호씨는 52년 만에

만난 동생을 부둥켜안은 채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

67년 납북된 어부 최원모씨(92)의 아내 김애란(金愛蘭·79)씨는 북측의 ‘생사확인 불가능’ 통보로 만날 수 없게 된 남편 대신 동생 순실(67), 덕실씨(58)를 만났다. 김애란씨는 연방 눈물을 흘렸으나 남편 얘기는 하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 50여년 동안 수절해 온 정귀업씨(77)도 북한의 남편

임한언씨(76)와 재회했다.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최창식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서 북측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금강산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남측 방문단은 29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삼일포 공동참관 등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30일 오후 속초항으로 귀환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離散 99명 금강산서 北가족 껴안다

## 방문 직전 숨진 93세 할머니는 딸이 대신 상봉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28일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여관에서 반세기 만에 북측 가족 1백86명을 만나 이산의 아픔을 달랬다.

현 정부 들어 네번째인 이번 상봉은 지난해 2월 서울·평양 이산가족 방문단 동시 교환 이후 14개월 만에 이뤄졌다. <관계기사 30면>

특히 지난해 10월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 직전에 무산된 바 있어 재회의 기쁨은 더 컸다.

이날 오후 5시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단체 상봉에서는 당초 방북단에 포함됐지만 병세가 악화돼 지난 26일 숨진 어병순(93)할머니의 딸 이부자(李富子·62·전북 남원시)씨가 어머니를 대신해 북측 언니 이신호(66)씨와 통한의 상봉을 했다. 또 한국전쟁 후 50여년 동안 수절해온 정귀업(鄭貴業·75·전남 영평군)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 임한언(74)씨와 감격적인 재회

를 했다.

남측 가족들은 단체 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최창식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 주최의 환영 만찬장에서 북측 가족들과 다시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남측 가족들은 27일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28일 설봉호 편으로 금강산 정전항에 도착해 해금강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남측 가족들은 29일 개별 상봉, 공동 중식, 삼일포 공동 참관을 한 뒤 30일 속초항으로 돌아온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엄마 대신 왔어요’

이틀전 세상을 떠난 모친 어병순씨(93) 대신 방북한 이부자씨(왼쪽)가 28일 오후 제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측 언니 신호씨를 부둥켜안고 통곡하고 있다. 금강산 / 사진공동취재단

# ‘반세기 이산恨’ 금강산에 풀다

## 4차 남측방문단 99명 北가족 상봉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방북한 이산가족 99명이 28일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183명과 반세기 만에 재회했다. 이번 이산상봉은 지난해 2월 3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행사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 관련기사 8·23면

남북 이산가족들은 방북 첫날 단체 상봉, 동석만찬 등 4시간의 만남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29일 개별상봉, 공동 중식, 삼일포 참관상봉 등 7시간, 30일 작별상봉 1시간 등 2박3일간 모두 6차례에 걸쳐 약 12시간 동안 재회의 감격을 나눈다.

이날 오후 5시30분쯤부터 금강산여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당초 방북단에 포함됐다가 지난 26일 숨진 어병순 할머니(93)의 딸 이부자씨(62)는 북측 언니 이신호씨(66)와 통한의 상봉을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에 이어 북측 단장인 최창식 북한 적십자중앙위 부위원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금강산에서의 첫밤을 보냈다.

이에 앞서 남측 가족은 27일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8일 설봉호편으로 금강산 장전항에 도착, 해금강호텔

에 여장을 풀었다. 장전항에는 북측 최창식 단장과 리금철 북적 중앙위원 등이 마중나왔다.

남측 단장인 대한적십자사 이세웅(李世雄) 부총재는 출발전 “이번 상봉이 남북 이산가족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교환과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으로 이어지고,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방북 이산가족 99명은 30일 금강산을 출발, 속초항으로 귀환한다.

이어 상봉단 2진 470명이 오는 5월1일부터 2박3일 동안 금강산을 방문한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얼마만이냐”

28일 오후 제4차 이산가족 상봉장소인 금강산여관에서 남측의 김애란(79·오른쪽)씨가 북에 거주하고 있는 여동생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사 31면) /금강산=연합

# 남북이산 14개월만에 상봉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28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재북 가족 186명과 감격적으로 만나 반세기를 넘긴 이산의 아픔을 달랬다. ★관련기사 39면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지난해 2월 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이후 14개월 만이며 단체상봉과 만찬으로 이어져 총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첫날 만남에 이어 29일에는 개별상봉, 공동중식, 삼일포 참관상봉 등 7시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작별상봉 1시간 등 2박3일간 모두 6차례에 걸쳐 상봉한다.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99명과 기자단 30명, 지원인원 51명으로 구성된 이산가족

방문단 181명은 30일 오후 속초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어 남측 이산가족상봉단 469명은 다음달 1일 속초항을 떠나 장진항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행사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과 만난 뒤 3일 속초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회한...기쁨...노물젖은 금강산

## • 4차 이산상봉 첫발 표정

곳곳이 울음바다였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28일 금강산어귀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50여년이라는 세월 끝에 극적으로 상봉한 남북의 가족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자"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시간이 그렇게 짧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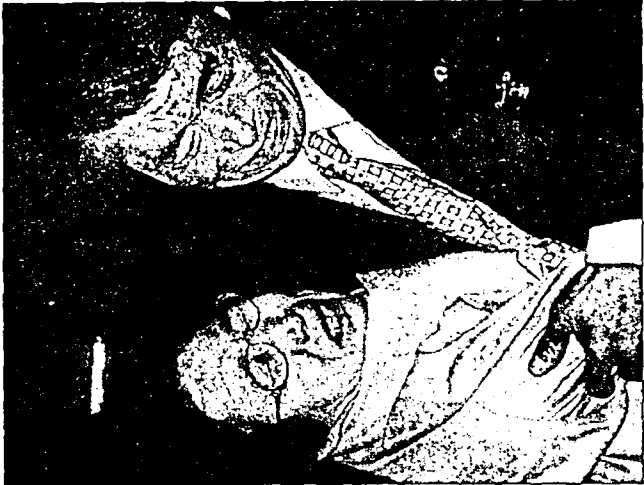
## 긴세월 어색함 털고 애기꽃 피워 남북남편 못본 언니 두동생이 위로 “형님 제사에 씨달라” 맹활 선물도

◇단체상봉 인원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금강산어귀 2층 홀에서 상봉한 이산가족들은 첫 눈에 피맺이듯 확인하고는 희한과 기쁨이 뒤섞여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어루만지며 세월을 원망했다. 긴 세월의 아픔도 잠시, 이들은 이내 살아온 얘기와 가족 얘기를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가족들 시집을 서로 보여주고 목소리를 녹음하기도 했다.

이산가족들은 2시간여의 단체상봉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 테이블에는 왕새우밥, 정종, 찜닭, 돈갈비, 비빔밥, 소고기, 인삼 등이 올라왔다. 단체상봉의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듯인지 만찬은 춤과 노래로 이어지며 자정 무렵까지 계속됐다.

북측 단장은 최창익 조선적십자 중앙회 부위원장은 남북 단장은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에게 정치적 항의할 하기도 했다. 최 단장은 “공동보도문 이후 (남북관계) 원상복구하기로 했는데 외교, 통상부 장관이 우리한테 자금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최근 위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최성룡(崔成龍) 장관을 문제삼았다. 남북 강경용 지원단장이 이 “미국 신문들의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최 단장은 “공관 직분에서 이야기할 땐 남북 당국을 대변하는 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인타까운 시연들=6·25때 헤어진 부인 이영희씨(73)와 아들 장근태(57)를 만난 김영진씨(82)는 재혼 사실을 밝히기 미안했는지 한동안 서변해 했다. 그러나 길씨는 곧 “미안해요, 모두 내 잘못이요. 지난 세월은 모두 용기로 합시다”라며 50여년동안 수절한 아내의 손을 꼭 부여잡았고 아내 이씨는 손수건으로 눈물만 적었다. 북측의 딸 현숙씨(58), 아들 석영씨(55)를 만난 김홍선씨(83)는



“오마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의 부총재(왼쪽)가 28일 일 금강산어귀에서 50여년 만에 만난 북측의 아들 최성룡씨를 깨우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금강산/연합



‘기쁜 날’ 28일 저녁 금강산어귀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공동 식민에서 남북 비정인씨(왼쪽)와 북측 가족들이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강산/연합

“6·25가 법받하기 전 혼자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며 자식들과 재회 아내에게 용서할 구했다. 김홍주씨(84)도 “재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반백년만에 만난 아들 정진씨(59)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되뇌었다. 김씨의 북측 아내와 2남2녀 중 정진씨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서 슬픔을 더했다.

67년 남북된 최연모씨(92)의 부인 김애란씨(79)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편 대신 동생 손실씨(67)와 덕실씨(58)를 만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김씨는 할아버지에게 “난 동생들 만나보라고는 생각 안했어, 날 알아보라”고 말했다며 두 동생의 이름을 아무것도, 동생들은 “우리 언니의 건강만 모స్త만 보면 돼요”라며 백발이 성성한 언니를 끌어안았다.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권지은씨(88·여)는 막내 이영민 이병희씨(62)의 손을 잡은 채 “모두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라고 되뇌었다. 47년 3남매를 데리고 왔지만서 너무 아팠던 병립씨만

“자리를 잡는 대로 데리러 오겠다”며 친가에 맡긴 게 마지막이었다는 권씨는 “57년을 하루같이 좌파강 속에 살아왔다”고 울먹였다. 변영희씨(61)는 형수 김문용씨(66)와 조카들을 만나 비너를 진답했다. 이 비너는 남쪽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변씨의 형을 만난 뒤 전하였고 고이 간직했던 것. 변씨는 “대할 것이라며 혼자 파나를 떠날 땐 형님이 돌아가시더니...”라고 흐느꼈고 비너를 전달받은 형수 김씨도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였다.

형수 변유상씨(69)와 조카 3명을 만난 류태준씨(64)는 별말 없이 할 말도 포진한 선물꾸러미를 건넸다. 류씨는 “14살 위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재사 때 쓰시라고 직접 농사지는 밭밭을 준비했다”며 “형님 묘지에 부러리고 고향 신산의 흙도 담아왔으니 통관규정상 반입할 수 없다고 해 둘째베더에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남편 박문희씨(75)와 함께 상봉신청을 했다가 남편은 팔아지고 시동생들을 대신 만난 여송숙씨(78)는 남편 박씨가 컴퓨터를 이용해 인체화면 편지를 건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이틀을 못기다리시고...” 통곡

• 상봉직전 숨진 어병순씨 北의 딸  
동생 이부자씨 어머니대신 방북  
'50년 기다림 헛되이...' 흐느껴

“엄마, 엄마는 어디 있어” “언니...”  
28일 오후 5시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여관. 이부자씨(61·여·전북 남원시)는 어머니를 예뻐하게 찾는 북측의 언니 이신호씨(66) 앞에서 말을 잊지 못했다. 반세기만에 언니를 만난 기쁨도 잠시, 부자씨는 북측 언니에게 어머니의 부고를 차고 읽힐 수 없었다. 병상에서도 “우리 신호 만나려면 며칠 낚았나”고 되물던 어머니 어병순씨(93)는 상봉을 이틀 앞둔 26일 끝내 세상을 등진 것이다. 머뭇거리며 동생의 의아하게 바라보던 신호씨는 부자씨가 꺼내든 어머니 영정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탁탁 주저앉고 말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왜 그랬어”, 신호씨는 50여년 만에 만난 어머니의 영정을 쓰다듬으면서 실음이 폭발한 듯 연신 가슴을 쳤다. “엄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언니 얘기를 꺼냈는지 몰라”

부자씨는 어머니 어씨가 매년 신호씨의 생일인 음력 7월7일만 되면 주인없는 생일상을 차려놓고 한숨짓곤 했다고 전했다. 한국전 당시 서울 서대문에서 여중생이던 신호씨는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의용군에 끌려갔다. 어씨는 “어떡하든 신호를 찾아야 했는데 ‘천추의 한’이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자책했다고 부자씨는 말했다. 4차에 가는데 둘째인 신호씨는 특히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늘 부모 마음을 졸이게 했던 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씨의 가슴 한켠에 한으로 남아있었다.

언씨가 4차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할 듯이 기뻐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둘째딸을 만난 날만큼 손꼽아 기다리던 어씨. 하지만 은명의 신은 아삭했다. 숙련이 갑자기 악화된 어씨는 상봉 10여일전 병원에 입원했고 먼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다. 어씨는 병상에서도 “곧 일어나 우리 신호를 봐야한다”며 허무하루 달력의 날짜를 지켜가면서 상봉일을 기다렸다. 부자씨는 이런 어머니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어씨는 상봉이 끝난 날내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다.

언니를 단다는 것이 어머니의 한을 푸는 길이라곤 빈소도 지키지 못한 채 금강산행 배에 탑승 앞둔 부자씨는 “이렇게 중 암이었으면 어머니의 유언이라도 받아두는 건데”라며 통곡하는 언니를 깨고도 한숨 흐느꼈다.

신호씨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온 세월이 50년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통곡했다.



52년을 수절한 북측의 아내 정귀업씨(왼쪽)가 28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남편 립한연씨와 재회하고 있다.

## ‘나와 헤어질때 애인 있었던것 아니냐’ 52년만에 굶어보는 바가지?

• 정귀업 할머니 남편에 주범

“그때(한국전쟁)부터 애인 있었던 것 아냐”

52년 만에 북측의 남편 립한연씨(74)를 만난 정귀업씨(75)는 다짜고짜 ‘바가지’부터 굶기 시작했다.

“재혼자가 못살아냐”고 “포문을 연 정씨는 “66살”이라는 대답을 듣자 “그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 아냐”는 질문을 덧붙이고 되풀이하며 남편을 굶여내 놓았다. 립씨는 정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것 없었어”라며 겸연쩍게 웃을 뿐이었다.

꽃다운 나이(19살·1944년)에 시집은 정씨는 6·25때 한양공대에 다니던 남편의 소식이 끊긴 이후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모시고 기둥 노릇을 떠안아야 했다. 그 사이 가세가 기울어는 바람에 눈 두 마지기과 영세민 카드가 지

금 정씨가 가진 전부. 정씨는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이 없어야. 꽃병석 깔아줘도 가지 않을 걸음 50년 넘게 혼자서 씩이휘이 걸어왔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정씨는 상봉직전이 TV로 생중계되던 딸전 아숙한 남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애인을 데리고 왔어”

“새아내도 한식구 잘 살아 주기를...”  
“애인 안두려고 했다”며 원망하던 정씨는 그러나 차츰 화를 누그러뜨리며 “(새로 결혼한) 여자가 억울하냐”고 오히려 남편 격정을 했다. 정씨는 “새아내도 한 식구고 북쪽에서 얻은 5남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나가 잘 살아달라고 전해달라”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남편과 같이 산 것은 1년도 채 안되지만 눈 자상하게 대해줘 고마웠다는 정씨는 “사랑스럽고 힘든 효역에서 과거에 산 사람 그늘에서 살고 싶어 여대정 사랑하고픈 내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 3시간동행 ‘삼일포관광’ ‘파격’

• 1~3차상봉때와 달라진 점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는 기본적으로 1~3차 이산상봉 때의 전례를 따르면서도 다소 모양새가 달라졌다.

우선 서울·평양 동시 교환행문이 아니라 금강산지역에서 두차례로 나뉘어 치러지는 순차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봉일정에 삼일포 참관상봉이라는 새로운 상봉형태가 등장하는 등 상봉횟수나 대면장소도 달라졌다.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참관하던 전례와 달리 3시간동행 함께 삼일포를 돌아볼 예정이다. 참

교환형식 아닌 순차방문  
상봉횟수도 6차례로 늘어

관상봉의 추가로 상봉횟수도 이전의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고 상봉시간도 10여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늘어 왔다. 대한적십자사 이병용(李炳鎭) 총재특보는 “상봉장소에 적당한 별면이 있는 만큼 상봉의 질과 시간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또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남측 중재자, 발전기, 위성 이동중계기(SNG) 등의 빈입을 허용함에 따라 이산가족 방문단 교

제4차 남북이산가족 교환행사 일정

구분	1차(4.28~30)	2차(5.1~3)
규모(명)	남99/북188	남470/북100
첫날	단체상봉 금강산여관	단체상봉 금강산여관
둘째날	개별상봉 금강산여관	개별상봉 금강산여관
셋째날	단체상봉 삼일포	단체상봉 삼일포

환행시로는 처음으로 북측 현지 상봉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1~3차 행일행사가 시간대별로 녹화방송됐던 것이다. 지금껏 금강산에서 치러진 각종 남북 교류·회담에 대해 상봉송이 이뤄진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측의 자세번화라 할 만하다.

또 4차 방문단 교환 1차 상봉 첫날인 28일은 단체상봉 장소가 금강산여관인 반면 2차 상봉 첫날인 다음달 1일 상봉장소는 온정각 휴게소다.

앞의 행사가 북측이 주최할 말은 평양행사에 해당한다던, 뒤쪽 행사는 남측이 주최할 말은 서울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 재혼남편에 애끊는 '바가지'

■ 52년 수절 전남 영광 정귀업할머니

“그 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 아뇨?”  
52년 만에 지아비를 만난 여인네는 무덤덤할 수 없었다. 그동안 홀로 살며 시조부모와 시부모까지 모셔온 정귀업(鄭貴業·75·전남 영광)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 임한연(74)씨를 만난 자리에서 그간의 쌓인 한을 풀듯 반세기 만에 ‘바가지’를 끊었다.

“재혼자가 몇 살이나.”고 포문을 연 정씨는 “행방불명 신고만 하고 사망신고도 안했다. 당신만 여기 와서 행복해 부렀다.”고 질편한 전라도 사투리로 속사포를 쏘아댔다.

그러나 끝내 아내의 마음은 남편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 여자 마음속은

고와요?”라는 물음에 남편 임씨가 “괜찮지.”라고 대답하자 정 할머니는 “나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돌아갈라요.”라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얼아홉 꽃다운 나이에 같은 영광 출신으로 유복한 집의 1남3녀 가운데 외아들이인 임씨와 결혼했다. 이후 남편은 목포고교를 졸업, 한양공대에 진학했으나 6·25전쟁이 터진 뒤 소식이 끊겼다. 이후 가세가 기울어는 바람에 눈 두 마지기과 영세민 카드로 모진 목숨을 이어왔다. 남편 임씨는 전쟁이 끝난 뒤 북쪽에서 대학을 나와 교편을 잡았고 재혼해 5남매를 뒀다.

## “언니는 꼭 어머니 같애”

■ 남북남편 대신 동생 만난 김애란할머니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야?” “김백련이예요.” “허허 맞구나, 너희들이 내 동생이구나.”

67년 남북된 풍복호의 선주 최원모(崔元模·92)씨의 부인 김애란(金愛蘭·79)씨는 반세기 만에 만난 여동생 손실(67)·덕실(58·이명 '뽕또')씨의 얼굴을 부여잡고 입맞춤을 했다. 최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동생들의 손을 쓰다듬으면서도 남편의 소식은 묻지 않았다. 이번 상봉 때 혹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북쪽으로부터는 ‘확인 불가’라는 대답만 받았다.

“언니는 기쁜 날 왜 눈물을 흘리?”

“내가 무슨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

어릴 때 ‘복동이’로 불리다가 ‘뽕또’라는 애칭까지 얻었다는 덕실씨는 “언니는 꼭 어머니 같애.”라며 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잡고 눈물 줄을 풀었다. 덕실씨는 연신 웃고름으로 언니의 눈을 닦아 주다가는 결국 자신의 눈물도 흘렸다.

말언니인 김애란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는 말에 동생들은 “언니 그저 건 강하게 오래 오래 살아야 돼요.”라고 언니의 배를 쓰다듬었다. 손자 얘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어났다.

● 금강산 공동취재단

이산자매 눈물로 만나던 날 어머니 한줌 재되어

# 상봉 사흘만 앞당겨어도...

## ■ 이신호·부자씨 안타까운 재회

"언니, 나 부자야." "그래, 얼굴 상처를 보니 부자가 맞구나."

저녁 노을이 외금강 온정리 서북쪽의 수정 물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한 28일 저녁 금강산 여관·남측 이부자(李富子·61·사진)씨는 반세 기 만에 만난 언니 신호(66)씨에게 상봉을 이 틀 앞둔 지난 28일 한 많은 세상을 뒤로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어머니 어병순(83·전북 남 원시 어영면)씨의 소식을 전하며 통곡했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남측 방문단 99 명중 최고령자였던 어씨는 한달 전부터 건강 이 급격히 나빠졌다. 어씨는 "건강해야 둘째 딸을 만났다."며 보약을 먹는 등 안간힘을 썼 지만, 10여일 전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도 하루 종일 "신호를 만날 날이 며칠 남았느냐."고 물으며 탈력의 날짜를 지 워갔다. 하지만 상봉일을 이틀 앞두고 끝내 돌 이오지 못할 길을 갔다.

제사할 모실 아들이 없는 어씨는 둘째·셋 째 딸이 금강산에서 반백년 만에 만나 통곡하 던 이남 한줌의 재로 인해 지리산 자락에 뿌려 졌다.

오후 5시27분쯤부터 시작된 단체상봉에서

"너라도 왔으

니 됐다. 그만

올라."며 동

생 부자씨를

달래던 신호

씨는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

니 얼굴을 퍼

올리며 살아

온 세월이 50

년인데 이렇

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무

슨 날벼락이

나."고 끝내

울음보를 터

뜨렸다. 부자씨는

"어머니가 저를 만나와 만

나게 해주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라고 애타

는 모정(母情)을 되새겼다.

## "그만 올이라 너라도 왔으니"

"며칠만이라도 일찍 상봉이 이뤄졌다면 ..."

신호씨는 동생과의 만남의 기쁨보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밤 한그릇 차려드리지 못했다.

는 아쉬움에 연신 고개를 저었다.

슬하에 네 딸만 둔 어찌가 신호(당시 15세)

씨와 생이별한 것은 50년 8월 초, 한양어중 2학

년이던 신호씨는 어느 날 "북한 의용군에 자

원입대했는데 지금 북으로 넘어가야 한다."

며 옷가지를 챙겨 떠났다. 부자씨는 "어머니

는 그때 인니를 붙잡지 못한 것이 '친추의 한'

이라고 하루에도 몇십번씩 가슴을 치며 후회

했다."고 전했다.

## "회장해 묘소 없다니" 가슴 처

신호씨는 태어날 때부터 목젓이 없어 목소

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젓도 제대로 빨지

못해 어머니가 유난히 안쓰러워한 딸이었다.

어머니 어씨는 해마다 신호씨의 생일인 음력

7월7일이면 주인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한숨

만 쉬었다.

"지나해라면 엄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던 신호씨는 화장을 해 어

머니 묘소도 없다는 동생의 설명에 더 이상 말

을 잊지 못했다.

분단이 빛은 병축한 현실을 체감하며 끝내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60대 늙은 자매의 머리

위로 수정봉의 밤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 금강산 공동취재단

# “꽃다웠던 당신이...” 끝내 눈시울

##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 첫날 이모저모

28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여관은 잠시 서머서머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으나 이내 여기저기에서 반세기 동안 이산의 한을 풀어내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 짝이 파인 주름만큼 쌓여온 갖가지 사연과 가족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주고받기에는 2시간의 상봉시간은 짧았다.

### 남편대신 시동생들 만나

○...“경필, 형필, 철규, 철규 네 사람이 같이 보이라. 소식도 못 듣고 만나지 못한 채 5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구나.”

여송주씨(78·서울 동작구 사당동)는 북의 시동생 경필씨가 남편(허창규·80)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몰고러미 쳐다보았다. 경필씨가 편지를 다 읽자 여씨는 “내가 울 자리가 아닌데...”라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남편 대신 자신이 온 사정을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 때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기회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따로 왔는데, 추첨 결과 남편은 떨어져고 여씨만 붙은 것이었다. 여씨가 “남편은 ‘나 대신 동생 열골 땅이 보고 와서 자세히 전달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하자 경필씨는 눈자위를 붉혔다.

○...“미안하오. 모두 내 잘못이오. 하지만 지난 세월은 모두 물어뜯시다...”

6·25전쟁 때 피란 내려와 가족과 생이별을 한 김영진씨(81)는, 아내 이영희씨(75)와 아들 장근씨를 만났지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헤어져 아들만을 바라보며 수절해온 아내의 손에는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했다. 아내는 “장근이에게 색시도 있고 애도 있어요”라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다.

김씨는 6·25전쟁 당시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평양 집을 떠나 고향인

평북 신천으로 향한 직후 미처 아내를 만나지 못한 채 부친과 함께 화를 타고 피란길에 올랐다. 길씨는 이후 남한에서 재혼했지만, 남쪽 부인은 6년 전 세상을 떠났다.

### 남북 남편 상봉 못해

○...67년 남북된 남편과의 상봉을 신청했지만 남편은 못 만나고 뒤살(67) 손실씨(58) 등 여성들만 만난 김혜란씨(79)는 동생들이 북한에 재 응호 발인을 하자 “왜 자꾸 조자 된 말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북측 가족들은 과거,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TV 카메라와 기자들을 상영히 의식하는 눈치였다. 북측 상봉자 대부분은 기자들이 다가갈 때마다 “장근남(김정일·순정미) 국방위원장을 지칭” 덕에 이렇게 만났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한 북측 상봉자는 “우리 장군님께 감사의 말을 하자”고 북측 가족에게 관유하기도 했다.

### 살 건네며 “체사에 써달라”

○...형수 변유실씨(69)와 조카 3



‘고향의 봄’ 합창

28일 저녁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공식만찬에서 남측의 변경희씨(왼쪽에서 두번째)와 북측 가족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명을 만난 류재춘씨(64·전남 장성군 삼서면)는 잘 포장한 쌀 두 되를 건넸다. 류씨는 “비록 지하에 계시지만 아유의 정성이 깃든 쌀로 제사밥을 받으시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관씨(81)는 50여년 동안 수절하며 자신을 기다려온 북한의 아내 윤음전씨(74)와 딸 순복씨(51)를 꼭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눈시울을 적셨다. 특히 운신을 못하는 아들을 시복씨(51)는 이날 상봉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안씨는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시복씨와 순복씨를 부모님에게 맡긴 채 서해 앞바다의 수니도로 아내 윤씨와 함께 피란했다가 혼자 월남해 반세기 만에 돌아와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된 안씨는 망설이다가 재혼한 남쪽 아내가 준비한 은색 한복을 윤씨에게 건네며 “새 가족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강산공동취재단

# “이틀만 더 사셨어도”

##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 이부자씨 어머니 대신 언니 만나 통곡

“어머니 왜 안 보여...”  
남에서 올랐던 이부자(李富子·61)씨는 어머니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북의 언니 신호씨(66)를 부둥켜안으며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이틀 지매의 어머니 어병순씨(93)는 이번 상봉의 방문단으로 선정됐으나 신호씨와의 상봉을 불과 이틀 앞둔 26일 세상을 떠났다. “언니, 어머니께서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50여년을 기다리셨는데...”  
어머니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신호씨는 부재를 부둥켜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신호씨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한 것은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 직후, 당시 서울 함양여중 3학년이던 신호씨는 잠시 학교에 다녀온다고 나갔다가 북한군에 끌려갔다.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해 복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컸도 잘 하지 못했던 둘째딸 신호씨를 언제나 인스름하게 생각했지만 50년 이 남도록 땅이 살아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호적에 이름을 남겨두었다. 또 신호씨 생일인 음력 7월 7일에는 해마다 주인 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지나해 10월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위한 남북 생사확인 작업에서 신호씨가 북쪽에 살아 있다 는 소식을 들은 이후 어머니는 매일 통곡에 표 시를 하고 “어떤 신물을 가져가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땅을 만나는 순간만을 꿈이었다.

언니를 만나는 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 는 가족의 권유에 비소도 자치지 못하고 남북 길에 올랐던 부자씨는 “이런 줄 알았으면 어머니의 유언이라도 받아두는 건데...”라며 허영없이 눈물을 흘렸다. 금강산공동방문단

## 52년만에 ‘바가지’

### “떠날때 애인 있었던 거 아니며?” 정귀임할머니 北재혼남편 만나

“북포서 떠날 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거 아니며?”  
정귀임씨(77·전남 영광군 영산면)는 28일 금강산여관에서 북편의 남편 임환연씨(76)를 만나 52년 만에 ‘바가지’를 끊었다. 정씨는 “재혼자가 뭐 상이야”라고 묻고 남 편이 “66세”라고 대답하자 “애인 안 데리고 왔잖아? 다짐해. 애인 데리고 왔으면 뉘어죽을 인간이라고 했어”라며 남편을 다그쳤다. 상 기운 부부싸움이 TV 카메라에 잡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쳐다보던 임씨는 연방 “아니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씨는 1944년 꽃다운 나이인 19세에 영광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이산가족 상봉을 이틀 앞두고 송진 어병순씨의 딸 이부자씨(오른쪽)가 북측의 언니 신호씨를 만나 부둥켜안고 있다.



“세월이 원망스러워요”

28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50여년 동안 수절해온 북측의 부인 정귀임씨(왼쪽)가 재혼한 북측의 남편 임환연씨를 만나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남편이 나올 자리인데...”

남북자 가족 김애란씨 여동생상봉



허연 서리가 내린 듯한 백발의 할머니 김애란(金愛蘭·79)씨는 50여년만에 여동생 손실(67). 덕실(58·이명 뽕또씨를 만났지만 말문을 험사리 열지 못했다.

1967년 사해 연평도 근해로 조 기잡이 나갔다가 선원들과 함께 납북된 남편 최인모(崔元模·92)씨는 온데 간데 없고 북쪽의 여동생들만 나왔기 때문이다.

한동안 알아듣지 못할 말을 웅얼거리던 김애란 할머니. 잠시 정신을 추스른 뒤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야?”라고 물었고 여동생들은 “김백련이에요”라고 답했다. 이 말에 “너희들이 내 동생이구나”라고 말문을 틈 김 할머니는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들의 손을 쓰다듬었다.

시택과 처가가 15리라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6·25전쟁이 터지자 한밤중에 몰래 이남으로 내려오면서 연락 한번 못한

것이 반세기 가 지났다. “언니는 이 기쁜날 왜 눈물을 흘려” “내가 무슨 눈물을 흘리고 해”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그동안 살아온 얘기와 아들 얘기와 손자 얘기로 끊이지를 않았다. 어릴

때 산팔기 가시에 눈을 찔러 실명한 둘째동생 손실씨는 “이 기쁜 날 울기는 왜 울어”라며 연방 웃고름으로 언니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자신의 눈물도 흘렸다. 북동으로 불리다 ‘뽕또’라는 아명을 얻었다는 막내동생 덕실씨는 “언니는 꼭 어머니 같아.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라며 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잡고 놓을

줄을 몰랐다. 김애란 할머니는 이 한마디에 “난 동생들은 생각 안했어. 만나 보리라고는 한번도 생각 안했어. 날 알아보니 고맙다”면서 두 동생들의 손을 연신 어루만졌다. 뒤늦게 허리병까지 얻어 거동조차 불편한 김애란 할머니는 그러나 이날 남편의 소식은 끝내 내 놓고 묻지 않았다.

그동안 이산가족 생사확인 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생사확인 불가능’이란 통보를 받아 사실상 죽은 줄로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에 대한 회한은 가슴에 묻어두고 싶었던 모양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기대안한 반백의 두 동생만 뜻밖 재회 “언니” “동생아” 손잡고 하염없이 눈물 北남편은 生死확인 불가- 가슴에 묻어



南北남매 “중구나 일수” 2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민찬에서 윤금철 할아버지가 식기도준 북의 여동생과 함께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금강산=사신공동취재단

## “엄마가 이틀만 더사셨다면...”

모친사망 이부자씨 代打방북

“언니. 나 부자야.” “그래 얼 굴 상처를 보니 부자가 맞구나.” 반세기 만에 만난 남측 이부자(李富子·61)씨와 북측 이신호(66)씨 자매는 50년 세월을 되돌리려는 듯 한동안 부둥켜안은 채 흐느꼈다. 언니를 만난 부자씨는 상봉 이틀 전인 지난 26일 세상을 뜬 어머니 어병순(93)씨가 더욱 가슴에 사무친 듯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신호씨는 “너라도 왔으니 됐다. 그만 읊어라”며 부자씨를 다독여줬다.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언니를 만난다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했던 부자씨는 “어머니가 저를 언니와 만나게 해주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라고 울먹이자 주위는 이내 속연해졌다.



이부자씨

말끝을 흐렸다. 부자씨는 어머니 어씨가 매년 신호씨의 생일인 음력 7월 7일만 되면 말 없이 주인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한숨 지었다고 전했다. 한국전 당시 서대문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신호씨는 하교 도중 의용군에 징병됐다. 신호씨는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전해듣고 한동안 앓았다. 부자씨도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의 유언이라도 받아두는 건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50년 수절아내 “재혼했나요”

정귀업씨, 남편에 ‘바가지’

“그때 애인 있었던 것 아요?” 정귀업(鄭貴業·75·전남 영광군 염산면) 할머니는 52년만에 다시 만난 지아비 임한인(74) 할아버지에게 한껏 ‘바가지’를 긁었다.

공부한답시고 서울에서 생활하다 6·25때 실종된 남편이 처음부터 애인을 숨겨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할머니의 분노였다. “재혼지가 몇살이나”고 ‘포문’을 연 할머니는 “66살”이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연신 쏘아댔다.

‘당혹스런’ 처지에 놓인 임 할아버지는 “그런 것 없었어”하며 겸연쩍게 웃어넘겼다.

꽃다운 나이인 19살(1944년)에 당시 촉망받던 한양공대생과 백

년가약을 맺은 어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 대신 시부모와 시조부모를 모시고 살아왔기에 당당했다. 실제 함께 산 기간은 1년 남짓했지만 할머니는 수절했다. 그러나 남편은 북에서 재혼해 5남매를 낳았다.

“밤잠 안자고 길썩하고 눈 두 마지기 농사로 시부모 모시고 한 평생 살았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 합시다. 지금 세상 같으면 재혼이라도 했을 텐데, 그땐 세월이 그랬어라유...” 할머니의 푸념이 계속됐다.

그래도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여자가 마음씨가 고우나, 악종은 아니냐”며 걱정을 한 뒤 “그 여자한테 어쨌든 건강하고 잘 살라고 하셔”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가족안고 오열... 상봉장 '눈물바다'



금강산상봉 첫날 표정

28일 금강산에서 열린 4차 이산가족 상봉은 50년 동안(痛恨)의 만남이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지난해 10월 '상봉활발'의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협유의 정을 나눴다.

○...대를 잊었다며 혼자 피난길을 떠난 한남이 돌아가시더니... 영수 김문룡(66세)과 조카들을 만난 변정의(61세)는 이날 한국전쟁 당시 대를 잇기 위해 중조 할아버지와 함께 북한으로 피난간 영남 대신 형수에게 비녀를 전달, 주위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 비녀는 남북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만나면 전달하려고 고이 간직해온 것. 이별받은 김씨도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임경수(86) 할아버지는 27일 오후 늦게까지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하다"며 방북을 포기할 뜻을 밝힌 한편적응 건강케 하기도 했다. 임씨

가 27일 오후 3시까지 속초에 가지 않아 한적히 뒤늦게 연락, 임씨를 속초로 실어내리는 소동을 벌였다.

임씨의 조카는 애초 "요즘이 농번기여서 삼촌을 모시고 금강산에 갈 사람도 없고 삼촌이 귀가 잘들리지 않는 등 몸이 불편하며 경비 10만원도 입금하지 못했다"며 임씨가 가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한적 관계자가 "가일의사만 있다면 비용을 걱정 말라"고 설득하자 마음을 바꿨던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이산가족 상봉은 입국

차 상봉 때와는 달리 '용성 사이'와 '용성 오미자 단물' 등 음료만 차려져 있었다.

이산가족들은 2시간여만인 오후 7시20분쯤 단체상봉을 마치고 오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만한 상봉을 가지면서 뜻깊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장인 한직 이세웅 부총재와 북측 단장인 최창식 조선직업자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단체상봉장인 금강산여관 1층 로비에서 10여분간 환담했다.

두 사람은 날씨가 주제로 덕담

## 한밤까지 만찬 상봉... 못다한 얘기꽃 北형수, 南시어머니 비너받고 눈시울 남-북단장 "이산문제 해결 함께 노력"

수속 과정이 늦어지고 당초 계획과 달리 상봉에 앞서 해금강호텔에 여정을 푸는 비라에 예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했다. 남측 방문단은 오후 5시25분쯤 상봉장소인 금강산여관에 도착, 북측 관계자들과 안내원들의 환대를 받았다.

테이블마다 따로따로 앉아 상봉 시간을 기다리던 북측 가족들은 남측 가족들이 보이기 전부터 눈물을 보였다. 읊음을 애써 참고 있던 이들도 남측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자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이날 이산가족들이 있는 테이블에는 미리 음식이 놓여있던 1~3

을 나눴지만 최 단장은 최근 최성훈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만찬사를 통해서도 이산문제를 언급했다. 이 부총재는 "면회소를 설치해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조용히 가족을 만나도록 남북 직접자가 노력하자"면서 면회소 설치,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을 거론했다.

최 부위원장은 "금방 상봉이 민족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북과 남이 단합과 통일외의 길에서 발걸음을 함께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회답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어모" 28일 금강산여관에서 50여년을 수절한 남측의 이산가족 정귀연(왼쪽)씨가 북측의 남편 임한연씨를 만나 손을 맞잡긴 했지만 원망스런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법



"아버지" 28일 휠체어를 타고 금강산을 찾은 남측의 김용주(오른쪽)씨가 북의 아들 김정선씨를 만나 기쁨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법

## "이산상봉 정례화 추진"

### 이세웅남측단장 인터뷰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방문단장인 대한직업자 이세웅(李世雄·63) 부총재는 28일 "북측 관계자들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례화·제도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장거리여행을 해야 하는데, ▲의료진을 대폭 보강하고 금강산 현지의 현대아산 의료진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폐속선과 헬기출 동원,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기간 중 북측 대표와 만나, ▲이산가족상봉이 정례화·제도화되고 장소에 구애 받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다.

—북측이 동행 참관을 허용하는 등 평양 상봉 때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일포 참관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차라도 함께 마시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했다. 점차 상봉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속초=공동취재단

## 北대표적 보건전문관료

### 최창식 북측단장 누군가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4차 이산가족 순

차방문의 북측 상봉단장을 맡은 최창식 조선직업자 회 중앙위 부위원장은 보건외교부 전문관료. 1990년부터 북한 보건성 부상(차관)을 맡고 있고 조선의 학협회 위원장, 조선반핵평화회의사업회 위원장 등 의료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99년 6월부터는 북측 부위원장직도 맡았지만 직 십지회 활동보다는 주로 보건성 부상으로 대외활동에 주력해 왔다. 98년 세계보건기구(WHO)·동남아시아 보건심의회에 참석했으며, 2000년 8월에는 보건성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비동맹 보건장관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최 부위원장은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 이후 세대 교체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최창식 단장의 임명은 북측에서도 이번 행사에 큰 의미 있다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언니" 28일 금강산여관에서 남측 조옥연(왼쪽)씨가 북의 동생 옥분씨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 /금강산=사신공동취재단

# “그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28일 시적한 금강산 4차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10월 북측의 방문단 교환 연기조치로 미뤄지다 극적으로 성사됐지만 이산가족들의 상봉 기쁨이 더 해보였다. 특히 남북 이산 가족들 사이에 두고운 부인·자녀와 상봉해 '질문'을 비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 상봉중인 금강산이산가족 나눔비디올을 만들었다. 한편 이날 상봉장에 나온 북측 직장식 단장(직식지원부 위원장)은 남북 단장인 이세웅 한자부총재에게 "최성훈(崔成勳)외교총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무라를 지극하는 중이 못한 발언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 해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남측이 "미국 신문들이 잘못 보도할 것"이라 고 해명하는 선에서 수습됐다.

## 남편 상봉 정귀영 할머니 52년 수절 한풀이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이 없어 라우. 꽃방석 깔아줘도 가지 앓을 길 을 50년 남게 혼자서 뛰어줘어 걸어 왔는다..."

북부의 자이비인 임현연(74)할아 버지를 52년 만에 만난 정귀영(鄭桂 英·75·전남 영광군)할머니는 재회 의 기쁨보다 수절(守節)의 설움부터 털어냈다. 남편이 재혼한 얘기를 들 고는 "그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이

삼라고 하셔"라고 말했다.

鄭 할머니는 19세 때 같은 영광 출 신인 임할아버지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다. 목포교를 졸업한 뒤 할양대 공대를 다니던 열일드였던 할아버지 는 한국전쟁 때 소식이 끊겼다.

이후 할머니는 시조부모와 시부모 를 모시고 살림을 떠맡았지만, 가세가 기울는 바람에 눈 두마지기(約) 영세민 카드로 살아야 했다.

## “집안 손 이어 고마워요”

### 반세기 세월 끝내 용서

“남편을 새처게 몰아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남편이 처음부 터 애인을 옮겨두고 있었던 게 아니 나는 것. 난처한 일장에 빠진 임할아 버지는 “그런 것 없었어”라며 할머니 의 손을 꼭 잡고 그거 탈랜 수밖에 없 었다.

상봉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던 만 건 한동안 한(恨)풀이를 하던 할머니 는 결국 남편을 용서했다. “(재혼한) 여자가 마음씨는 고우냐”고 각정을 한 뒤 “여지한테 어렸든 건강하고 잘



28일 금강산이산가족 상봉장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측 은금철씨(右)가 북측 동생 순영(左)·손녀씨(中)를 만나 긴박한 후 기쁘고 있다. 은금철=사단동동취재

## 정력 잃은 아버지 엉뚱한 대답에 망연

적시된 부인 후씨가 아들 가족의 소 식을 전해주자 할머니는 “아내가 앓을 을 데리고 내 고향인 평북 선천으로 간 사이 내가 피린하는 바람에 생이 밧을 했다”며 미안해 했다.

6·25 때 단신 잃남한 김종산 (83)씨는 북한에 두고 왔던 딸 현숙 (58), 아들 석영(55)씨를 만나자 “지년해 두차례나 상봉을 한다 못한 나 소풍을 겪어 상심이 컸다”며 심간 다 소풍을 가는다는 표정이었다. 딸 현숙 씨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아세 요. 어디 사셨는지는 아나구요”라며 다그치듯 물었다. 그러나 정력이 약 해진 손씨가 엉뚱한 대답만을 던질 라고 설명했다.

하자 아들·딸은 이별을 물려냈다. 여흥숙(78)할머니는 단체 상봉장 에서 풍속에 간직해온 편지를 꺼내 시동생과 조카들에게 건넸다. 남편 인 허창국(80)씨가 워드프로세서로 직접 작성한 편지였다.

許씨는 편지에서 “57년이란 긴 세 월이 흘렀구나. 인생이 너무 허무하 구나”라고 밝힌 뒤 “이 편지를 보는 즉시 북에 있는 가족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형수편에 보내주기 바란다” 고 적었다. 딸할머니는 “이산상봉 신청 결과 할아버지는 떨어져고 나 만 북어 편지를 대신 전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 안타까운 사연들

28일 금강산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을 이 없었다.

김영진(81)씨는 6·25 피란 때 생이별한 부인 이영희(75)씨와 아들 장근(55)씨를 상봉하고자도 한동안 서 막서막해 했다. 함께는 20대에 혼자 된 뒤 수절해온 아내와 만나지마자 “미안하오, 모두가 내 잘못이오. 하 지만 지난 세월은 모두 물기로 헹기 다”라며 손을 부여잡았다.

연신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 남북된 남편 소식 끝내 못 묻고...

여동생들 만난 김애란씨

“우리 동생들은 날 알아보는데 난 동생들을 몰라.” “틀림없는 동생들

희들이 내 동생이구나”라고 말문을 뜬 **김애란**씨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어릴 때 산딸기 가시에 눈을 찔려 실명한 둘째 동생 덕실씨는 “이 기쁜 날 울기는 왜 울어”라며 웃고름 주면서 같

우리 오래  
씨의 이 한  
동생들 생  
고는 한번도  
희생의 손을

정어 터지자 안밖중 틈에 이음—  
내려오면서 연락 한번 못해보고 반  
세기 동안 헤어져야 했다.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야.” “김백련  
이예요.” “허허 맞기는 맞는구나. 너

허리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애란**  
씨는 1967년 남북된 것으로 알려진  
남편 최원모씨 소식은 전혀 묻지 않  
았다.

## “네가 대신 왔니” 北 언니 통곡

이틀전 모친 숨진 이부자씨



“네가 대신 왔  
으면 됐다. 이  
제 그만 울어  
라.”

28일 오후  
5시 금강산  
여관. 반세기  
만에 만난 남

측 이부자(李富子·61·사진)씨와  
북측 이신호(66)씨 자매는 당초 방  
북단에 들어 있던 어머니 어병순  
(93)씨가 이틀 전 숨지는 바람에 통  
곡의 상봉을 해야 했다.

동생은 “어머니가 저를 언니와 만  
나게 해주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라  
고 눈시울을 붉혔고, 언니는 “그렇  
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무슨 날벼락

이나”며 울먹였다.

네 자매 가운데 **신호**씨는 태어날  
때부터 목젓이 없어 짓을 제대로 빨  
지 못해 어머니가 유난히 안쓰러워  
했던 둘째딸. 1950년 8월 당시 서  
울 서대문에서 한양여중에 다니던  
**신호**씨는 의용군에 자원입대해 가족  
과 영영 이별했다.

그뒤 어씨는 “**신호**를 데리고 피란  
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자책했다고 한  
다. 부자씨는 어머니가 “**신호**를 만  
날 날이 며칠 남았느냐”고 물을 때  
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며 거짓  
말을 했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그때  
마다 달려서 하루하루 날짜를 지  
워갔지만 상봉·이틀을 앞두고 한 땅  
은 세상을 뒤로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오마니” “우리 막내” 하염없이 눈물

## 이산가족 상봉하던날

28일 오후 북한 금강산역안 2층 회의장과 로베는 반세기 만에 혈육의 정을 나누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기쁨과 눈물로 가득했다. 아내의 수줍진 손을 붙잡고 눈시울을 붉히는 할아버지, 50년만에 만난 남편에게 '배가지'를 끓여 할머니, 환갑을 넘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어머니... 이들은 분단과 이별의 아픔을 눈물로 땀처럼 흘렸다.

◆ 부부상봉  
김영진(82)씨는 6·25전쟁 피난 때 생이별한 북한의 아내 이영희(74)씨와 다산실년 아들 창근(56)씨를 반세기 만에 만나고도 한동안 서먹서먹해 왔다. 김영씨는 "미안하오, 모두 내 잘못이오. 하지만 세월은 모두 묻기로 합시다"라며 50여년간 아들 하나만 키우면서 수절한 아내의 손을 꼭 부여잡았다. 아씨는 화환이 고치하는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50년간 수절해 온 정귀영(75)씨는 북한의 남편 임환연(74)씨를 만나자 "그 때(실종 당시)부터 애인 있었던 것 이녀"라며 농담부터 던졌다. 당혹한 임씨는 겸연쩍게 웃으며 "그런 것 없었어"란 말을 되풀이하자 정씨는 "새로 결혼한 여자가 마음씨는 고우냐? 어쩔면 건강하고 잘 살라고 하셔"라고 말했다.

정씨는 남편이 6·25때 실종된 뒤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세월을 떠올리기도 했다. "밤새 김밥하고는 두마지기, 농사로 시부모 모시고 한평생 살았제. 지금 세상 같으면 재혼이라도 했을텐데." 정씨는 기억이 참았던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



◇인망스러운 눈빛... 몇적은 미소 50여년을 수절하며 살아온 남북 부모단의 정국연(왼쪽)씨가 28일 오후 금강산역안 상봉장에서 북의 남편 임환연씨와 손을 맞잡고 있다. /조희산=사진공동취재단

## '다시오마' 기약 반세기... "여보 내가 죄인이오" 52년수절 아내, 北남편에 "제혼 아내와 잘 살길" 낫신 '남아버지'에 말문조차 막혀버린 '北아들'

다고 했다. 은(88) 할머니는 막내 아들 이병림(82)씨의 손목을 꼭 잡은 채 한동안 하고 연방 "미안하다"며 어깨를 쓸 아내였다. 안씨는 6·25전쟁 막바지 인 53년 함해도에서 서해 앞바다의 수니도로 아내 윤분희(75)씨와 피란을 나갔으나, 인민군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 당시 두살이던 아들 회복(53)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젊은 부자상봉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 부자(부녀) 모자상봉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워서 너무 고맙다. 못한 애미를 용서해 다오." 남북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권씨 사셨는지 아세요"라며 과거를 되새

## "52년이나 기다렸건만..." 방문 이틀 앞두고 숨져



### 어머니 어별순씨 대신 딸이 방북해 어머니 만나

상봉을 이틀 앞두고 지난 26일 숨진 어머니 어별순(94·전북 남원시)씨를 대신해 이산가족 방문 정을 찾은 이부자(李福子·61)씨는 북측의 어머니 이신호(66)씨를 만나고도 말을 잊지 못했다.

부자씨가 "어머니는 옛그제 돌아가셨다"고 털어놓자, 신호씨는 이미 이야기를 전해들은 듯 잠시 부자씨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부자씨는 "어머니가 나를 언니와 함께 해주려고 가신 것 같다"며 함께 울었다. 신호씨도 "작년에 만났으면 얼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동생을 붙잡고 소영했다. 부자씨와 신호씨는 즉석에서 부자씨가 가져온 영정과 건넨한 음식물을 방문 장 환원에 놓고 인사를 올렸다.

28년만 만난 어머니는 50년 8월 초 당시 서울 한양여중 2학년이던 둘째딸 신호씨와 헤어졌다. "학교에 갔다"며 나간 뒤 소식이 끊긴 것. 어씨는 작년 9월 4차 이산가족 방문단에 선정되고서야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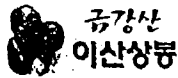
cgkim@chosun.com  
/조희산=공동취재단  
/조희산=공동취재단

했지만, 순실(67)·덕실(58) 두 여동생들은 "우리가 틀림없이 동생"이라며 어머니의 얼굴을 부여잡았다. 김영씨는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야 "아하(동생이) 맞기는 맞구나"라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다. 민세기씨도 50년 만에 만난 딸과 어머니의 정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자랑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겼지만, 영동한 대담만 해 친숙씨와 아들 석영(56)씨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 남북 남편 대신 동생 상봉  
지난 67년 남북남 남편(최원모)을 온 김애란(79)씨는 이날 북한의 여동생들을 만났지만 분위기를 의식한 듯 끝내 남편 소식을 묻지 못했다. 김씨는 처음엔 "동생들은 날 알아 보는데, 난 동생을 모르겠어"라고

# 울다 웃다 50년 막힌 핏줄 터



## ■ 첫날 표정

28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여관 2층 단체상봉장은 볼록이나 눈썹보다는 반세기전의 벽을 뛰어넘어 함양의 경을 느끼려는 남북 이산가족의 애타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 보이기까지 했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 많은 만남은 때로는 큰 눈물과 흐느낌으로 터져 나왔고, 한쪽에서는 서로 살아 있음을 고맙게 여기며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이야기는 남과 북에 헤어져 지내온 가족의 소식을 소상히 묻고 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998년 11월 이후 3년 넘게 남쪽의 수많은 관광객이 오갔던 금강산에선 그렇게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다.

◇67년 납북된 풍복호 선원이던 최원모(92)씨의 부인 김애란(80) 할머니는 남편 대신 반세기 만에 만난 여동생 손실(67), 덕실(58)씨를 잘 못 알아보았다 것이 미안한지 눈물을 흘렸다. "너희를 아버지가 누구야?", "김백련이에요." 김씨는 이 말에 "허허 맞기는 맞구나. 너희들이 내 동생이구나."라고 말문을 텀다. 어릴 때 '복동'이로 불리다 '포도'라는 아명을 얻었다는



28일 오후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여관에서 반세기만에 얼굴을 맞댄 이산가족들이 그동안 못내 가슴 속에만 머물렀던 얘기를 나누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시동생에게 남편 애타는 편지 건네 "너 맞구나" 애기꽃 '단절의 강' 넘실

막내동생 덕실씨는 "언니는 꼭 어머니 같애"라며 언니의 주름진 손을 마주잡고 눈을 흘을 물었다. ◇여승주(78), 할머니는 딸리는 쪽으로 뿔속에서 갖이 간직한 편지를 제네 시동생과 조카들에게 건넸다. 할머니인 허정국(80)씨가 북쪽 가족들에게 쓴 편지였다. "경민, 정민, 철규, 홍규 네 사람 잡아 보아라. 소식도 못 듣고 만나

지 못한 57년의 긴 세월이 흘렀구나...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여씨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할 때,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기회가 두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따로 했는데, 남편은 떨어져서 받았다고 형답이 못 온 이유를 설명했다. 북의 동생 정민(68)씨는 "형님을 못 만나, 섭섭하지만 가족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남쪽 이산가족 상봉단장인 이세용 대안직접지사 부총재와 북쪽 단장인 최창식 조선적십자회 중앙회 부위원장은 금강산여관 1층 로비에서 1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그러나 덕담 중에 북의 최 단장은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북쪽을 자극하는, 좋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워싱턴포스트》에서 최 장관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소개된 것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날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과 만찬을 통해 네 시간 남짓 반세기 동안 헤어져 지내온

아픈 사연을 녹여냈다. 낮 12시12분 상봉호를 타고 속초항을 떠난 남쪽 방문단은 오후 3시38분 금강산 금자라 장전항에 도착했다. 단체상봉은 두 시간쯤 지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금강산여관 2층 로비와 식당에서 1시간30분 남짓 진행됐다. 반세기 세월의 벽을 녹이는 어색한 안부 물기와 율음, 웃음... 흥분음 가라앉히기 위한 두 시간 가량의 휴식 뒤에 밤 9시25분에 만찬이 시작됐다. 단체상봉의 첫 단남 때보다는 부드럽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단찬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금강산/공동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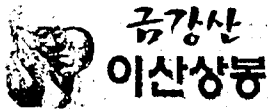


반세기만의 이야기꽃 "이 기쁜날 읊기는 왜 읊어." "아버지 읊지 마시러요" 28일 오후 금강산 여관에서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결려져 회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북찬양 노래' 듣는 남측가족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첫 공식 만찬이 열린 28일 저녁 북측 가족들이 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자 남측 가족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듣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 “미안하구려...내가 죄인시오”



증강산  
이산상봉

8순 길영진·안용관씨, 생이별 반세기만에 북녘 아내 만나  
김홍주·권지은씨, 초로의 아들 손잡고 한없는 눈물만

## ■ 갖가지 상봉 사연들

“살아 있으니 이렇게 만나지 않소? 미안하구려.” “아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온갖 풍파를 다 헤쳐온 노인들이건만 반세기 만에 마주한 북쪽의 아내와 아들 딸들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다.

길영진(82)씨는 28일 금강산역 관 단채상봉장에서 한국전쟁 때 헤어진 북쪽의 부인 이영희(73)씨와 아들 창근(57)씨를 만났다. 길씨는 “잠깐 피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50년 동안 생이별이 되고 말았어”라며 말을 흐렸다. 길씨는 남쪽에서 재혼을 해 5남매를 두었지만, 북녘의 부인 이씨는 아들 창근씨만을 키우며 평생을 수절했다고 한다. 부인 이씨는 남편이 원망스러운지 때론 꾸짖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손자·손녀 등 창근씨 일가족의 근황을 조곤조곤 들려줬다.

안용관(81)씨도 “미안하다”는 말로, 북쪽의 아내 윤분희(74)씨와 딸 순복(51)씨에게 반세기만의 안부를 건넸다. 안씨는 기쁨과 슬픔이 묘하게 얽힌 미소를 지으며 넋두리하듯 말을 뱉었다. “끝내 못 보나 했는데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곤 “남쪽 가족들이 미련해준 건데...”라며 은색 공단 한복을 분희씨에게 건넸다. 평생 수절했다는 북녘의 부인이 딸없이 눈물



내 아들이 28일 오후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단의 일원으로 월계어를 타고 금강산을 찾은 김홍주(오른쪽)씨가 북쪽 아들 정신씨를 만나 반세기만의 상봉의 기쁨에 흐르는 눈물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있다. 금강산/연합

만 흘리지자. 안씨는 “나도 5년 동안은 살림을 차리지 않았어”라며 남쪽에서 재혼한 게 미안한지,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김홍주(84)씨는 무심한 세월을 덧하면서도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며 긴 사과의 말을 늘어놓았다. 한국전쟁 때 길씨가 월남한 뒤 북쪽에 남은 부인과 자식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9살이던 둘째 아들 정신(59)씨만이 아버지에게 집을 하듯 바다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아버지는 연방 눈을 흘겼다.

북쪽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

씨는 월남 뒤에도 교편을 잡았고 김필년(79)씨를 만나 3남1녀를 두었다. 그는 남쪽에 온 뒤 북쪽 가족을 찾겠다는 생각은 접었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왔다’는 죄책감까지 떨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전립선이 좋지 않아 휠체어에 의지해 반세기 만에 만난 아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금강산 상봉 길에 오르며 혹시 몰라 가져귀를 찬 사실은 끝내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못한 애미를 용서해다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권지은(88)씨는 꿈에도 잊지 못하던 북

쪽의 아들 이병립(62)씨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평남 강서군 누산면에 살던 권씨는 1947년 5월 남편 이석주(36년 전 사망)씨가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해 11월 아이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막내동이 병립씨만은 너무 어려 “자리를 잡는 대로 데려가겠다”며 고향 어른들께 맡겨두었다. “그게 반세기 동안의 생이별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 약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권씨는 병립씨의 온몸을 쓰다듬으며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수절 할머니 52년만의 ‘바가지’

정귀업 할머니, 북녘 지아비 ‘재혼’ 캐물어  
“혼자나” 남편 물음에 “시어머니두고 어떻게...”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50년 넘게 헤어져 지냈건만 두 노인의 사랑은 애뜻했다.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은 없어라유. 꽃방석 깔아줘도 가지 않을 길을 혼자서 휘어획이 걸어 왔는데 ...” 정귀업(75)씨는 북녘

의 지아비 립한연(74)씨를 만나자 52년간 가슴 속에 묻어뒀던 의심을 내보이며 한껏 ‘바가지’를 긁었다.

“그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 아뇨?” 립씨가 처음부터 애인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고향이 갈

던 둘은 1944년 결혼했고, 립씨는 서울 한양공대에 다니다 한국전쟁이 터진 뒤 소식이 끊겼다.

“재혼자가 낫살이나”며 ‘포문’을 연 정씨는 ‘66살’이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을 몇번이고 되풀이했다. 상봉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던날엔 궁금증을 풀어줘야겠다고 작심한 듯했다.

당혹스런 처지에 몰린 립씨는 아

직 말끝에 묻어나는 호남 사투리로 “그런 것 없었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겁연쩍게 웃었다. 정씨는 그제서야 ‘안심’ 한 듯 딸머리를 돌렸다. “(새로 결혼한) 여자가 마음씨는 고우냐?”고 걱정을 한 뒤, “그 여자한테 어쨌든 간강하고 잘 살라고 하셔”라고 애정 어린 말을 건넸다. 그러곤 ‘새 아내도 한 식우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 북쪽에서 얻은 5남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 다함’이라고 립씨를 위로했다. 립씨가 “지금껏 혼자 살아왔냐”고 묻자, 정씨는 “불쌍한 시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다른 집에 가느냐”고 되물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최고령’ 어병순씨 영정 상봉



“어머니, 어머니...” 이를 전 숨을 거둔 어머니 어병순씨 대신 상봉행사에 참가한 이부자(왼쪽)씨가 28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 4차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북쪽 언니 신호씨를 만난 북반치는 설움에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이들만 더 사셨어도...” 두딸 부둥켜안고 통곡

## 금강산 이산상봉

“언니, 나 부자야.” “그래 월급 상 처를 보니 부자가 맞구나.”

28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여관. 어머니 어병순(93)씨 대신 4차 이산가족 방문단으로 금강산에 온 이부자(62·사진)씨는 북쪽의 언니 신호(67)씨를 만나 50년 세월을 되돌리려는 듯 한동안 부둥켜안고 있었다.

자매임을 확인한 둘은 이내 흐느꼈다. 신호씨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머니 어씨가 상봉 이틀 전인 26일 오전 11시 지병 악화로 끝내 숨을 거뒀기 때문이다.

### 만류 뿌리치고 의용군 입대

부자씨는 탈진 상태에 빠졌다가 언니가 건넨 물 한잔을 마시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이들만 더 살아가셨어도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유언이라도 받아두는 건데...” 부자씨가 말을 끝맺지 못했다. “너라도 왔으니 됐다. 그만 울어라.” 신호씨가 부자씨를 다독였다. 신호씨의 아들 최정섭(31)

씨도 “할머니가 못 오셔서 안타깝지만 기쁜 날이니 울지 마세요”라며 먼 남쪽에서 온 이모를 달랬다.

동생 부자씨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자 이번엔 신호씨가 아쉬움을 토해냈다. “지난해에 만났으면 엄마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신호씨는 어머니, 어씨의 사랑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앓아누웠다고 했다.

### 주인없는 생일밥상 ‘한숨’

이번엔 부자씨가 언니를 달래려 했다. “엄마가 하루에도 몇번씩 언니 얘기를 꺼냈는지 몰라. 엄마가 나를 언니와 만나게 해주려고 먼저 가신 것 같아.”

그러나 신호씨의 자책은 안으로 깊어가는 듯했다. 신호씨가 가족과 헤어진 때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 9월. 당시 한양여중 2학년생이던 신호씨는 ‘북한 의용군에 자원 입대했기 때문에 북으로 가야 한다’며 옷가지들 챙겨들고 떠난 것이다.

어머니 어씨는 해마다 신호씨의 생일인 음력 7월7일이 되면 밥없이 주인 없는 밥상을 차려놓고 한숨을 짓곤 했다. 신호씨는 태어날 때부터 목젓이 없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젓도 잘 씹지 못해 어렸을

때부터 어씨가 유난히 애달파 했던 딸이었다.

어씨는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건강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졌어야 할 상봉이 자꾸만 늦춰졌지만 굴하지 않았다. 딸을 만나려면 건강해야 한다며 병원을 찾아 영양제를 맞고 보약도 지어 먹었다. 그러다 한달 전 쯤부터 갑자기 거동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약해졌고, 25일엔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건강 상태가 나빠 상봉이 어렵다’는 통보통 받기도 했다.

### “지난해 10월 만났더라도...”

전쟁 중에 남편까지 잃은 뒤 전북 남원으로 내려가 혼자서 자녀들을 기른 어씨는 그렇게 한 달은 생애 마침표를 찍었다. 가족들은 긴급히 머리를 맞댔고, 반세기 넘게 북쪽에 갇혀 기다리다 눈을 감은 어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상봉 행사에 대신 참가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한적쪽은 원칙대로라면 다른 이산가족 후보자를 보내야 하지만, 어씨의 안타까운 사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셋째딸인 부자씨의 금강산행을 허용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내가 죄인...” 한숨·회한

## “이산상봉 정례화 추진”

### ■ 이세웅 방북단장 인터뷰

남측 방문단장인 대한적십자사 이세웅(李世雄·63·사진) 부총재는 28일 오전 속초항을 출발하기에 앞서 “북측 대표들을 만나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제도화·정례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장거리행을 해야 하는데, 의료진을 보강했고 금강산 현지의 현대아산 의료진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 휠체어가 필요하면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피속신과 합기팀 동원해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다.

●북측 대표와 따로 만나는 일정이 있다.



나 있다. 이때 상봉행사의 제도화·정례화한 재의할 것이다. 상봉을 하루 앞두고 숨진 어병순 할머니의 사

례를 감안할 때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상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북측이 동점철관 등을 허용하는 등 중점보다 유익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삼일포에서 차를 함께 마시며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상봉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 이산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에서 처음 이뤄진 이번 제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눈물겨운 사연들이 흘러 넘쳤다. 반세기 만에 만난 부부와 부모·자식 등은 한숨과 회한으로 점철된 지난 세월의 아픔을 눈물로 씻어냈다.

### ■ 부부상봉

●6·25때 부인 이영희(73)씨와 다섯살배기 아들(창근·57)을 두고 평양을 떠나온 김영진(金永鎭·82)씨는 백발의 부인과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여보, 내가 죄인이구려, 죄인.”이라며 어쩔줄 몰라 했다. 평양의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당시 북측의 토지국유화 조치로 땅을 빼앗긴 데다 전쟁이 나서 “곧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화물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몸을 피했다.

### ■ 아내 손 부여잡고 눈물만

월남 후 저혼한 김씨는 “나도 없는데 창근아! 이만큼 키웠으니... 할 말이 없소.”라며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렸다.

●안용관(安龍官·81·경기도 안산시 사동)씨도 반세기 만에 만난 아내와 팔을 마주하고는 “그 고향 피부에 주름이 많이 패었구려.”라며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 없이 딸과 아들을 키운 아내와 아버지 없이 힘든 생활을 견뎌온 딸에게 연신 “미안하다.”며 어쩔줄 몰라 했다.



안씨는 전쟁 막바지인 53년 인민군을 피해 황해도에서 서해 앞바다의 수니도로 아내 윤반희(75)씨와 함께 피란했다. 당시 두 살이던 아들 희복(53)과 100일도 안돼 이혼조차 없던 딸(안복순·51)은 부모에게 맡기고 울먹울먹 피란생활을 했다. 그러나 인민군이 갑자기 섬으로 틀어막는 바람에 아내와도 생이별을 한 지 50년이 지났다. 아들은 건강이 나빠 금강산에 오지 못했다.

### ■ 부모·자식 상봉

●“팔손이 미안하다.” 51년 만에 딸(55)을 만난 오정동(吳鼎東·61)씨는 북반측은 감정에 말을 잊지 못했다.

오씨는 어느덧 주름이 가득한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헤어질 당시 세 살배기의 전상을 찾으려 애썼다. “고모를 많이 닮았구나. 아나아 할아버지 잘 닮았어.”라고 혼자 되뇌이기를 여러번하다 끝내 끌어안고 울었다.

황해도 웅진에 고향인 오씨는 51년 1·4후퇴 때 동생 판동씨가 국군으로 합전해 전시하자 인민군의 보복

이 두려워 아반도주했다. “머칠만 숨어있다 돌아올 생각으로 네 어머니와 너를 두고 떠났는데...”라며 울먹이던 오씨는 “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는 딸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 “이제 죽어도 여한 없어”

●남측 가족 가운데 최고령인 권지은(權志恩·88) 할머니는 막내 아들 이병립(62)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삼이있어 고맙다.”는 말만 되뇌었다.

47년 5월 먼저 남쪽으로 간 남편 이석주(36년전 사망)씨를 찾아 3남매를 데리고 서울로 온 권 할머니는 “너무 어려 나중엔 데리고 올 생각으로 두고 온 일삼살짜리 막내 아들이 눈에 밝혀 57년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다.”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 이씨도 노모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을 잊지 못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엄마, 이틀만 더 사시지...”

### ■ 이돌전 범세 어머니대신 訪北 이부자씨

“작년에 만났으면 엄마 봤을텐데...”

北언니 부둥켜안은채 통한의 눈물

“예정대로 작년에 만났으면 엄마를 볼 수 있었는데...”

28일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반세기 만에 얼굴을 마주한 남측 동생 이부자(李富子·61)씨와 북측 언니 신희(66)씨 지대. 가슴에 고이 물어놓았던 팔을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어머니 어병순(93)씨의 피맺힌 한을 부자씨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채 눈물만 떨구었다. 이미 북에서 어머니 사망소식을 듣고 심하게 앓았던 신희씨도 말문을 잇은 채 뿔뿔했다.

상봉 예정자 중 남측 최고령자였던 언니가 전북 남원시 이영면 자택

에서 숨을 거둔 것은 26일 오전. 상봉 이틀전 이었다. 지난해 9월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된 후 죽은 줄만 알았던 신희씨의 소식을 전해 들은 언니는 기력을 찾기 위해 보약을 지어먹고 영양제주사까지 맞았지만 끝내 한을 풀지 못했다. “어머니가 저를 언니와 만나게 해주시려고 먼저 가신 것 같아요” 부자씨가 간신히 말을 꺼내자 신희씨는 “너라도 왔으니 됐다”며 다독였다.

“엄마가 하루에도 몇번 씩이나 언니 얘기를 꺼냈는지 몰라.” 부자씨는 어머니가 신희씨 생일날이면 밥

상을 차려놓고 한숨 짓곤 했다고 전했다. 4남매 가운데 둘째인 신희씨는 태어날 때부터 북쪽이 없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잦은 재

대로 말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한국전 당시 서울 한양여중(2년)을 다니던 신희씨가 귀가중 간호원으로 의용군에 끌려가 어씨의 한을 더욱 키웠다.

“어머니의 유언이라도 받아두는 건데...” 언니를 만나는 것이 효도는 길이라는 가족의 권유로 빈소도 지키지 못한 채 금강산행 배에 몸을 실었던 부자씨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가족들의 승려를 어머니 대신 전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28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이부자(왼쪽)씨와 북측의 언니 신희씨를 일싸안으며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사전공동취재단





▲2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윤금철(왼쪽에서 세번째)씨가 식사도중 북측 여동생들과 어울려 흥겹게 어깨춤을 추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1967년 남북한 풍속호 신원 최원모씨 부인 김애란(오른쪽) 할머니가 28일 오후 진흥 때 해어진 북측의 여동생들을 만나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막둥아... 정말 네가 맞냐” 목메인 母情

## ■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이모저모

28일 4차 이산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여관 2층 상봉장은 울음 바다로 변했다. 지척에 두고도 50여년 만에 극적으로 만난 이산 가족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자는 다짐으로 회한을 달았다.

### “진짜 내 동생이구나” 연신 눈물

○1967년 북측으로 간 남북어부 최원모씨의 아내 김애란(金愛蘭·79)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여동생 손실(67), 덕실(58·이명 현모)씨를 만난 감격으로 남편의 소식을 자세히 묻지도 못했다. 북측은 상봉전 남편 최씨가 생사불명이라고 생사 확인 결과를 전해 왔다.

애란씨는 “동생들은 날 알아 보는데 난 동생들을 몰라”라고 말하자 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결코 믿음이 동생”이라고 말했다. 언니는 대답을 들어도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냐”고 몇번이고 물고는 확인이 되지 “너희들이 내 동생이구나”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어릴 때 북동으로 불려다 뱀꼬리는 이명을 얻었다는 덕실씨는 “언니는 꼭엄마같다”며 언니의 주름진 손을 놓지 못했다.

### 남편대신 시동생 만나

○여송숙(78) 할머니는 남편 허창극씨가 쓴 편지를 북측의 시동생 조커들에게 전하고는 할 일을 다했다는 용가분한 표정이었다. 허씨는 편지집 통해 서울 아버지의 사랑 소식을 전하고 북측 가족의 사연을 자세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여씨는 “상봉을 신청할 때 부부가 신청하면 기회가 2배로 늘어 난다고 해서 따로 신청했는데 추첨 결과 할머니는 떨어져서 나만 붙었지. 나야 시동생을 보는 것이고 남편은 동생을 보는 것이라 이차로 따지려면 남편이 가는 게

백번 나았지. 한적에 내 대신 남편을 보내 달라고 사정했지만 이미 북한에 병당이 홍보되어 안 된다고 허더라구”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시동생 허형필(68)씨는 “형남을 못 만나 섭섭하지만 형수님을 만나 가족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 수절 아내에 “내가 죄인이구려”

○“여보, 내가 죄인이구려 죄인” 반세기 동안 수절한 북의 아내 이영희(73)씨에게 남편 김영진(金永鎭·82)씨는 할말을 잃었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상봉장에 온 창근(57)씨를 보면서 “고생했구려. 창근이름 이만큼 키웠으니 할말이 없구려”라고 말했다. 부인은 “창근이는 색시도 있고 애도 있어요”라며 화제를 돌리고 남편을 위로했다.

### 육순아들 보듬으며 “내 잘못이다”

○“아들이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구나. 못난 예미집 용서해다오” 남측 상봉단장 최고령자인 권지은(權志恩·83) 할머니는 막내 아들 이병립(62)씨의 얼굴을 연신 만지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잊지 못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막내들이만큼 친가에 맡겨둔 후 월남한 권씨는 “다 내 잘못이아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 南北단장 ‘催외교 발언’ 설전

○단체 상봉 도중 북측 이세웅 상봉단장과

원담을 나누던 북측 최정식 상봉단장은 최근의 최성훈(崔成勳) 외교부장관 발언에 대해 가사 돌린 말을 했다. 그는 “6·15 공동선언과 4·6 공동보도문 이후 서로 협력은 강화해 (남북관계를) 완성해가려고 돼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우리쪽 자극하는 좋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될 유도했다는 요지의 회장관 발언을 실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언급했다.

이에 남측 김 단장은 “미국 신문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최 단장은 “정관 직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남측 당국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수절 할때니 恨풀이 바가지” “옛날 애인과 재혼한 것 아니냐”  
 “남편한테 추궁” “잘 살라” 덕담도

2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윤금철(왼쪽에서 세번째)씨가 식사도중 북측 여동생들과 어울려 흥겹게 어깨춤을 추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1967년 남북한 풍속호 신원 최원모씨 부인 김애란(오른쪽) 할머니가 28일 오후 진흥 때 해어진 북측의 여동생들을 만나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제1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 이틀만 더 사셨더라면... 어머니 영정 품고 통곡

금강산=공동취재단

남측 이산가족 99명과 북측 가족 180여 명이 28일 금강산에서 반세기 만에 가족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해 2월 제3차 평양-서울 교차방문 이후 14개월 만에 이뤄진 데다 지난해 10월 성사 직전에 무산된 후 성사돼 행사장은 울음바다를 빙둘렀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는 합초 방앗단 에 포함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27일 숨진 어범순 할머니(93)의 딸 일부 자 씨(62·전북 남원시 이영면 성리)의 상봉을 했다.

어머니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려 온 어머니 신희 씨는 동생 부자 씨가 가져온 어머니 영정을 부여안고 통

곡했다. 부자 씨는 "어머니가 저를 만나와 만나게 해주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라는 말에 주위는 이내 숙연해졌다. 앞서 남측 가족은 27일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8일 설봉호 편으로 금강산 정전행에 도착했다.

남측 가족들은 광복 이합제인 29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삼일포 공중잔반 등으로 북측 가족과 세 차례 만남을 갖고 30일 개별상봉을 끝

## 상봉추첨서 떨어진

## 박수길 음대교수

## 금강산서 회한의 노래

로 귀환할 예정이다. O...여송죽 할머니(78·서울 동작구 시당동)는 28일 단체상봉장에서 팀 리는 손으로 품속에 고이 간직한 편지를 꺼내 시동생과 조카들에게 건넸다. 남편인 하정극 할머니(80)가 워드프로세서로 직접 찍어 인쇄한 편지였다.

경민, 형민, 철규, 총규 네 사람이 같이 보라, 소식도 못 들고 만나 지 못한 5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구나... 인생이 너무 허무구나. 여동생 언순이와 손란이, 그리고 손자 소식도 알고 싶구나...이 편지를 보시는 즉시 복여 있는 가족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형수 편에 보내주시 바랍니다...2002년 4월 27일 형 허창규, 허 할머니는 편지에다 고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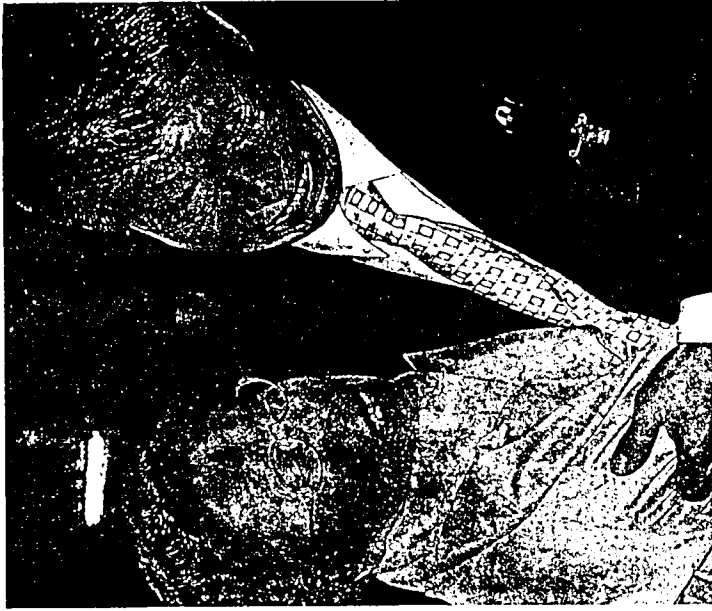
부, 증조부, 조부모, 부모 등 가계도와 생년월일을 적어 집안의 뿌리를 자세히 설명해줬다. O... "어보, 내가 죄인이구려. 죄인 영희 씨(73)와 다섯살배기 아들 강근 씨(57)를 두고 평양을 떠나온 길에 죽은 할머니(81)는 부인과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다."

원만한 추남쪽에서 재혼한 김영진 할머니는 부인 영희 씨의 영골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세월의 흔적이 스며들고 있는 손에 이끌려 눈물 흘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인 영희 씨는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듯 "장근 이도 왜지도 있고 예도

있어요"라고 말을 시작했다. O...28일 만찬상봉장에서 눈물의 속삭임 부를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 단장(61·현역 음대교수)은 "가족들을 만나 분들이 너무 부러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낙방한 박 교수는 가족들, 부모의 품이 물간단간 닳았으나 이산가족들을 위한 '가수' 요원으로 차출돼 금강산에 왔었다.

간 박 교수의 고향은 금강산에서 2시간 남쪽 거리의 횡남 마을. 1950년 10월 흥남철수 때 외가에 의탁돼 10세의 어린 나이에 단신으로 월남한 박 교수는 50년여의 세월 동안 합초여 할머니는 87세 노모와 5남매를 잇는 적이 없다.



오머니... 금강산여관을 찾은 남측 박순복 씨(왼쪽)와 50여 년 만에 만난 아들 최정식 씨가 오열을 터뜨리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 남편민남정귀할머니의 52년 미운정

## "그때부터 애인 있었던 것 아뇨"

"그때부터 애인 있었던 것 아뇨?" 정귀할머니(75·전남 영광군)는 28일 저녁 금강산여관에서 북녘의 지어비인 럽할머니(74)를 만난 52년 동안 마음 속에 묻어왔던 의심을 내보이며 한껏 바깥까지 털었다. 정 할머니는 "(새로 결혼한) 여자 가 마음씨는 고우냐고 걱정할 뒤 "그 여자한테 어쩔든 건강하고 잘 살라고 하셔"라고 말했다.

"재혼자가 맞스나"고 "포만"을 얻 정 할머니는 "68살"이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애인이 있었 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쏘아붙이고 되풀이해 럽 할머니를 꼬너로 몰

었다. 52년 만에 '당혹스러움' 처지에 놓인 럽 할머니는 아직 말 끝에 남이 있는 호남 사투리로 "그런 것 없었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검연적 게 웃을 뿐이었다. 정 할머니는 "(새로 결혼한) 여자 가 마음씨는 고우냐고 걱정할 뒤 "그 여자한테 어쩔든 건강하고 잘 살라고 하셔"라고 말했다.

"재혼자가 맞스나"고 "포만"을 얻 정 할머니는 "68살"이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애인이 있었 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쏘아붙이고 되풀이해 럽 할머니를 꼬너로 몰

# “눈에 밝힌恨 풀었구나”

## 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28일 금강산에서 이뤄졌다.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이날 오후 상봉장인 금강산여관에 도착, 꿈에도 그리던 북측 가족 친지 1백83명과 단체 상봉 및 공동만찬을 잇달아 갖고 반세기 동안의 한많은 시연들을 쏟아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원망과 만남의 기쁨이 뒤섞여 상봉장은 삼시간에 울음바다를 이뤘다.

이번 상봉은 지난해 10월 이뤄지려다 무산된후 6개월만에 성사돼 기쁨이 더욱 컸다. 이에 앞서 남측 가족은 27일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뒤 이날 설봉호편으로 장전항에 도착, 선상호텔 '해금강'에 여장을 풀었다.

남측 가족들은 방북 이틀째인 29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삼일포 공동찬관을 하면서 북측 가족과 화포를 쏜

뒤 30일 금강산을 출발, 속초항으로 돌아온다.

○...28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당초 방북 단 명단에 들었다가 노환으로 방북을 포기한뒤 26일 끝내 숨진 어병순씨(93·여)의 딸 이부자씨(62·전북 남원시)는 북측 언니 이신호씨(66)와 통한의 상봉을 했다.

### 주름진 손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남편에 52년 쌓이둔 바가지 굵기도

신호씨는 “예정대로 작년에 상봉이 이뤄졌으면 엄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 67년 남북된 풍복호 선주 겸 선원이던 남편 최원모씨(92)의 부인 김애란씨(80)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편 대신 6·25 때 헤어진 동생 순실(67), 덕실씨(58)를 만나는 것으로 부상봉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김씨는 연신 눈물을 흘치면서 동생들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때부터 애인 있었던 것 아냐?”

정귀업씨(75·여)는 28일 저녁, 금강산여관에서 북녘의 지아비인 립한 언씨(74)를 만나 52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왔던 것을 드러내 보이며 한껏 ‘바가지’를 굵었다.

정씨의 의심은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남편이 처음부터 애인을 숨겨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

“재혼자가 몇살이냐”고 ‘포문’을 연 정씨는 “66살”이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 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몇번이고 되풀이해 립씨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담혹스런 처지에 놓인 립씨는 아직 말끝에 남아있는 호남 사투리로 “그런 것 없었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겸연쩍게 웃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윤금철씨(가운데)가 28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순영(오른쪽), 순녀씨를 만나 건배한 후 기뻐하고 있다. /금강산=사건공동취재단

# 지원요원들 北가족 만날까

• 박수길·김원일씨 눈길

제4차 이산상봉 방문단에는 박수길(朴秀吉·61)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과 소설가 김원일(金源一·60)씨 등이 지원요원으로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오페라의 산증인인 박전단장은 2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공동만찬에서 축하를 부른 뒤 "어머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노래했다"고 말했다. 그의 고향은 금강산에서 2시간 남짓 거러인 함경남도 함흥으로 1950년 10월 10일째 단신 유폐했다.

지금도 87세의 노모와 5남매가 함흥에서 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이산상봉을 신청했으나 낙방했다고 한다. 그는 "지원요원으로 참가하면 어머니와 자매들 소식을 팔음 수 있게 할 거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단의 아픔을 한국 문단에 처음

제기했던 김원일씨는 이번 방북의 사표정리쯤 맡게 된다. 김씨는 남조선 노동당 간부였 지낸 아버지가 유폐한 뒤 소년 시절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 열사를 겪었다고 한다. 그는 이같은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노움' '겨울꽃피기' '바람과 강' '미당 깊은 집' 등 여작을 발표했다. 그의 소망은 유폐한 아버지의 기일(忌日)을 입고 북의 또다른 어머니 및 배다른 형제 2명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지원요원들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겠다고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적 관계자는 "이들이 북측 가족을 만날 수 있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금강산 여관에서 열린 제 4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남측 가족 99명이 북측의 가족 들을 만나 빈세기둥만 놀러왔던 이산의 아픔을 달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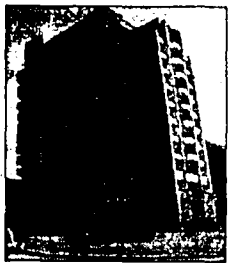
## “오마니! 이틀만 더 사셨어도...”

# 남북자매 울고 또 울고

## 남북행사 새 명소로 떠올라

• 상봉장 금강산여관은

28일 이산가족 상봉이 있는 금강산여관(사진)은 가히 남북 행사의 메카라고 할 만하다. 북측이 금강산읍 찾은 내·외국인을 위해 1958년 개관한 이곳에선 2000년 6월 1차 적십자회담 등 3차례의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2001년 10월), 남북관계 정상회담(2001년 11월) 등 굵직한 행사가 열렸다.



객실 240개 중형급호텔 '온집' 개방합치 관심사

이 여관은 240개의 객실과 레스토랑·수영장·바·커피숍·상점·회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금강원이라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중형급 호텔의 요건을 갖춘 셈. 그러나 이 여관은 북측의 관리소홀로 남북회담 도중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 우리측 회담관계자들에게 '유령의 집'으로 통한다.

이 여관은 현대 아산이 정기 운영권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는 북측이 관리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곳의 불편한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여관과 인근 온천장을 4백62억원에 현대아산으로부터 사들였으며, 3백4억원도 추가부채와 금강산 문화회관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이번 이산상봉때 여관에서 300m 떨어진 금강산 온천읍 북측이 이산가족들에게 개방할지도 관심사다.

북측은 "온천은 여러가지 심장장애, 고혈압증을 비롯해 각종 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금강산여관에서 28일 이뤄진 이산가족·상봉은 탈·교대로 '눈물의 도가니'였다.

반세기 만에 합육과 재회한 남측 99명의 이산가족과 재북 가족 186명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설움에 일거에 폭발한 듯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꼈다. 14개월 만에 이뤄진 남북의 '한집'이었다.

○·당초 4차 상봉단에 포함됐다가 지난 26일 오전 사망한 어병순(93) 할머니의 소식을 오우 단체 상봉 중 전해들은 딸 리신호(67)씨는 타자기를 치며 통곡했다. 어 할머니 대신 방북한 딸 이부자(62)씨와 언니 리씨는 서로를 만난 기쁨도 잠시, 생전에 딸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던 어머니의 영정을 쓰다듬으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두·지매가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어머니, 이틀만 참으시지"를 연발하자 주위는 숙연해졌다. 이씨는 "이별 줄 알았으면 유언이라도 받아두는 건데"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6·25 동안이 터지면서 부인 이영희(73)씨와 다섯살배기 아들 창근(57)씨를 두고 평양을 떠나온 김원일(82) 할머니는 부인과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어쩔 줄 몰라했다. 딸남 후처혼한 김씨는 북측의 부인 영희씨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세월의 흔적이

## 4차 이산가족 상봉

### 6·25때 北 두고은 부인·아들과 해후도 박수길 전 오페라 단장 이산아픔 노래로 위로

고스란히 담긴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안용관(81)씨는 반세기 만에 만난 아내와 딸을 마주하고 기쁨과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 없이 자식들을 키운 아내와 아버지 없이 힘든 생활을 견뎌왔던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어깨를 끌어내렸다.

안씨는 "끝내 만나지 못하는가 했는데 이렇게 만났으니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너희를 버려두고 온 죄인이 무슨 합말이 있겠느냐" 반 백년 만에 아들을 만난 김중주(84)씨는 이제 중년을 훌쩍 넘으신 아들을 만나 헤어졌던 세월만큼이나 긴 사과의 말을 늘어놓았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아내와 다른 자식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헤어질 당시 9살이었던 차남 정신(59)씨만 살아남은 것. 김 할머니

지는 남쪽에서 가정을 이룬 후로는 북쪽 가족을 찾겠다는 희망은 거의 버렸다. 그렇지만 혼자만 내려왔다는 죄책감을 50년여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송숙(78) 할머니는 딸리는 손으로 품속에 고이 간직한 편지를 꺼내 시동생과 조카들에게 건넸다. 남편인 허창국(80) 할아버지가 워드 프로세서로 직접 적어 인쇄한 편지였다. 시동생이 편지를 읽는 것을 몰고다니 지켜보며 여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제야 한시를 놓았다"며 재회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은 '피 불이를 만나다'는 기대감에 뜬눈으로 전날 밤을 지새운 탓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하지만 하나 둘 합육과 감격적인 재회를 하면서 잃어버린 지난 시절을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인 권자은(88) 할머니는 막내아들 이병립(62)씨의 얼굴을 이루만지면 서 감격에 말을 잊지 못했다. 단체 상봉 후 이어진 만찬에서는 자신이 또한 이산가족이기도 한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 단장이 반 백년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 애잔함을 달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살아있었구나”

금강산현

28일 금강산여관에서 있는 단체상봉에서 남한의 어머니 박순분씨가 50여년 만에 만난 북한의 아들 최창식씨를 껴안고 오열하고 있다.



통곡하는 南北자매

2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측 조옥연 씨(왼쪽)가 동생 옥분 씨와 부둥켜안고 울고 있다. ▶ 관련기사 38면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금강산 만남... 離散해법 새 선례



분단의 벽 넘어 이산가족 생동

## 의미-특징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우여곡절 끝에 28일 북측 지역인 금강산에서 재개됐다.

총단 14개월만에 재개된 이번 상봉은 종전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진행되던 관행에서 탈피, 이산가족 문제 해법의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 상봉은 순차방문이라는 형식 외에도 상봉 횟수나 대면 장소에서 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상봉 일정에 '삼일포 참관'이 예정돼 있어 남북의 가족들과 떨어져 구경하던 전례와 달리 이산가족들이 함께 관광을 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간 대면도 단체상봉, 만찬, 공동식사, 개별상봉, 작별상봉 등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고령의 남측 이산가족들이 배편을

만한다. 북측은 과거행사편 철저하게 통제하던 중계차, 발전기, 위성 이동중계기(SNG) 반입을 이번에는 허용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상봉에서 남측은 사망한 어병순(93)씨를 제외하고 99명의 남북단을 보냈지만 그들의 북측 가족은 170여명밖에 나오지 않아 아

## 北행사로는 처음 TV-라디오 생중계 허용

## 북측가족 170여명 불과... 상봉축소 아쉬움

이용해 금강산 지역에서 상봉하는 만큼 민일의 시태에 대비해 의료지원 인력도 대폭 증원됐다. 종전에는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 그리고 응급처치사 3명 등으로 늘린 것도 특징이다.

이번 상봉은 북측에서 열리는 상봉행사로는 처음으로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쉽다는 지적이다. 종전에는 방북 이산가족 1인에 3~4명의 북측 가족들이, 나와 동포애를 나누곤 했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차와 배를 갈아 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70~80대 고령 이산가족들의 방북 포기가 잇따라 대책이 요구된다. 순수 인도적 따라 행사를 금강산 관광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치행사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가까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

### ◇이산가족상봉 형식 비교표

이전 상봉	4차 금강산 상봉
교차방문	순차 상봉
동시상봉	
5차례 10시간	6차례 12시간
의사 3명, 간호사 3명(응급처치사 3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응급처치사 3명)
항공기	여객선
북한 방송사 중계차, 위성 이동중계기, 응급처치용 독자중계	남한 중계차, 위성 이동중계기, 응급처치용 독자중계
고려호텔 및 서울소재 호텔	금강산 여관, 해금강호텔

다. 방북단장인 이세웅(李世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28일 "방북중 북측대표와 만나 이산가족 상봉의 재도화-정례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해 그나마 노령 이산가족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조정진기자 jji@sgt.co.kr

# 북쪽 상봉 가족수 2명 제한 아쉬워

**한겨레**

2002. 4. 29 (월)

남북 가족만남은 12시간으로 과거보다 늘어  
방북단 대부분 고령 감안해 의료진 대폭 보강

28일부터 금강산에서 두차례 나눠 실시되는 4차 이산가족 상봉은 과거 1~3차 서울·평양 교환 상봉과 달리 상봉횟수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상봉 인원은 줄었다. 상봉시간은 삼일포 참관상봉이 추가되면서 과거보다 늘어난 12시간에 이른다.

그러나 4차방문단의 1차상봉에서 남쪽 이산가족 99명이 만나게 될 북쪽 가족은 186명으로 1인당 2명밖에 미치지 못한다. 2차상봉의 경우 북쪽 이산가족 100명과 만나는 남쪽 가족은 470여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 서울 상봉에서 북쪽 1명당 번호표를 바꿔가며 가족 친지들이 2박3일간 교대로 10여명이 이산의 환을 달린 것과 비교하면 상봉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쪽 이산가족 99명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79명으로 이들이 건강상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금강산으로 가는 데 비해 성과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장인 '대한 적십자사 이세웅(63) 부총재는 28일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들의 건강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하면서, 만나게 될 북쪽 가족들이 186명에 불과한 데 대해서는 "각자 개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1인당 5명씩 다 채운 것은 아니다. 특별한 북쪽 사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장거리 여행에 대비해 "의료진을 대폭 보강하고 금강산 현지의 현대아산의 료진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활체어도 여분으로 많이 준비했고 현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파속산과 협기통 등원해,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산·속초/공동취재단

## ■ 2박3일 일정 들여다보니

### 오늘 가족끼리 꿈같은 8시간

금강산여관·삼일포서 함께...공동참관 첫 성사

5월3일까지 두차례로 이어질 4차 이산가족방문단 가운데 1차로 남쪽 이산가족 방문단 99명은 28일부터 5월1일까지 짧고도 긴 2박3일동안 북쪽가족 186명을 만난다.

만남은 첫날 단체상봉과 만찬, 이튿날 개별상봉·공동중식 및 참관상봉, 3일째 개별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있다. 이번 상봉행사는 금강산이라는 단일장소에서 이뤄지는데다

#### ◇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 일정(금강산)

구분	1차 상봉	2차 상봉
시기	4.28~4.30	5.1~5.3
규모(명)	남 99, 북 186	남 470, 북 100
첫뺨	단체상봉	금강산여관(2)
	만찬	금강산여관(2) / 온정각휴게소(2)
둘뺨	개별상봉	금강산여관(2)
	공동중식	금강산여관(2)
셋뺨	참관상봉	삼일포(3)
	작별상봉	온정각 휴게소 / 연 운동장(1)

\*만찬과 참관상봉은 남북가족 함께, 필요 안 숫자는 만남시간

처음으로 가족 공동참관이 성사돼 여전(8~10시간)보다 긴 12시간 동안 함께 지낸다. 특히 29일의 경우 개별상봉 공동중식 삼일포 공동참관이 서로 이어지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28일 오후 설봉호 편으로 장전항에 도착한 남쪽 방문단은 해상호텔인 해금강호텔에 여장을 푼 뒤 북쪽가족이 머무는 금강산여관으로 이동해 오후 5시부터 만찬이 끝나는 밤 11시까지 북쪽 가족과 첫 상봉했다.

29일에는 오전 8시 서둘러 아침식사를 마친 이산가족들은 오전 10시 금강산여관으로 이동해 북쪽 가족의 객실에서 2시간가량 개별상봉을 하게 된다.

이어 북쪽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시부터 버스편으로 삼일포로 이동해 오후 6시까지 북쪽 가족과 호숫가를 거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남쪽 방문단은 방문 3일째 30일 오전 9시까지 온정각 휴게소 연 운동장에서 1시간 가량 북쪽 가족과 마지막으로 개별상봉을 한 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날 오후 2시 설봉호 편으로 귀로 오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 상봉장·속초·참관지 어떤 곳

◇ 금강산여관-북쪽 가족들이 머물게 되는 금강산여관은 28일 단체상봉과 만찬, 29일 개별상봉과 중식 등 대부분의 상봉 행사가 이뤄진다.

이 여관은 1958년 금강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건설됐다.

2000년 6월 27일 1차 적십자회담 등 세차례의 적십자회담과 지난해 10월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한 당국자회담, 11월 6차 남북장관

급회담도 이곳에서 열렸다. 객실 240개를 갖춘 여관은 레스토랑, 수영장, 바, 커피숍, 상점, 회의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여관 바로 옆에는 금강원이라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외형상 중형급 호텔이나 북쪽이 경

제사정 악화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비판에 남북회담 관계자들 사이에는 '유령의 집'이라는 악명도 붙어 있다. 남북회담 도중에 정전과 열리베 이터 정지 등의 불련이 자주 노출된 탓이다.

◇ 해금강호텔-방북 이산가족들의 숙소인 해금강호텔은 금강산관광

4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라운지, 레스토랑, 커피숍, 디스코텍, 노래방, 기념품점, 간이포장마차 등을 완비하고 있어 고령 이산가족들의 여독을 어느 정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가족들은 2인1실 기준으로 묵게 된다.

◇ 삼일포-남북 이산가족들이 29일 오후 손을 맞잡고 찾게 될 삼일포는 관동 팔경 중 하나로 해금강 가는 길목에 있다. 삼일포는 36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사호(둘레 8km)로 깨끗한 호수들과 주위의 송림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금강산 최고의 명소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들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코스로 이뤄져 재회의 기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상봉장 '금강산여관'...58년 건설된 남북회담 단골  
남쪽 숙소 '해금강호텔'...현대아산 운영 해상호텔  
함께 거닐 '삼일포'...해금강 길목의 관동팔경 하나

사업 주체였던 현대아산이 지난 2000년 10월 싱가포르에서 도입한 해상호텔로 지난해 현대아산이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87년에 개장한 이 호텔은 1만1958㎡ 규모로 길이 89.2m, 폭 27.6m, 지하2층, 지상 6층 규모이다. 객실은 모두 160개로 최대



50년만의 同行관광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이 29일 오후 버스를 타고 구룡연 동행 참관을 하러 가는 도중 험찬 합성과 함께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금강산=연합

# 이산가족 개별상봉

## 선물등 교환 '한핏줄' 확인

### 訪北團 오늘 귀환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인 29일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금강산여관에서 개별상봉 등 세차례의 만남을 통해 혈육의 정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0면)

반세기만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 뜬눈으로 하룻밤을 지낸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가족 단위로 개별 상봉을 갖고 사진과 선물을 교환하면서 50여년 못다한 얘기꽃을 피웠다. 하지만 일부 고령 이산가족은 상봉 후유증으로 두통과 복

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1967년 납북된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풍복호 선원 최원모(崔元模·92)씨의 부인 김애란(金愛蘭·79)씨는 공동중식장에서 남북 당시 남편의 얼굴사진과 풍복호의 선체사진을 꺼내보이며 "남편의 생사만이라도 알려 달라"고 울부짖어 주변을 숙연케 했다.

남북 가족들은 이날 비 때문에 당초 참관기로 했던 삼일포 대신 구룡연을 1시간여 동행 참관했으며, 30일 오전 마지막 상봉을 한 뒤 설봉호편으로 속초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상봉가족 함께 금강산 관광

오늘 작별... 다시 속초로  
南 473명 내일 금강산행

북한의 가족과 만나기 위해 금강산에 머물고 있는 남측 이산가족방문단 99명은 상봉 이틀째인 29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개별상봉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비가 내린 관계로 당초 방문할 예정이었던 삼일포(三日浦) 대신 금강산 구룡연(九龍淵)을 함께 관광하는 등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관계기사 26면>

두시간 동안 이뤄진 개별상봉에서 방북 이틀 전 사망한 어병순(93) 할머니를 대신해 간 딸 이부자(62)씨는 북측 언니 신호(66)씨와 함께 준비한 제수용품으로 추도식을 올렸다.

또 배와 함께 납북된 풍복호 선주 최원모(92)씨의 부인 김애란(79)할머니는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들고 생사확인을 호소하기도 했다.

상봉 행사가 이뤄지는 동안 남측 단장인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와 북측 단장인 최창식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은 별도 접촉을 통해 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문제와 중단된 남북 적십자회담의 재개 문제를 협의했다.

방문단은 30일 오전 한시간 동안의 작별상봉을 끝으로 다시 기약

는 이별을 하게 된다.

한편 북한이 선발한 이산가족 1백명과 만날 남측 가족 상봉단 4백73명은 30일 오전 속초에 집결해 하룻밤을 묵은 뒤 5월 1일 현대 설봉호 편으로 사흘간의 상봉일정을 위해 금강산으로 향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영중 기자 <yjlee@joongang.co.kr>

## 금강산 이산방문단 오늘 귀환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99명은 29일 금강산에서 개별 상봉과 공동 중식 등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북측 가족들과 혈육의 정을 다시 확인했다. ▶A29면에 관련기사

남측 방문단의 재북 가족 숙소인 금강산여관 객실에서 진행된 개별 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사진과 선물 등을 교환하면서 정담을 나눴다.

26일 별세한 어병순씨(93)를 대신해 방북한 이부자씨(62)는 북한의 언니 신호씨(66)와 함께 어머니의 영정을 모시고 대한적십자사가 준비한 황태와 사과 등 제수용 물품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열린 공동 중식에서 1967년 납북된 풍복호 선원 최원모씨(92)의 부인 김애란씨(79)는 남편의 사진을 내보이며 "남편의 생사 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번 4차 이산가족상봉

을 위한 생사 확인 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남편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측 방문단은 오후엔 금강산 구룡연에서 북측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남측 방문단은 30일 속초항으로 귀환한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상봉 이틀째 '마음도 축축'

## 이산가족 구룡연 관광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1차 상봉 이틀째인 29일 남쪽 이산가족 99명은 금강산여관에서 개별상봉을 한 뒤 공동중식에 이어 오후 구룡연을 함께 둘러보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북쪽 가족들과 선물을 건네며 애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남북 적십자 관계자들은 이날 비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진 점을 감안해 연락관 접촉을 통해 애초 참관 상봉

장소로 잡았던 삼일포 대신 구룡연으로 장소를 바꾸었다. ▶관련기사 6면

남쪽 단장인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와 북쪽 단장인 최창식 조선적십자회 중앙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식접촉을 통해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재는 "제5차 상봉행사도 조속한 시일 안에 성사되도록 남북이 노력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도 리금철 북쪽 적십자

회담 대표를 상대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이 특보는 2차 상봉행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3일까지 금강산에 머물면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개별상봉에서는 26일 타계한 어병순씨를 대신해 방북한 딸 이부자씨와 북쪽 언니 신호씨가 함께 어씨를 위한 제사를 올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29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개별 상봉에서 남쪽 황선옥(79·왼쪽)씨가 북쪽의 딸 김순실(63)씨를 만나 손을 꼭 부여잡고 밝게 웃고 있다. 금강산/연합

# ‘바가지 할머니’ 하룻밤새 새색시로...

격한감정 누르고 평온찾아  
北 남편·아우에 한복 선물

“어머니는 돌아가셨나?”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만 보자, 그럼 아흔여섯살까지  
사셨으니 오래 사셨군. 어머니 가신  
날짜를 알아야겠는데...”

“음력으로 5월 보름, 열닷세에  
요.”

52년 전에 헤어진 남쪽 아내 정귀  
업(鄭貴業·75·전남 영광) 할머니와  
북쪽의 남편 임한언(74) 할아버지는  
29일 오전 10시20분 금강산여관 9층  
16호에서 다시 만났다.

할머니는 이날 옅은 화장을 하고  
옥색과 연분홍색 한복 치마·저고리  
를 곱게 차려 입었다. 전날 반세기만  
에 만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며  
격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은 평정



52년을 수절한 정귀업씨와 남편 임한언  
씨가 29일 공동오찬장에서 수줍은 표정  
으로 손을 맞잡은 채 미소짓고 있다.

●연합

심을 되찾은 듯 차분한 말씨로 돌아  
가신 시어른들의 기일을 전했다. 어  
머니의 기일을 종이에 받아쓰던 임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이제라  
도 어머니 제사는 내가 지내겠다.”  
고 말했다. 정 할머니는 “당신이 제

사를 맡겠다니 무거운 짐을 벗었  
다.”면서 “이제는 한이 없다.”고 환  
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은 쏠살같이 흘렀다. 개별 만  
남이 끝날 무렵 정 할머니는 주섬주  
섬 선물을 꺼냈다. “이 한복하고 금  
목걸이, 반지는 당신 것이고, 북에서  
재혼했다는 아내 몫으로 한복도 한  
벌 준비했어요. 당신이 북에서 낳은  
자녀 5명에게는 시계를 주세요.”

금강산으로 가기 전 “결혼생활 5  
년 가운데 같이 산 기간은 1년이 채  
못되지만 행복했다.”면서 “그때 사  
람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바  
보같이 재혼도 않고 살았다.”고 했  
던 정 할머니는 52년 생이별의 한을  
이렇듯 ‘서러운 사랑’으로 풀어냈  
다. 그리고 구룡연 나들이 때 정 할머  
니는 남편의 발에 입을 맞추며 반백  
년 전 새색시로 돌아간 듯 화사하게  
웃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설왕설래

북의 역사학자 손영준 교수가 남의 아들을 만났다. 마침 도쿄(東京)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아버지를 아들이 찾아간 것이다. 부자가 헤어진 것은 6·25가 일어났던 해였다. 서울대 사학과에 다니던 손 교수는 신혼의 단꿈을 전쟁을 피해 아내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권했고 자신은 북으로 갔다. 아내는 임신 다섯달째였다. 유복자인 아들이 살아 있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손 교수는 지나간 이별을 '역사의 죄(罪)'('아리랑 그 영원한 민족언어'라고 진단했다. 그 자리에서 수절(守節)의 아내와 육십을 넘어서야 만났다.

아내가 가져온 선물은 고향의 담밭에 핀 토종꽃 한송이. 오직 아들 하나를 기르며 모진 세월을 혼자서

守節



살아온 아내의 한은 누가 삭여줄 것인가. 그동안 손 박사는 어쩔수없이 북에서 결혼을 하고 육남매를 낳았다.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상봉은 가족마다 사연이 많았지만 가슴을 저미게 하는 장면은 역시 생이별한 부부의 만남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대학생이던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고 아내는 죽은 고생을 하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다. 아내는 칠순이 된 남편에게 북으로 갈 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단 한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농사만을 지으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내는 결국 52년 만에야 한 맺힌 상봉을 할 수가 있었다.

이산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재혼을 한 것은 아니다. "꼭 오겠다"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절남편으로 살다가 장거리 박사나 김학수 화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수절을 하며 살아온 아내와 남편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만나기를 바란다.

/申瑛均 논설위원  
ckshin@sgt.co.kr



29일 오후 구룡연 관광에 나서는 남북상봉단이 같은 버스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北아내 뚫” 재혼남편에 웃전달

## ■ 금강산 이산상봉 이룰때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틀째인 29일 남측 가족 99명은 금강산 여관에서 개별 상봉과 공동 점심을 마친 뒤 금강산 구룡연 코스를 공동 참관하는 등 3차례 가족들과 만났다. 이날 오전의 개별상봉에서 상봉단 방북 직전 송진 어병순(93) 할머니를 대신해 방북한 이부자(李富子·62)씨는 금강산 여관에서 북측 언니 이신호(66)씨와 함께 눈물의 추도식을 가졌다. 남북 가족들은 오후에는 날씨 사정으로 당초 예정된 삼일포 관광을 포기하는 대신 버스를 함께 타고 1시간 가량 금강산 구룡연 코스를 둘러 보았다.

○...전날 반백년의 '바가지'를 한꺼번에 풀었던 정귀업(75)씨는 북측 남편 임한연(74)씨와 시어머니의 제사 얘기 등으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열은 화장에, 연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정씨가 시어머니의 기일을 말하자 임씨는 "이제부터 제사는 내가 모시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당신이 맡으니 무거운 짐을 덜

었다. 이제 한이 없다"고 기뻐했다. 상봉이 끝날 무렵 아내는 "한복하고 금목걸이, 반지는 당신 것이고, 북에서 결혼한 아내 뚫으로 한복도 한 벌 준비했어요. 북에서 낳은 자녀 다섯에게는 시계를 주세요"라고 말

80대노모 쌍가락지 풀어  
아들에게 "며느리 쥐랴"

北아들 작년사망 소식에  
"상봉연기 때문에..." 눈물

했다. 정씨는 오후에 구룡연을 구경하려 갈 때는 버스에서 남편의 불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딸 김순실(62)씨를 만난 황선옥(79)씨는 이순을 낳긴 딸에게 그간 못해 준 결혼반지와 목걸이를 건넸다. 딸은 "47년 내내 오마니가 걱정됐시오"라며 "여든 노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하루도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시오"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10월이던 4차 이산상봉이 6개월 연기되는 바람에 그리던 가족들을 못 만난 사연도 적지 않았다. 안용관(81)씨는 아내로부터 아들 들시복(53)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고개를 떨구었다.

안씨는 "기가 막히네. 먼저 번에 왔으면 살아서 볼 건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박재래(64)씨는 지난해 10월 방남 예정자였던 오빠 송남(77)씨가 최근 숨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시울을 적었다.

○...이산가족들의 선물도 애달팠다. 권지은(89)씨는 50년 만에 사진으로 만난 며느리에게 건네라며 쌍가락지를 풀어 아들 이병립(62)씨에게 건넸다. 남측의 한 할아버지는 양팔에 시계를, 손가락에는 4개의 반지를 차고 와 모두 가족들에게 전했다. 변정의(61)씨는 형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은 형수님이요"라며 고인이 된 어머니의 금비녀를 형수에게 선물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60代 큰딸에 '속죄의 반지선물'

### 황선옥씨 모녀 오열

“자 이것 받거라.” “이제 와서 무슨 반집네까.”

29일 금강산여관 11층 11호에서 큰딸 김순실(63)씨를 다시 만난 황선옥(黃善玉·79·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사진 왼쪽) 할머니는 이순(耳順)을 넘긴 딸을 만나자마자 결혼반지와 목걸이를 건넸다.

평양 강동군이 고향인 황 할머니. 해방 직후 살기가 어려워지자 1947년 남편(김병덕씨)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몸살기운으로 외가에 맡겨둔 큰딸은 미처 데려오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38선 왕래가 가능해 곧바로 데려올 요량이었지만 얼마 후 38선은 모녀의 재회를



55년간 가로막는 철의 장벽으로 변하고 말았다.

어색하게 반지를 받는 딸의 눈에는 진한 눈물이 고였다. 노모도 더는 못 참은 듯 딸을 부둥켜안고 오열했다./금강산=공동취재단

## “여보 미안... 南아내 선물받구려”

### 안용관옹 재회서막

29일 금강산여관에서 북쪽의 아내 윤분희(74)·딸 순복(51)씨를 다시 만난 안용관(安龍官·81·사진)씨는 전날의 흥분을 가리얏히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해 11월 아들 시복(53)씨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표박 밤을 새우긴 했지만 내색을 하지 않은 채 선물가방에서 은색공단한복을 꺼내 옛 아내에게 슬그머니 내밀었다.

“내 남쪽가족이 준비해 준 것이요. 잘 맞아야 할 텐데...”

안씨는 이어 속옷, 양말, 금반지를 딸의 손에 말없이 쥐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6·25때 헤어진 후 평생을 수절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준 아내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인지 쉽게 말문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자신보다 훨씬 늙어보이는 옛 아내에게 할말은 그것뿐이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삼일포 대신 구룡연 관광

## 금강산 상봉 이틀째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틀째인 29일 금강산에 비가 내린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다.

남측 가족 99명은 오전 10시20분부터 금강산여관 객실에서 북한 가족 183명과 개별상봉 및 공동오찬 등 약 6시간 동안 3차례 만남을 갖고 혈액의 정을 거듭 확인했다.

▶관련기사 29·31면

남북한 가족들은 특히 비가 계속 내리자 당초 예정했던 삼일포 등 해금강 대신 구룡연을 함께 관광했다. 남북 가족들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 남짓 버스를 함께 타고 금강산 여관에서 구룡연까지 둘러보았다.

남북한 가족들은 오전 개별상봉에서 사진과 선물 등을 주고 받았다. 특히 지난 26일 별세한 어병순(93) 할머니를 대신해 방북한 이부자(李富子 61·전북 남원)씨는 북측 언니 신희호(66)씨와 눈물의 추도식을 거행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북어선 선장 최원모(崔元模)씨의 부인 김애란(金愛蘭·79)씨는 남편 최씨의 얼굴 등이 담긴 사진을 꺼내 보이며 "남편의 생사 여부라도 알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원요원으로서 방문한 작가 김원일(金源一)씨도 기대했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남측 방문단장인 이세웅(李世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등은 이날 오후 최창식 조선적십자 중앙위 부위원장 등을 만나 제5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남측 방문단은 30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온정각 운동장에서 작별 상봉을 한 뒤 오후 2시 장전항을 출발, 속초로 귀환할 예정이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北 조평통, 느닷없이 崔외무 '미국발언' 비난

# 이산상봉 '판깨기' 수순

북한이 29일 느닷없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참을 수 없는 사대굴종 행위' '죄악적인 반민족 행위' 등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다.

총대는 노동당 대남조직인 조평통이 메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 나와 있는 최창식 북측단장이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분위기다. 최 단장은 상봉 첫날인 28일 최 장관

을 물고 늘어졌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까지 몰았던 박영수 조평통 부국장도 이날 출연해 금강산에 나타나 분위기를 살폈다. 그는 남측 기자들이 아는 체하자 "아닙니다"면서 사라졌다. 다분이 입체적이고 계산된 작전이란 느낌이다.

조평통 성명은 금강산에서 남북의 흩어진 가족들이 50년 통한(痛恨)의 눈물을 뿌리고 있는 장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도발적인 언사로 짝 채워져 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바랄 수 없으며 북남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등 막가파식

이다. 미국 유수언론인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3일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공책이 먹혀 들고 있다'는 최 장관 발언을 인용보도한 것은 이미 '오해'로 판명난 상태다.

평양측의 의도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5~6차로 계속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에는 남측 이산가족 1인당 3~4명의 북측 가족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남북자 가족도 나오질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권이 이전 북측에 별 특이 안된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조평통은 지난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당시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결국 그를 낙마시키는 데 일조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앞두고 남한인사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늘상 그랬듯이 '판깨기'에 대비한 명분쌓기용 성격이 강하다. 이산가족상봉을 포함, 각종 남북대화가 순조로울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조정진기자 jji@sgt.co.kr

이미 '오해'로 판명 난 발언 문제삼아  
5-6차 상봉 무산노린 계산된 행동인듯

# 금강산 마지막 밤 하늘마저 울었다

## • 이산상봉 이틀째 표정

4차 이산상봉 행사 이틀째인 29일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개별상봉과 동석오찬, 구룡연 참관 등 세차례의 만남을 통해 반세기 동안 쌓인 회한을 달랬다.

○...상봉 이틀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서글픔을 더했던 이부자(62)·이신호(66)씨 자매는 29일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신호씨는 부자씨가 어머니 어병순씨(93)의 영정을 꺼내들자 “옛날 엄마 모습이야”라며 영정을 쓸어내렸다. 두 자매는 과일 몇개와 음료수만으로 급히 차린 제사상 앞에서 어머니를 목매어 붙었다.

조문차 들른 대한적십자사 이세웅(李世雄) 부총재가 조의금을 내맡겼으나 신호씨와 신호씨 자녀들은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우리는 돈 없어도 산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전날 북에서 제정한 남편 임한현씨(74)에게 ‘바가지’를 끊었던 정귀업씨(75)는 남편과 함께 50여년 전 신혼 때로 돌아가 이야기꽃을 피웠다. 임씨는 정씨로부터 전해 들은 어머니의 기일을 종이예다 받아적으며 “이제라도 어머니 제사는 내가 지내겠다”고 말했다고 정씨는 “이제 한이 없다”고 기뻐했다.

○...지난 1967년 납북된 풍복호 선원 최원모씨(92)의 부인 김애란씨(79)는 공동중식을 하던 중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으며 북에서 온 동생 순실(67)·덕실(58)씨에게 남편의 생사여부를 물었다. 이틀 앞서 외면하던 여동생들은 남편이 납북됐다는 김씨의 말에 “우린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말씀드리죠”라고 말했다. 김씨는 “잡려갔던 선원 5명은 돌아왔는데...”라며 남편을 애타게 붙였다.



‘납북 남편 찾아주세요’

금강산/연합

김애란 할머니가 29일 금강산여관에서 남편 최원모씨와 피랍어선 풍복호 사진을 꺼내 보이며 북측 인사들에게 남편의 인부를 알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어머니 기일 받아적으며 “이제 죽어도 여한 없어...”

○...류재춘씨(61)는 고향인 전남에서 직접 농사지은 멥쌀 2되를 북측 형수와 조카에게 건네며 “5년 전 돌아가신 형님 산소에 갈 때 이 쌀로 밥을 지어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류씨는 “고향 흙을 형님 산소에 뿌리려고 했는데 흙은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속초항에 두고 왔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최구백씨(68)는 북측의 여동생 인순씨(65)로부터 생

일상을 받았다. 구백씨는 “오래오래 살아 통일되어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감격에 겨워했다.

○...첫날 상봉 이후 교섭의 남북 방문단 일부가 두통과 복통 등을 호소,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특히 김애란씨가 여동생들과 상봉한 뒤 지병이 악화돼 공동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의무실에는 탐진하거나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는 이산가족들이 잇따랐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남북 남편 생사 애타게 물어

## ▷ 이산상봉 이모저모

봄비가 내린 29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개별상봉과 공동점심, 구룡연까지의 첫 참관상봉은 큰 문제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북측도 평양에서 음식과 접대인, 요리사 등을 대거 파견하는 등 신경을 썼다. 특히 남북의 가족들은 당초 오후 1시30분까지로 예정된 오찬 시간을 1시간 이상 늦춰가며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 北동생들 “소식 모른다” 외면

### ▷ 안타까운 시연

◆“주인양반 보고 싶어 왔는데...죽었나 살았나 알고나 갔으면 좋겠어.” 67년 서해 연평도로 조기잡이를 나갔다가 피랍된 풍복호 선장 최원모(崔元模) 씨의 부인 김애란(金愛蘭·79) 할머니는 오찬 석상에 남편과 풍복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꺼내 놓고 북측 동생 손실(67)·덕실(58) 씨에게 남편의 생사를 캐물었다.

그러나 동생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이 모습을 외면했다. 이들은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알린 말씀드리죠.”라며 언급을 피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8일 밤에 열린 공동만찬에는 지병인 ‘전신쇠약’ 증세가 심해져 참석하지 못해 의료진을 긴장시켰다.

## 평양서 음식·요리사 보내와

◆남측 안용관(安龍官·81) 할아버지는 이날 개별상봉에서 북측 아내(윤분희·74)와 딸(손북·51)과 함께 이별에 만나기를 기대했던 아들 시복(53) 씨가 당초 아프다면 소식과 달리 지난해 11월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다.

오빠 승남(77) 씨가 북측 상봉단 후보자 명단에 오른 박재래(64·여) 씨도 이번에 가까스로 방문단에 포함돼 금강산 상봉을 기대했으나 오빠가 최근 사망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해 했다.

## “고향 쌀로 밥지어 제사”

### ▷ 오고 가는 혈육의 정

◆“이 쌀로 밥을 지어 형님 산소에 가서 올려라.” 유재춘(61) 할아버지는 오전 10시20분부터 진행된 개별상봉 때 고향 전남에서 직접 농사지는 쌀 두 되를 조카 경선(32) 씨와 형수에게 전달했다. 52년전 형님과 헤어진 유씨는 “고향 흙을 형님 산소에 뿌리려고 가져왔는데 흙은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속초함에 두고 왔다.”고 아쉬워 했다. 유씨는 “예부터 술과 뽕쌀을 산소에 올렸는데 꼭 내가 지은 쌀로 형님 산소에 올려라.”고 북측 조카들에게 몇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동식 오찬에서 남측 최구배(68) 씨는 여동생 인순씨로부터 생일상을 받았다. 마침 이날 생일인 최씨는 식사중 생일잔치가 열리자



반세기만의 효도 북측 아들 김정신씨가 29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공동오찬중 그간 못한 효도를 하려는 듯 아버지 김홍주(84) 씨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있다. ●연합

“50년만에 여동생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복이 겨운데, 이렇게 생일상까지 받게 되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박웃음을 지었다.

◆남북의 가족들은 개별상봉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북에 아들 이병림(62) 씨를 남기고 월남했던 권지은(權志殷·89) 할머니는 50년만에 사진으로 접한 며느리에게 전하라며 쌍가락지를 풀었다. 양팔에 시계를 차고 손가락에 금반지를 네 개나 끼고 온 한 할아버지는 북측 가족에게 이별 건네며 “한적 등 남북지원단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애타게 기다린 큰 형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확인한 변정의(61) 씨는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은 형수님이요.”라며 어머니가 쓰던 금비녀를 건넸다.

황산옥(黃善玉·79) 할머니는 북측 말팔 김순실(63) 씨에게 뒤늦게 결혼한지와 목걸이를 건넸다. 지난 47년 남쪽으로 내려올 당시 잠시 친정에 맡겨둔 뒤 5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큰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년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 ‘불바다 발언’ 北인사 눈길

### ▷ 공동 오찬과 참관상봉

◆남북 가족들은 닭고기와 이면수 조림, 조개죽 등을 함께 먹으면서 개별상봉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 가족들은 손을 잡고 ‘고향의 봄’ 등 어릴적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남북 가족들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참관상봉 시간을 가졌다. 10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구룡연 주차장까지 간 뒤 우산을 함께 쓰고 약 30분 남짓 근처를 둘러봤다. 안내원들의 별다른 간섭이 없어 오붓한 시간을 보



29일 낮 공동 점심식사 때 남북 김애란 할머니가 남북어선의 선장의 남편 최원모씨와 풍복호의 사진을 들여보이며 남편의 생사를 일러물리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

낼 수 있었다. 남측 김연식(70) 씨의 북측 동생 청식(57) 씨는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형이랑 함께라면 좋습니다.”라고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그러나 금강산여관에서 헤어질 때는 서로 눈물을 글썽이며 짧은 만남을 아쉬워했다.

◆지난 28일 북측 주최 공동만찬이 열린 금강산여관에는 ‘서울 불바다 발언’의 장본인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박 부국장은 2층 로비 구석에서 만찬 상황을 30분 남짓 지켜보다가 남측 취재진이 이는 체를 하자 “사람은 잘못됐다.”고 탄전을 피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半세기만에 받은 생일상

## 이산가족 콕강산 상봉

### 둘째날 이모저모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틀째인 29일 남측 방문단 99명은 개별 상봉 2시간, 공동 오찬 2시간, 구룡연 참관 2시간 등 총 6시간에 걸쳐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 작가 김원일씨 후시 기대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려움을 갖 같기도 하고... 기다려 봐야지 뭐.”

함께 방북한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몰고러미 바라 보던 김원일(金源一)씨의 마음은 좌절했다. 장편소설 '노을'의 작가이자 이산가족이기도 한 김씨는 방북단의 지원인원 자격으로 금강산을 찾았다. 물론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북한 것이지만 과거 상봉시 일부 지원인원이 가족을 만난 전례를 생각해 실낱 같은 기대를 걸었으나 무산되자 허탈하다는 표정이었다.

### 부의금 전달 거절당해

○남한의 이부자씨(62)는 북한 의 언니 신희씨(66)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어별순씨(93)의 영정을 모시고 추도식을 가지던 중 남측 방북단의

# “여한 없다”

거들었으나 신희씨의 자녀들은 “우리는 돈 없어도 신다. 우리 식대로 산다”며 끝내 거절했다.

○개별 상봉에 이어 열린 가족 동서 오찬에서 남한의 최구배씨(68)는 북한의 여동생 인순씨에 차려준 생일상을 받았다.

최씨는 “50년 만에 여동생을 만나 는 것만으로도 복에 겨운데 이렇게 생일상까지 받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아버지 드세요”

28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민전에서 북한의 아들 김광진씨(61)가 흰체어를 타고 상봉을 위해 금강산을 찾은 남한의 아버지 김홍주씨의 일여 음식을 넣어주고 있다.

# “내 딸-동생 딸 이름이 같을 줄이야”

## 남강일창씨 北동생들 만나

“형님 딸과 내 딸 명숙이의 이름이 똑같네...”

남한의 강일창씨(77)는 29일 개별 상봉에서 고희 잔치 때 짝은 가족사진을 펼쳐놓고 50여년 만에 만난 북한의 동생들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강씨가 딸을 가리키면서 “애가 명숙이”라고 말하는 순간 동생들이 탄성을 터뜨렸다.

동생 은창씨(55)는 “우리 애도 명숙인데...”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사촌의 이름은 다르게 짓는 것이 상식이지만, 기나긴 분단의 세월이 사촌들의 이름을 똑같이 만든 것이었다.

# 50년만에 큰딸에게 결혼축하반지

## 南모친 황선옥씨 눈물범벅

“자, 이것 받아라.”

29일 오전 큰딸 김순실씨(63)가 묵고 있는 금강산여관 11층 11호를 찾은 황선옥씨(79·부산 수영구)는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금반지 하나를 꺼내 놓았다. 50여년 전 헤어진 딸의 결혼을 뒤늦게나마 축하하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끼워주는 반지를 몰고러미 바라보던 김씨는 “다 지나서 무슨 반지에요”라고 말하면서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역시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어머니 황씨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

금숙(60) 금분씨(56) 등 여동생들은 다짜고짜 “미리놈들이 갈라놓으니가 딸 이름이 같잖아”라고 말하며 가족사의 한(恨)을 미국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황해도 연백군이 고향인 강씨는 6·25전쟁 당시 의용군 인대를 피하기 위해 예상감 나루터에서 나루배를 타고 강화도 교동으로 나온 뒤 가족들과 헤어졌다.

강씨는 피란 갈 때 자신을 나루터까지 바라다주었던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오열했다. 강씨는 “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셨어요”라며 위로하는 동생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래 그래, 그리움을 거야”라며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다.

위에게 주려고, 한복까지 준비했지만, 사위는 이미 2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전날 단체상봉에서 북한의 형수 김문룡씨(66)를 만난 남한의 시동생 변정희씨(61)는 형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먹이면서 품속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냈다.

“이제 우리 집안의 대는 형수님이 있게 된다는 증표입니다. 어머니가 형을 만나면 직접 전달하려고 고이고이 간직해온 물건입니다.”

시동생의 설명에 형수는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금반지와 금비녀는 한국의 여인네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다.

# “남북남편 돌려달라” 통곡



분담의 벽 넘어 이산가족 상봉

## 금강산상봉 이틀째

이산상봉 이틀째인 29일 남북 이산가족들은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금강산 여관 객실에서 개별상봉과 공동식사 등 세차례의 만남을 통해 전날 못 다한 얘기꽃을 피웠다.

○...남북어부 부인 김애란(金愛蘭·79)씨는 이날 공동식사 시간에 갑자기 남편사진과 조업중 피랍된 풍복호 사진을 들고 “남편을 돌려달라. 죽었으면 기일(忌日)이라도 알려달라”고 소리쳐 주위를 긴장시켰다.

김씨는 “우리 바깥양반 보고 싶어 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나 알고 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 김애란할머니 “忌日이라도...”

## 北가족들 정치색 발언에 어색

## “언제 보나” 기약없는 이별준비

그러나 김씨의 울부짓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여동생인 순실(67)·덕실(58)씨조차 “모릅네다. 우린 모릅네다. 전혀 모릅네다”라고 고개를 저으며 탄전을 피워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 26일 작고한 어머니 어병순(93)씨 대신 상봉길에 나선 이부자(62)씨는 이날 개별상봉때 언니 이신호(66)씨와 다시 만나 어머니의 영정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신호씨는 어머니 영정에 50년 만에 큰 절을 올리며 연신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되는 첫 10여분 동안 북한의 언니와 조카들은 말끝마다 ‘김정일 장군님’ ‘미제놈들’ ‘시발같은 한나라당놈’ 등의 정치적 발언을 연발, 이씨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북측 가족들은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세웅 한적부총재가 찾아와 조의를 표한 뒤 서영훈 총재 명의



◇김애란 할머니가 29일 금강산여관에서 가진 공동오찬 도중 지난 67년 남북된 남편과 피랍된 풍복호 사진을 꺼내보이며 남편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금강산=연합

의 조의금을 내밀었으나 ‘일없습네다’며 한사코 거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대부분 고령자인 이산가족 상봉단이 긴 여정에 가족상봉으로 흥분된 탓인지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또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아침식사에서 상당수 가족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남북어부 부인인 김애란씨는 28일 밤 지병인 ‘전신 쇠약이 악화돼 해금강호텔에서 포도당주사를 맞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못다한 이야기·선물 보따리 풀어

## 금강산 개별상봉

4차 이산상봉 이틀째인 30일 금강산 여관에서 치러진 개별상봉에 전날 단체상봉 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선물 교환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족·친지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사망사실을 확인하고는 눈물바다를 이루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고령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앞두고 숨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에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방문단 내부에서 쏟아졌다.

◇고령 이산가족 죽기 전 상봉 필요하다=지난해 10월 초르려다 북측의 일방적 연기로 미뤄진 4차 상봉은 가족과의 만남을 확고고대하 숨진 고령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어느 때보다 더했다.

29일 오전 금강산 여관에서 치러진 개별상봉에서 남측 안용관(81)씨는 아내 윤분희(74)씨와 아들 시복(53), 딸 순복(51)씨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아들이 지난해 11월 숨졌다는 얘기를 듣고 망연 자신했다.

오빠 승남(77)씨가 지난해 10월 남한 방문단 후보 명단에 올라있어

## 만남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 많아 재혼한 남편 부부에 반지 등 주기도

방북을 포기했던 박재례(64)할머니는 이번에 가까스로 방문단에 포함됐지만 오빠가 최근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지난해 10월 상봉이 예정대로 이뤄졌더라면..."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또 남측 김남수(63)씨는 누이 영수씨와 여동생 완수(62), 사촌동생 영수(63)씨 등을 만났지만 지난해 방문단에 포함됐던 사촌동생 명수씨가 이번에 사정이 생겨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적 관계자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이산을 한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상봉 정례화와 면회소 개설 등 제도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풀려진 선물 보따리=호텔객실에서 이뤄진 가족들만의 오붓한 개별상봉장에서는 남측에서 정성껏 준비해간 선물 보따리가 선을 보였다. 대개가 의류와 시계·반지, 그리고 현금(달러)이다.

북한에 아들을 남기고 월남했던 권지은(89)할머니는 사진으로 접한

며느리에게 건네라며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쌍가락지를 선물해 냈다.

전날 만난 남편에게 "옛날 숨겨둔 애인이 있었느냐"며 꾸밈을 늘어놓던 정귀업(75)할머니는 북한에서 재혼한 남편 임한연(74)씨 부부에게 한복과 반지·목걸이를 선물했다.

또 큰형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변정의(61)씨는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은 형수님"이라며 어머니의 금비녀를 건넸다.

북측 가족들도 들쭉술과 인삼주 등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5차 상봉 이뤄질까=양측 단장인 이세웅 한적 부총재와 최창식 북적 부위원장은 오후 만남에서 이산상봉 행사의 지속적 추진과 면회소 개설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부총재는 "5차 상봉도 조속한 시일 안에 성사되도록 하자"는 뜻을 전달했고 북측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북측 상봉자 임한연씨(가)가 29일 금강산 여관에서 52년동안 수절한 남측 아내 정귀업씨와 개별 상봉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여동생에게 생일상 받고 “여한없다”

## 이산가족 상봉 둘째날

4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9일, 남북 이산가족들은 전날의 첫 만남 때보다 한결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 및 친지들의 소식을 묻고 답하며 상봉의 기쁨을 만끽했다. 일부 북측 가족들이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발언도 했다.

○...남의 이부자(61)씨와 북의 인니 신희(66)씨는 이날 금강산여관에서 다시 만나 지난 26일 사망한 어머니 어병순(94)씨의 영정을 꺼내놓고 함께 울었다. 신희씨는 “네가 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말한 뒤, 과일 몇 개와 음료수만으로 영정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도 잠시, 신희씨가 남편 최기철(67)씨의 ‘사회주의 애국회생자 영예증’을 자랑하는 등 체제선전을 계속하자, 당황한 부자씨는 “언니는 시력이 여전히 좋네. 난 인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인다”고 회피했다.

○...지난 67년 납북된 홍복호 선원 최원모(92)씨의 아내 김애란(79)씨는 끝내 남편의 생시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전날(28일) 단체상봉과 이날 오전 개별상봉 때까지 남편 소식을 묻지 않던 최씨는 오찬 때 순실



◇담은꼴 삼남매  
28일 저녁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남북 남북 단의 윤금철(가운데)씨가 북측의 여동생들을 포용하며 활짝 웃고 있다. /첩

## 과일·음료수 놓고 어머니 영정앞에서 제사 35년전 남북 남편 생사 끝내 확인못해 눈물

(67)·탁실(58)씨 등 두 여동생에게 남편 사진을 꺼내 놓고 “우리 주인공 반 보고 싶어 왔는데, 죽었나 살았나 알고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의 임한인(74)씨는 50여년간 수절하면서 자신을 대신해 조부모와 부모를 모셔온 남한의 아내 정귀업(76)씨에게 어머니의 기일(忌日)부터 물었다. 아내 정씨로부터 “5월 보름”이란 말을 듣고 종이에 적으면서, “이 제라도 어머니 제사는 내가 지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가져간 선물꾸

러미를 풀면서 “한복과 금목걸이, 반지는 당신 것이고, 재혼자 묶으로 한복도 한벌 준비했다. 당신이 북에서 낳은 자녀 5명에겐 시계를 주라”고 했다.

○...1·4후퇴 때 단신으로 월남했던 최구배(68)씨는 이날 오찬에서 북측 여동생으로부터 생일상을 받고 감격에 겨워했다. 최씨는 “50년 만에 여동생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복에 겨운데, 이렇게 생일상까지 맞게 되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자, 여동생 인순씨는 오빠에게 맥주를 따르며 “오래오래 살아 통일이 되어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임경수씨는 막내 동생의 부인과 조카 5명을 만나, 6·25 당시 월북한 첫째 동생 경협씨 등의 소식을 안타깝게 물어보았으나, 북측 가족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체제 선전에 열중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조카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00년 6월 정상회담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책자를 내밀면서 한 번 읽어보라고 주문. 임씨는 책자를 들고 익숙지 않은 말투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을 상봉하시었다...”라고 읽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정담 나누며 반세기 '단절의 강' 건너



■ 상봉 이틀째 표정

남북 이산가족들은 28일 첫 만남 때는 오랜 세월 헤어져 지낸 탓인지 다소 어색해하기도 했으나, 29일 개별 상봉과 공동 중식, 구룡연 참관 상봉 등 다섯 시간 넘게 이뤄진 만남에 선 한걸 차분하면서도 살가운 시간을 보냈다.

예선이 넓은 북쪽의 딸에게 뒤늦은 결혼반지를 선물하는 남쪽의 어머니, 형님 제사상에 올려달라며 직접 지은 쌀을 건네는 촌로. 반세기 만에 만난 남쪽 부인에게서 어머니 기일을 확인하고는 "이제 제사는 내가 지내겠다"며 눈물짓는 노년의 '불효자' ... 29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두 시간여 이뤄진 개별상봉은 가족과 친지들의 소식을 묻고 답하며 반세기 단절의 감을 뛰어 넘기 위한 몸부림으로 뒤엉켰다.

일부 이산가족들은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취재진들의 접근을 정중하게 거부하기도 했다. 금강산여관에서 이뤄진 공동중식과 구룡연 참관상봉 또한 취재진의 근접 취재가 불가능했다. 이산가족들은 버스 한 대에 10가족, 30여명씩 나눠타고 구룡연 참관에 나서 취재진의 ' 방해' 없이 정담을 나누며 금강산 절경을 둘러봤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린 탓에 길이 좋지 않고 나이든 이산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해, 구룡연 참관은 애초 예정된 세 시간보다 훨씬 짧은 한 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나 정귀업씨는 남편 립한연씨의 불에 입을 맞췄고, 김연식(70)씨의 북쪽 동생 정식(57)씨는 "비가 와도 형이랑 함께라면 좋다"고 하는 등 다들 짧은 만남을 애뜻하게 보냈다.

"비 와도 함께라면... 죽어도 여한 없다" 애뜻한 만남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고파" 취재진 거부하기도



52년만에 손잡은 부부 52년 수절 끝에 남편 립한연씨(오른쪽)를 만난 정귀업 할머니가 금강산여관 오찬장에서 두손을 맞잡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최구배(68)씨는 점심 때 북쪽 여동생 인순씨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짓기도 했다.

개별 상봉 시간에 애지중지 아껴오던 물건을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다. 남쪽 방문단원들은 대체로 옷가지와 시계, 반지, 약간의 현금 따위를 북쪽 가족들에게 건넸다. 북쪽의 전력난에 따른 겨울 추위를 걱정한 탓인지 계절이 여름 문턱으로 내달리고 있는데도 오리털 파카와 겨울용 속옷을 준

비해 선물한 이들도 있었다.

남쪽 방문단의 한 할아버지는 두 팔에 시계를 차고, 손가락에 금반지를 벗이나, 눈길을 끌었으나 용도나 이름 밝히기를 끝내 거부했다.

남쪽 방문단 지원요원으로 금강산에 온 소설가 김원일씨는 반세기 전 윤택했던 아버지를 혹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으나, 29일 오후까지 상봉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북쪽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 (상봉 주선)이 어렵다"고 했다. "만날 수 있

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 기다려 봐야지"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북쪽은 전례가 없는 금강산 상봉 무난하게 치르기 위해 평양에서 음식과 접대원, 요리사 등을 대거 파견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 일부 북쪽 가족들은 남쪽 가족들에게 '모두가 장군님 언덕', '우리가 헤어져 사는 것은 모두 미국놈들 때문'이라는 정치성 발언을 피뎌이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지난해 10월에 상봉 이뤄졌다면...”

이산가족들 무심한 세월앞에 하나 둘 세상떠나  
안용관·박재례씨등 북쪽가족 사망소식 눈물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이산가족들은 속절없이 하나 둘 세상을 등지고 있다.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관 해도에 초 지난해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6개월 넘지 뒤로 밀리는 사이 여럿이 세상을 떠났고 몸져 누운 이도 적지 않다.

남쪽 안용관(81)씨는 북쪽의 부인 윤분희(74)씨와 딸 순복(51)씨를 만

나 반세기 만에 회포를 풀었다. 그러나 애초 만남 것으로 기대했던 아들 시복(53)씨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만 들었다. 안씨의 입장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승남(77)씨가 지난해 10월 방남단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어 방북을 포기했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방북단에 포함된 박재례(64)씨도 오빠가 최

근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해 했다. "지난해 10월에 상봉이 이뤄졌다면..."

경양 강동군이 고향인 황선옥(79)씨 또한 딸인 김순실(62)씨와 동생 남구섭(55)씨를 만났지만, 동생선영(74)씨는 보지 못했다.

남쪽에서는 어병순(94)씨가 방북 이틀 전인 26일 꿈에도 그리던 북쪽의 딸 이선호(66)씨를 보지 못한 채 한 닳은 생을 마감했고, 정인용(85)씨도 폐암 말기로 병세가 나빠져 방북 하루 전인 27일 상봉행사 참가를

포기하고 말았다. 남쪽은 결국 100명에서 한명 모자라는 99명만으로 방북단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고령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상봉이 지난 1~3차 방문단 교환행사 때에 비해 부부·자식 상봉 사례가 준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번에 남편이나 부인, 자식을 만난 경우는 모두 16명이고, 이 가운데 부부상봉은 3쌍에 불과했다. 반면 형제·자매를 만난 이는 66명에 이르렀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앞으로 10년이면 이산가족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며 "면회소 설치 등 상봉 정례회와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29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개별상봉에서 상봉을 이룰 앞두고 인타깝게 숨진 어병순씨의 딸 이부자씨가 북측의 언니 이신호(가운데)씨와 함께 제사를 지내기 앞서 영정을 들고 예도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내일이면 또 이별...” 못다퓌 恨에 탄식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  
같은 29일에도 남북 이산가족  
은 개별상봉 2시간, 동석중식 2시  
간, 구형연을 1시간여간 동행 관  
광했다.  
이산가족들은 지난 28일 못다  
한 대가집 이어갔  
지만 상봉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  
았다는 안타까움  
이 역력한 표정이  
었다.  
○-8-15 때 남  
편을 따라 월남한  
박용화(81)씨는

■ 이산상봉 이틀째  
“北가족에 전해달라”  
금반지·한복등 마련  
고령에 상봉 흥분 탓  
두통·복통 호소 많아

에서 다시 만나 선물을 건넸다.  
“이 한복하고 금목걸이·반지는  
당신 것이고 북에서 재운한 이내  
뽀로 한복도 한복 준비했어요  
당신이 북에서 넣은 지너 5명에게  
는 시계를 주세요.” 남북 분단의  
역사 탓에 굳게  
타졌던 정 할머니  
의 마음은 이번  
상봉으로 열려 북  
쪽 남편의 새 가  
족까지 품안에 꺼  
안았다.  
○- 개별상봉,  
공동중식 등이 있

은 이날 고향지가 태반인 이산가  
족 상봉단이 긴 여정에다 가족 상  
봉에 따른 흥분으로 두통과 복통  
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의무실측은 전했다.

○-류지훈(61) 할아버지는 개  
별상봉 때 고향인 전라남도에서  
직접 농사지를 팔 두되를 조카 경  
선(32)씨와 형수에게 전달하면서  
“형님 산소에 갈 때 이 쌀로 밥을  
지어 내 대신 올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기 작가 김원일씨는 4차  
이산가족 상봉단 지원원인으로  
“금강산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 대면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  
하고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상봉 갖가지 사연들

### ■ 남북어부 부인 김애란씨

“우리 주인 양반 보고싶어 왔는  
데, 죽었나 살았나 오늘 알고나  
갔으면 좋겠어 ...”

1967년 서해 연평도로 조기잡  
이 나갔다가 피잡된 최원모(92)  
씨의 부인 김애란(79)씨는 29일  
공동중식 식사를 하던 중 사진을  
꺼내 놓으며 남편의 생사할 북쪽  
동생들인 손실(67)씨와 덕실(58)  
씨에게 물었다.

김씨가 내놓은 사진들에는 남  
편 최씨가 남북될 당시 모습과 타  
고갔던 풍복호 선체 모습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남북한 양쪽 취재  
기자들과 지원원들이 뿔뿔이  
사진을 지켜봤다.

김씨가 사진을 꺼내려 합 순간  
위생실(화장실)이 가 자리를 비  
웠던 동생 손실, 덕실씨가 돌아오  
자마자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채  
숨을 주고 노래를 불렀다. 동생들  
은 애써 김씨를 의연했다.

김씨는 “남편이 언제 남북됐는  
나”는 질문에 “35년 됐어요. 잡혀  
갔지”라며 울먹이며 눈시울을 글  
셨었다. 북쪽 동생들은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여러 선생님을 우

### “남편 생사만이라도 알았으면”



29일 오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이산가족 공동중식 도중 북쪽 여동생들을 상  
봉한 김애란 할머니가 남북된 남편 최원모씨와 피잡이던 풍복호 선체를 내보  
이고 있다. 금강산/연한

린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일면 담  
씀 드리죠”며 형부의 남북사실이  
나 생사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씨는 “같이 잡혀갔  
던 선원 5명은 돌아왔는데 ...”라  
며 생사할 알 수조차 없는 남편을

어떻게 찾았다. 김씨는 이런 가슴  
웅어리 때문인지 전남 단체상봉  
직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만찬에  
도 참석하지 못한 채 해금강호텔  
의 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휴식  
을 취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 이부자-신호씨 자매

50년여 만에 만난 이부자(62),  
신호(66)씨 자매 앞에 영정으로  
합께 한 어병순(83)씨의 모습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인자한 어머  
니 모습이였다.

29일 오전 10시 20분경, 금강산  
여관 716호에 들어선 부자씨가 어  
머니의 영정을 내보이자 신호씨는  
“내가 먼저 봐야지”라며 울먹  
였고 이내 사흘 전 손을 거둔 어머  
니 영정을 꺼내며 흐느꼈다. 부  
자씨는 “엄마 모습을 알아보겠는  
나”며 몰자 신호씨는 “그래 엄마  
모습이 됐다. 어머니를 모시느라

### 영정 끌어안고 “어머니...” 오열

네가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했다.

“영정이나마 어머니 한번 불러  
봐”라는 부자씨의 말에 신호씨는  
과일 몇개와 음료수만 놓인 조리  
한 제사상 앞에서 반세기 만에 어  
머니를 목매어 불러보며 회한을  
토해냈다. 부자씨도 장례에 참석  
하지 못한 죄책감에 어머니 영정  
을 쓰다듬으면서 울부짖었고, 조  
카와 조카사위도 처음 본 할머니,  
신호씨 앞을 지나며 울었다.

잠시 후 슬픔과 흥분을 다스  
리었던 자매 앞에 놓여진 50여년의

분단 장벽을 뛰어넘기가 벅차 보였  
다. 부자씨는 신호씨와 조카의 지나  
친 체재동호적 법안이 이어지지 않  
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신호씨가 남  
편 최기철(67)씨의 ‘사회주의 애  
국희생자명예증’을 자랑하자, 부  
자씨는 최씨를 바꾸려는 듯 “언니  
는 시력이 여전히 좋네. 나는 안경  
을 안쓰면 잘 안보인다”고 말했다.  
신호씨 일행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은덕에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자고  
제외하자 부자씨는 곤혹스런 표정  
을 지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 남쪽 황선옥 할머니

“자이것 받아라.”  
“자 지나서 무슨 반지요?”

상봉 들쭉날 금강산여관 11층  
11호에서 큰딸 김순실(63)씨를  
다시 만난 황선옥(79)씨는 딸이  
계 결혼반지와 목걸이를 건넸다.

큰 딸을 북에 남겨두고 반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황씨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딸에게 결혼선  
물을 마련해 주는 일이었다. 전쟁  
전 남쪽으로 내려올 당시 집시 외  
가에 맡겨둔 뒤 50년이 넘도록 만  
나지 못한 큰딸이 결혼이나 했는  
지 늘 걱정했다.

### 큰딸에 뒤늦게나마 결혼반지 건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모습과, 일  
글도 보지 못한 사위할 위해 한복  
까지 준비했다가 사망소식에 안  
망하는 어머니 모습이 어른거렸  
으며 눈물을 흘렸다.

평양 강동군이 고향인 황씨는 해  
방 이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1947  
년 남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  
다. 마침 몸살기운이 있던 큰딸을  
잠시 외가에 맡겨두고 작은딸과  
아들만 데려왔다. 당시만 해도 38

선 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바로  
데려올 요량이었지만 탈허버린  
38선은 모녀의 재회를 반세기 동  
안 가로막았다.

남편 김병덕씨와 함께 남쪽에  
점착한 황씨는 딸 3명을 더 낳았  
지만 큰딸을 잇을 수 없어 손실씨  
도래 아이들만 지나가도 눈물을  
쏟곤 했다. 황씨는 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순간만큼  
회한의 55년 세월을 머리 속에서  
지우려 애썼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남북 남편 돌려줬으면...”

이산방문단 오늘 귀환

금강산=공동취재단

제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틀째인 29일 남측 이산가족 99명과 재북가족 183명은 개별상봉, 동석 중식, 동반 관광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산의 아픔과 협육 상봉의 회한을 담았다.

특히 재북가족 숙소에서 진행된 개별상봉에서는 주위의 눈을 의식해 미처 못다했던 말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봉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일부 고령의 남측 이산가족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겨 남측 숙소인 해금강호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동반관광은 금강산 지역의 곳곳은 날씨로 인해 삼일포에서 구룡연으로 장소를 바꿔 진행됐다.

우리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30일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속초를 거쳐 귀환할 예정이다.

○...이날 개별상봉에서는 북측 이산가족들이 보도진이나 북측 안내원이 접근하면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며 '장군님의 배려'를 남측 가족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북 구미 출신인 임경수 씨의 북측 조카들은 "큰아버지 형제들이 헤어져 살게 된 것은 '미국놈들' 때문"이라며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장군님 배려"라고 강조했다.

북측 조카들은 북측 보도진이 물러들자 아예 '동일의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쓰인 책자를 임씨에게 전해주며 "읽어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임씨는 "여기는 김정일을 무척 받드는 모양"이라고 한마디 한 뒤 동생 생사를 물으며 화제를 바꾸었다.

○...남측 류재춘 씨(61)는 개별상



29일 오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이 구룡연으로 함께 소풍을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 함성을 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형님 산소에 올리세요” 쌀 전네 北체제 선전에 눈살 찌푸리기도

봉에서 형님 산소에 올리라며 직접 농사지는 맷쌀 두 되를 조카와 형수에게 전해 눈길을 끌었다.

류씨는 "고향 흙을 형님 산소에 뿌리려고 했는데 흙은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속초항에 두고 왔다"면서 "이 쌀로 밥을 지어 내 대신 형님 산소에 올리라"고 조카들에게 당부했다.

북측 조카 류경선 씨(32)는 작은 아버지가 주는 쌀을 고이 간직했다.

○...남북자 부인이면서도 첫날 상봉에서 남편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던 김애란 씨(79)가 상봉 이틀째인 29일 "남편을 돌려달라. 기일이 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회한과 분노를 폭발시켰다.

김 할머니는 이날 이산가족 모두 집집을 함께하는 공동 중식장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67년 납북된 어선 풍복호 사진과, 선주인 남편 최원모

씨(92) 사진을 꺼내들고 그 동안 참 아왔던 설움을 토해냈다.

김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우리 주인 양반 보고싶어 왔는데 죽었나 살았나 오늘 알고나 갔으면 좋겠다"며 동석한 동생 순실(67), 덕실 씨(58)에게 물었다.

테이블이 소란스러워지자 주변에서 남북 양측 기자들과 지원요원들이 몰려들어 김 할머니를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나 두 여동생은 잠시 위생실(화장실)에 다녀온 뒤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애써 현실을 외면했다.

납북됐다는 김 할머니 말에 덕실씨는 "모릅시다. 우리는 모릅시다. 여러 선생님들 우리 전혀 모릅시다. 우리가 알면 말씀드리죠"라며 "형부의 생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할머니는 "잡혀갔던 선원 5명은 돌아왔는데..."라며 남편을 애타게 불렀다.



관광나선 상봉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이 29일 오후 금강산 구룡연 관광에 나서기에 앞서 버스에 올라 손을 흔 들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선물 나누며 '얼싸안은 혈육'

###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틀째인 29일 남측 99명과 북측 1백83명은 금강산에서 세차례 만나 혈육의 정을 다시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북측 가족의 숙소인 금강산여관 객실에서 개별 상봉을 갖고 사진과 선물을 교환하며 못다한 얘기를 나눴다. 남측 이산가족

들은 30일 오전 1시간 동안 북측 가족과 한차례 더 만난 뒤 속초항으로 돌아온다.

○...“우리 주인 양반 보고싶어 왔는데 죽었나 살았나 오늘 알고나 갔으면 좋겠어.”

지난 67년 서해 연평도로 조기잡이를 나갔다가 납북된 최원모씨(92)의 부인 김애란씨(79)는 공동 중식을 하던 중 남편의 사진을 꺼내 놓으며 북측 동생 순실(67) 덕실씨(58)에게 물었

다. 그러나 두 여동생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애써 피하려 했다. 이 같은 행동은 “납치는 없었다”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큰딸 김순실씨(63)를 다시 만난 남측 황선옥씨(79)는 딸에게 결혼 반지와 목걸이를 건넸다. 전쟁통에 큰딸을 북에 남겨 두고 남편과 남으로 내려와 죄책감으로 반세기를 살아왔던 황씨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반지를 받은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산가족 즐거운 관광길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이 29일 금강산 구룡연으로 단체관광을 떠나기에 앞서 버스 안에서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금강산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동반 나들이

제4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9일 남북 가족들이 버스를 함께 타고 금강산 구룡연까지 동행 관광에 나서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 이산상봉 2題 /

### ‘반지·현금’ 주고 ‘술·담배’ 받고

#### • 남·북 무슨선물 교환했나

남북 가족들은 29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정성껏 준비한 갖가지 선물보따리들을 풀어나갔다.

남측 가족들은 대부분 시계·반지·현금 등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들을 준비했다. 지난해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상봉행사가 이뤄지는 바람에 당시 준비했던 겨울 내의·오리탈과카 등을 가져온 가족들도 있었다.

한 할아버지는 양팔에 손목시계를 차고 손가락에 금반지를 4개나 차고 와 북측 가족에게 건넸다. 의명을 요구한 이 할아버지는 “남측 지원단에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남측 상봉단 최고령자인 권지은씨(89)는 북측 아들 병림씨(62)가 가져온 사진 속의 며느리를 위해

양손 시계풀어 北가족에 선물 준비못한 할아버지 北조카 들쪽술받고 ‘머쓱’

쌍가락지를 풀었다. 정귀업씨(75)는 북측 남편 엄한연씨(74)와 북측 부인을 위해 한복·반지·목걸이 등을 선물했다. 남편 임씨는 50여년을 수집해온 정씨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안타”는 말만 되풀이했다. 북측 가족들은 술·담배·탁상담배가 담긴 상자 등을 남측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경제사정으로 상봉기회를 놓쳤던 임경수씨(86)는 한적이 준비한 옷가지·의약품 외에 밭도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으나 북측 조카들로부터 들쪽술과 인삼주 등을 받고 머쓱히 웃었다.

### ‘반년 늦어져...’ 날아간 상봉꿈

#### • 연기 탓 4명 무산

“지난해 10월에 상봉이 이뤄졌더라면...”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제4차 이산상봉이 한차례 연기 끝에 6개월 만에 성사됐지만 그동안 남북의 가족들이 사망, 상봉을 이루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남측에서는 이산가족 1명이 병환으로 방북을 포기, 99명이 금강산을 찾았고 북측도 사망·병환 등으로 당초보다 3명이 줄어든 183명이 상봉장에 나왔다.

남측의 안용관씨(81)는 북녘의 아내 윤분희씨(74)와 아들 시복(53), 딸 순복(51)씨를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아들이 지난해 11월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했다. 북측의 오빠 승남씨(77)가 지난해 10월 방문단 후보자 명단에

北아들 만나러 간 안용관씨 지난 11월 사망에 망연자실 정재용씨 폐암으로 방북포기

올라 방북을 포기했던 박재례씨(64)는 가까스로 방문단에 포함돼 금강산 상봉을 기대했다. 하지만 오빠가 최근 사망했다는 소식에 박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황선옥씨(79)는 북측의 딸 김순실씨(62)와 남동생 구섬씨를 만났지만 여동생 선영씨(74)는 만나지 못했다. 황씨는 “누님이 아파 올 수 없었다”는 구섬씨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이밖에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였던 여병순씨(93)가 지난해 26일 사망했고, 폐암말기인 정재용씨(85)도 방북 상봉을 포기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2차상봉 466명 오늘 북으로

## 1차방문단 99명 아쉬운 작별

4차 이산가족 방문단 1차 상봉 마지막날인 30일 남쪽 이산가족 99명은 금강산여관 1층 로비에서 북쪽 가족과 50분 남짓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 2박3일 간의 상봉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설봉호편으로 장전항을 떠나 속초로 돌아왔다.

▶관련기사 7·19면

역시 금강산에서 1~3일 이뤄질 4차 방문단 2차 상봉에 나설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부장 등 남쪽 가족 466명은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1일 오전으로 예정된 방북에 대비했다.

오전 9시10분~10시 금강산여관 1층 로비와 앞마당에서 이뤄진 작별 자리에서, 남쪽의 이산가족 99명과 북쪽 가족 183명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황선옥(79)씨는 북쪽의 딸 김순실(62)씨 손을 잡고 "널 낳고 떠나서 미안하다"며 흐느꼈고, 순실씨는 "또 볼 날이 있을 것"이라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1일 방북하는 4차 방문단 2차 상봉단은 금강산 도착 직후 온정각 휴게소에서 단체 상봉과 만찬을 한 뒤 2일 금강산여관 개별상봉과 가족 동석 점심, 삼일포 참관 상봉, 3일 작별 상봉 등의 일정을 치른 뒤 돌아올 예정이다. 금강산·속초·공동취재단

## 남측 상봉단 속초항 귀환

남측 가족 99명은 30일 금강산 여관에서 북측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이들의 상봉이 끝남에 따라 1~3일 금강산에서는 또 다른 남측 가족 468명과 북측 100명이 만난다. 남측 468명은 30일 오후 속초시 한화리콘도에 모여 간단한 방북교육을 받으며 방북을 준비했다.

이날 금강산 작별 상봉에서 52년간 수절한 남측의 정귀업(鄭貴業·75)씨는 북측 남편 임한연(74)씨에게 "또 이별이나,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울부짖었고, 임씨는 "통일될 때까지 몸만 건강해"라고 위로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1차 상봉 눈물속 작별

## 2차 이산가족 468명

## 오늘 금강산으로 출발

30일 금강산과 강원도 속초에서는 가약없는 이별의 눈물과 상봉 전야의 설렘이 교차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북한의 가족 1백83명과 만난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99명은 이날 오전 10시 금

강산여관 로비에서 50분간 마지막 상봉을 했다.

영상 6도에 굵은 비가 내리는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 치러진 작별상봉에서 남북 가족들은 '고향의 봄' '반달' 등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기를 기원, 눈물바다를 이뤘다.

52년간 수절한 남측 아내 정귀업(79)씨는 그리던 남편 임한연(74)씨

를 부여잡고 "또 이별이나,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통곡했고, 남편 임씨는 "통일될 때까지 몸만 건강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측 방문단은 이날 오후 현대 설봉호편으로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한편 1일부터 사흘 동안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 1백명과 만날 남측 상봉단 4백68명은 속초 한화리콘도에 집결해 방북교육을 받은 뒤 반세기 만의 만남을 고대하며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금강산·속초=공동취재단

# 北가족 상봉단 468명 오늘 금강산으로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30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가족·친척 183명과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간의 짧은 상봉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장전항을 떠나 속초로 돌아왔다.

또 1일부터 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북측 이산가족 100명을 만날 남측 가족·친척 468명은 이날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일 낮 금강산으로 떠난다. /金剛山=공동취재단

### 상봉2진 468명 오늘 방북

### 1진 99명은 어제 귀환

제4차 이산가족 상봉 1진 행사에 참여한 남쪽 방문단 99명은 2박3일간 금강산에서 북쪽 가족 183명과과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30일

오후 5시30분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관련기사 5면

1일부터 3일까지 북쪽 상봉가족 100명과 만나는 남쪽 2진 방문단 468명은 이날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일 오전 설봉호편으로 금강산으로 갈 예정이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상설면회소 빨리 설치를”

### ◦ 금강산 이산상봉 좌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만 있다면 좋은 일 아니냐.”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사히 끝난 30일 오전 남측 가족중 김영배(金永培·66)·강일창(姜日昌·77)·고금순(高金淳·71)씨 등 3명이 장전항 출발전 숙소인 해금강호텔 1층에서 만나 상봉행사를 평가하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배 살아 생전 못 만날 줄 알았던 동생을 만났다. 금강산이든, 중국 땅이든 만날 수만 있다면 달려갈 생각이었다.

◦강일창 그동안 늘 동생들을 생각해 왔는데 만나보니 똑같다.

◦고금순 조카들이 어릴 때 헤어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첫날 상봉에서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조카들이 나를 알아보고 뛰어왔다. 역시 혈육의 연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개별상봉과·참관상봉때 솔직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 조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구룡연으로 갈 때는 고향 가는 기분이었다.

◦김영배 금강산여관에 대한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다. 면회소로 사

용하려면 수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고금순 북한에 전력이 모자라서인지 금강산여관의 조명이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조카들의 미소가 그 안을 밝게 비췄던 것 같다.

◦김영배 세월이 흐른 만큼 동생들도 북한체제에 젖어 있었다. 귀에 거슬리는 말도 했으나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모른 척 들었다.

◦강일창 우리가 오고 나면 무슨 얘기했다고 물어볼텐데 책 잡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 “개별·참관상봉 호응 커”

### “판문점에서 만났으면”

만들 필요가 있다. 금강산이든, 어디든 괜찮다. 다만 금강산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제일 좋기는 판문점이다. 마음대로 접수하고 시간이 나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강일창 편지도 자주 교환했으면 좋겠다.

◦고금순 평양에서 만났으면 비행기만 한번 타면 됐을텐데, 차로, 배로 이동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부담스럽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빨리 설치돼 고령자들이 저세상으로 가기 전에 편안하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또 생이별’... 이산상봉단 귀환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순차 방문단 1진인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30일 오전 금강산여관 로비에서 북측 가족들과 50여분 동안 작별상봉을 나누면서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못내 서러워했다.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억없는 재회를 다짐하고 남은 여생 건강할 것을 눈물로 당부하면서 서로 부둥켜안는 등 떨어질 줄 몰랐다.

52년간 수절한 정귀업(鄭貴業·75)씨는 북측 남편 임한언(74)씨에게 “또 이별이냐,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울부짖었고, 임씨는 “통일될 때까지 몸만 건강해”라며 위로했다.

최고령자 권지은(權志殷·89) 할머니는 노모와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북측 아들 이병립(61)씨의 등을 다독이며 “내 걱정 말고 오래 살라”고 신신당부했다.

방북 이틀 전 어머니 어병순(93)씨가 숨져 대신 금강산에 간 이부자(李富子·63)씨도 북측 언니 신호(66)씨를 감싸안고 이별의 아픔을 달랬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언제 또 만날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날인 30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남측 이산가족들이 탄 버스가 장진항으로 떠나려 하자 북측 가족들이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손을 붙잡고 있다. <관계기사 2면> 금강산=사민공동취재단

“못 만났으면 낯새가 되어 울고 다녔을걸”

‘이산의 詩人’

정귀업할머니

‘금강산의 이산(離散) 시인.’

52년 수절 끝에 북쪽 남편 임한연 할아버지(74)를 만난 정귀업 할머니(75·사진)는 이번 방북기간에 이렇게 밝혔다. 정 할머니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선 시(詩)보다도 절절한 이산가족의 한과 정서가 묻어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못 만났으면 낯새가 돼 울고 다닐 것이다.”

반세기 동안의 이산과 상봉의 한을 정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달 29일 남편 손을 잡고 금강산 구룡연을 찾은 정 할머니는 “하늘과 땅을 합친 것만큼 좋다”고 기뻐하다니 헤어지면서는 “시갓바늘이 한 겹도 쉬어주길 않아요. 가



다 보면 아주 가는 날 있겠지. 그때는 후회 없이 가자”고 말했다. 이날 밤 정 할머니는 숙소 앞에서 “침대도 두

개인데 같이 잘 수 없을까. 누구한테 떠쓰면 될까. 김정일한테”라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30일 작별상봉 때는 남편에게 연인처럼 다짐을 놓았다.

“사진 보며 내 생각해요. 나도 보고 싶으면 사진 볼 거야.”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이 다가오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52년동안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또 혼자 가요. 나 집에 안 갈거야. 이제 어떡하라고요...”

정 할머니는 남편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오랫동안 도리질을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언제 다시 만나나”

30일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남편과 작별을 하고 나오던 정귀업 할머니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北가족 상봉단 468명 오늘 출발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99명은 30일 오전 금강산여관 1층 로비에서 북측가족 183명과 50여분간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간의 가족상봉을 마무리하고 금강산 관광선 상봉호편으로 북한 장전항을 출발, 속초로 귀환했다.

▶A29면에 관련기사

작별상봉에서 52년간 수절한 정귀업씨(75)는 북한 남편 임한연씨(74)에게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남은 인생 또 어떻게 사느냐”며痛哭했다. 임씨는 “통일될 때까지 몸만 건강해”라며 위로했다.

한편 북측 가족 100명과 상봉합 김민하(金旻河) 민주평통 수석부 의장 등 남측 방문 가족 468명은 이날 오후 강원 속초시 한화콘도에 집결했으며 1일 금강산관광선 상봉호편을 이용해 금강산으로 가족들과 단체상봉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통일되면 다시 보자” 눈물속 이별

## • 4차 이산상봉 마지막날 표정

반세기의 긴 이별, 2박3일의 짧은 만남. 그리고 또 기억없는 이별. 4차 이산상봉 마지막날인 30일 오전 금강산여관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는 한탄과 통곡으로 또다시 눈물 바다를 이뤘다. 이날 금강산에는 구슬픈 비가 내렸다.

○...이산가족들은 전날 환했던 표정과 달리 금세 울음을 터뜨릴 듯 침통한 분위기였다. 오전 9시쯤 금강산여관 로비로 들어서면서부터 울먹이기 시작한 남측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던 북측 가족들을 보자 울음부터 터뜨렸다.

“건강하게 지내야 해”,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 이산가족들은 기억없는 이별이 서러운 듯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통곡했다. 즉석사진을 찍기도 했고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빨리 버스에 오르라”는 소리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던 남측 가족들은 버스에 올라서도 북측 가족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차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봤다.

○...“나 집에 안 갑어요. 52년을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좀 해줘요”. 북측의 남편 임한연씨(74)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정귀업씨(75)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첫 상봉에서 남편 임씨에게 ‘바가지’도 굵고 둘째날에는 새색시로 돌아가 남편 볼에 입맞춤도 했던 정씨는 재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남편 임씨는 “건강히 있어. 통일되면 만날 수 있다”며 눈물로 범벅이 된 아내를 다독거릴 뿐이었다. 계속 손수건을 적시던 정씨는 즉석사진 2장 가운데 한장을 남편에게 건네며 “나 미워하지 말고 사진 보며 내 생각해요. 나도 보고 싶으면 사진 볼거야”라며 잠시 여유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상봉시간이 끝나자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며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다. 정씨는 이번 상봉기간 중에 52년간의 신산의 세월을 애절한 문장으로 풀어내 ‘이산 시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30일 작별하기에 앞서 손을 내밀거나 이름을 부르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짧은 만남 아쉬운 듯 하늘도 땅도 젖어 금강산내 면회소 설치 본격 논의될듯

○...남북된 남편을 보기 위해 휠체어에 의지한 김예란씨(79)도 동생들의 얼굴을 번갈아 감싸안으며 이별의 아픔을 달랠다. 김씨는 “주인어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못내 아쉽다”며 “너희들이 나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강일창씨(77)는 전날 개별상봉에서 6.25전쟁과 체제 문제 등으로 동생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작별상봉에선 동생들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강씨는 “이젠 언제 다시 보냐”며 눈물을 푹푹 댔고 동생들도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황선옥씨(79·여)는 딸 김순실씨(62)의 손을 잡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내가 죄인이다. 널 놓고 떠나서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오마니 미안하다는 소리하지 마세요. 또 볼 날이 있을 거예요”라며 황씨를 다독거리던 손실씨도 어머니를 태운 버스가 출발하자 발을 동동거리며 애써 참던 울음을 터뜨렸다.

최고령 남측 이산가족인 어머니 권지은씨(88)를 떠나보내는 아들 이병립씨(61)는 “어머니 오래 사세요”라며 큰 절을 올렸다. 권씨는 “내 걱정은 말고 몸 건강히 지내면 또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계기로 금강산내 면회소 설치문제가 본격적인 남북간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측이 면회소를 설치한다면 금강산에 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쳐온데다 이번 상봉이 비교적 무난하게 치러졌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고령의 이산가족이 숙초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버편으로 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정부 당국자들은 “경의선 연결지점에 제2의 면회소 설치가 보장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금강산 면회소 설치도 긍정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꿈같은 3일... 또 낯새 되오”

## ◆ 정귀업할머니 짧았던 2박3일

‘상봉 첫날 대뜸 퍼부은 바가지, 둘째날 기습 뽀뽀, 마지막 날 기약없는 생이별의 오열’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23살 꽃다운 나이에 헤어져 52년 수절 끝에 금강산에서 남편 임한언(74) 할아버지를 만난 정귀업(鄭貴業·75·전남 영광) 할머니의 ‘긴 이별, 짧은 만남’이 화제다. 정 할머니가 내뱉은 길쭉한 남도사투리는 어떤 시어(詩語)보다 진한 여운을 남겼다.

## 52년만의 ‘신혼’ 마냥 행복

정 할머니는 방북 하루 전인 지난 27일 속초에서 “꽃방석 깔아줘도 가지 않을 길을 50년 넘게 휘이휘이 걸어 왔어라우.”라며 남편과 생이별 후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모시고 ‘눈물을 밤 삼아 살아온’ 세월을 회고했다. 남편을 만나면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세상이 그러니 어찌겠소 내 복이 그런이다. 사랑했기에 그때 사랑이 지금도 숨쉬는 것 같소.”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28일 저녁 금강산여관에 마련된 단체 상봉강. 정 할머니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당신, 나랑 살 때부터 애인이 있었던 것 아니오. 그



“언제 또 만나나” 정귀업 할머니가 30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직방 상봉에서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남편 임한언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럽 인간이 아니제.”라고 다그쳤다. 재혼한 사실이 밋밋은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왜 52년을 혼자 살았느냐.”고 묻자 “시어머니도

엄마요. 시부모를 버리면 버락을 맞을 일”이라고 받았다.

29일 오전 금강산여관 객실에서의 개별상봉 자리. 할머니는 “이제라도 못 만났다면 내 인생이 ‘낯새(할을 담은 새라는 토속어)’가 되어 울고 다녔을 것”이라면서 “킵대가 두 개인데 오늘밤 함께 잘 수 없나. 김정일한테 얘기하면 되느냐.”라며 투쟁 아닌 투쟁을 부리기도 했다.

29일 오후 구룡연으로 가는 버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하늘과 땅을 합친 것 만큼 기분이 좋다.”고 애교스럽게

## 기약없는 이별에 끝내 오열

말하며 남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러나 30일 오전 남편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때도 때도 안 쉬인 인연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나.”며 말끝을 흐렸다. “견우직녀는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짝짝 만나지. 인간은 50년을 (혼자) 사니 오강유부가 얼마나 단단한가. 살아있는 게 대단하지.”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정 할머니는 작별 상봉장에서 서운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함께 찍은 족적 사진을 건네주다가 끝내 3일동안 합었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했다. “52년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또 헤어지나...” ●금강산 공동취재단

# “기일이라도 알고 싶었는데...”

방북단 참여 소설가 김원일씨

아버지 소식 끝내 못들어

“이산 만남은 불신 걷는 계기”

‘아버지 기일이라도 알고 싶었는데...’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1차 상봉단의 사표집리 임무를 띠고 방북단에 포함됐던 소설가 김원일(60·사진)씨는 30일 금강산에서 지낸 사흘 동안 웅장한 아버지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김씨는 북쪽 관계자들에게 웅복 전 남로당 간부를 지낸 아버지의 기일과 아버지의 북쪽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선생님의 호명에 답하지 않자 함께 온 아버지가 타이르던 기억이 생생하다. 최근 (웅복 전) 요로통 통해 아버지가 웅복해 활동하다 1978년 폐결핵으로 금강산에서 밋지 않은 서평사라는 요양소에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노을> <겨울꽃 짜기> 등 분단문제를 다룬 많은 소설을 펴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번에 아버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내가 선생님의 호명에 답하지 않자 함께 온 아버지가 타이르던 기억이 생생하다. 최근 (웅복 전) 요로통 통해 아버지가 웅복해 활동하다 1978년 폐결핵으로 금강산에서 밋지 않은 서평사라는 요양소에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지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버지의 웅복 뒤 어려서 교생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망하지 않나?

=어린 시절에는 원망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아버지의 운명이었는지나 라는 생각이 든다. 원망은 없다. 이번 행사를 보니 반세기라는 세월이 가족들 사이에 원망보다 그리움을 더 많이 쌓아놓은 것 같다.

-이번 행사를 지켜본 소감은?

=50년간의 분단으로 이질화가 심각함을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느꼈다. 서로 양쪽이 현재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다툼이 생기는 것을 봤다. 그러나 헤어지기 전의 기억들이 화제로 오르면 금방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산가족 행사가 찻집임을 상기고 감정을 움직여 불신을 견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언제 또 만나나” 눈물바다

“중국서도 만날수 있다는데...” 모종의 언약  
 빗줄기속 땅바닥에 엮드려 ‘큰절 환송’



## 기약없는 이별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30일 금강산여관 로비에서 마지막 작별상봉을 갖고 2박3일간의 '짧은 만남, 긴 이별'에 서로 부둥켜안고 탄식했다. 분단과 별리의 슬픔을 아는 듯 금강산 일대에는 이날 아침부터 축축한 봄비까지 내렸다.

○...“하나 우리는 하나/ 하나 언어도 하나/ 하나 문화도 하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분단장벽 허물며 통일 열풍이 감산에.../ 우리 긴긴 세월 눈물 애틍한 상처 씻으며 통일의 환희가...”

남측 방문단 임경수(86) 할아버

지는 시력감퇴에도 불구하고 북측 가족들이 만들어온 악보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짚어가며 북한가요 ‘우리는 하나’를 10여분간 목놓아 불렀다.

○...류성열(67) 할아버지는 북측의 동생 장열(64)·기열(61)씨와 헤어짐이 아쉬워 “중국으로 나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데, 나올 수 있느냐”며 ‘애프터’를 정하려고 애썼다. 동생들은 그러나 형의 채근에도 “사정이 좋지 않아 갈 수 없다”는 말만 되뇌었다.

○...이병수(74) 할머니의 북측 조카딸 이영실(57)씨, 조카 정용(53)씨는 작별상봉 후 버스에 오르려는 이 할머니에게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아랑곳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엮드려 녀족 큰절을 올렸다. 북측 조카들은 절을 한 뒤에도 10여분 동안 이 할머니가 고향에서 즐겨 불렀다는 ‘반달’ ‘고향

의 봄’을 부르며 떠나는 고모의 발길을 붙잡았다.

○...“네 형부 기일(忌日)이 언제여, 언제냐고.” 지난 67년 서해 연평도로 조기잡이를 나갔다가 피랍된 최원모(崔元模·92)씨의 부인인 백발의 김애란(金愛蘭·79) 할머니는 작별상봉때도 여동생 순실(67)·덕실(58)씨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난 네 형부 만나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는 언니의 장탄식에 두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했다.

○...1일 북측가족 100명과 2차 상봉하는 우리측 방문단 460여명은 30일 오후 3시 속초 한화콘도에 집결했지만 비로 인한 비행기 연착으로 늦어지거나 아예 오지 못하겠다고 연락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관계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2박3일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남쪽 이산가족들이 30일 오전 버스창으로 손을 내밀며 마지막 헤어집을 아쉬워 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 돌아선 금강산 '눈물바다'



**금강산 이산상봉**

통곡의 작별상봉 "할말 다 못했는데"  
"짧은 만남 영원하게" 연신 기념촬영

금강산은 다시 기약없이 헤어져야 하는 아픔에 몸부림쳤고, 속초는 반세기 만의 가족 상봉 기대로 부풀어올랐다.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 1차 상봉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금강산여관은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는 한탄과 통곡으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계단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이도 있었다. "50여년의 생이별, 사후 동안의 만남, 다시 기약없는 이별"이라는 1~3차 방문단 교환 때의 곡절이 되풀이됐다. 얼굴에 검버섯이 핀 남부의 노인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 그래야 또 만나지"라며 서로를 다독거리며, 순간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작별상봉 뒤 숙소인 해금강호텔로 돌아와 추적추적 흠뻑리는 봄비를 망연히 바라보다 설봉호에 올라 멀어져 가는 금강산을 보고 또 바라봤다.

남쪽 박계순(75)씨와 북쪽 여동생 정옥(72)씨는 작별상봉을 하는 동안 떨어지지 않고 부둥켜안은 채 울었다. 정옥씨는 오빠한테 "죽기 전에

꼭 다시 만나고 싶으니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라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계순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귀환을 위해 설봉호에 올라타기 전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 말을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순을 바라보는 어머니 권지은(88)씨를 떠나 보내는 북쪽의 아들 리병립(61)씨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큰절을 올렸다. 권씨는 "내 걱정은 말고 몸 건강히 지내면 또 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남쪽 류성렬(67)씨는 북쪽의 동생 장열(64)·기열(61)씨에게 "중국으로 나오면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나올 수 있겠나"고 재근하며 재회할 궁리에 여념이 없었다. 동생들은 "사정이 좋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답했다. 성렬씨는 떠나는 버스 안에서도 유리창을 두드리며 통곡했다.

활채어에 의지한 김홍주(84)씨는 반세기 만에 만났다 헤어지는 북쪽의 아들 정신(59)씨의 모습을 담아가려는 듯 품안에서 힘겹게 카메라를 꺼

내어 기어코 사진을 찍었다. 황해도가 고향인 권창수(67)씨도 걸을 지나는 이에게 "선생, 우리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해 북쪽 가족들과 톺도 없는 가족사진을 찍었다.

이덕성(67)씨는 북쪽의 여동생 원혜(65)·윤혜(62)씨를 부둥켜안고 얼굴을 비비며 "너희 자매 까리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라"고 당부한 뒤, "혹시 서신연락이 될지도 모르니 주소라도 써달라"며 메모지를 건넸다. 원혜씨는 "오빠, 통일 되면 꼭 다시 볼 수 있을 거야"라며 울음을 삼켰다.

한편, 북쪽 가족 100명을 만나러 금강산으로 가는 남쪽 가족 466명은 30일 오후 3시까지 속초 한 화리조트에 모이기로 했으나, 나쁜 기상상태로 비행기가 연착하는 등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 집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23~30일 상봉단과 달리 이산 1세대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박승한(13)군 등 2·3세대까지 포함돼 있고, 1차 상봉 장면을 텔레비전과 신문 등을 통해 살펴본 탓인지, 북쪽 가족을 만나면 물어볼 말을 미리 꼼꼼하게 적어 오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형남 김성하(75) 전 김일성종합대 교수를 만나러 가는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과 안순영(94)씨 등 90살이 넘는 노모 4명이 포함돼 있다. 금강산·속초/공동취재단



“언제 다시 만날까” 52년을 수절한 뒤 남편을 만나 꿈 같은 만남의 시간을 보낸 정귀업(오른쪽)씨가 30일 금강산여관 앞에서 헤어지는 순간. 남편 립한언(왼쪽)씨를 뒤로한 채 즉석사진을 들고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견우 직녀도 한해 한번은 만나건만”

‘이산 시인’ 별명 얻은

정귀업 할머니

기약없는 이별에 또 눈물

‘이산(離散)시인’. 28~30일 진행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52년 수절 끝에 북쪽 남편을 만난 정귀업(75)씨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다. 남편 립한언(74)씨에게 애인을 만났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중에도, 그의 말에는 어느 시인보다 절절한 문학적 향취가 묻어났다.

“가시밭길도 그런 가시밭길이 없으리요. 꽃방석 깔아줘도 가지 않을 길을 50년 넘게 혼자서 휘이 휘이 걸어 왔으리요. 눈물을 밥 삼아 살아왔지. ‘눈이 높아 못오나 길을 몰라 못오나’라는 노랫말이 내 삶의 노래가 됐지.”

그는 흠뻑으로 견뎌온 50년 신산의 세월을 이렇게 표현했다.

28일 금강산여관에서 치러진 단채상봉 때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결살림’ 의심부터 했다. “만약 당신이 남쪽에서 나와 살던 때부터 몰래 사귀던 여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재혼했다면 용서할 수 없어.”

금강산/공동취재단

# ‘상봉스타’된 50년수절 南아내

정귀업할머니 관심집중

52년의 수절 끝에 북쪽의 남편 립한언씨(74)를 만난 정귀업(75) 할머니는 상봉단 일행들로부터 ‘이산시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상봉단 일정 내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상봉단 일행들을 울리고 웃기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반세기의 질곡을 헤쳐

온 그의 한서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느 시인의 시어(詩語)보다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는 금강산 출발 직전 집합장소인 지난담 27일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꽃방석 깔아줘도 가지 않을 길을 50년 넘게 휘이휘이 걸어왔으리요. 눈물을 밥 삼아 먹고 살아왔다”며 남편과 생이별 후 시조부모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온 52년을 회고했다.

바가지-기습뽀뽀 기행

詩語동원 이산 恨풀이

남편과 즉석사진 교환

28일 금강산여관에서 반세기만에 재회한 남편에게는 “당신 니랑 살 때 애인 있었스?”라며 “만약 남쪽에서 나와 살던 때부터 몰래 사귀던 여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재혼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며 “바가지”를 끊었다. 29일 개별상봉 때는 “방도 같이 쓰고 침

대도 있는데 오늘밤 같이 잘 수 없을까? 김정일한테 떼쓰면 안된 까”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결국 이날 오후 구룡연 동행참관이 끝난 뒤 남편의 뺨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30일 오전 작별상봉 때는 남편과 같이 찍은 즉석사진을 건네며 “나 미워하지 말고 사진 보며 내 생각해”라고 통곡, 어르고 달래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선보였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정귀업할머니가 30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북쪽의 남편 립한언씨 품에 안겨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30일 금강산여관에서 김홍주씨가 아들 정신씨와 함께 서로의 건강을 당부하며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연

## “이제 가면 언제 보나” 애끊는 눈물의 이별

### ■ 이산가족 어제 귀환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30일 작별상봉을 끝으로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방북일정을 모두 마치고 속초로 귀환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금강산 여관 1층 로비에 마련된 작별상봉장은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몸부림쳤다. 2차 상봉을 위해 남측 이산가족 468명은 1일 오전 금강산으로 향한다.

○...강일창(77) 할아버지는 전날 개별상봉에서 체제문제 등으로 동생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작별상봉 때는 이별이 영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생들을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 나 없더라도 잘살아야

한다” 걱정마세요. 사진첩 보면서 형님이랑 조카들 생각할게요.”

이 말에 강 할아버지는 “이젠 언제 다시 보나”며 붉은 눈물을 떨쳤다.

○...박극성(69) 할아버지는 조카딸과 사촌동생에게 미화 달러를 쥐어주며 “꼭 형수님에게 전해드리라”고 당부했다. 황해도 웅진이 고향인 박 할아버지는 어린시절 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주던 형수 오명애(88)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봉자명단에 신청하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다.

○...염경빈(66) 할아버지는 남동생 양빈(63), 선빈(58)씨에게 “다음에는 너희들이 신청을 해서 꼭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염 할아버지는 “이대로라면 생전에 다시 만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꿈같은 만남- 긴 이별** 남측 이산가족 김여팔씨가 30일 오전 2박3일간의 만남을 마치고 금강산을 떠나기에 앞서 버스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조카를 껴안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이제 헤어지면...'** 50여년을 수절하다 북의 남편 임한연씨를 만난 정귀영 할머니가 30일 오전 금강산여관 앞에서 전방을 앞두고 오열하자 임씨가 승차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 南 상봉단 466명 北가족과 만나

4차 이산가족 상봉의 두 번째 남측 방문단 466명은 1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나 반세기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김민하(金政河·68)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전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수를 지낸 형 성하씨(77)를 만났다. 김 수석부의장 가족들은 북한 아들들을 그리워하다가 지난해 4월 눈을 감은 어머니(박광란·당시 101세) 얘기를 주고받으며 오열했다. ▶A23면에 관련기사

김 수석부의장의 형제 10명 중 북측의 누나 옥희씨(75)와 셋째 형

창하씨(나이 불명), 남측의 큰형 재하씨(79)와 여동생 옥애(65) 할아버지(59) 등은 상봉인원 제한 때문에 이번에 만남을 갖지 못했다.

남측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안순영씨(93·여)는 1952년 의용군으로 끌려간 둘째 아들 조경주씨(71)를 만나 모자의 정을 나누었다. 또 이삼분씨(73)는 52년만에 남편 최병재씨(73)를 만나 지난 세월의 흔적을 더듬었다.

남측 방문단은 가족들과 함께 공동만찬을 한 뒤 금강산에서 첫 밥을 지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중앙일보

2002. 5. 2 (목)

### 두번째 방북단, 北가족 상봉

남측 이산가족 4백66명이 1일 금강산 지역 온정각에서 반세기 만에 북측 가족 1백명과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눴다. <관계기사 30면>

시흥간에 걸친 이번 상봉은 지난 달 28~30일 금강산여관에서 이뤄진 첫번째 상봉에 이은 것으로 북측 가족의 경우 의사·교수 등 전문직 출신이 많았다.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진행된 단체 상봉과 만찬에서 남측 최고령자인 안순영(93) 할머니는 의용군으로 끌려간 아들 조경주(71)씨를, 김민하(68)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형 김

성하(75) 전 김일성종합대 교수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남측 상봉단은 2일 개별 상봉·공동 중식·삼일포 공동 참관을 하고 3일 작별 상봉을 한 뒤 속초항으로 돌아온다.

남측 이산가족상봉단 최동섭(한적서울지사 회장) 단장은 "앞으로 상시 면회소 설치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경향신문

2002. 5. 2 (목)

### 이산방문 2진 北가족 상봉

#### 2박3일간 6차례 만나

4차 이산가족 남측 상봉단 2진 466명이 1일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재회했다. / 관련기사 21면

지난달 28~30일 북측 가족들과 만난 1진에 이어 2진으로 방북한 이들은 이날 오후 온정각에서 단체상봉과 동석만찬 행사를 통해 북측 가족들과 감격적으로 상봉, 선물꾸러미와 가족사진을 전달하고 반세기 동안 물어왔

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상봉에서 남측 최고령인 안순영(安順榮·93) 할머니는 1952년 의용군으로 끌려간 둘째 아들 조경주씨(71)를 일찌안고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눈물을 터뜨렸다. 김민하(金政河) 민주평통 수석부의장(68)은 형인 김성하 김일성종합대 전 교수(77)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남측 가족들은 3일까지 금강산에 머물며 모두 6차례 만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南상봉단 466명 北가족과 재회

남측 4차 이산가족 상봉단 466명은 1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단체상봉을 갖고 반세기 동안 물어 온 환을 달았다. ★관련기사 29면

남측 최고령자인 안순영(安順榮·93·여)씨는 1952년 의용군으로 끌려간 북의 아들 조용주(71)씨를 만났고, 김민하(金政河·68)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김일성대 교수였던 둘째형 성하(75)씨와 재회했다.

남북 가족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가족들은 2일 개별상봉과 공동오찬, 삼일포 관광 상봉 등으로 혈육의 정을 거듭 확인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世界日報

2002. 5. 2 (목)

### 2차상봉단 北가족 해후

4차 이산가족 남측 가족상봉단 466명이 1일부터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가족 100명과 만나 선물과 가족사진을 전달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관련기사.30면>

이날 상봉에서 방북단중 최고령인 안순영(93), 할머니는 1952년 7시 의용군으로 끌려가 백발이 된 아들 조용주(71)씨를 만나 붕괴했고, 김민하(68)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형 김성하(77) 전 김일성대 교수를 부둥켜 안고 설움에 몸부림쳤다.

양창욱(61)씨는 북측의 형 창복(69)씨가 어린시절 직접 썼던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져가 전달하면서 무정한 세월에 탄식했다.

이산가족들은 2일에는 개별상봉과 공동중식·참관상봉, 3일에는 작별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총 12시간 가량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방북단 473명 중 조순녀씨 등 7명이 방북을 포기, 466명만 금강산에 갔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최동섭 단장은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이산가족 금강산 2차상봉

오늘 개별만남·관광

지난달 28~30일에 진행된 4차 이산가족 1회차 상봉에 이어 2회차 남쪽 상봉가족 466명이 금강산에서 북쪽 이산가족 100명과 만나 반세기만에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 관련기사 6면

남쪽 상봉단은 1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온정각휴게소에서 열린 단체 상봉과 만찬에서 북쪽 가족들에게 갈라져 지내온 피붙이들의 생사와 근황 등을 묻고 답하며,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한을 풀어 해쳤다.

이날 상봉행사에서 남쪽 최고령인 안순영(93)씨는 1952년 당시 의용군으로 끌려간 둘째아들 조경주(75)씨를 만났고, 김민하(68)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쪽의 형 성하(김일성 종합대학 전 교수)씨를 만나 지난해 4월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뜬 어머니 박명란씨의 소식을 전했다. 또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류관열(61)씨는 형 장렬(72)씨와 만났다. 한국전쟁 때 입북한 경기여고 출신 우묘현(68)씨는 남쪽의 오빠 보현씨가 지난 3월 여든의 나이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난해 10월에 이뤄졌다면 만날 수 있었을텐데"라며 오열했다. 남쪽 상봉단은 30일 속초 한화리조트에 모여 하룻밤을 지낸 뒤 1일 오전 11시45분 설봉호편으로 속



반세기만에 안아보는 아들

1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안순영 할머니(왼쪽)가 북쪽 아들 조경주씨와 뒤통을 비비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금강산/연합

초를 떠나 오후 3시15분께 장전항에 도착했다. 남북 이산가족은 2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개별상봉과 공동

중식을 한 뒤 오후엔 삼일포 참관상봉에 나서는 등 7시간을 함께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한국경제

2002. 5. 2 (목)

71세 아들 상봉 제4차 이산가족상봉단 2진으로 금강산을 방문한 남측의 최고령자 안순영씨(93·왼쪽)가 북측 아들 조경주씨(71)와 만나 뺨에 입을 맞추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 경향신문

2002. 5. 2 (목)

# 난생처음 '아버지...' 눈물바다

### • 4차 이산가족상봉 2회차 첫날

“아들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13세 손자, 北할아버지 비디오촬영 열중

제4차 이산가족상봉 2회차 상봉이 이뤄진 1일 금강산은 또 한번 눈물 바다로 변했다. 50여년의 기나긴 이별 끝에 다시 만난 이산가족들은 주름잡힌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기쁨과 희한을 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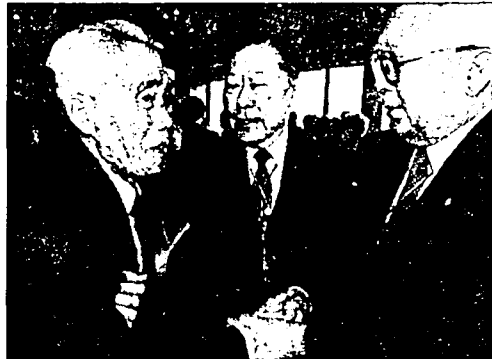
○...북측의 둘째형 상하씨(77)를 만난 김민하(金政河)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68)은 어머니 박명란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부의장의 어머니 박씨는 지난해 4월 그토록 그리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101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다. 김부의장은 “항말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아들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눈을 감지도 못하신 채 돌아가셨다’고 흐느꼈다. 남과 북의 10남매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이구, 아이구 나 죽겠네”. 북측 큰아들 이춘식씨(70)를 52년 만에 본 남측 어머니 김분림씨(87)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춘식씨는 “어머니, 나 알아보겠소.

이 큰 아들이 살아있었소”라며 눈물 지었다. 7년 전 목수술로 말을 못하는 남측의 동생 장식씨(68)도 기쁨에 겨워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는 말을 연신 내뿜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아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른 김씨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큰 아들을 보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최고령 남측 이산가족인 안순영씨(93·여)는 북측의 둘째 아들 조경주씨(71)를 만나자 “이제야 안을 풀었다”며 흐느꼈다. 아들 넷, 딸 넷을 둔 안씨는 아들 셋을 먼저 떠나보내 겹주씨가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다.

○...“그동안 너무 울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순애씨(74)는 북측 남편 신용철씨(72)를 만나자 지난 50여년의 기구한 삶이 생각난듯 눈시울을 적셨다. 50년 외 아들 동복씨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남편과 생이별한 이씨는 86년 외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2000년엔 큰손녀까지 백혈병으로 잃었다. 하지만 재혼해 지식 다섯을 둔 남편 신씨는 “죽시 시집 안갔어?”라



### 김민하씨 형제상봉

1일 오후 금강산 온정관에서 열린 4차 이산가족상봉에서 남측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오른쪽)이 북측 형 김상하씨와 만나고 있다.

금강산 / 시진공동취재단

고 탄해 평생 수집한 이씨판 도 한번 서랍에 했다.

○...북측 누나 명분씨(69)를 상봉한 대희씨(66)는 누나의 절친한 친구였던 주양자(朱良子) 전 비서부장관(71)의 인부를 전했다. 명분씨와 주전장관은 김백여중·교와 서울의 대를 같이 다닌 단짝이었다. 대희씨가 “빨리 종일돼서 죽기 전 한번 만나자”는 주전장관의 말을 전하자 명분씨는 즉석카메라로 사진을 찍고는 친구에게 갖다주라고 부탁했다.

○...남측 가족들 가운데 최연소자

인 박승환군(13)은 태어나 처음으로 만난 북측의 할아버지 박문근씨(75)의 모습을 비디오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북측 이산가족 가운데 의사·교수 등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많다.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둘째형 상하씨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여동생 이건축씨(65)와 만난 분대씨(72)는 서울대 수학과 3학년때 북으로 갔으며 신의주 관서대 교수로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 내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 • '유복자' 4명 부친 상봉

4차 이산가족상봉단에 포함된 유복자 4명은 1일 단체상봉중인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처음 만나는 북측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의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유복자' 아닌 '유복자'가 됐던 이들은 반세기 동안 쌓인

생울음을 쏟아냈다. 김외숙씨(52·여)는 아버지 두한씨(73)를 만나자마자 “아버지”라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외숙씨는 “50 평생 처음으로 볼러보는 딸”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겹흔한 지 몇달만에 인민군으로 징집돼 생이별한 남편을 기다리던 외숙씨의 어머니 권순규씨는 1995년 85세로 숨을 거뒀

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어머니가 평생 집안을 이끄느라 고생하셨다’는 원망은 눈썹 사라졌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다정한 연인처럼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북측 아버지 이연운씨(72)를 만난 남측 의화씨(52·여)는 윤연서 큰 딸을 잃었다. 의화씨는 “아버지잡 보니 너무 좋다”면서 울먹였다. 아버지는 의화씨가 어머니의 뒷속에 있던 50년 6월 같은 6개월만에 인민군으로 징집돼 떠난 뒤 소식이 끊어졌다. 이

외주씨(51)도 아버지 은주씨(78)와 알씨안었다. 한강대리가 끊어지기 직전 “격지에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며 나간 아버지의 소식을 풍기고 말했다.

정하씨(51·여)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북측 아버지 송수식씨(81)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정하씨는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막내인 내가 아버지를 가장 떠났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며 큰 감을 흘렸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이렇게 기쁠수가... 남북 방문단의 최고령인 안순영(93) 할머니가 1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이뤄진 첫날 단체상봉에서 50년만에 만난 북측 아들 조경주씨 곁에 뺨을 비비며 이산의 한을 달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 이산 100가족 금강산 2차상봉 난생 처음 불러본 “아버지”

1일 금강산에서 또 한차례의 혈육 상봉이 이뤄졌다.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두번째 행사에 참가한 남측 가족 406명은 이날 저녁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만났다. 반세기만에 남편과 아내, 자식, 형제 등을 만난 남북의 가족들은 4시간여 동안 단체상봉과 저녁 식사할 함께 하면서 가족·친지의 안부할 권으며 지난 세월 서로가 헤어져 겪어야 했던 이산의 아픔을 위로했다.

남측 가족들은 2일 북측 가족과 개별상봉, 공동 중식, 삼일포 칼럼 상봉 등 세차례 만난 뒤 3일 오후 속초로 귀환한다.

■ 아버지와 첫 대면한 4명의 '유복자들'

“아버지...” 오후 5시30분 시작된 단체상봉에서 북측 아버지 송수식(宋守植·81)씨를 만난 딸 정하(貞夏·51)씨는 난생 처음 본 아버지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만 했다. 송씨도 처음 만난 딸에게서 큰 걸음 받으며 지난해 저 세상 사람이 됐다는 아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연신 딸의 손과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날 송씨 부녀 외에도 이연은(李淵恩·72)씨의 딸 의희(義喜·52)씨, 김두환(金斗煥·73)씨의 딸 의숙(義숙·52)씨, 이은주(李恩周)씨의 아들 익주(益周·51)

씨 등 3명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 애뒀한 부녀·부자의 정을 나눴다.

■ 아흔 셋 최고령 할머니

남측 가족 가운데 최고령인 안순영(93) 할머니는 둘째아들 조경주(71)씨를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들 넷, 딸 넷 등 모두 8명의 자식 가운데 아들 셋을 먼저 여윈 안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아들인 경주씨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안 할머니는 “순하고, 맘도 잘 들었던 아들을 만나니 이

스럽다.”면서 “나도 커서 할아버지와 같은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군의 할아버지 박문근씨는 6·25전쟁 전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의사였으며, 할머니·아버지·어머니도 모두 의사다.

■ 유명 인사들의 가족상봉

“니들이 내 동생이구나.” 김성하(金成河·77·전 김일성종합대 교수)씨는 상봉장에 들어서서 순간 민하(敏河·68)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비롯, 윤하(71·전 축구협회장)·육희(63·여)·육려(61·여)씨를 감싸 안았다.

헤어질 때 초등학교 어린이 육려씨가 오빠를 안고 오열했고, 김 부의장은 “둘째아들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 93세 안순영할머니 “죽어도 여한 없어” “니들이 내 동생이구나” 김민하씨 오열

수 없었던 어머니가 지난해 4월24일 돌아가셨다.”며 50여년간 보편해온 형의 대구중 시절 교복입은 사진을 전했다.

■ 실리는 10대 손자

남측 가족 가운데 가장 어린 박승한(13·취문중 1년)군은 말로만 들었던 할아버지(박문근·75)를 만났다. 요즘 청소년답게 MP3 플레이어를 챙겨 실 병초에 오른 박군은 할머니(이덕순·74)와 아버지(박용원·50), 어머니(김충희·49)가 할아버지와 나누는 감격의 재회 장면을 열심히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다. 박군은 “할아버지가 자랑

스런 어머니가 지난해 4월24일 돌아가셨다.”며 50여년간 보편해온 형의 대구중 시절 교복입은 사진을 전했다.

● 서울대 의대에 다니다 6·25전쟁 중 헤어진 누나 이명분(69)씨를 만난 대희씨(66·순천향병원 김진센터소장)는 누나의 단짝 친구였던 주양자(朱良子·7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부할 전했다. 경북중·경북여고와 서울대 의대 동창인 두 사람은 고교시절 한조를 이뤄 정구 복식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 그대 양자가 살아 있다.”라고 몹시 함께 시전을 찍은 뒤 “양자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둘째야, 널 보려고 이때까지 살았단다”

## 목멘 93세 최고령 안순영할머니

“살아서 이렇게 보게 되니 이제 죽어도 어란이 없다.”

1일 북한의 아들을 만난 안순영 할머니(93). 이번 상봉자 중 최고령인 안 할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속초항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들 보려고 이렇게 건강했지”라며 머리를 때리지는 등 짐짓 여유를 부리던 안 할머니였지만, 막상 반세기 만에 아들을 마주하고 보나 나오는 건 울음뿐이었다.

50년 만에 어머니를 품에 안은 둘째 아들 조경주씨(71)도 목이 메기는 마찬가지. 노모 앞에 엎드린 아들은 붉은 눈물을 흘렸다. 안 할머니는 아들 넷, 딸 넷 등 모두 8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그중 아들 셋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날 상봉한 경주씨는 안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 그래서 안 할머니는 더욱 서러웠다.

6·25전쟁 때 경주씨가 북한군에 끌려간 이후 안 할머니는 50년을 하루같이 훗날을 켜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방북다 중 최고령인 안순영 할머니(93)가 1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한의 아들 조경주씨(71)를 만나 볼을 비비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南北 10형제 언제 전부 모일는지...”

## 김민하 평통수석부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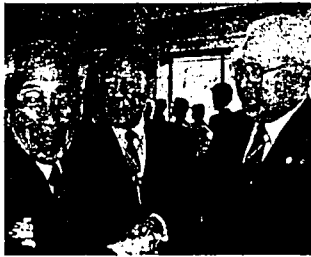
“형님...” “오빠...” “너희들이 내 동생들이구나.”

1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한의 둘째형 김성하씨(77·전 김일성대 교수)와 만난 김민하(金政河·68)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과 윤하씨(73·전 축구협회장), 그리고 여동생 옥희(63) 옥려씨(61) 형제들은 한 덩어리가 됐다.

헤어질 당시 초등생이었던 옥려씨가 50여년 만에 만난 오빠 성하씨를 안고 오열하자 김 부의장은 노란색 손수건을 꺼내 연방 눈물을 흘렸다.

성하씨는 두 남동생의 어깨에 팔을 걸고 “내가 윤하구나, 너는 민하지” 하고 일일이 이름을 부른 뒤 여동생들에게 “코흘리개였는데...”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이들은 전쟁 중에 헤어진 10형제가 모두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상봉인원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김민하 민주평통수석부의장(오른쪽)이 1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6·25전쟁 때 헤어진 북한의 형 김성하씨(왼쪽)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있다.

제한으로 이날 5명만 자리를 함께했다.

김 부의장이 “형님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지난 4월 돌아가셨다고 하자 성하씨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눈물을 보였다.

# “그토록 기다린 당신 왜 먼저 갔소”

## 北 송수식씨 아내 영정안고 통곡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바님을 그토록 그리워하셨는데...”

1일 북쪽의 아버지 송수식씨(81)를 만난 장남 송정일씨(60·대구 수성구)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름 모른 채 상봉 대상자 명단에 아내의 이름을 맨 먼저 올렸던 송수식씨는 아내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통곡했다.

송씨의 아내 황운도씨는 지난해 남편이

북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잠을 못이룰 정도로 좋아했으나, 3차 상봉자 선정에서 탈락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었다. 안타까운 사연은 또 있다. 송수식씨의 친형 김석씨도 동생 될 날만 기다리다 작년 6월 유명을 달리한 것.

정일씨와 장남 병재(57), 딸 경희(54) 정하(51), 큰며느리 정경도씨(63)는 송수식씨에게 “50년만의 큰길”을 읊리면서 한 동안 어깨만 툭툭일 뿐 입어나지 못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혹시 시집 안갔어?” “평생 수절했는데...”

## 금강산 2차상봉 현장

금강산이 1일 또 한번 이산가족들의 눈물의 상봉장이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99명이 북한의 가족·친척을 만나고 돌아온 데 이어,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남측의 가족·친척 466명이 이날 금강산에서 만나 부둥켜 안고 울었다.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가족은 상봉장에 들어선 둘째형 성하(77)씨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성하씨는 동생들의 어깨에 팔을 걸고 “내가 윤하구나, 너는 민하지”라며 일일이 이름을 부른 뒤, 맞은편에 앉은 두 여동생을 보면서 “코

는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김분달(63) 할머니는 52년만에 북한의 큰아들 이춘식(70)씨를 보자, “아구, 아구 나 죽었네”라며 딸씩 주저 앉았다. 김씨는 반가움에 “숨이 막힌다”는 말만 되뇌이면서 한참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북측 최고령 한인기(84)씨는 남편의 아들 정구(57)씨의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눈물 섞인 원망을 듣고서는 “미안하다”며 자식을 얼싸 안았다.

○...이순애(74)씨와 북의 남편 신용철(72)씨는 만나자마자 입씨름을 벌였다. 신씨가 “혹시 시집 안 갔어”라고 묻자, 이씨는 “평생 수절한 나를 보고 시집 갔느냐고”라

# 20대에 헤어진 부부 보자마자 사랑싸움 52년만에 아들 본 노모 “아이고 죽었네” “코흘리개가 이렇게 컸구나” 글썽이기도

흘리개였는데...”라며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성하씨가 “외세에 의존하는 세력은 대국노”라고 정치 발언을 계속하자, 김 부의장은 “형이 남쪽에 있을 때 공부벌레였다”며 화제를 돌렸다.

○...올해 93세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상봉장에 들어선 안순영 할머니는 북한의 둘째 아들 조경주(71)씨를 보자,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손을 꼭 잡았다. “8남매중 둘째가 제일 효자였다”면서 경주씨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경주씨도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돼 효자 노릇한 것 같다”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으나 아버지가 지난 88년 사망했다

고 대들었다. 당황한 신씨가 “23세 때 헤어졌으니, 시집갈 수도 있잖아”라고 하자, 이씨는 “이 양반이 자기는 재혼해 자식을 다섯씩이나 두고... 동북(외아들)이가 있으니까 안갔지”라며 물어붙였다.

○...6·25때 북으로 간 경거여고 출신의 우요현(68)씨는 남편의 오빠 보현(80)씨가 지난 3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오희영(67)씨로부터 듣고는 “지난해 10월에 만날 수 있었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가 오빠 사진을 보고서는 “왜 자꾸 긴장을 조성하니”라며 오빠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에 한숨만 쉬었다.

/金剛山=공동취재단

# 유복자4명 처음부른 “아버지”



## 금강산 2차상봉

1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은 50년의 무정한 세월을 원망하는 이산가족들의 한스런 눈물로 가득 찼다. 모질게 버텨온 피붙이들의 생사를 묻고 또 물으며 목놓아 울었고, 이산 3세대도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슬픔에 눈시울을 적셨다.

○...“아버지!” 김두환(73)씨의 딸 외숙(52)씨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오열했다. 외숙씨는 유복자였기에 아버지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했지만 이날 만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아버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둥켜안고 통곡했다. 외숙씨는 “칠성판으로 아버지의 가짜 시신을 만들어 어머니와 합장했다”며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쏟아냈다.

이날 상봉장에는 외숙씨 외에도 유복자가 3명 더 있었고 그들 역시 각자의 아버지를 만나 통곡하거나 큰절을 올리는 끈끈한 혈육의 정을 나눴다.

○...큰 아들 이춘식(70)씨를 52년 만에 만난 김분달(89) 할머니는 충격으로 “아이구, 아이구, 나 죽겠네”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춘식씨는 “오마니, 나 알아보겠소. 이 아들이 살

北아들 “오마니 나 알아보겠소” 울부짖어  
70세아들 얼굴 부비며 “죽어도 여한없다”



◇최고령자인 93세의 안순영 할머니가 북측 아들 조경주씨를 만나 볼을 부비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금강산=연합

아있었소”라며 어머니를 붙잡고 울어댔다. 7년 전 목수술 이후 병어리가 된 동생 창식(68)씨는 형을 보고도 말이 안 나와 ‘어거걱크응’ ‘끄역’거리기만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최고령자인 안순영(93) 할머니는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간 둘째아들 조경주(71)씨의 손을

꼭 잡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되뇌었다. 안 할머니는 “8남매 가운데 경주가 가장 효자였다”며 아들의 얼굴을 부비댔다. 여동생 순주(55)씨는 “경주, 오빠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며 오빠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화제의 상봉 2題

“어머님이 뉘편지 안고 우셨는데”

김민하평통부의장 형만나  
중학시절 썼던 詩도 전달

“형님! 오빠!” “니들이 내동생 이구나.”

김민하(金政河·68)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둘째형 성하(77·전 김일성종합대 교수)씨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헤어질 당시 초등생이었던 옥려(61)씨가 오빠를 안고 오열하자 민하씨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다. 성하씨는 민하·윤하(71)씨를 어깨로 감싸안은 채 “니가 윤하구나. 너는 민하지?”라며 일일이 이름을 부른 뒤 맞은편에 앉아있던 옥하(63)씨를 보면서 “코흘리개였는데...”라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 부의장은 “당시 고려대에 다니던 형을 어머니가 유독 사랑하셨다”면서 “형이 보내 온 편지를 들으면서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민하씨는 형이 김천 중학 시절 직접 썼던 시 10여편과 어머니가 북의 옥희 누나에게 전해 달라는 옷 한벌을 직접 전달했고, 이를 받아든 성하씨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입술을 깨물었다. 100세를 넘긴 노모(박명란씨)는 지난해 4월 끝내 둘째아들을 못본 채 세상을 떠났다.



◇김민하 민주평통 부의장(가운데)이 지난해 타계한 모친 사진을 형 성하씨에게 보여 주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금강산=공동취재단

남편 “시집안갔어”에... “시집이라니”

평생수절 南아내 이순애씨  
남편 실언아닌 실언에 호통

술한 화제를 뿌렸던 정귀업 할머니에 이어 1일 2차 상봉에서도 한평생 수절해온 이순애(74) 할머니가 남편 신용철(72) 할아버지를 다그치면서 애뜻한 부부애를 나눴다.

“혹시 시집 안 갔어?” “시집이라니. 평생 수절한 나를 보고 시집을 갔느냐고?”

한국전쟁때 외아들 동복(86년 사망)씨와 아내를 남겨두고 행방 불명된 신 할아버지는 반세기 만에 만난 아내에게 실언했다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23살때 헤어졌으니 재혼할 수도 있잖아?” “아니 이 양반이...”

이씨는 50년 6월 결혼 3년 만에 외아들을 데리고 친정 나들이를 갔다가 전쟁으로 남편과 헤어졌다. 30여년 전 남편 사망신고를 낸 이씨는 그동안 꼬박꼬박 제사까지 지내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50평생 처음 불러본 “아버지”



1일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남측 김민하 평통부위원이 북측의 형 성하씨에게 사망한 모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북측 아들 윤우섭씨가 남측 노모 심순희씨와 여동생 연섭씨를 만나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두번째 금강산 상봉

반세기에 걸친 그리움과 한을 풀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1일 오후 5시 북한 금강산지역 온정각.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산가

1백쌍은 재회의 기쁨에 울었고, 이를 뒤면 어김없이 찾아올 기약없는 이별의 서러움에 마주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만남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다. 남측 김외숙(52·여)씨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인민군에 징집된 아버지 김두환(金斗煥·72)씨를 만나 “아버지”를 부르며 눈시울에 안겼다. 김씨는 “50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본다”며 “아버지를 기다리던 엄마(1995년 사망)가 슬퍼할까봐 아버지 소식을 묻지도 못했다”고 울먹였다. 이날 상봉장에서는 김씨와 같은 처지의 방북자가 4명이나 됐다.

남측 가족 중 최고령인 안순영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둘째 아들 조경주(71)씨의 손을 꼭 잡고는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씨는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됐으니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했으나 아버지와 큰 형이 숨졌다는 얘기를 듣자

## 어머니 뱃속 이별 4명 北 아버지 만나

## 남북 유명인사들간의 만남도 이뤄져

그만 흐느꼈다.

한국전쟁 때 소식이 끊긴 큰 아들 이춘식(70)씨를 52년 만에 본 남측의 김분달(89)할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김할머니가 잠시 후 “반갑다, 반갑다. 네가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제사를 지냈다”고 하자 이씨는 “어머니 큰 아들이 살아있었소”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할머니는 마침 이날이 생일이어서 만찬 상봉장에서 이씨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상봉을 기뻐했다.

이번 상봉에서는 남북 유명인사들간 재회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김민하(68)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둘째 형 성하(75·전 김일성종합대 교수)씨가 상봉장에 들어서자 두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성하씨는 김부의장과 함께 온 여동생 옥려(61)씨가 오열하자 “코흘리개였는데”라며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때 한국전쟁이 터져 북으로 가게 된 성하씨는 “당 간부를 육성하는 공산대학 등

에서 25년간 교수를 한 뒤 요즘은 공업대학 교수로 있다”며 함께 오지 못한 다른 형제들의 근황을 물었다. 그는 동생들이 “항님 못보고는 눈을 감을 수 없다던 어머니가 지난해 4월 돌아가셨다”고 하자 “캐나다에 있는 막내 행자(59)한테서 편지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남측의 이대희(66·순천향병원 검진센터소장)씨는 서울대 의대에 다니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누나 명분(69)씨를 만났다. 이씨는 “지난해 가을 누나가 보내온 편지를 받고 마음을 놓았었다”며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명분씨는 주양자(朱良子·71)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북여고·서울대 의대를 다닌 단짝. 대희씨가 얘기 도중 “이씨가 누나에게 안부를 전하더라”고 하자 “아 그래, 양자가 살아있네”라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명분씨는 평양산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을 지냈으며, 북측 기자들도 이들 남매의 상봉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살아 있었구나” 눈물젖은 금강산

## 남쪽 안순영씨, 총부리 겨눴던 두아들 아픔 ‘홀홀’ 북쪽 상봉단 100명 명문교 출신 의사·교수 많아

이순애(74)씨는 반세기 수절 끝에 북쪽의 남편 신용철(72)씨를 만났다. 이씨는 처음엔 “너무 많이 울어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아. 나는 아들 한명밖에 못 낳았는데, 남편이 재혼해서 자식을 5명이나 뒀다니 고맙다”고 답했다. 신씨가 “혹시 시집 안 갔어?”라고 ‘실안’을 하자 갑자기 새 초를 태웠다. “아니 이 양반이 자기는 재혼해서 자식을 다섯이나 두고서 나한테 시집 안 갔다고 묻고 있네. 등복이(아들)가 있었으니까 안 갔지. 요즘 같으면 왜 재혼을 안 해?” 서운함 앞에는 나이도 소용이 없었다.

남쪽 최고령 안순영(93)씨는 지난 5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10시만 되면 ‘살아만 있으라’고 쫓돌기도를 했던 둘째아들 조경주(71)씨를 만나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

의용군이 된 경주씨와 국군으로 나선 첫째 필주(1977년 49살로 사망)씨가 한국전쟁 때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아픔도 이 순간엔 힘을 잃었다.

경주씨의 상봉엔 백문길·리금철 등 북쪽 핵심 관계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북쪽 행사 진행요원들도 꼼꼼하게 비디오 촬영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씨는 북쪽에서 경제대학을 나와 신의주에서 경제사업 부문에서 일했다고 말할 뿐 구체적 경력을 밝히지 않았다.

남쪽 가족을 만난 북쪽 이산가족 100명은 앞서 상봉한 183명과 달리 입북 당시 명문(대) 학교를 다녔거나 의사·교수 등 이른바 ‘인텔리’ 출신이 많았다. 예초 이들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돼 있어, 심적 동요를 우려한 북쪽 당국이 인물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쓴 탓이다. 서울의대 출신 의사인 북쪽 리명분(68)씨는 중앙자 전 보사부 장관과 경북 여중·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리씨의 남쪽 동생 대희(66·순천향병원 검진센터 소장)씨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자”는 주 전 장관의 안부를 전하

자, 명분씨는 죽어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갖다주라고 말했다.

온정각에서 단체상봉에 이어 치러진 만찬 때는 반세기 만의 만남에 대한 긴장이 다소 풀린 탓인지 곳곳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위하여”를 외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속초에서 하룻밤을 지낸 남쪽 가족 466명은 이날 새벽 5시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등 반세기 만의 상봉을 재촉해 인원이 많

았음에도 별다른 지체 없이 속초를 떠났다. 남쪽 가족들은 해금강호텔(272명)과 설봉호(194명)로 나눠 잡자리에 들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텔레비전 방송도 보고, 신문 기사도 쟁겨 읽으며 ‘목숨보다 아까운 시간, 꼼꼼하게 쟁겨 써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반세기 만에 피붙이를 마주하자 감전한 듯 온몸이 떨렸고 나오느니 눈물밖에 없었다. 머릿속은 허여졌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거듭되지만, 당사자들에게 ‘확실효과’가 전혀 없었다. 살아 있음을 확인하곤 울부짖었고, 남과 북에 흩어져 짙긴 세월 힘겹게 버텨온 피붙이들의 생사와 근황을 묻고 답하고, 통곡했다. 1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온정각휴게소. 지난 3년 동안 40만여명의 금강산 관광객들이 드나들던 그곳은 어느새 분단의 얼음벽을 녹여내는 이산가족들의 눈물이 차고 넘쳤다.



“큰질 받으세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2회차 상봉이 이뤄진 1일 상봉장인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북쪽의 송수식씨가 남에서 온 자식들이 올리는 큰절을 받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13살 이산가족

최연소 박승환군

"아버지 닮았어요"

3광산 뜰어울 때는 김창  
웠는데 막상 오니가 원래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1월 금강산 온경관에서 박  
남의 할아버지 박문근(75)씨  
를 만난 처음 대한 박승환(13)  
군은 노인들의 할인 이산가  
족상봉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까까머리 때문  
에 당황해 눈여 띤 박군은 취  
문중 1학년생으로 남쪽 상봉  
단 가운데 켜어앉았다. 지팡이  
를 잡거나 종경모범 순병문단  
속에서 그가 지난 일과3월래  
이대로 유난히 눈에 띄었다.  
박군은 할머니 이덕순(74)씨  
를 대법원 소외와 의사(환상)씨  
를 돌이키는 등 일과3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할아버지  
문근씨는 서울에 의해 부속병원  
의사로 일하던 한국전쟁 때 북한  
군 수감부터 병원 의사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은 '시간  
으로 부모 모습보다 할아버지상을  
이 훨씬 나아요'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나라 할머니.  
아버지 박승환(50)은 아내(환상)씨  
산부인과 교수, 어머니 김순옥  
(50)은 의사(환상)씨 등 승환군 김  
군은 모두 의사들이다. 승환  
군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하는 것을 '여기 보세요'라며  
할아버지의 모습을 캡처하며  
말곤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들쭉쭉 만민 김민하 민주평통 부의장

5남매 열짜안고 회한 짓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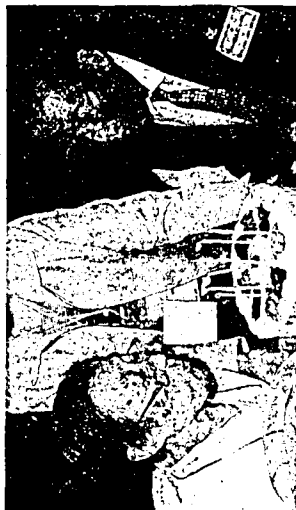
"어머님 생전에..." 1월 오후 금강산 온경관에서 열린 4차 이산가족 단상봉에서 남쪽의 김민하 민주평통 부의장이 돌아간 어머니 사진과 가족의 임 김민하씨에게 보여주고 있다. 금강산/사연공동취재단

"형님, 오빠 ...". 그녀들이 내 동생  
이구나.

1월 오후 온경각 단계상봉장에서  
북녘의 형 성하(77)씨가 돌아서는 손  
간 김민하(63)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과 윤영(73) 일본 나고야 거주, 육화  
돼 서로 부둥켜안았다. 성하씨도 남  
북에서 온 동생들을 이들을 불러가며  
인원이 확인하고는 헤어질 당시 초등  
학생이던 목격자한태는 '코흘리개였  
는데 ...'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3월 북녘의 형  
성하씨가 보내온 편지를 병원의 어머  
님께 읽어주었던 장편을 담은 사진은  
건넸다.  
"아이들이시긴 못했어요. 3차 때  
(지난해 2월)에만 만났어요 ...". 김  
부의장은 '형님 소식을 듣고 들켜야  
답(성하)을 보기 전에는 눈물 감을  
쥘었다.

▶ 큰이들 만난 김복달 할머니

"내 평생 최고의 생일선물"



생일케이크 축하 받고는 모자 형 자매 온경각 온경관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단인 김민하(63) 할머니가 김복달(89) 할머니를 위로하며 복복 케이크를 나눠주고 있다. 금강산/사연공동취재단

"아구, 아구, 나 죽겠다."

전집들이 소식이 왔던 복년의 큰아  
들 김문식(70)씨를 50년 만에 본 김  
복달(89)씨는 잡박 놀라 눈물 치켜  
들며 말을 잊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함께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딸과 손녀를 돌아서는 김복달에게  
손녀가 '어머니, 나, 안아보셨어요? 이  
순애씨는 김씨를 애당포에 버렸었다.  
그게 아이들 손을 꼭 쥐게 만났다.  
'어저께, 크잉.' 딸자리의 동생 창  
비(88)씨는 목내 소리도 나오기도  
않는 말을 연변 내뱉었다. 7년 전  
목수한을 받은 뒤를 말을 하지 못하  
게 된 그였다. 죽은 후 받았던 피별  
이름 반개'가 면에 만났다는 '기적'  
이 피별 들쭉게 했고, 마지막 남은  
형제들 모두 그리웠게 하고 있었다.  
"죽은 동안 할고 20년 동안 개사도  
가 보냈다.

반복 상봉 인원이 5명으로 개인된  
뒤에 개지 못한 여동생 남태(60)씨  
가 서남 편지도 건넸었다. '어머니  
가 생일선물을 만들어 하시지 모르  
겠어요. 모후로 어머니와 오라버니,  
형제들 모두 그리웠던 한말을 푸시길  
원했어요.' 금강산/공동취재단

▶ 50년·51년생 '유복자' 4명

"아버지" 목메  
처음 불러보는

북쪽 아버지를 찾아나선 1950년,  
51년생 '유복자' 4명, 4명은 이젠  
은 이젠 상봉으로 아버지 없는 지  
사이라는 슬픔과 한을 함께하며 힘  
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김두환(73)씨의 딸 외숙(63)씨는  
"엄마가 슬퍼할까봐 아버지에 대해  
말해보지도 못했다"며 오십 평생 처  
음 '아버지'를 소리쳐 불렀다. 외숙  
씨는 '결혼 못할 만세 인민군에 징집  
된 남편을 평생 기다렸던 엄마(김순  
규)가 7년 전에 돌아섰을 때 칠십  
팔로 아버지 가짜 시신을 만들어  
합장해 드렸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두환씨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  
평의장을 날렸다.

종남 홍성이 고향인 리연은(72)씨  
딸 외숙(63)씨도 '결혼 여섯달 만  
에 아버지가 인민군에 징집된 뒤  
소식이 끊기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가까이시키는 바람에 작은  
아버지 호직에 올랐다'면서 "이  
버지를 뵈니 너무 좋다고 했다.

김강산/공동취재단

홍수식(81)씨 딸 정하씨, 리연주씨  
의 아들 의주씨는 이듬해는 지난해 둘  
은 51년생이다. 정하씨는 '지난해 둘  
아가신 어머니가 늘 2달마다 기온대  
내가 아버지를 가진 때였다고 했다'  
며 '시간에서 원 30여의 멋진 모습은  
가셨지만 이제 꿈인지 생인지 모르겠  
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때 진쳐 온진사였던 아버  
지처럼 고속버스를 타고 있다는 의주  
씨는 '아버지를 위해 순명까지 할 것  
확한데 갈 맛을 갖겠다'며 좋아  
했다.

아버지 리연주씨와, 의주씨를 뵈  
속에 담은 어머니 김순남(77)씨는  
합장다리가 풀어지지 되던 당시 세  
삼배기 누나 영숙(55)씨를 둘러업  
고 서울 계기동 집을 떠나 지금의  
서울 강남구 자곡동 카가운 피난집  
다. 그러나 그날 밤 이별을 가지라  
나선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  
다.

김강산/공동취재단



남측방문단의 최고령 안순영 할머니가 북의 아들 조경주씨의 뺨에 입을 맞추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우리 순둥이... 왜 이리 늙었냐”

### ■ 2차 이산상봉

#### 南 최고령 할머니 아들보고 “이젠 죽어도 여한없다”

1일 오후 4차 이산가족 2회차 첫 단체상봉과 만찬이 잇달아 진행된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는 온통 눈물바다였다. 전쟁 통에 북으로 간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쳤던 어머니도 주름진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과 울분을 토해냈다.

○...남측 최고령자인 안순영(安順榮·93) 할머니는 둘째 아들 조경주(71)씨의 손을 꼭 잡고 “왜 이렇게 늙었냐. 우리 순둥이 맞냐”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효도 못한

아들을 용서해 달라”며 연신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던 경주씨는 아버지와 큰 형의 사망 소식을 접하곤 놀라 입을 열지 못했다.

남측 여동생 순주(55)씨가 “오빠가 빨랫줄에 묶여 인민군에 끌려간 후 어머니는 5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 10시면 촛불을 켜 놓고 기도했다”고 말하자, 북의 오빠는 또다시 오열했다. 여동생 숙희(59)씨는 “아버지는 국군으로 간 큰 오빠와 둘째 오빠가 남북으로 갈려 총부리를 겨눴다고 힌탄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경주씨는 19세이던 1952년 의용군으로 징집됐다. 안 할머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되뇌었다.

○...이날 89회 생일을 맞은 김

분달 할머니는 북측 큰 아들 이춘식(70)씨를 보곤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제사를 지낸 춘식이 맞냐”라며 풀썩 주저앉았다. 춘식씨는 백발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나 이렇게 살아있었소”라며 절규했다. 7년 전 목수술을 받아 말을 하지 못하는 남측 동생 창식(68)씨도 굵은 눈물방울만 연신 떨렸다. 가족들은 ‘상봉 5명 제한’에 걸려 방북단에 끼지 못한 막내 여동생 남애(50)씨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은 편지를 함께 읽었다. 한국전쟁 때 고향 경남 거창에서 피란길에 나섰다 소식이 끊겼던 춘식씨는 남측 가족이 준비해온 케이크를 잘라 노모의 입에 넣어줬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아이고 내아들 맞냐”

## 93세 안순영 할머니 눈물의 재회

### — 南이산가족 466명 2차상봉 —



남측 최고령상봉자인 안순영 할머니(93)가 4차 남북상봉단에서 아들인 북측 조경주 씨를 만나 포옹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초·금강산=공동취재단**

제4차 이산가족 두번째 상봉단 466명이 1일 북측 가족 100명과 반세기 만에 재회의 감격을 나눴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오전 삼봉호련으로 속초항을 출발, 금강산 장전항에 무사히 도착해 오후 5시 온경각에서 북측 가족과 단체상봉 시간을 갖은 데 이어 7시부터 2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상봉단은 2일 개별상봉·공동음식·상일포 합관, 3일 개별상봉 등 모두 6차례 총 12시간에 걸친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돌아갈 예정이다.

상봉단은 해금강호텔에 짐을 풀 뒤 단체 상봉장인 온경각에 먼저 도착해 북측 가족들을 맞이했고 만남 사이사이 감격에 겨운 가족들이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인 안순영 할머니(93)는 이날 아들 조

경주 씨(71)를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김주 씨가 한밤중에 끌려간 후 지난 50년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 10시면 초복을 켜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살아서 보게 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가지고 간 양복과 시계 등 선물을 건넸고 함께 간 딸 조숙희 씨(59), 손주 씨(55), 사위 강영식 씨(59) 등도 만남의 기쁨을 누렸다.

○서울의대에 다니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행방불명됐던 리명분 씨(69·여)와 동생 대희 씨(66·순천향병원 검진센터소장)도 52년 만에 만나 연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광양산원에서 신부인과 파장을 지낸 명분 씨는 김경여중·고, 서울의대 동창인 주양자 건 보건복지부 장관(71)의 인부를 전하자 "양자 삼아 있다"라며 반색하기도 했다.



# 국군포로 - 남북자 정부대책 너무 소극적

유럽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 북측에는 남측 출신 납북자 486명이 억류돼 있다. 이중 217명은 70년 이후 남북됐다. 정부는 한 국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1만9000여명(생존자 3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

신 의거 입북자만 존재할 뿐'이라며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을 선별적으로 이산가족 방문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2차 교환방문 때 87년 남북

대에도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성경희씨가 남쪽의 어머니를, 국군포로 출신인 손인호(76)씨와 김재덕(70)씨가 남쪽의 동생과 각각 상봉했다. 1일 금강산으로 떠난 2차 이산가족 방문단에도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간 조용주(71)씨가 포함돼 있다.

납북자 가족들은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예로 들며 상봉 대상의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단이 아닌 별도의 방문단 구성, 영구 귀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넘

## 남한출신 납북 486명-국군포로 19000명 추정 북한선 “모두 의거입북-강제억류 없다” 부인 이산가족지원 아닌 별도로 방문단 구성돼야

의회'는 최근 전쟁직후 정부가 작성한 '6·25전쟁납북인사 8만 2959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그동안 94년 조창호씨 등 국군포로 출신 24명이 중국을 거쳐 남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북한은 "북측에 강제 억류하고 있는 남한주민은 단 한명도 없으며 대

된 동진호 선원 강희근(51)씨가 남측 어머니와 만났고, 국군포로 출신인 이경석(70)씨도 남측 형과 이산의 한을 풀었다. 3차

은 의미의 이산가족 개념에서 접근하는 등 소극적이어서 당사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조선정기자 jjs@sgt.co.kr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짓는 사람들이 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이 그들이다.

1967년 피랍된 풍복호 선장 최원모(崔元模·92)씨 부인 김애란(金愛鸞·79)씨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4차 이산가족상봉단으로 금강산까지 갔으나 남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김씨는 오찬장에서 남편과 풍복호 사진을 들고 "내 남편 돌려달라. 죽었으면 기일(忌日)이라도 알려달라"고 '기습시위'를 벌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군포로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가 주중 한국대사관으로 진입하려다 중국 경찰에 체포돼 주목받고 있다.



# 오늘 다시 기약없는 '이산'

## 어제 개별상봉 선물나눠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남측 상봉단 46명과 북측 가족 100명은 2일 금강산여관에서 개별 상봉과 공동 점심, 삼일포 참관 상봉 등 모두 7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상봉 일정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7면

북측 박문근(76) 할아버지와 아들 용원(52)씨, 중학생인 손자 승환(13)군은 3대가 함께 삼일포 탐승에 나서는 등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이날만큼은 '진짜 가족'으로 지내며 합박웃음을 지었다. 남측 가족들은 이날 오전 개별상봉 시간에 미리 준비해 간 금반지, 옷가지, 의약품 등 각종 선물과 가족사진을 반세기 만에 만난 북측 가족에게 건넸고, 북측 가족들도 들쭉날쭉 남측 가족에게 선물했다.

남측 가족들은 3일 오후 1시에 설봉호텔에서 금강산을 떠나 속초로 돌아올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朝鮮日報

## 이산가족 개별상봉 남상봉단 오늘 귀환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남측 상봉가족 46명은 2일 북측 가족들의 숙소인 금강산여관에서 가족별로 개별상봉을 갖고 공동오찬을 함께 한 뒤,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일포(三日浦)를 함께 관광했다.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장은 자신의 견혼예물 시계를 풀어 북한 의 형 심하씨에게 "남측 가족 생각 하며 보라"고 건넸으며, 남의 안정순 할머니와 북의 김강현 할아버지는 개별상봉 내내 손을 꼭 쥐고 앉아, 52년간의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려 했다. 남측 상봉가족들은 3일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속초로 돌아오게 된다. /金剛山=공동취재단



2일 오전 금강산여관의 개별상봉 시간에 남측 오빠 함덕영씨(오른쪽)가, 북측 여동생 황금순씨가 담고 있는 훈장을 만져보고 있다.

## 이산가족 개별상봉... 삼일포 관광

제4차 이산가족상봉에 나선 남측 가족 46명은 2일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개별상봉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삼일포 공동 참관 시간을 가졌다.

A23면에 >관련기사 2시간여 진행된 개별상봉에서 52년간 수절해온 남측 안정순씨(74)는 아들 김재성씨(55)와 함께 북한에서 기자로 활동해온 남편

김강현씨(76)를 만났다. 북측 박문근씨(76)는 아들 용원씨(52), 손자 승환군(13)과 함께 개별상봉에 이어 삼일포 관광에 나서는 등 3대가 함께 가족만의 시간을 가졌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이날 미리 준비해온 선물과 가족사진을 주고받는 등 가족의 정을 나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개별상봉·삼일포 나들이

## 남측 이산 46명·오늘 귀환

제4차 이산가족 두번째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가족 46명은 2일 오전 북측 가족 100명과 개별상봉과 공동 오찬, 참관상봉 등 이날 하루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시간여 동안 만나 합박의 정을 나눴다.

남북 가족들은 특히 오후 3시부터 지난달 29일 첫번째 상봉단이 우천으로 인해 구룡연 참관에 그친 것과 달리 예정대로 3시간 동안 삼일포로 가족동반 관광에 나서 금강산의 경경을 함께 감상하며 따뜻한 가족애를 만끽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남북 가족들은 선물과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이어 낮 12시부터 두 시간 동안 금강산여관 2층 오찬장에서 함께 식사하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서로 달랬다.

남측 가족들은 마지막날인 3일 오전 9시 온경각휴게소 앞 운동장에서 북측 가족들과 작별상봉을 한 뒤 오후 속초로 귀환한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이산가족 삼일포 나들이 2일 오후 합쳐어플 타고 삼일포 관광에 나선 남측의 오해생(80·왼쪽)·미생(83) 할머니가 북측의 동생 유범(72·선글라스 낀 이)씨의 설명을 들으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첫 남북 가족 나들이인 '삼일포 참관상봉'은 첫번째 상봉 때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 >기사 2·10면 >금강산 공동취재단

# 7旬부부 손잡고 “신혼여행 같다”

● 4차상봉 2회차 둘째날 삼일포관광

### 절경 구경 ‘이렇게 좋을수가...’ 감회젖어 52년수절 아내와 금반지놓고 ‘사랑싸움’

4차 이산상봉에 참석중인 남북 가족들은 2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개별상봉과 공동중식을 가진 뒤 오후 삼일포를 공동참관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만나 협육의 정을 나눴다.

이들은 3일 온정각 휴게소 앞 공장에서 작별상봉을 가진 뒤 총 12시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이별하게 된다.

○...“이 반지 우리 아내에게 줘야지” “안돼요. 당신이 끼어야 해요”. 북측 남편 김강현씨(76)와 52년간 수절한 아내 안정순씨(74)는 개별상봉 때 여동생 김영순씨(68)가 건네준 다스돈짜리 금반지를 놓고 ‘사랑싸움’을 벌였다. 그럼에도 꼭 잡은 두손을 개별상봉 시간 내내 놓지 않았다.

○...남측 가족들은 가족의 모습과 음성을 협육들에게 전하기 위해 캠코더·디지털카메라와 녹음기 등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했다. 2일 개별상봉에서 북측 최고령자인 한인기씨(83)는 암투병중인 딸딸 한정자씨(61)를 캠코더 화면을 통해 만났다. 지난해 10월 방북명단에 포함됐으나 상봉이 연기된 동안 건강이 악화돼 이번 상봉에 합류하지 못한 한씨는 캠코더 화면을 통해 “아버지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봐요. 저도 건강할게요”라며 눈물의 인사를 했다.

○...북의 둘째형 성하씨(77)를 만난 김민하(金政河)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해 4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성하씨가 보내는 편지를 자신이 어머니에게 읽어주는 사진을 꺼내 “눈을 감는 순간까지 형을 찾았다”고 하자 성하씨는 아무 말 없

이 눈물을 흘렸다. 성하씨는 김부의장이 “북에 있는 참하철이 학창시절 써놓은 시 100여편이 담긴 빗바랜 공책과 즐겨 부시던 통소를 가지고 왔다”면서 꺼내놓자 “문학적 재질이 있지, 내가 전해주마”라고 답했다.

○...북측의 최병재씨(71)는 딸 명희씨(53)와 사위 오윤식씨(55)가 “큰절 한번 못해봤는데 이렇게 짚을 올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큰절을 올리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를 만났으니깐 몇몇하게 살아라”고 말했다. 막내동생 수연씨(65) 등을 만난 북측 이철수씨(73)는 “만나니까 좋긴 좋지만 내일 되면 (헤어지니까) 서운하지 않겠소”라며 아쉬워했다. 남측 황기용씨(67)는 “어제 한잔도 못잡다. 너무 반갑다”며 북에서 혼자 자란 여동생 경순씨(65)와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 “여기서 잘 사니 마음이 기쁘다”라는 기용씨의 말에 경순씨는 “그럼요. 제가 여성으로 공장지배인도 했답니다”며 자랑했다.

○...남북 가족들은 오후 3시부터 삼일포 동행참관에 나섰다. 이 동행참관으로 이산가족들은 지난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때보다 2시간 가량 더 많은 상봉시간을 가졌다.

53년만에 만난 북측 남편 신용철씨(72)의 손을 꼭 전 이순씨(74)는 “이보다 좋을 수가 있겠느냐”며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북측 아들 이춘식씨(70)와 함께 삼일포의 절경을 구경한 김분달씨(89·여)는 “우리 큰아들하고 있으면 어디든 나는 좋아”라고 말했다.

김강산 / 공동취재단



남측 이산가족 오혜성 할머니(왼쪽)가 2일 금강산 삼일포에서 북측 동생 유범씨(안경쓴 이)의 아내를 받고 있다. 김강산 / 사진공동취재단

## 배우·통역·한학자등 다양

### 북측가족 이색경력자 눈길

이번 4차 이산상봉에 나온 북측 이산가족 100명 가운데는 의사·교수 등의 직업을 가졌거나 극단 배우 등 이색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주양자(朱良子) 전 보사부장관과 경복여중·고, 서울대 의대 동기동창인 리명분씨(68·여)는 평양산원 산부인과 과장을 지냈다. 남측 노모 황옥순씨(90)와 만난 정규춘씨(68·여)도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근씨(75)는 6·25 전 서울대 의대 부속병원 의사로 일하다 인민군 후방부대 병원의사로 종사했으며 박씨의 남측 아내 이덕순씨(74), 아들 용원씨(52), 며느리 김충희씨(49) 모두 의사다.

이의필씨(82)는 일본 농업전문 학교를 나왔지만 극단배우로 활약해 북에서도 공연예술분야에서 일했을 것으로 가족들은 보고 있다. 류광렬씨(72)는 대학에 다니면서

사보이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인민군에 입대해 통역을 맡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류동신씨(73)는 서울 중앙방송국에 다녔고 량한구씨(69)는 일본에서 유학한 뒤 서울에서 일기에 보를 맡던 중앙관상대에서 일했다. 또 양창복씨(69)는 한학자로 ‘동몽선습’ 등 상당수의 한학관련 책을 펴냈으며 이철수씨(73)는 신의주에서 고위관리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6·25 당시 고려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윤순중씨(72)는 인민군 정치대학 출신으로 이번 상봉기간중 안내원들이 계속 옆에 붙어있어 북측의 고위 인사임을 짐작케 했다. 김광보씨(68)는 김주 입법 전 문학교, 원산농업대 등에서 산림학을 전공, 박사학위까지 받은 인텔리이며 서울대 수학과 3학년때 북한으로 간 이봉태씨(72)는 신의주 관서대 교수를 역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강산 / 공동취재단



2일 금강산여관에서 김민하(왼쪽)씨가 형 성하씨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 분신처럼 아끼던 결혼시계 선물

#### ■ 북쪽 형 만난 김민하 평등 수석부의장

"어머니는 눈물 감는 순간까지 형을 찾았어." **쪽의 형 성하(咸河·77·전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씨를 다시 만난 김민하(金敏河·69) 민주당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형제 자매들은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 애기와 형제들의 근황, 경북 상주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김 수석부의장의 모친 백명란(朴命蘭)씨는 이산가족 방문단 북측 후보자 생사·주소확인 때 성하씨가 포함돼 있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한 채 지난해 4월24일 지방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부의장이 지난해 3월 병원에 누워 있던 어머니에게 성하씨가 보내온 편지를 읽어주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자 성하씨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북에 있는 형제들의 얘기를 나누던 중 김 부의장이 "북에 있는 창하(71)형이 중학교 시절 써놓은 시 100편이 담긴 낫바랜 공책과 즐겨 읽던 풍소를 가져왔다."며 꺼내자 성하씨는 "문학작 재질이 있었지... 내가 전해주마."라고 답했다.

김 부의장은 결혼예물로 받은 시계를 풀어 형에게 건네며 "이거 내가 분신처럼 이끼는 것인데... 형이 남쪽의 형제들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 보세요."라며 팔포리틀 흐렸다. 성하씨는 "고맙다. 잘 간직하겠다."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자."고 말했다.

### "우리는 애인" "살아줘서 고마워요"

#### ■ 남측 아내 만난 기자출신 김강현씨

"이 반지 우리 아내 줘야지." "안돼요. 당신이 끼어야 해요."

신문기자 출신으로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에 김구, 여운형 선생 등과 함께 '남조선 청년대표'로 참석했다가 그대로 눌러앉은 김강현(76)씨와 50여년간 수절해 온 남측 아내 안정순(74)씨는 2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가진 개별상봉에서 동생 김영순(68)씨가 건넨준 다섯 돈짜리 금반지를 놓고 잠시 사랑싸움을 벌였다.

칠순을 바라보는 동생 영순씨는 이날

"어렸을 때처럼 오후 무릎에 한번 앉아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고 여러광을 부리며 오퍼의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러자 김씨는 반지를 빼더니 "이건 우리 아내에게 줘야지."라며 안씨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아내 안씨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한번이라도 만나려고 기도 많이 했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라며 남편에게 반세기 넘게 간직해 온 애뜻한 심정을 전했다. 이에 김씨는 "우리는 아직 애인 같잖아."하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김씨는 또 헤어질 당시 네살이던 아들 재성(55)씨에게 "어제는 너를 몰라보고 저 놀이 누군인가."하고 한참 생각한 뒤에야 난 줄 알았다."며 자상하게 손을 잡았다.

안씨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23살때 두살 연상의 남편과 헤어졌다. 아침을 먹고 나간 뒤 소식이 끊긴 것. 지난해 남북 간 신신을 통해 김씨가 북에서 재혼해 팔넷을 두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김씨가 "북조선에 온 뒤에도 함북일보사에서 기자 생활을 해 상상과 환상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자 아들 재성씨는 "어린 나이에 헤어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나 어머니가 한평생을 힘겹게 살아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하며 조금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 "엄마 품에 안겨 연극 보러 왔었지"

#### ■ 아들 만난 北 배우출신 이의필씨

"서울서 떠날 때 네 어머니에게 셋방 하나 똑똑히 알ახ게 주지 못하고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

연극배우 출신 이의필(80)씨는 2일 반세기 만에 재회한 아들 이선교(李善敎·55·서울 도봉구 쌍문동)씨와 며느리 임옥자(林玉子·51)씨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 선교씨가 "밤새 잘 주무셨느냐."고 인사하자 이씨는 이번엔 몸이 불편해 오

지 못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연신 "가슴이 아프다."는 말만 되뇌었다. 이씨는 그러나 "북쪽에서 새로 배우자를 만나서 아들을 하나밖에 못 얻었지만 잘 키워서 지금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화제를 돌렸다.

이때 손녀 이운주(李允珠·28·충북 청주)씨가 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쩔 이렇게 꼭 닮으실 수가 있어요."라고

웃으며 애교를 부렸다. 아들 선교씨가 어릴때 찍은 사진 등을 꺼내 보이며 "네살때인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아버님을 본 기억이 어렵듯이 난다."고 말하자 이씨는 "내가 연극 무대에 오르면 네 엄마가 너를 안고 와서 연극을 보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울 서대문 영천동에서 살면서 9·28서울수복 직전 극단배우로 일하다 북으로 갔다. 이씨의 아내 김원순(76)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끝난 이산이 생겨 전혀 결지를 못하는 상태다. 선교씨가 "어머니께 아버지랑 만나러 간다고 인사하자 계속 울기만 했다."고 소식을 전하자 이씨는 숙인 고개만을 끄덕였다. ● 금강산 공동취재단

# 50년만의 나들이... '이별여행' 눈시울

## ▶ 금강산 2차상봉 둘째날 이모저모

전날 반세기 만에 첫 만남을 갖고 절절한 한을 눈물로 풀었던 남과 북의 가족들은 2일 오후 3시15분부터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일포에서 50여년 만의 가족 나들이를 즐겼다. 그러나 개별상봉, 공동 오찬에 이은 삼일포 관광이 결국 '이별여행'임을 절감한 듯 남북 가족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역력했다. 한 남측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풍"이라고 했다.

▶ 반세기 만의 가족여행 삼일포 참관상봉은 이산가족들이 함께 호반을 거닐며 자유로운 만남을 즐긴 이번 이산 상봉의 백미였다.

● 53년 만에 북의 남편 신용철(72)씨의 손을 꼭 쥔 이순애(74)씨는 "이보다 좋을 수가 있겠느냐."면서 손자 경섭(23)씨가 옆에 있는데도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풍

● 그러나 그 즐거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까움으로 변했다. 참관상봉 내내 북측 큰아버지 박정수(79)씨의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으며 즐거워한 남측 대동(26)씨. 가족 헤어질 때가 되자 "1시간만 더 달라."고 호소. 북측 안내원의 눈시울까지 젖게 했다.

● '유복자'로 지난 1일 단체상봉에서 아버지 김두환(83)씨를 처음 만난 이후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다니던 외숙(52)씨는 "이제 끝날 시간"이라는 안내원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 김씨도 고개를 떨군 채 북측 버스로 향했다.

● "아아, 다시 만나요, 이다음에 다시 만나요." 북측 정상진(73)씨는 삼일포 앞 수풀 속에서 가족들과 응기종기 둘러앉아 '다시 만나요'라는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다.

"목 메어 불러도..."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퍼져나가자 결국 남측의 아내 김학재(73)씨 등은 식구들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딸 경혜(53)씨는 흐느낌에 몸을 떨었고 아들 준해(55)씨는 그림 같은 삼일포의 호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 개별상봉 남측 가족들은 오전 10시30분 북측 가족의 숙소인 금강산여관을 찾아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고 이련한 옛 기억을 되짚으며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 북측 김광보(金光晝·68)씨를 찾은 남측의 광훈(光勳·76)·광유(光

裕·71)·광선(光善·65)·경자(敬子·61·여)씨는 꿈같은 형제, 남매의 정을 나누었다. 둘째형 광유씨는 "옛날에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옥신각신하던 기억이 난다."면서 "형제 가운데 우리 둘이 가장 닮았다."고 동

국성(71)씨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김정일 장군님 덕택"이라며 객실 책상 위에 마련된 김 위원장 사진에 집을 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 가족들은 머뭇거리다 북측 취재진 3~4명이 거들고, 52년 만에 만난 말형의 제의를 뿌리치기 힘들자 가볍게 목례했다.

● "아버지, 건강하시고" 나중에 꼭 봐요." 열 살 때 헤어진 말팔 정자(61)씨가 입두병 종이랑 팔에 가슴이 미어진다는 북측 최고령 한인기(84)옹은 이남 사위(김용기·65)가 녹화해 온 딸의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달랐다.

● 남측 상봉단 최연소로 눈길을 끈



▶ "혼장도 많구나" 2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남측 오빠 황기용(왼쪽 세번째)씨가 여동생 김순씨의 가슴에 달린 혼장용 신기한 표정으로 만져보고 있다.



▶ 이야기 정겹게 북측 은순즈(73·가운뎃)씨가 2일 오후 삼일포 관광 도중 바위에 앉아 여동생 등 남측 가족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금강산 사전공동취재단

## 캠코더에 오지못한 가족 담아 화면상봉 '다시 만나요' 구성진 노래에 눈물바다로

생 광보씨의 어깨를 감쌌다. 광보씨는 "가족들과 두세달 뒤 만날 줄도 생각했는데 50년이 지난다."며 울음방울을 지었다.

## ▶ 김 위원장 사진에 절 요구

● 일부 북측 가족들은 남측 가족에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사진에 집을 할 것을 요구. 분위기가 한때 어색하기도 했다. 가슴에 꼭직한 혼장 7개달 단 김

이씨가 "미국놈이 원수"라며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자 가족들은 김동성 선수가 미국의 오노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일을 화제로 삼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나갔다.

## ▶ 디지털 상봉 남측 가족들은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보이스

펜(복음기) 등을 동원해 이밖에 함께 오지 못한 가족·친지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북측 할육에게 보여 주는 한편 북측 가족의 모습과 음성, 상봉 장면을 일일이 담았다.

박승한(13)군도 디지털 캠코더를 들고 '가족 촬영사'로 나서 북측 할아버지 박문근(76)씨의 모습을 담았다.

● 남측 가족들은 즉석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곧바로 전시하기도 했는데 북측 할 김광보(68)씨를 만난 광선(65)씨는 "형님의 모습을 찍어 가족들은 물론 부모님 묘소에도 바치겠다."고 말했다.

## ▶ 선물 교환 남측 가족들은 북측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에게 줄 선물로 주로 옷가지와 시계, 귀금속, 의약품 등을 챙겼다. 북측 가족들은 북한이 자랑하는 들쭉술, 인삼주 등 술세트와 담배 등을 남측 할육들에게 건넸다. ● 금강산 공동취재단

# “사진보다 훨씬 잘 생기셨어요”

## 남측 최연소 13세 박승한군 北할아버지 첫 만남

“사진으로 본 것보다 할아버지 진짜 모습이 훨씬 나아요.”

북한의 할아버지 박문근씨(76)를 생전 처음으로 만난 최연소 방문자 박승한군(13·취문중 1)은 이산가족들의 상봉 모습이 신기해 보였다.

90세 넘은 할머니가 넷이나 되는 남측 방문단 중 유일한 10대인 그는 MP 3 플레이어를 지닌 채 금강산을 찾았다.

승한군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북에서도 외과의사로 일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다가 “여기 보세요”라며 캠코더로 할아버지의 얼굴도 담아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심해하는 눈치도 보였다. 전날 단체 상봉장에서 옆 테이블의 다른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우는 모습을 신기한 듯 몰래 훑쳐보기도 했지만 그는 내내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할아버지 외에도 승한군의 가족은 남측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소아과 의사, 아버지는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는 보기 드문 의사 집안. 커서 의사가 되고 싶은 그는 주위의 율음에 승한군은 씩 웃기만 했다.



“제 술 받으세요” 금강산사건공동취재단

이산가족 남측 방문단 중 가장 어린 나이의 박승한 군이 1일 저녁 온정각 만찬에서 북한 할아버지 박문근씨에게 술을 따라 올리고 있다.

# “당신은 아직도 나의 연인이요”

## 北김강현씨 50년 수절 부인 안정순씨에 그리움 토로

50년 넘게 수집해온 안정순씨(74)는 2일 금강산여관 개별상봉에서 북한의 남편 김강현씨(76)의 손을 잡은 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1948년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을 끊었던 남편 김씨는 “당신은 여전히 내 애인이야. 우리가 갈라지고 싶어 갈라졌나”라고 위로했다. 안씨는 “당신은 정말로 자상했어요”라며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다”며 목이 메었다. 지난해 서신 교환을 통해 남편이 북

에서 재혼해 딸 넷을 두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안씨의 그리움은 여전했다.

김씨는 “가까이 오라는데 왜 안 오나. 이제 놓치면 안 되지...”라며 짐짓 큰소리를 쳐보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여운형(呂運亨) 선생이 만든 중외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김씨는 1948년 김구(金九) 선생 등과 함께 평양에서 열린 남북대표자연서회의에 참석해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만나기도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삼일포 공동 관광 남북으로 흩어져 살다 만난 자식들이 어머니를 뵈러에 태워 나란히 금강산 삼일포 관광에 나서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캠코더동원 '디지털상봉'



## 개별 만남 이모저모

2일 금강산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빗바랜 사진첩을 꺼내놓고 혈육의 감을 확인했다. 삼일포 동향합관에서 일부 가족은 만남을 기억하려는 듯 캠코더 등을 돌린. 가족들의 모습이 담으려 애쓰는 모습이였다. ○...이날 현 성해(77)씨를 만난 김민하(69)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은 경북 상주의 고향이야기를

## 투병말팔 화면으로 재회하며 눈물 金평통부의장, 형님에 시계 풀어 선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김 부의장이 어머니의 생전 사진을 꺼내 놓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영을 찾았다"고 하자, 성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민씨는 "본산처럼 아끼던 것인데..."라며 끼고 있던 길은 예물시계를 형에게 벗어 주었다. ○...개별상봉에서 북측 가족 일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 앞에서 절할 것을 요구,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김국성(71)씨는 "이번 만남은 장군님 덕택"이라며 '통일의 아버지'라고 쓰인 김 위원장 사진과 김정일화(花) 액자 앞에서 남측 가족에게 길을 요구했다. 리홍구(70)씨도 큰절을 하자고 제의, 머뭇거리던 남측 가족들이 마지못해

가볍게 목례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일포 동향합관은 4차 이산가족 상봉의 백미였다. 호반을 거니는 가족들의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나들이 같았다. 일부 가족은 "시간을 더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상봉장에는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첨단장비가 동원됐다. 북 최고령자인 한인기(83)씨는 투병중인 딸 정자(61)씨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시위 강용기(65)씨가 녹화해 온 캠코더 화면을 보여 달랐다. 현 김관보(65)씨를 만난 동생 광선씨도 "형 모습은 비디오로 찍어 부모님 묘소에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우리는 아직애인" 아내 포옹

기자출신 북 김강현씨 50년 수절아내 만나 고백

"이 반지 우리 아내에게 줘 야지" "안돼요 당신이 꺼야 하". 북측 김강현(76)씨의 50년 수절 아내 인정순(74) 할머니는 2일 금강산어관에서 동생 김영순(68)씨가 건넨 준 금반지를 들고 사랑싸움을 벌였다. 안 할머니가 "한번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자, 김씨는 "우린 아직 애인 같잖아"라며 떨리는 손으로 안씨를 꼭 껴안았다. 서울 해동동 경재전문학교 졸업생 당시 남편 김씨는 중외일보 기자였다. 하지만

그는 신문 논조가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4차례 옥고를 치렀고 안 할머니는 신혼생활 대신 옥바라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김씨는 1948년 평양 남북대표자 연석회의에 김구(金九), 여운형(呂運亨) 선생 등과 함께 청년대표로 참석했다가 그냥 눌러 앉아버렸다. 김씨의 화려한 경력 때문인지 북측 안내원들은 남측 취재진에게 김씨를 취재하도록 강력히 추천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남쪽의 아들 재성(55)씨는 이날 '아버지'라 한 번 불러보지도 못한 채 취재진에 서서 그저 '아버지할 만난 건 고맙지만...'이라고 중얼거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차분해진 상봉 '이례적'

이미 서신교환 근황알아 50년만의 만남 감격준듯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문단 2진은 종전과는 달리 상당히 차분한 모습에서 오히려 눈길을 끌었다. 웃음도 간간히 나오고 분위기도 늘상 만나는 사람처럼 들뜨지 않았다. 지난달 28~30일의 1차 상봉 때까지만 해도 상봉장은 온통 울음과 애절함으로 범벅이 됐다. 행사장 주변에선 이번 2진 상봉단이 지난해 3월 서신교환을 통해 북측 가족의 근황과 인생역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사전정보로 인해 50여년만의 만남이 주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이라 분석이다. 실제 북측은 3차 방문단 교환 때 생사주소 확인이 이뤄진 이산가족들을 이번 방문단에 대거 포함시켰다. 김민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경우도 지난해 3월 형의 편지를 받았다. 성공한 북측 이산가족들이 상봉단에 다수 포함된 것도 분위기를 가라앉힌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산의 아픔보다는 상봉의 '기쁨'이 더 컸을 것이라 해석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gt.co.kr

# 방문 못한 혈육들 '디지털 상봉'

## 금강산 개별상봉

흥분과 설렘이 찾아지고 가족애가 넘쳐난 마지막날이었다.

특이산가족 4백66명은 방북이 뜰째인 2일 북쪽 가족 1백명과 개별 상봉·공동 조식을 통해 진날 못한 사연을 풀이놓고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웠다. 이어 관동팔경의 하나로 해금강 길목에 있는 삼일포(三日浦)를 함께 찾아 절경을 즐겼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은 자별의 슬픔에 묻혀 제대로 짐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개별 상봉이 이뤄진 이날 오전 금강산여관. 50여년간 수절해온 남측 안정순(74)할머니의 남편인 김강현(76·기자 출신)씨는 정치색 진한 말을 쏟아냈던 전날과 달리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안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다.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자 김씨는 "우리는 아직 애인같잖아"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

## 남측 가족 상당수 캠코더 등 동원 50년 수절 아내에 "아직 애인같다"

회의에 청년대표로 참석했던 김씨는 안씨와 결혼한 지 5년 만에 소식이 끊겼으며, 이후 재혼해 슬하에 딸 넷을 두었다.

북쪽 박문근(76)씨는 아들 용원(52)씨는 물론이고 방북단 중에서 가장 어린 중학생 손자 승한(13)군을 다시 만나 감격스러워했고, 남쪽의 황기용(67)씨는 여동생 경순(65)씨한테 "어제 한숨도 못 잤다"며 뜰째날 상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상봉'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개별 상봉에서 북쪽의 최고령자인 한인기(84)씨는 암투병 중인 딸 딸 정자(61)씨를 못본 아쉬움을 사위 강용기(65)씨가 녹화해온 캠코더 화면을 대신 보는 것으로 달랠었다. 한씨는 딸이 화면을 통해 "아버지 건강하시고 나중에 꼭 봐요"라고 하자 눈시울을 붉혔다. 또 남쪽 가족들 상당수는 북쪽 혈육의 모습을 담기 위해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등의 장

비를 동원했다.

그러나 개별 상봉에서는 일부 북쪽 가족이 남쪽 가족한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향해 절할 것을 요구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가슴에 큼지막한 훈장 7개를 달고 남쪽 가족들을 맞이한 김국성(71)씨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다 김정일 장군님의 덕택"이라며 남쪽 가족들에게 객실 책상 위의 김위원장 사진을 향해 절을 하라고 요구했다. 남측 가족들은 북쪽 취재진 3~4명이 김씨 행동을 거든 데다 52년 만에 상봉한 만행의 재의를 뿌리치기 힘들었던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북측 이흥구(70)씨도 남쪽 가족들을 만나자마자 김위원장 사진 앞에서 큰절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지켜본 남측 관계자는 "북한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측의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이를 체제선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2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남측 오빠 황덕영씨(가)가 북측 동생 경순씨의 훈장을 만져보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상봉장서 北남편에 '바가지 굵은' 정귀업 할머니

# “그래도 믿어야제 내 첫사랑이다...”



◇북의 남편을 52년 만에 만나고 돌아온 정귀업씨.

/崔淳湖기자 choish@chosun.com

정귀업(75)씨가 장안의 화제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 52년간 헤어진 북의 남편에게 “따로 사귀던 애인과 함께 북으로 올라가 재혼한 것인가”라며 따발총처럼 쏘아대던 할머니. 4월 30일 그녀는 속초의 유람선 선착장으로 어개를 휘휘 저으며 돌아왔다.

“처음 올라갈 때는 한대 맥여 버리려고 했지. 남편이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맹세를 하니 믿어야제. 남편에게 ‘나는 시부모 모시고 재혼할 일 다 했어. 당분간은 이제 내 한 몸 책임지라’고 해부렸어.”

결혼한 연도를 묻자, “한참 계산해 봐야 하는데 19살 때 시집갔고, 남편은 18살 때였어”라고 말했다. 그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나 남편은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결혼 예식을 치를 때까지 서로 얼굴 한 번 못 봤다.

“같이 붙어 산 날짜도 얼마 안 돼. 나는 시집 살고 남편은 학생이라 목포로 나가 살았어. 이듬해 남편이 서울로 대학 가겠다는 거여 (한양공대를 다녔다고 함). 공납금 받으러 한번 내려왔는데 그 뒤로 6·25가 나고 소식이 끊겼어. 남편

이 세상 뒤틀리는 소리도 들리고, 거제도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지금껏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어. 남편이 살아있다는 그런 믿음의 그늘에서 살고 싶었으께.”

-북으로 간 이유를 따졌습니까?

“꼭 물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떨어져 살며 별별 일이 있었을 테니 물어보면 뭘혀.”

-얼마 같이 살지도 않은 남편에게

## “남편 서울로 대학갔다 6·25때 소식끊겨 그이 살아있다는 믿음속에서 52년 살아”

정(情)이 있나요?

“그래도 같이 산 햇수는 4년이야. 별나게 잘난 위인은 아니었어도 내 첫사랑이다.”

-재혼한 남편이 괴롭하지요?

“시국(時局)이나 북쪽 제도 때문에 그랬어. 그 사람 마음이 그랬겠어? 자기도 양심의 가책은 되지. 내 앞에서 었드려 울었잖아.”

-그런 남편을 기다리느라 평생 수절했습니까?

“우리 부모가 내 안 낳았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끝내려고 했지. 내 인생이 좋아라고 늙은 부모를 내버려? 시어머니

는 6년 전에 돌아갔어. 시계는 쉬지도 않고 뒤로 가는 법도 없어.”

-할머니 인생도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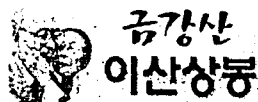
“재혼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었어. 이 사내 저 사내 옮겨 다니면 소·돼지 새끼와 뭐가 달라. 이왕 사는 거 사람의 것처럼 해서 살아야지. 누가 양자(養子)라도 얻으라고 했어(남편 사이에 아이 하나 있었으나 4살 때 병으로 숨짐). 하지만 내가 북이 없어 이렇게 됐는데, 남의 아들 데려다가 불행해지면 또 절망이 오제.”

“좋은 세월 다 지나 늙어서 남편 만나면 뭘 합니까”라고 하자, “그래도 살아서 만난 게 억단디”라고 대꾸했다. /束草=崔普植기자

congchi@chosun.com



# 첫날 눈물 닦고 둘째날 웃음꽃 '활짝'



## 2차 만남 이틀날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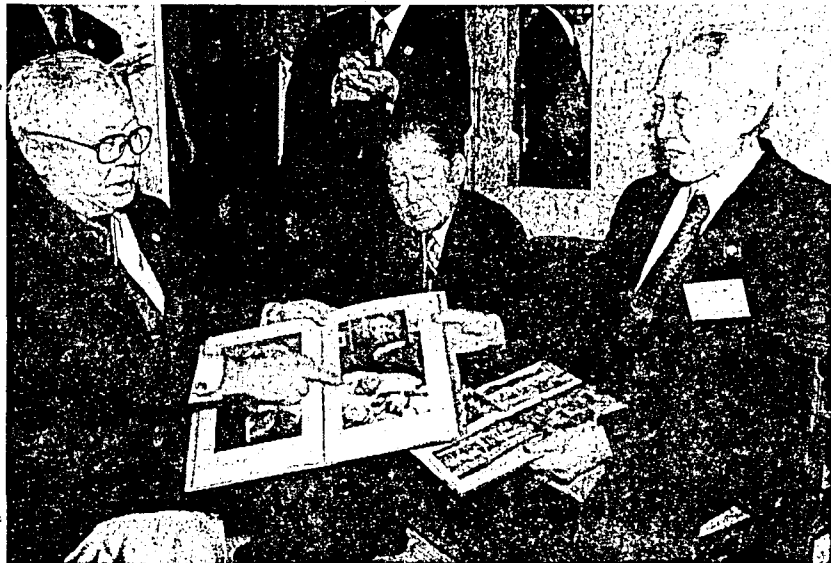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2회차 행사 이틀째인 2일 남쪽 466명과 북쪽 100명의 가족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긴 사연을 공유하며 모두 7시간 동안 함께 지냈다. 첫날 눈물짓느라 보낸 시간을 이날은 반세기 환을 털어내는 이야기꽃으로 가득 채웠다.

2박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금강산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북쪽 가족과 상봉하는 남쪽 가족들은 함께 오지 못한 피붙이들의 모습과 음성을 전하기 위해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각종 전자장비를 동원했다.

북쪽 최고령 한인기(83)씨는 압두병 중인 말팔 정자(61)씨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사위 강용기(65)씨가 녹화해온 캠코더 화면을 대신 보는 것으로 달래야 했다. "아버지 건강하시고, 나중에 꼭 돼요. 저도 건강할게요." 화면의 딸도 52년 만의 모녀 상봉이 무산된 아쉬움을 토로했다.

북쪽 김광보(68)씨를 만난 동생 광선(65)씨는 "형님 모습을 찍어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사진과 비디오를 부모님 묘소에 가져가 보여드리겠다"고 분주히 움직였다.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측은 온정각 단체상봉과 만찬 등을 위해 호텔현대와 현대백화점 직원 56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각종 음식물과 집기 등을 살봉호점으로 나르는 등 행사 성공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대이산 김교중 부사장은 "금강산관광이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한 데 이어 금강산 이산가



2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김인하(왼쪽), 성하 형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함께 보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함께 못온 피붙이 모습 전하러 녹화장비 동원

## 김강현-안정순부부 반지 끼워주려 '사랑싸움'

족 상봉시대가 열려 활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남쪽 가족들은 북쪽 피붙이들에게 전해줄 선물을 챙기느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선물은 옷가지와 시계, 귀금속, 의약품 등이 주류를 이뤘다. 5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이영숙(55)씨는 "겨울에 대비해 무스탕과 금반지, 시계 따위를 준비했다"며 "의약품을 준비해오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북쪽 김강현(76)씨는 입북 전 여운형 선생이 만든 중의일보사에서 일하다 네차레나 옥고를 치르고 1948년에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에 김구, 여운형 선생 등과 함께 참석한 이력을 지니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씨와 그의 남쪽 수절 부인 안정순(74)씨는 김씨의 동생 영순(68)씨가 오빠에게 건네준 다섯돈 금반지를 서로 상대방이 끼어야 한다며 노년에 애뜻한 '사랑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북쪽 가족들은 때때로 정치색 짙은 발언을 해 상봉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 북쪽 최병재(73)씨는 개별상봉 시간에도 김일성 주석의 저서를 들고 "김일성 주석께서는 일찍이 ... '라며 '체제선전'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남쪽의 딸 명희(53)씨와 사위 오

운식(55)씨는 잡자코 들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줄을 올렸다. 북쪽 김국성(71)씨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다 김정일 장군님 덕택"이라며 방 책상 위에 준비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 앞에서 남쪽 가족들이 절할 것을 요구했다. 남쪽 가족들은 머뭇거리다 반세기 만에 만난 말쑥의 제의를 뿌리치기가 힘들었는지 가벼운 목례를 하기도 했다.

남쪽의 가족들은 참관상봉을 마친 뒤 북쪽 가족들과 헤어져 따로 저녁식사를 하고 금강산에서의 아쉬운 마지막 밤을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 자유로운 분위기 삼일포 참관 상봉

# 눈치안보고 가족끼리 '속깊은 얘기'

"애야, 저기를 좀 봐라. 탁 트인 호수를 보니 마음이 다 시원하다." 2일 오후 3시15분께 불편한 몸을 활체에 입고 삼일포 참관 상봉에 나선 황옥순(90) 할머니가 은쟁반 같은 호숫물을 보고 북쪽의 딸 정규춘(69)씨에게 감탄을 늘어냈다.

정씨도 "좋은 자연에서 어머니를 만나니 마음이 훌훌하다"며 옛날 어린 왕이 잠시 이곳에 들렀다가, 검치가 너무 좋아 사흘 동안

머물러서 삼일포란 이름이 붙었다는 지명 유래를 설명하고선 활짝 웃었다.

임금의 넋을 빼앗은 삼일포의 경치였지만, 노모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50년만에 만난 주름진 아들 얼굴이었다. 김분달(89)씨는 삼일포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북쪽 아들 리춘식(70)씨를 발견하자 손짓을 하며 "우리 큰아들하고 있으면 어디든 나는 좋아"라고 말했다.

의사 집안인 북쪽 박문근(75)씨와 남쪽 아들 박승원(50)씨, 중학교 손자 박승한(13)군도 함께 삼일포를 산책했다.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인 이들은 주말 나들이에 나선 흥겨운 가족 3대 모습 그대로였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삼일포를 거닐 시간은 2시간 남짓. 바깥에 나온 이산가족들은 그동안 실내에서만 진행된 단체 상봉과 공동 식사, 개별 상봉 등과 다른 분위기 속에

서 얘기를 나눴다. 실내 상봉에선 취재진이나 당국의 눈과 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느닷없는 '정치선전'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삼일포 참관을 통해 이산가족의 만남이 '담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온 셈이다.

오후 6시15분 다시 헤어질 시간. "1시간만 더 주면 안 되나요?" 웃음은 눈물로, 반세기 만의 첫 가족 나들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풍'으로 끝을 맺었다. 북쪽 정장진(73)씨는 애달픈 노래를 불렀다. "목메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금강산/공동취재단

# “북, 면회소 결국 수용할것”

인터뷰 / 이홍동 남북관계부장

지난달 28일부터 1·2차로 연속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보는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사진)는 한편으론 후련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씩 만족스러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미뤄져 왔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은 반가우나, 애초 예정된 서울과 평양이 아니라 동쪽 한 귀퉁이 금강산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걸린다. 그러나 그는 “금강산이면 또 어떤가”라고 말한다. 몇백명의 만남이지만 이산가족 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것도 무척 다행한 일이다. 서 총재는 남북 양쪽의 대화가 잘 이뤄지면, 서로 방문단이 오가는 ‘행사’ 성형식보다는 상시적으로 남북의 핏줄이 만날 수 있는 면회소 설치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총재를 1일 한직 총재실에서 만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그의 생각들을 물어봤다.

## 교류 물꼬 다시 터 다행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뤄지게 된 데 대한 소회는?

=이산가족이 600만명이고 상봉신청자만 11만명이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그 1천분의 1에 불과하다. 이산상봉은 상징적인 일이다. 이번에 북쪽 가족을 만나는 사람이 몇백명이지만, 이산가족 전체를 대표해 만나는 것과 같다. 그 얼마나 애절한 만남인가. 적은 숫자이지만 계속 만나야 한다. 이게 돼야 다른 인도적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상봉장소가 금강산이라는 게 좀 걸린다. 앞으로 계속 금강산을 이용할 것인가?

=천만명이 한꺼번에, 그것도 교통, 숙소문제가 해결된 채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남북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남북이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면 한결 쉬워질 것이다. 북한이 결국 우리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희망이냐 경의선이나 경원선 쪽을 통해 만나는 장소가 좋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금강산 상봉은 한두번이면 좋겠다.

-사실, 이전 이벤트성 교환방문은 한계에 이른 게 아닌가?

=난 원래부터 이벤트성 상봉을 하지 말자고 주장해왔다. 가족들이 언론보도에 신경을 쓰게 되고, 체제선전을 하고 서로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 정말로 이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조용히 만나 소망을



사진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이벤트성’ 보단 꾸준히 만나게 해줘야 남북 청소년 적십자모임 8월 개최 제안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번 금강산 상봉기간 중 남북 적십자사 사이에 적십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여기가 좀 오갔는지?

=협상이라는 게 적십자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정부와도 논의해야 하고 사전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특별히 구체적인 합의는 없는 것 같다. 남북 적십자사 회담은 빨리 열려야 한다.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우리도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적십자사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대북사업은 어떤 게 있는가?

=비료는 우리 이념으로 지원한다. 전경련 등의 도움을 받아 300만벌의 의류도 보냈다. 민간단체의 위탁을 받아 지원한 각종 물품도 900억원어치나 된다. 좀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탓에 여력이 좋지 않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특히 남북한의 청소년 적십자모임을 8월에 합계회를 잡고 있다. 북한쪽에 최근 이틀 제안했다.

## 포로문제 정부가 풀어야

-국군포로 문제나 남북차, 문제는 어떻게 다뤄나갈 생각인가?

=솔직히 적십자사가 다루긴 어려운 문제다.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정치성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국제적십자사는 남치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다. 북한쪽에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남갔다는 것이다. 이들도 이산가족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상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남치 여부가 문제되면 적십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 권혁업 기자 nura@hani.co.kr



이산가족 상봉 이튿째인 2일 삼일포 관광에 나선 남측 오해생 할머니(왼쪽에서 두번째)가 휠체어에 탄 채 북측 남 동생 유범씨의 안내를 받으며 전경을 둘러보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수절 아내에 “여전히 애인”

■ 2차 이산상봉 이튿째  
재혼한 북쪽 남편에  
“살아줘서 고마워요”

남측 가족 466명은 2일 북측 100명이 머문 금강산여관을 찾아 전날 첫 상봉때 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못다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남북 가족은 이어 관동팔경 중 하나인 삼일포로 이동, 2시간 동안 금강산의 절경을 감상하며 협육의 정을 재확인했다.

○50년간 수절해온 아내 안정순(74)씨의 손을 꼭 잡고 삼일포 호반을 거닐던 북측 남편 김강현(76)씨는 “당신은 여전히 내 애인이야. 우리가 갈라지고 싶어

갈라졌나”라며 부부의 연을 다시 이었다. 그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만 살아있던 아들 재성(55)씨에게 “어제는 너를 몰라보고 한참 생각한 뒤에야 아들이 줄 알았다”면서 미안함을 전했다. 재성씨는 “두 분이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네요”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안씨는 이미 재혼해 딸 넷을 둔 남편이건만, 연신 “살아줘서 고맙다”면서 사무친 그리움을 토해냈다.

해방 후 여운형(呂運亨) 선생이 만든 중외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김씨는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대표자연석회의에 김구(金九) 선생 등을 수행 취재했다가 그대로 눌러앉았다.

○일부 북측 가족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사진에

절을 할 것을 요구,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금강산여관에서 가슴에 훈장 7개를 달고 남측 동생들을 맞이한 김국성(71)씨는 다짜고짜 “이렇게 만난 것은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 덕분”이라며 김 위원장 사진에 절을 하자고 제안했다. 남측 가족들은 머뭇거리다 북측 취재진까지 거들자 기법게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미국 놈이 원썩’라는 등 정치적 발언을 계속했으나, 남측 동생들이 가족사진을 꺼내자 겨우 관심을 돌렸다.

남측 상봉단 관계자는 “북측이 남측 방송의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이를 체제선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이산상봉도 디지털화

## 금강산 만남 둘째날

금강산=공동취재단

4차 남북 이산가족 두번째 상봉단 466명은 2일 오전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금강산 여관에서 개별상봉한 데 이어 오후에는 삼일포항 공동 관공함으로 이산봉합정읍 대부분이 무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시각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이산가족 방문행사는 3일 오전 온정각 휴게소 옆 운동장에서 개별상봉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4차 방문을 통해 남측 565명, 북측 283명 등 모두 848명이 이산의 한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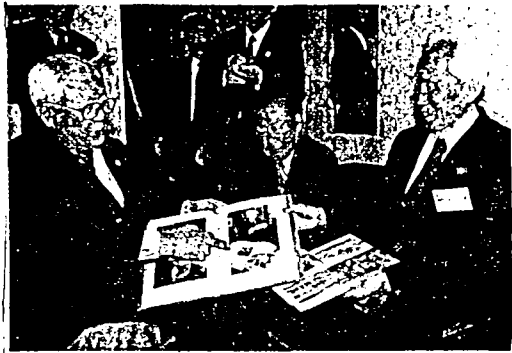
이번 개별상봉에선 남측 가족들이 북측 합육의 모습과 음성을 담기 위해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첨단장비를 총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북측의 최고령자인 함인기 씨(84)는 사위 강용기 씨(65)가 녹화해 온 캠코더 화면을 보며 압도적인 말괄 잡자 씨(61)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았다.

또 기자 출신으로 48년 평양 남쪽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구, 여운형 선생 등을 동경 취재하다 평양에 남았던 김강현 씨(76)는 이남 남쪽 아내 안경은 할머니(74)와 만나 김치색 같은 반얀하면서도 꼭같은 손을 놓지 않는 것으로 50여 년 간 수절해 온 남쪽 아내에 대한 위로를 대신했다.

삼일포항 찾은 이산가족들은 "과연 금강산"이라고 감탄했다. 남측 방문단 황옥순 씨(90)는 고려에도 불구하고 황제에 의지한 채 끝까지 동행하기도 했다.



2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김민하(왼쪽), 김상호 형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함께 보고 있다.



# 면회소 설치 서둘러야

"눈물을 밥 삼아 살아왔다." "지금 못만났으면 아마 '넋새'가 돼 울고 다녔을 것이다."

북측의 남편과 반세기만에 만나 그동안 맺힌 한을 토로하는 할머니, 북에 남겨뒀던 '핏덩이'같은 아들이 반백이 돼 나타나자 할말을 잃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는 아버지.

이번에도 감격과 눈물의 휴먼드라마는 어김없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두차례로 나눠 실시되고 있는 4차 이산가족 상봉은 저마다 애달픈 사연들로 오열의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도 이들 상봉자는 혈육을 만날 수 있었다는 자체가 행운이었다. 이들이 상봉하는 기쁨 뒤편엔 부모와 자식, 형제들과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상봉신청을 한 사람은 10만명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그들에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나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북측 가족을 만난 사람은 고작 2천여명에 불과하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생전에 이들 모두가 헤어진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4차 상봉이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다 6개월 연기된 사이에 방북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노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여럿이다. 또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상봉 길'을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팔순의 한 이산가족은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나. 상봉신청을 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남북당국이 서둘러야 한다"며 간절한 소망을 밝혔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의 장소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남측은 경의선 연결지점에, 북측은 금강산을 고집해왔다. 상봉일정도 남북간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기 십상이었다. 4차상봉이 연기됐던 것이 단적인 예다. 남북은 이번 금강산행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봉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상설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점례화, 서신교환 확대 등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상봉을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 눈을 감은 이산가족이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홍영식 정치부 기자

yshong@hankyung.com

# 이산상봉단 어제 귀환

지난달 28일부터 2박3일씩 두차례로 나눠 치러진 금강산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가 모두 끝났다.

▶관련기사 5면

남쪽 이산가족 466명은 3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남짓 금강산 김정숙초대소 운동장에서 이뤄진 작별상봉에서 북쪽 가족 100명과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했다.

일부 가족들은 이날 새벽까지 내린 비로 운동장이 질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부모에게 큰 슬

을 올렸다.

북쪽의 리춘식(70)씨는 떠나는 남쪽의 동생들에게 "어머니 잘 모시라"며 "나를 대신해 아버지 산소에 술 한잔 올려드리라"고 호느꼈다. 뇌졸중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북쪽 박상설(70)씨는 남쪽의 동생 정은씨의 손을 붙잡고 "오래 살라"고 당부했고, 동생도 "오빠도 오래 살아"라며 통곡했다.

남쪽 가족들은 낮 12시10분께 설봉호를 타고 장전항을 떠나 3시25분께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이산가족 면회소 추진

정부는 3일 오후 남측 이산가족 466명이 속초로 귀환, 제4차 이산가족 금강산 방문행사가 무난히 끝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적십자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금강산 상봉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이를 면회소 설치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적십자사는 곧 제4차 적십자 회담을 열고 상설 면회소 설치문제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南이산상봉단 귀환

남측 가족 466명이 3일 금강산 온정각 운동장에서 북측 100명과 작별상봉을 하고 설봉호 편으로 귀환, 4차 이산상봉 행사가 막을 내렸다. 지난달 28일부터 5박6일간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848명(남측 565명, 북측 283)이 6차례씩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금강산 및 도라산역 면회소 설치를 위한 4차 적십자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 이산 상봉단 귀환

### 어제 4차행사 모두 마무리

4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 466명은 3일 오전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과의 아쉬운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의 일정을 마친 뒤 설봉호를 이용, 오후 속초로 귀환했다. /관련기사 21면

이로써 지난달 28일부터 두차례로 나눠 각 2박3일씩 진행된 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온정각 휴게소 옆 운동장에서 있던 작별상봉에서 북측 만형 리춘식씨(70)는 남측 동생 참식(68) 정애(65·여)씨에게 "나를 대신해 아버지 산소에 술 한잔 올려드리라"며 울부짖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떠나는 버스 안에 타서도 북측 가족들을 소리쳐 불렀고 차창에 몰려든 북측 가족들은 '다시 만나요' 등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로 배웅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떼버리고 어찌 갈꼬...한숨·통곡

## • 이산가족 작별상봉 이모저모

### 9旬노모에 살아생전 마지막 큰절 “죽어서라도 꼭 다시 만나자” 오열

“울지 마라. 웃으면서 헤어지자”  
“어찌 떼버리고 갈꼬”. 4차 이산상봉  
마지막날인 3일 오전 온정각 휴게소  
옆 운동장은 3일간의 짧은 만남과  
기약없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한탄과  
통곡으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북쪽의 아버지 이의필씨(83)  
와 만난 선교씨(59)는 “아빠, 내 아  
빠, 어떻게 보내”라며 아버지를 끌어  
안고 떨어질 줄 몰랐다. 선교씨는 연  
신 아버지의 얼굴을 갖대 비비면서  
“꼭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서 울부짖었다. 손녀 윤주씨(28)도  
처음 만난 이씨의 품을 파고 들어  
“저게도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다고  
좋아했는데...”라며 울먹였다.

○...북쪽 김강현씨(77)는 종종으  
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손을 50여년  
동안 수질한 아내 안정순씨(74)의  
어깨에 얹은 채 “예기 한 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그래”라는 말만 했다.  
아내 안씨는 “짐을 맞으세요”라며  
남편의 건강 걱정만 했다. 김씨는 안  
내편이 “이제 그만 가셔야지요”라고  
여러 번 얘기하자 “다른 사람들이

가면 나도 가지”라면서 거듭 “예기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그래”라고  
아쉬워했다.

○...북의 형 성하씨(77)를 만난  
김민하(金政河·69) 민주연통 수석  
부의장은 여동생 옥희(63)·옥려  
(61)씨가 오입하자 “어젯밤에 많이  
울지 않았느냐”며 “오빠가 보는데서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다독거렸다.  
김부의장은 취재진들에게 “1천만 이  
산가족들이 모두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치밀하고 잔혹한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성  
스러운 평화통일 운동에 어느 정도,  
어느 나라도 반대하는 것을 우리 10  
형제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성하씨도 “남북의 대다수  
사람들이 조국통일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10  
형제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 통  
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 마지막  
큰 절을 올립니다”. 북의 하준수씨  
(71)는 노모 윤금순씨(92)에게 큰  
절을 올리며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



‘나는 못가...’ 금강산 / 사진공동취재단

3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 옆 운동장에서 열린 이산가족 작별상봉에서 북쪽 아들 하  
준수씨가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짓는 남쪽 어머니 윤금순씨를 달래고 있다.

아들의 큰 절에 노모는 “이제 어떡  
할고, 지금 가면 언제 보나”라는 말  
만 되풀이했다. 여동생 손남씨(70)  
는 “오빠야, 이제 우리 어머니는 어  
떻게 해”라며 오빠를 부여안고 통곡

했다. 준수씨는 “어머니, 편하게 살  
아계십시오. 살아 생전 못한 효도 죽  
어서라도 다하겠습니다”라며 눈물  
로 어머니를 떠나 보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 상봉 정례화·면회소 설치 과제로

### • 4차 이산상봉 결산

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3일 남  
측 상봉단 466명이 숙초항으로 귀환  
함에 따라 9세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상봉은 서울·평양의 교  
환방문으로 실시된 앞선 3차례 상봉  
과 달리 북측 금강산으로 정소를 옮  
겨 치러졌다.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

조롭게 진행됨으로써 본격적인 금강  
산 상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상봉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고려자가 많은 상봉단을 위  
한 편의시설과 응급의료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금강산 현지에는 숙박사  
설이 부족해 수백명씩 되는 상봉가

객들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심  
재로 이번엔 2진으로 간 466명의 남  
측 가족들은 해금강 호텔과 설봉호  
에 분산 투숙하는 불편을 겪었다. 고  
령이나 혼자인 이산가족의 응급이송  
대책도 더욱 보완할 점이다.

차제에 금강산 외에 제2의 상봉  
정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강  
산 상봉은 고령의 남측 이산가족이  
숙초에서 히끗밤을 머문 뒤 백면으  
로 3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불편  
함을 감수해야 한다. 경의선 연결지

점에 제2의 면회소를 설치하지는 제  
안이 나오는 이유다.

근본적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  
본적 해결을 위한 상봉의 정례화가  
시급하다. 이번 4차 상봉에서도 남측  
이병순씨(93)가 상봉을 이틀 앞두고  
사망해 보다 많이, 보다 빨리 상봉이  
이뤄져야 함을 보여줬다. 이산가족  
문제는 결국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  
환 확대, 상심 면회소 설치 등을 통  
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다.

김진우기자 jwkim@kyunghyang.com

## 서울경제

2002. 5. 4 (토)



“꼭 다시 만나요” 3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 옆 운동장에서 이산가족 작별상봉을 마친 남측 가족들이 버스 안에서 북측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또 생이별... 한숨·통곡

## 이산가족 상봉단 귀환

3일 오전 남측 이산가족 466명과 북측 가족 100명의 작별상봉이 벌어진 금강산 온정각휴게소 옆 운동장은 또 다시 눈물바다로 변했다. 남측가족들은 이날 오후 속초항으로 귀향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부터 두차례 나눠 진행된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 이산가족 848명(남 565명, 북 283명)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진한 혈육의 정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하직이다. 내가 몇 살인데 다시 만날 수 있겠니.” 남측 가족중 최고령인 안순영(93) 할머니는 52년만에 만난 북측 아들 조경주(71)씨와 또 헤어져야 한다는 아득함에 온몸을 떨며 통곡했다.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감추던 경주씨는 “어머니, 정신만 차리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곧 통일이 돼요.”라며 20여분 만에 상봉을 마치려 서둘렀다. 여동생 순주(55)씨는 오빠의 심사를 헤아리면서도 “어머니 말

도 좀 들어 보세요.”라고 쏘아 붙였다.

●북측 맏아들 이춘식(70)씨의 손을 꼭 잡은 김분달(87)씨는 “어째, 떼버리고 갈꼬.”라며 한숨만 쉬었다. 밤새 울어 눈이 충혈된 춘식씨는 남측 동생들에게 “어머니 잘 모시고, 나를 대신해 아버지 산소에 술 한잔 올려드려라.”라고 울부짖었다.

극복하기 위한 성스러운 평화통일 운동에 어느 정파, 어느 나라도 반대해선 안된다고 선언한다.”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작별상봉 도중 운동장 한쪽에선 남북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말싸움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북측 요원들이 이산가족들에게 “너무 울지 말고 차분하라.”고 하자, 우리측 적십자사 관계자들은 “우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항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 93세 노모 “다시 볼날 있으려나”

### 차창밖 얼굴 내민채 눈물의 이별

●북측 오빠 전선풍(79)씨는 “언제 다시 만나겠느냐.”면서 여동생 선례(67)씨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선례씨는 ‘영양’ 울면서도 하리가 아프다는 오빠의 호주머니에 신경통약을 넣어 주었다.

●북측 형 성하(77)씨를 만난 김민하(6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오열하는 형제들을 달래며 “우리 형제는 처절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그러나 오전 9시45분쯤 버스에 오르려는 안내방송에 이어 오전 10시쯤 남측 가족들이 탄 버스가 출발하자 작별 상봉장은 통곡의 장으로 변했다. 북측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가세요, 다시 만나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버스에 탄 남측 가족들은 차창 밖으로 목을 내민채 “형님, 아버지, 오빠” 등을 외치며 오열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남측 가족들이 3일 오전 금강산 온정각휴게소 옆 운동장에서 작별상봉을 한 뒤 귀향 버스에 올라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북측 가족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또 헤어져야 하나... 3일 오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 경장에서 이북진 제4차 이산가족 직렬상봉을 마친 남측 이산가족들이 버스에 올라 북측 가족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금강산=공동취재반>

### “못봐준다” 혈육잡고 몸부림

#### 기약없는 이별 스케치

금강산이 또 한번 이산의 아픔으로 몸부림쳤다. 상봉 마지막날인 3일 오전 김정숙휴양소 앞 운동장은 재회할 기약하지 못하는 남북가족의 아쉬움과 장탄식으로 눈식간 울음바다로 변했다.

#### “죽어서라도 효도다할터”

○남측의 윤금순(92) 할머니는 북측 아들 하준수(71)씨의 손을 잡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난 이제 어떡하냐”며 통곡했다. 노모에게 큰 걸을 옮긴 하씨는 “어머니, 편하게 살아주세요. 살아 생전 못한 효도 죽어서라도 다하겠습시다”며 울부짖었다.

할아버지에 얹은 채 큰 아들 리춘식(70)씨 손을 꼭잡은 김분담(87) 할머니도 “어찌 때버리고 갈꼬”라며 울먹였다. 눈물로 뒤범벅된 춘식씨는 동생들에게 “어머니 잘 모시라. 나를 대신해 아버지 산소에 술 한잔 올려 드려라”고 울부짖었다.

○북측 송수식(81)씨는 아들 정태(56)씨가 아버지 품에 기대 눈물을 흘리며 “사내대장부가 그러면 되나”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정오근(68)씨도 형 은규(69)씨를 뒤에서 꼭 안은 채 “나 우리 형님 안 봐줄 거야. 반세기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진다 말아야”라며 절규했다.

○“이제 하직이야? 내가 몇 살인데 다시 만날 수 있겠니?” 남측 최고령 안순영(93) 할머니는 아들 조경주(71)씨와의 작별상봉 내내 몸부림쳤다. 하지만 경주씨는 “어머니 운다고 해결이 안돼요. 미국놈들 끌어내야죠”라며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경주씨 딸에 동생 손주(55)씨는 “오빠 말만 하지 말고 어머니 말도 좀 들어요. 여기는 누구한테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라고 쓰아붙이기도 했다.

#### 남북직접사직원 입씨름

○이날 직접상봉장에서는 남북 직접사자 관계자 간 말싸움이 벌어졌다. 북측 안내요원이 이산가족들에게 “너무 울지 말고 차분하라”고, 요구하자 우리측 관계자는 “우는 것을 막지 말라”고 치받으면서 실전이 시작됐다.

이에 북측 안내원들은 “남측 관계자의 발언이 남측의 공식 입장이나”고 강하게 항의,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금강산=공동취재반

#### 4차 상봉단 귀환

제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단 2진 466명이 3일 오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 옆 운동장에서 작별상봉을 가진 뒤 오후 속초로 귀환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 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북의 848명

(남측 565명, 북측 283명)이 50여 년만에 그리운 가족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눴다. 처음 열린 금강산 상봉행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돼 향후 금강산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북 직접사 관계자들은 몇 차례 집회를 갖고 직접사회담 재개와 5차 상봉 일정을 논의했으나 집짐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공동취재반



○남측 가족이 3일 오전 작별상봉을 마친 뒤 버스로 떠나면서 북측 가족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반

## 편의제공... 北 달라져 눈길



#### 금강산 상봉 결산

지난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실시된 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3일 끝났다.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진행됐지만 행사 자체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남측 565명과 북측 283명 등 총 848명의 남북 이산가족이 6차례, 10~12시간 동안 재

### 생중계 허용-입출국 수속도 간편해져 5차만남 기약없어...면회소 설치 시급

회합으로써 종전보다 만남의 시간이 훨씬 길었다. 이번에 첫 시도된 남북가족의 삼일포구통행·참관은 호평을 받았다. 일부 가족이 “시간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북측의 TV생중계 허용과 행사 진행이 꽤 부드러워졌던 것도 특징이다. 500여명의 이산가족들의 방북을 일반 관광객과 구분, 간단 한 명단확인만으로 입출국 수속을 끝낸 것도 북측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산가족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가끔 열리고 그것마저

남북관계가 꼬이면 아예 중단되는 바람에 일부 고령자들은 상봉 날짜를 기다리는 도중에 세상을 뜨곤 한다. 상설 면회소 개설과 생사주소 확인, 이산가족들간 통속(通俗)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산가족 상봉, 특히 국군포로와 남북자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이번 상봉기간 남측 직접사 관계자들은 북측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상봉 문제와 직접사회담 개최 등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현재로선 5차 상봉도 불투명하다. /금강산=공동취재반



# 이제 가면 언제 만나려나 아들아...어머니...목놓아



금강산  
이산상봉

## 기약없는 이별

재회의 기약 없는 그들의 이별은 처절했다.

3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김정숙 초대소 운동장. 반세기 만에 만난 남쪽의 466명과 북쪽 가족 100명은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영원으로 이어가기 위한 작별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작별상봉이 시작되자 아흔이 넘은 윤금순(92)씨는 1분1초가 아쉬운지 뛰다시피 해서 아들을 찾았다. 윤씨의 북쪽 아들 하준수(71)씨는 노모에게 옆드려 절하며 흐느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 마지막 큰절을 올립니다." 할

머니는 '이제 그만 우시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몸부림쳤다. "이제 어떡할꼬, 지금 가면 언제 보나..." 그 자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늘어 버린 아들은 눈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절규했다. "어머니, 편하게 살아계십시오. 살아 생전 못한 효도 죽어서라도 다하겠습니다."

남쪽 최고령 안순영(93) 할머니는 온몸을 떨며 북쪽 아들 조경주(71)씨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한다. "이제 하직이야, 내가 몇살인데 다시 만날 수 있겠나..." 노모는 아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하고, 아들은 먼산바라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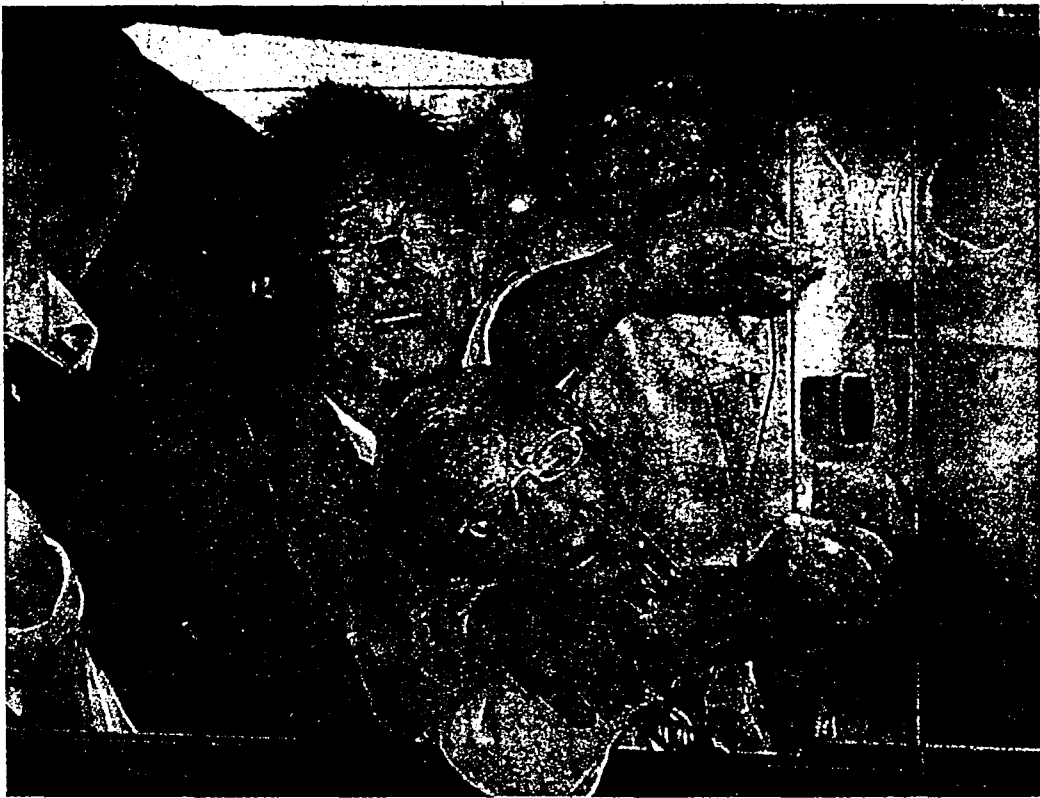
이선교(59)씨는 "아빠... 아빠... 어떻게 보내..."라며 북쪽의 아버지 리의필(83)씨를 끌어안은 채 떨어질 줄 몰랐다. 짧은 만남은 중

년의 아들을 아이로 돌려놓았다. "아빠, 꼭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라... 그라..." 아버지 리씨는 말을 잊지 못했다.

북쪽 김강현(77)씨는 몸이 불편한 것을 염려한 북쪽 안내원이 '이제 그만 가셔야지요'라고 거듭 얘기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김씨는 "(미누라한테) 얘기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그라"라고 했다. 반세기를 수절한 부인 안정순(74)씨는 "건강하셔야죠, 드린 약 꼭 드세요"라는 말만 거듭했다.

작별상봉 뒤 버스에 오른 남쪽 가족들은 차창을 열어젖히고 울부짖으며 손을 내밀었다. 북쪽 가족들은 '다시 만나요'라는 북쪽 노래를 함께 불렀다.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잘가시라 다시 만나요/목메어 소리칩니다/안녕히 다시 만나요..."

금강산/공동취재단



3일 오전 금강산 김정숙초대소 운동장에서 작별상봉을 마치고 버스에 오른 남쪽 이산가족들이 북의 가족과 이별을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생중계 첫 허용... 면회소 설치 탄력

### ■ 4차 이산상봉 결산

5박6일간 848명 만나

북 태도 비교적 협조적

1~3차 이산가족 방문단 서울~평양 교환 행사와 달리 금강산 한 곳에서 치러진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애초의 여러 우려와 달리 별다른 문제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임동원 대통령 특사 방북 뒤 첫 가시적 조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5박6일 동안 만난 이산가족은 남쪽 565명과 북쪽 283명 등 모두 848명이다. 서울에서 최

대 20여명까지 북쪽 가족을 만났던 1~3차 행사 때보다는 상봉 가족 수가 줄었지만, 전에 없던 구룡연과 삼일포 참관 상봉이 새로 시도되는 등 상봉 방식이 실내에서 실외로 넓어졌고, 상봉 시간도 12시간으로 전보다 두시간 남짓 늘었다. 특히 삼일포 참관상봉은 '닫힌 상봉'에서 '열린 상봉'으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북쪽의 태도는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이산가족 상봉 장면의 텔레비전 생중계를 처음 허용했고, 지원요원·취재진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인원의 입·출국 수속을 30분 만에 끝내는 등 응징성을 보였다.

그러나 금강산 현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이산가족에 고려자가 많은데 이들을 배려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북쪽 가족들은 상봉 도중 남쪽 취

재진이 접근하거나 텔레비전 카메라가 비출 때면 "수령님과 장군님 은덕" "외세는 몰아내야" 따위 "판에 박은 듯한 '정치발언'을 자주 했다. 이런 장면은 1~3차 상봉 행사 때도 있었지만, 이번엔 유독 그 정도가 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쪽이 그만큼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치심리적 과장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북쪽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앞으로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강산 상봉 행사가 무난히 끝남으로써 남북간 금강산면회소 설치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이 이번 행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금강산/공동취재단

# “군대 간 아들 면회가듯 만났으면”

## 한반도

이산상봉 '집필' 동행한 작가 김원일씨 인터뷰

“마지막 날 아침 작별상봉을 지켜볼 때는 가슴 속에 이런 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산가족인 소설가 김원일(60)씨는 (이산가족 백서) 집필 요원으로 지난달 28일부터 2박3일 동안 제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1회차 상봉을 동행했다. 지난달 30일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는 금강산여관 마당. 이산가족들이 다시 기억없이 헤어진 그 자리에서 그는 왜 그토록 화가 치밀었을까?

“1천만 이산가족 가운데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요식행위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

이 들었어요. 50년 동안 생사 확인도 제대로 못하는 남북한 당국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금강산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2일 만났을 때에도 그의 부아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채였다. 작품에서 분단과 이산문제를 다뤄왔던 그는 금강산에서 두 밤을 보내면서 쓰러린 가슴을 솔로 털었다. 공식적으론 지원요원이었지만, 내심 남로당 고위간부들 지나다 한국전쟁 때 월북한 아버지 소식만이라도 들었으면 했다. 북쪽 관계자들한테 아버지 기일이라도 알고 싶고 북쪽에서 재혼해 남은 형제들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 번 요청했다. 돌아오는 날까지 답은 없었다.

“방북 전 아버지여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북쪽에 먼저 전달했었어요. 아버지 경력이면 북쪽에서 기일 정도는 확인해 줄 걸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처군’까지는 하지 못했

하는 생각이 든다. 일제 때 항일운동을 했던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근원이 하나가 되라’는 뜻으로 원일(源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 지금 사는 얘기에 대화하러

김씨는 이번 상봉을 보면서, 새삼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50년 세월을 실감했다.

“예수 믿고 같이 찬양가자’는 남쪽 가족과 ‘장군님이 있는데 무슨 격침이냐’는 북쪽 가족이 다투는 것을 봤어요. 양쪽이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 다름이 생기고, 얘기 자체가 딱혀 버려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 기억들이 화제로 오르면 금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대화가 살아나는 것은 같은 정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서 열등감이 없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김씨는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 선택된 사람들만의 이벤트 이젠 넘어서야 고령부모·부부 하루가 급한데 추첨이라니요 안부묻다 아까운 시간 다가...편지교환 필요

다. 생사 확인도 못한 수많은 다른 이산가족들이 있는데, 유명 작가란 ‘특권의식’이 발동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그만했다고 했다. 수년 전 여러 걸로를 통해 아버지가 1978년 폐결핵으로 금강산에서 멀지 않은 서광사라는 요양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확인한 길은 없었다.

이념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어린 시절엔 원망도 많이 했다. 지금은 ‘그것이 아버지의 운명이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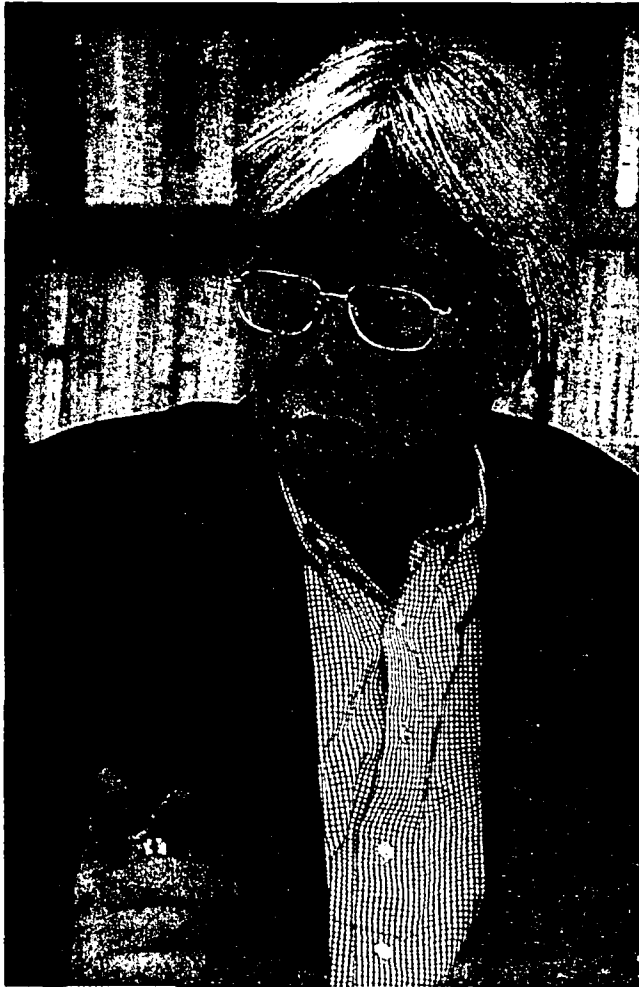
장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의 좌익활동 건력시비를 되돌렸다. 우리 사회가 아직 분단의 굴이 깊다는 것이다. “연좌제같이 수처스런 이야기를 유력한 정치인이 내놓고 문제삼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극우 세력들은 지하에 숨어 있다가 유령처럼 나타나곤 하죠. 군대가 다 떠났다고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거나, 남북관계에서 경직된 상호주의를 고집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식사·선물등 부담 만만찮아

아버지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그는 다른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많다.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상봉자 선발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 중 하나다. 이번 방문단에는 사촌, 시동생 등을 만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북쪽의 사촌을 만난 한 이산가족은 “만나서 반갑지만 안 만나도 그만”이라고 했다고 한다. 여러가지를 더 고려해야겠지만, 고령자나 부모·부부 같은 절실한 사람부터 먼저 만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산가족들이 편지부터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느낀 점이다. “정작 만나더라도 안부를 묻다 보면 짧은 상봉 시간 대부분이 지나가 버려요. 미리 서신 교환이라도 한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생사가 확인된 직계가족 위주로 상봉자들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공개 서신 교류가 체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 내용을 볼 수 있는 엽서 형식도 무방할 거라고 그는 생각한다. 몇가지 내용을 유희화한 편지 양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미리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도 실감했다. 한달 전쯤에 한쪽이 면회 신청을 하면, 남북 당국이 양쪽 가족들이 만날 날짜를 조정해 만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마치 부모가 굳에 있는 아들 면회 가듯이 김밥과 통닭을 들고 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겁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 시간을 정해 또 만나면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체제 선전 같은 게 나오겠어요?"

김씨는 특히 언론이 이산가족 상봉장을 생중계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자주 봐왔다. 가족들이 이를 의식하고 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쪽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한끼 식사

값만도 50달러가량 됐다. 이산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선물이나 건네주는 탈러도 만만치 않다. 이전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 이산가족들에게 자신처럼 뒤안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따뜻한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게 그의 또다른 희망이다.

젊은세대 무관심 일깨워줘

물론 이산가족 상봉이 반짝 만남이고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작게 볼 수는 없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분단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무관심하기까지 하죠. 인터넷이나 영화면 그만입니다. 분단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색스나 사소한 일상을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져요. 이런 경향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세대에게선 상봉행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미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글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사진 서경신 기자 raoul@hani.co.kr

지난달 말의 금강산행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데 실패한 김원일씨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부친을 되살려내고자 한다. 이번주에 창간되는 계간 <문학인>에 발표한 중편 <손풍금>은 반드시 부친을 모델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향했던 이념과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으로써 눈길을 끈다.

김원일씨의 부친 김종표씨는 경남 진영 출신으로 한국전쟁 이전에는 남로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전쟁 기간 중에는 서울시당 재정 경리부 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월북했다. 그러나 <손풍금>의 주인공 박광수는 평남 개천 출신으로 1961년에 남파된 이른바 '간첩'이다. 그러나 '분단시대의 사회주의자'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볼 수도 있다. 소설은 공작원으로 남파됐다가 체포돼 21년 동안 형을 살았던 '박광수(1921~83)'의 삶과 죽음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작가는 박광수의 친형인 도수와 그의 손자인 경식의 시집을 교차시키면서 박광수의 생애를 부조해낸다. 사학도인

기일도 모르는  
월북 아버지

김원일씨 '손풍금' 탈고

그 시대 그 삶  
소설로 되살려

경식은 작은할아버지를 주제로 삼아 <인민 박광수 연구>라는 석사논문 준비하며, 그를 위해 주변 인물의 증언을 채록한다. 전쟁통에 월남해 남쪽에 자리잡은 도수는 손자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굳게 입을 다물지만, 자연스럽게 동생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소설은 경식이 채록한 증언과 관련 자료, 그리고 도수의 의식에 떠오르는 옛 기억을 통해 광수의 생애를 되살려낸다.

조선노동당 당원이자 인민학교 교사였던 광수는 전쟁이 나자 뛰어난 손풍금(악기) 연주 솜씨 때문에 전선 문예선전대에 편입되어 전쟁을 치른다. 전쟁 뒤 인민학교 교사로 복직하지만 61년 2월에 남파되어 도수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체포되어서는 21년이 넘게 독방살이를 한다. 도수의 집안에서 광수는 인종의 금기가 되며, 그의 생애를 소재로 한 경식의 논문 쓰기는 그 금기에 대한 도전이 된다.

<손풍금>은 도수와 광수가 젊은 한때를 보낸 해방 직후의 북한 사회를 궁정적으로 바라본다. "근면하고 정직했던 무산자 인민이 주인이던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두 사람의 빛나던 청춘에 대한 향수와 겹쳐지면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낳는다.

"광수와 나의 청춘은 해방과 전쟁 사이 우리 가족이 한울타리 안에 살았던 한 시절이었고, 그 한때는 분명 한여름날 소나기 끝에 보게 되는 오색찬란한 무지개, 그렇게 영롱한 시간대였다."

소설 속에서도 그렇게 서술되지만, 작가는 "러방공간의 정통성은 분명 북한과 좌의 쪽에 있었다"고 말한다. 소설 <손풍금>을 통해 김원일씨는 아버지가 선택한 이념과 그 합동가들을 향해 애정과 공감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

리지봉 기자 bong@hani.co.kr

# 편지-사진 교환만이라도...



## 세계의 눈

피터 벡 미국 워싱턴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며칠 뒤면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에 포함될 운 좋은 100명의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북녘의 일가친척들을 만나러 금강산으로 떠난다. 이산가족 상봉은 햇볕정책의 가장 빛나는 성과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어둠 속에 남아있다.

나의 장인은 황해도 신흥민이다. 장인은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고향을 찾고 친지들을 만나려는 그의 꿈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장인처럼 이산가족 상봉단에 끼지 못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헛되게 기다리고만 있다.

### 이산상봉 기다리다 숨져

장인 장모를 통해 나는 한반도 분단의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측면을 들여다본다. 장모는 아직도 당신이 자랐던 황해도의 과수원에 대해 아련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곤 한다. 한국에서 맛있는 사과를 비롯한 상성한 과수들로 가득 차 있던 과수원에 대해 말이다.

장인 장모는 황해도 황주의 한 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그러나 두 분이 혼인하기 전에 6·25가 터졌다. 장인은 통일이 되면 부모와 두 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홀로 월남했다. 장모는 부유한 지주였던 당신의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뒤 당신의 어머니 등과 함께 월남했다. 처삼촌은 북한군에 징집됐다.

장인 장모는 기적적으로 대구의 한 학교에서 다시 만났다. 하지만 두 분은 그 뒤 50년 넘게 나머지 가족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남쪽의 수많은 신흥민처럼 장인 또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했다. 장인은 다시 전쟁이 터질 것에 대비해 딸 여섯과 아들에게 당신 고향의 주소를 의무게 했다. 황해도 황주군 인교면 소매리다. 장인은 고향을 사랑하는 그만큼 북한 정권을 증오했다.

나는 장인이 김일성과 ‘빨갱이’들을 말할 때마다 내뱉는 여러 가지 한국의 욕들을 배웠다.

내 처가 한국인이라고 밝힐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처의 부모들이 결혼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인은 자신이 줄곧 이방인이라는 느낌으로 남한에서 산 탓인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백서방’ ‘셋째 사위’ ‘힘부’ 또는 ‘이모부’다. 장인으로부터 나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 표현도 배웠다.

나는 처음에 장인이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데 대해 놀랐다. 그러나 그 이유를 곧 알게 됐다. 장인은 금강산 관광이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인 장모가 지난해 버지니아에서 우리와 함께 치낼 때 황해도 출신들이 한국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던 적이 있다. 고향으로부터 1만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장인 장모는 고향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의 비극을 제대로 다루려면 훨씬 많은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통계 중 하나는 앞서 세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에서 매년 명단에 올랐던 사람 중 40여명이 상봉을 기다리다 숨졌다는 사실이다.

또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뒤 14개월 동안 수천여명이 가족 상봉을 기다리다 숨졌다. 시간이 얼마 없다.

남북한은 간헐적인 이산가족 상봉 대신 너무 늦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빗장을 열고 모든 이산가족들이 만나게 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국 셰필드대학의 제임스 폴리 교수는 올 가을에 출판될 이산가족을 주제로 한 저서에서 제도적 방안으로 서신이나 사진 교환을 제안했다. 이런 조치로는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의 부유한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된다는 데 대해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 더 늦기전에 ‘제도’ 마련을

이산 가족들은 또 서신이 북한 당국에 의해 검열되더라도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서신교환을 통해 양측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산가족들의 고통도 완화될 것이다.

장인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 부부는 당신의 고향과 누이들과의 재상봉에 대한 소망을 내 딸에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언제쯤 딸에게 “여기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았던 곳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딸에게 황주 사과를 맛보여 줄 수 있을 때 딸은 선조들의 고향에 대해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beckdonga@hotmail.com



사 설 · 칼 럼





##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이산 상봉'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내일 금강산에서 이뤄진다. 종전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방문하던 형식을 바꿔 금강산에서 순차로 방문을 하도록 한 것이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남쪽 이산가족 99명이 북쪽 가족 186명을 만나며, 5월1일부터 3일까지는 북쪽 이산가족 100명이 남쪽 가족 470명을 만나게 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임동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한동안 등결됐던 남북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여는 행사이니 만큼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만남은 특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예정됐던 상봉을 이틀 앞두고 북쪽의 일방적 연기 선언으로 만남이 무산됐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정말로 만나게 되는 것이냐"는 불안감과 설렘으로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새 세상을 뜨거나 건강이 악화돼 꿈에도 그리던 혈육과의 만남을 포기한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다. 이산가족

만남이 끊긴 6개월은 북한과 미국의 갈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혼미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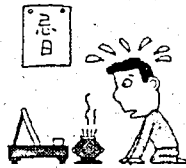
고령의 남쪽 이산가족들이 배편을 이용해 금강산을 방문하므로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다행히 남북 이산가족들이 함께 삼일포를 돌아보도록 하는 등 상봉 기회를 한차례 늘렸다고 한다. 모쪼록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여한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당분간 금강산에서 지속될 것 같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숨지기 전에 만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장소를 따질 일은 아니로되, 만남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경의선 도리산역 근처에 별도로 면회소를 만들도록 북쪽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처럼 한정된 사람들이 상봉하는 행사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편지를 교환하고,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새의 발목에 매단 가락지를 보고 북의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안 조류학자 원병오(元炳旣) 교수는 끝내 부자상봉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작고했다는 소식조차 국제회의에서 폴란드 조류학자를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축구선수였던 이회택(李會澤)씨는 6.25때 북으로 간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헤어진지 40년만에야 알고 마침 남북통일축구대회에 참석하면서 부자상봉을 할 수 있었다. 4세때 이별한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회택이구나"하고 목놓아 울었다. 40년만에 만났지만 옹케도 핏줄임을 확인하는 본능적 예감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을 옴은 '민족적 유전'이라고 했다.

북으로 간 아버지를 그리며 또 '빨갱이 자식'이라는 딱지와 함께 유년시절 가난과 굶주림으로 허덕였던 작

### 北의 아버지



가 김원일(金源一)씨가 방북단 지원요원으로 금강산에 갔다. 떠나기 전 '아버지 제삿날'이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장편소설 '노을'은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그린 것이고 단편 '환멸을 찾아서' '불의 제전' 등은 목마른 부정(父情)을 담은 자화상이나 다름없다.

작가 이문열(李文烈)씨 역시 북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중국의 두만강 부근까지 갔지만 끝내 부친상봉은 이루지 못했다. 이미 작고했다는 소식을 뒤늦게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2년만에 끝낸 소설 '변경'에서는 남은 가족에 가해지는 끝없는 고통을 그렸다.

가족과 상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하는 기대로 북에 간 김원일의 소망. 설사 아버지 제삿날이라도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申瓊均 논설위원  
ckshin@sgt.co.kr

## 더 많이, 더 자주 만나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4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제 금강산에서 시작됐다. 남북의 가족들은 반세기 동안의 긴 이별에 가슴치며 또다시 끝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1983년 KBS 이산가족찾기 방송 이래 온 국민이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아직도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나 보다. 피땀이름 곁에 두지 못하고 '갈 수 없는 땅'에 갈라져 살아야 했던, 슬픈 세월이 남긴 가슴의 멍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또 상봉이라는 것이 사흘간의 짧은 재회가 끝나면 다시 만날 기약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고통스런 이별식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나마 이런 짧은 만남의 행복도 맛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상봉 예정자였지만, 병세 약화로 거동할 수 없게 된 85세의 정인용씨와 헤어질 때 중학생이었던 딸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엇그제 눈을 감은 93세의 어병순씨가 그런 경우다. 이들은 이산상봉이 시간을 다루는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가족을 찾겠다고 신고한 남한 가족은 현재 12만명에 가깝지만 세차례 상봉에서 만난 사람은 3,600여명에 불과하고, 신청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60%를 넘는다. 사정이 이렇지만 4번째 상봉을 하는 데 1년2개월이나 걸리고 매회 상봉가족 수는 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여전히 그때그때 합의해서 진행하는 일회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상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는 상봉문제를 체제불안 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 의 머뭇거림이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남북대화, 남북 경험 활성화, 안정적인 대북지원 등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게 당장 도라산역이 어렵다면 금강산이라도 면회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보고싶은 고통'에 눈물 흘리고 '짧은 상봉'에 안타까워 하는 이산가족들의 한맺힌 가슴을 달래줘야 할 것이다.

## 이벤트성 상봉 언제까지 하나

세계적인 관광명소 금강산이 남북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뒤덮이고 있다. 2박3일간의 짧은 일정, 그것도 여섯차례의 상봉기회를 통해 50여년간 품어온 이산의 한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니 나오는 것이 눈물과 한숨, 회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남 이후의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할 수도 없게 만드는 비극이 새로 시작됨을 뜻한다.

이번 4차 상봉단으로 남쪽에서 간 99명과 이들을 맞은 북쪽 가족들은 그래도 여간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북쪽 가족들을 생전에 한번만이라도 만나야겠다며 상봉을 신청한 남쪽 이산가족만도 12만여명에 이른다. 출발 이틀 전에 별세한 한 노인의 애끓는 시연에서 보듯 이산가족 1세대는 자연수명이 날이 갈수록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상봉기회로는 어느 세월에 그들의 아픔과 자연수명의 벽을 허물어 주겠는가.

이번 금강산 상봉 장면을 지켜보면서 남북 당국에 엄

중히 묻고 싶다. 가장 원초적인 인도주의적 문제를 언제까지 이런 작위적인 이벤트성 사업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가. 북한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무슨 시혜를 베풀 듯이 접근하려는가. 정부는 이 문제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북쪽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할 것인가.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하다. 남북이 이산가족 간 서신교환을 허용하고 판문점과 금강산 등에 면회소를 설치, 상시 상봉체제를 마련하면 된다. 남북은 이미 면회소 설치에 관해 상당부분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면회소 운용과 서신교환은 요란한 이벤트성 상봉단 교환보다 북한체제에 충격을 덜 줄 것이다. 미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관철한 북한과 같은 집요성과 관철의지가 우리 정부에 결여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약없는 적십자사 간 회담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관철의지를 갖고 북한을 설득해야 하며, 북한도 이에 응함으로써 그들이 강조해온 민족공조의 기반구축을 실증해야 한다.

## 이산가족 상봉, 이제 제도화로

우리 민족만이 안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금강산에서 다시 한번 펼쳐졌다. 철순 할머니가 50여년 만에 만난 남편 손을 꼭 붙잡고 '떠날 때부터 애인 있었던 거 아니냐'고 다그치는 장면에서, 상봉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난 모친 소식을 전하는 동생을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북측 언니의 모습에서 분단의 아픔은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절절해짐을 느끼게 된다.

이번 같은 상봉행사가 더 많은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더 자주 열려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산가족 1세대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존각을 다루는 일임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현재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남측 가족은 12만명에 육박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무엇

보다 북측의 태도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관계의 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라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치러졌던 게 사실이고,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번 4차 상봉도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상봉행사로 미흡하다는 것을 북측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번에 우리 측이 금강산을 상봉 장소로 수용한 것도 면회소 설치 문제 등에서 북측의 일보 진전된 자세를 기대한 때문이다.

만남 자체야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겠으나 이번에 금강산을 찾은 우리 상봉단 중 일부가 휠체어를 타고 있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안쓰럽게 했다. 평생 물어둔 한이 얼마나 컸으면 노구를 휠체어에 의지해 먼 금강산행까지 마다하지 않았을까. 북녘 가족을 만나 회포를 푼 것이 나중에 오히려 병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들이 더 편안한 여건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당국이 서둘러야 할 일이다.

## 논 단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9·11 테러사태의 여파로 반년동안 연기됐다. 이번에 다시 재개됐다. 안타깝게도 상봉 명단에 들어 있던 한 노모가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하고 상봉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반세기 동안 이산가족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족이산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데는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대다수 이산가족들은 이념과 체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한편에 속해서 부모 형제 자매에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립-갈등해 왔던 것이다.

이번 제4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확인했듯이 고령 이산가족의 수명이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산가족 문제

과 인간의 기본생활단위인 '가족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인 문제다.

### 면회소 설치등 이뤄져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문제를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정치-군사 현안과는 별도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면서 한동안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한 근본적인 이유는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로 인하여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데 있다. 제4차 이산가족상봉이 기존의 서



高有煥

## 이산상봉 제도화 서둘러야

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민족 공동의 당면과제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 따라 "출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4차례에 걸친 '이벤트성' 행사로 추진됐다. 이제 앞으로는 제도화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이벤트성 행사 이제 그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4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을 통해 이산가족 4450여명의 상봉이 이뤄졌으며, 1만213명이 생사확인을 하고 662명이 서신교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대다수의 이산가족들은 생사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 '운 좋은 소수'의 상봉장면을 지켜보면서 회한의 눈물만 흘리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풀지 못한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이산가족문제를 탈정치화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소모적인 분단고통의 극복

울-평양 교환방문에서 금강산 순차방문으로 바뀐 것도 북한의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김정일과 노동당의 '광포정치'의 결과로 월남자 가족들이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광포정치'가 되려면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혈육을 찾고 서로 만나고 왕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북측은 이산가족상봉을 남측에 베푸는 '시혜'로 생각하면서 경제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법은 통일이지만, 통일될 때까지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와 상봉, 나아가 고향방문과 재결합 등으로 이어지는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상봉이 끝나면 남북한 당국은 이벤트성 이산가족 상봉사업에서 벗어나 이산가족 교류확대 및 제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4차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 설치 등 제도화문제에 본격 나서야 한다.

/동국대 교수·북한학



김별아  
소설가

시론

# 이산상봉, 시간이 별로 없다

## 철

없던 시절, 나는 치기어린 반항의 한 방식으로 무단 가출을 감행했던 적이 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부모와의 불화이기 이전에 자아를 찾기 위한 세계와 나의 불화의 시작이었다. 등 돌과 달리 인간은 애착관계, 분리관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설정되지 않으면 독립된 한 인격의 형성이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무단 가출한 딸을 찾아 학교 앞 울타리에 내내 기대어 서서 울던 어머니의 마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형형색색 신제품에 눈을 놓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여섯살짜리 아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정수리까지 피가 솟구치면서 팔다리에 딱이 붙었다. 그때부터 미친 여자의 형상으로 허둥지둥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아이를 원망하다가, 스스로에게

화를 내다가, 마침내 그런 감정마저 모두 회개하여 오로지 슬픔과 상실감으로 머무르려 즈음, 카운터에서 아이를 찾아가라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아, 내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다. 새끼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나는 그제야 쓰라리게 그녀를 이해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팔을 길게 늘어뜨린 채 운다. 그들이 초조한 기색으로 가족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부터, 활체에 이르러 금강산 여관으로 들어설 때부터, 이리저리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이름을 묻고 일과 서로의 몸을 파고들 때까지, 이미 영원 속으로 사라진 이들을 무놓아 부를 때까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예정없는 다음 만남을 기약할 때까지, 나는 줄곧 그들의 눈물과 함께 할 뿐이다. 울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한뼉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찢겨나가는 끈끈한 인연에 사로잡힌 무상한 인생을 헤아려 말할 것인가.

구구절절 우리의 이혼 근현대사에서 띄어

새로운 것도 없지만 결코 무시해 지나칠 수 없는 사연들이다. 1·4후퇴때 세상짜리 아들을 남겨놓고 진정으로 자다가 생이별을 했던 어머니, 파란을 가던 외중에 헤어져 언니들을 잃어버린 동생, 전쟁 틈에 꽃 같은 아내와 아이들을 고향에 남기고 월북한 남편, 낱아 버린 아버지, 애초에 방북단 평단에 들었다가 노환으로 상봉 이틀 전에 숨을 거둔 어머니를 대신하여 언니를 만나러 온 동생...; 그들이 기막힌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 그

들 사이에는 이제 함께 했던 추억보다, 일상의 지질한 예증보다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운 시간만이 더 분명한 무게로 공명본모를 형성하고 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그리하고도 끈질기게 그들을 쓸고 지나갔다. 한때 아리땀만 얼룩, 세상을 땀방 집어삼킬 듯 당당하던 풍채는 시간에 쓸려 사라졌다. 젊음의 날카로운 선이 무너진 얼굴, 성성한 껍질, 자무른 눈에 서는 퉁크으로도 성이 차지 않을 눈물만이

시름시를 새어나온다. 원망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설움이 있고, 탄식과 격정이 있다. 당의 배려로 편안히 살 아왔다는 딸 옆에서 재가하지 않고 살아온 늙은 아내는 속을음만 껴이끼이 울고, 당의 아들이 되었다고 감변하는 아들 앞에 허준 것 없는 어머니는 할말을 잃고 그의 가파른 등만 쓰다듬는다. 헤어져 살아온 그들의 신산한 삶과 가슴에 시커멓게 든 멍은 어떤 해명과 설득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탓이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전쟁 경험과는 무관한 전후세대인 나는 아무리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그들의 심정을 모두 헤아릴 수 없다. 누군가는 통일 논의가 '감상적'으로 진행됨을 염려하지만, '감상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이고 온당한 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는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는 더 바빠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평설수설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슬픔의 정서는 '한(恨)'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한을 다 큰 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다른 민족에게는 우리의 한과 같은 정서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 특징은 남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미국 서부극에서처럼 똑같이 되갚음하기보다는, 가슴속 응어리로 떠안은 채 살아가는 것이다. 한의 뿌리는 파란만장했던 우리 역사에서 시작된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내란, 엄격한 신분사회 등으로 인해 이 땅의 서민들은 한을 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은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풀어나야 했다. 우리가 택한 방법은 민속 신앙과 문화였다. 굿을 통해 마음을 삭이고 소리나 민요를 부르며 분노를 달랬다. 옛 민요와 소리의 구절구절에는 오랜 세월이 걸쳐 농축된 진한 슬픔이 담겨 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으로 시(詩)를 많이 읽는 '시의 나라'로 꼽힌다. 시집이 어느 나라보다 많이 팔리고 시인이 대접을 받는다. 이것 역시 한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감정을 최대한 응축시킨 시가 어떤 긴 문장보다도 우리 정서에 맞기 때문이다.

▷20세기 한반도에는 기막힌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한 맺힌 일은 민족분단이 아닐 수 없다. 가족과 핏줄을 갈라놓은 채 분단의 두꺼운 장벽이 쳐진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청춘

50년동안 쓴 詩

의 나이에 헤어진 이들이 이젠 백발의 노인이다. 이들이 기억없는 재회를 기다리며 불면의 밤으로 지새운 날들이 그 얼마일까. 옛그제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만남에서 52년 수절 끝에 북쪽의 남편을 만난 정귀업 할머니(75)가 상봉 기간 동안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시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을 만나게 되면 하려고 무려 50여년에 걸쳐 생각

하고 골랐던 말이기 때문 이리라.

▷“가시밭 길도 그런 가시밭길이 없으려나. 꽃방석을 깔아 쥐도 가지 않을 길을 50년 넘게 혼자서 휘이휘이

걸어왔으려나. 눈물로 밥 삼아 살아왔지.” 어떤 이름있는 시인도 그의 말처럼 절절하게 표현해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견우직녀는 한 해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데, 시곗바늘이 한 점도 쉬어주질 않아. 시간은 가고 있어. 내 인생도 가고.” 다시 남편과 헤어져 남쪽으로 발길을 돌린 그의 한과 아픔을 풀 수 있는 날은 언제 일까.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時 論



金 源 一

한국전쟁 당시 북으로 간 아버지의 별세 기일을 알아내고 그쪽에서 결혼한 가족을 만날까 하고 방문단 일원에 끼어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에 다녀왔다. 봄 가뭄을 달래며 내내 비가 내렸다. 그 단비가 웬지 내게는 이산가족 만남의 기쁜 눈물이 아니라 전쟁 진후 헤어진 채 50년 남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1000만 이산가족의 눈물과 이승에서 상봉하지 못한 채 무주고혼이 된 영혼들의 맺힌 한이 눈물이 되어 마른 땅을 적시고 있다는 느낌이였다.

北에서 흘린恨의 눈물

4월 30일 오전 11시, 마지막 작별의 만남이 끝나고 가림비 속에 비스에 오른 남측 방

문단을 두고 통일 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북측 가족의 혼란된 장면에서 나는 이 민족의 슬픔을 넘어, 분노의 눈물을 뒤었다. 1년2개월 만에 힘들게 재개된 200명의 만남은 전쟁 진후 북에서 피란 나온 가족이 주축을 이룬 방문신청자 11만7000명 중 일원이고, 나머지 방법 월북자 가족을 합친다면 또 그만큼 숫자는 더 있을 터인데, 극소수가 선택된 '반짝 만남'의 이벤트성 행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물론이였다. 남북당국자는 민족의

별의 비합리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서신교환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남북적십자사는 이를 토대로 고령자, 부부와 친자 만남부터 우선 순위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면회소 설치의 화급성이다. 교통이 편리한 판문점 부근에 상설 대형 면회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면회신청을 하면 면회소 운영측이 이를 양쪽 가족에게 통보하여 쌍방 면회일을 알려주면 그 날짜에 맞추어 소풍 가듯 면회장으로 나가면 된다.

‘離散’ 전체명단 교환해야

속원을 왜 이 정도밖에 풀어주지 못하는 못난이들이냐 하는 자괴감도 함께 작용했다. 먼저 남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전체 명단을 쌍방이 교환하여 생사문제, 거주지 확인부터 통보해 줌이 선결문제이다. 다음 단계로 자유로운 서신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체제의 현실적 조건을 사신을 통해 진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설문조사식의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공개 가능한 특별엽서로 상호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방문단도 99명 중 부부상봉·자녀상봉보다 형제·조카 상봉 수가 훨씬 많았음을 볼 때 ‘한 다리가 천리’란 속담대로 추첨 선

이번 1차 방문단은 북측이 두 차례에 걸쳐 남측의 이산가족·지원단·기차단을 합쳐 200여명을 초청해 식사대접을 해주었고, 2차 상봉단은 남측이 북측을 초대하는 형식이다. 한끼 식사비용이 개인당 50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금강산까지 이동 비용을 합쳐 양측 부담이 만만찮다. 북측은 공동으로 마련한 간소한 선물을 남측에 주었으나 남측은 적심 자사가 준비한 개당 3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개인이 별도로 지참한 선물을 마련했다. 그 부담 역시 쌍방 서민경제 실정으로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면회소가 설치되면 임대 장정 훈련병을 먼

회 가듯, 서로가 김밥이나 통닭 정도 싸들고 가서 부담 없이 한두 시간 서로의 가족 안부를 물으며 답소를 나눌 수 있다. 면회시간이 끝나면 다음 면회날을 기억하며(1년 1회 정도) 헤어지는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 민족공동체의 혼란한 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부근 대형 면회소를

말은 쉽지만 실행에는 난관이 많다. 접도 알고 있다. 국제적십자정신 위에 균립하는 국제정치 상황의 가변성, 남북 정치현실의 유동성, 남북한이 처한 경제적 갈등, 쌍방 자존심의 일력 등 많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종결 이후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공멸이 아닌 공존을 통한 평화적 통일 열망만은 남북한이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족공동체로서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은 이산가족문제 해결부터 원만히 풀어가야 영킨 실타래를 풀 수 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이산가족 문제는 아직도 1000명 이내의 소수만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노인이 영원한 노인으로 이 세상에서 머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설가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적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 나요/ 달 비친 사창(紗窓)에 저의 한(恨)이 많습니니다/ 꿈속의 녀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앞의 돌길 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꿈속의 녀(夢魂)

조선시대의 여류시인 이옥봉(李玉峰)에게 사무치는 연모의 정은 돌도 모래로 만들 정도였다. 세월이 흘러 비록 표현의 방법과 수단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입을 그리리는 마음의 애절함은 고금이 다를 리 없다. 얼마 전 금강산에서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의 정귀업 할머니가 북의 남편에게 "지금도 못 만났으면 녀새가 돼 울고 다닐 것"이라고 말해 심금을 울렸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전쟁이 터져 생이별한 뒤 무려 52년 만에 만났으니 그간의 심정이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녀새'는 사전에도 없고 실재하지도 않는 새다. 중국 작가인 량효성의 소설 '여기는 신기한 땅이다'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북대황(北大荒-중국 동북부지역)에 가면 '귀신늬'의 전설이 있다. 이 늬에는 밤만 되면

녀새

청승긋은 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가련하도다' '가련하도다' 하는 여인의 애절한 호곡소리 같기도 했다. 이 새가 죽은 사람의 녀를 부른다 하여 '녀새'라고 하였다. 이 새는 대지의 신이 변한 것으로 늬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짐승들의 혼을 불러 들여 위로해 준다고들 했다"

전라도 지방에도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나중에 녀새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는 하나 살아있는 남편을 지척에 두고 칠순의 할머니가 수절(守節)로 보낸 반백년 세월이 녀새의 애절함보다 못할 리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성이다. 이를 이념이, 체제가, 제도가 인위적으로 가로막아 왔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으랴. 정할머니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나마 그리운이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지만 끝내 소식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수백만명의 다른 이산가족들은 지금 어느 하늘에서 녀새가 되어 울고 있을지.

정동식 논설위원

dosjeong@kyunghyang.com



○오늘의 눈

‘다 닦지 못한’ 이산가족 눈물



전 영우  
정치팀기자

지난달 28일부  
터 옛새 동안 금  
강산에서 열린  
제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  
난하게 끝났다.  
두차례로 나눠  
반세기만에 파불  
이를 만난 남북  
가족들은 각각

사흘씩 똑같은 시간을 보낸 뒤 ‘재이  
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는 지난 1~3차 때와 달리  
‘참관 상봉’이란 새로운 만남이 생  
겨 전체 상봉시간이 2시간 정도 늘었  
다. 남과 북의 가족들은 50여 년만에  
처음으로 함께 나들이를 하며 오붓  
한 시간을 가졌다. 비록 작은 변화이  
지만 가족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만  
남을 가졌다. 집에서 친일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상봉시간이나 형태가 달라  
졌다고 해서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  
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생사·주소지  
확인, 서신교환 등 근본적 대책이 하  
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열리기로 했던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6개월여 연기  
되는 바람에 북측 황영준 화백과 남  
측 어병순 할머니 등이 상봉 직전 사  
망,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1  
월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한적십  
자사와 통일부를 통해 가족찾기를  
신청했던 이산가족 11만 7576명 가운  
데 12.4%인 1만 4589명이 이미 사망  
했다는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  
을 잘 일깨워준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상봉장소를  
금강산으로 ‘양보’한 것은 면회소의  
조기 설치를 겨냥한 것이다. 남북간  
경의선 연결역인 도라산역이 바람직  
하지만 우선 금강산에 면회소가 먼  
저 생겨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3  
일 작별 상봉 때 북측 안내원들은 북  
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이 탄 버스  
로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마  
저 막기도 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쫓  
은 교류가 체제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  
산 1세대들이야말로 남북의 끊어진  
허리를 이을 엄청난 ‘추진력’임을  
북한 당국도 알았으면 좋겠다.

✉anselmus@kdaily.com

